

주인'영상미디어센터 2009 사업백서



로고해설



Community Access Media Factory

CAMF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 '이 장소'로부터 세계를 기획하고 변화시키는 다양한 공동체들의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향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발자국이 찍히는 우리 동네, 노동이 이루어지는 일터, 개인의 관심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소모임을, 배움으로 자라나고 공유함으로 즐거워지는 문화공동체인 Community는 나를 존재하게 하는 '몸'에서 시작되어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미분화되고 수평적인 작은 마디들, '작은 지역'들입니다.

CAMF는 '나'를 비롯한 '작은 지역'들이 다양한 미디어 문화를 향유하고 생산하는 미디어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매개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Creative & Active Media Factory

CAMF는 지역의 주민들과 작은 공동체들이 스스로 연대하여 능동적으로 펼치는 창조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향합니다. 획일적인 문화가 아닌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게 표현되고 소통될 수 있는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향합니다.

문화적 상상력은 다른 내일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힘입니다.

CAMF는 창의적으로 미디어에 상호작용하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과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 행동지향적 미디어 활동의 활력소가 되고자 합니다.

Constructive & Alternative Media Factory

CAMF는 누구나 다양한 미디어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이루어진 자치공간을 만들어가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지향합니다.

일방적 관계 속에서 소비하는 행위자로만 결정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아닌, 개인과 작은 지역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표현하는 문화생산물들이 정보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 되고, 삶의 양식이 되는 대안적인 미디어 소통체계를 지역에서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상향체계로 수렴된 구조가 아닌 개별과 개별들이 섞이고 교차하고 침투하며,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행위하는 자치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의 추진력이 되고자 합니다.

주인영상미디어센터

2009 사업백서



1장 개요

1.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개요
2. 운영체계
3. 연혁
4. 시설현황

2장 사업 및 결과

1부 사업영역 분류 및 개요

1. 2009년 사업개요
2. 미디어교육 사업
3. 대안미디어 사업
4. 창작지원 사업
5. 상영 사업
6. 정책 사업
7. 지역미디어센터 네트워크 사업

2부 각 권역별 사업 내역

1. 미디어교육 사업

- 1) 사업실적
- 2) 교육 참여자 현황
 - (1) 전체 교육 참여자 현황
 - (2) 정규강좌 참여자 현황
 - (3)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참여자 현황
 - (4) 지역사회 협력 교육 및 네트워크 교육 참여자 현황
- 3) 사업 내용 및 평가
 - (1) 정규강좌

- (2)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 (3) 지역사회 협력 및 위탁교육
- (4) 미디어교육 교사양성 사업
- (5)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 (6) 찾아가는미디어교육 기자재 지원사업
- (7) 미디어교육 컨설팅사업

2. 관리 및 운영사업

- 1) 회원사업

3. 대안미디어사업

- 1) 아카이브 사업
- 2) 공동체 미디어 사업
- 3) 퍼블릭 액세스 사업

4. 창작지원사업

- 1) 기자재실 운영사업
- 2) 공간운영사업
- 3) 2009 프로그래머 양성 사업

5. 상영사업

- 1) 다양성 영화 사업
- 2) 상영관 대관 사업 (유료대관)
- 3) 상영관 대관 사업 (대관지원)
- 4) 캠페인(CAMP-A-In)사업
- 5) I-Culture PD 사업

6. 정책사업

- 1) 웹진 발간 사업
- 2) 정책토론회 사업

3장 부록

1. 아카이브 목록

- 1) 자료 현황
- 2) 도서 자료 목록
- 3) 영상 자료 목록

2. 회원제도 안내

3. 교육공간 이용 안내

4. 기자재 대여 안내

5. 아카이브 이용 안내

6. 상영관 대관 안내



1장. 개요

1.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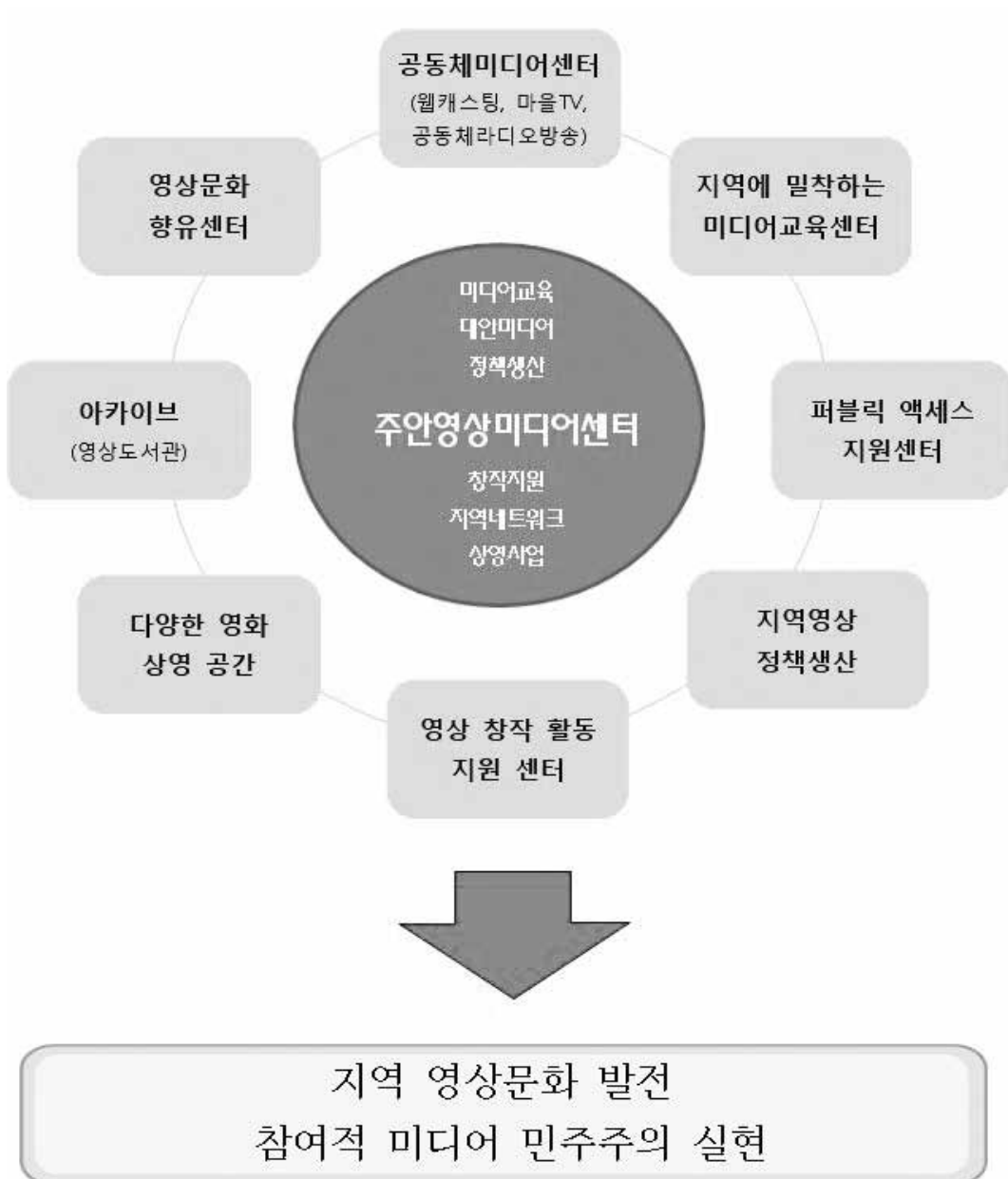
2. 운영체계

3.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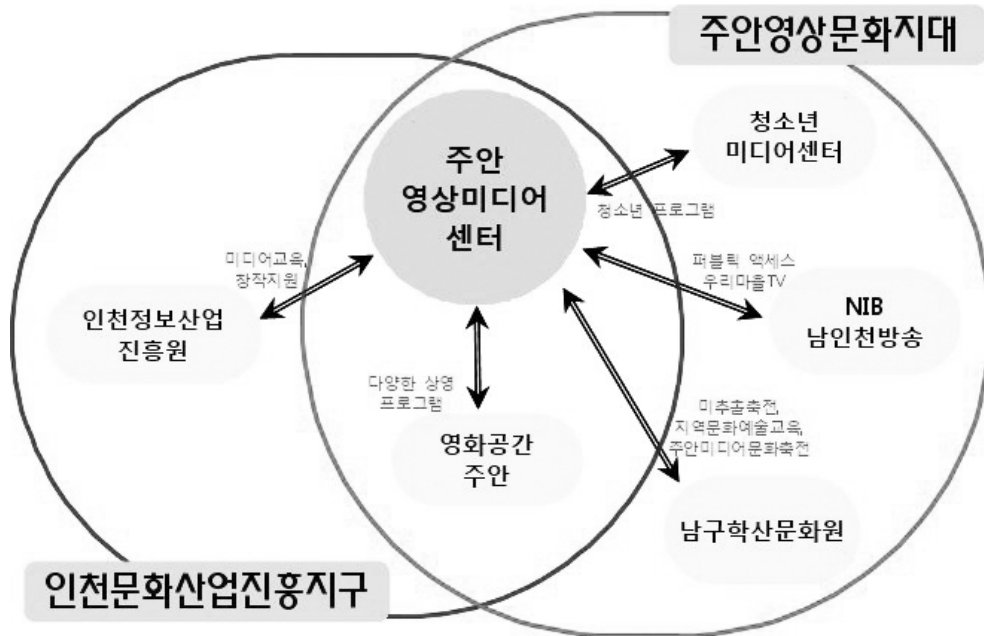
4. 시설현황

1.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개요

1) 핵심개념



2) 주변 환경



(1) 대학, 전문대학 및 중·고등학교 교육 집적지역

-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 인천전문대, 재능대 소재
- 20여개의 중·고등학교 밀집

(2) 영상관련 시설 및 문화행사의 중심지

- 남구 청소년 미디어센터, 게임영상지원센터 WAVE, 영화공간주안(예술영화관), 가상현실체험관, NIB남인천방송 등 영상 및 방송 관련시설 소재
- 미추홀축전, 주안미디어문화축전, 옛 시민회관 쉼터, 2030거리 등 문화행사 중심지
- CGV, 공공도서관, 공연시설(문화회관 등), 전시시설,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 인근 소재

3) 주요역할

(1)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 기자재를 대여하고, 제작 프로듀싱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에서 퍼블릭 액세스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프라 역할
- 지역 케이블 채널 및 공중파 TV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
 - 지역문제와 관심사들을 지역민들의 시각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여 방송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천지역케이블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고정 프로그램 혹은 독립 채널 확보를 만들어내고, 이를 활용한 퍼블릭 액세스 방송 실현
 - 퍼블릭 액세스 취지에 맞는 방송 운영을 위해 시민제작주체, 방송사업자 등을 아우른 지역 퍼블릭 액세스 네트워크 형성

(2) 21C 영상미디어 시대에 맞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장

- 다양한 영상 미디어 교육 강좌 운영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 제작 교육 및 디지털 장비 활용 교육
 - 영상일기, 영상편지 등 일상에 밀접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등 일반 시민들이 영상미디어를 쉽고 편하게 이해하고, 자기표현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교육 실현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 지역 내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 계층 등, 미디어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인터넷, 라디오, 비디오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계층별 특성과 관심에 따른 미디어 활용 능력 교육과 창작활동 지도

(3) 다양한 영상물의 체험이 가능한 문화공간

-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영상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맞는 영상 표현능력 및 해석 능력의 확장을 꾀함.
- 독립영화, 소수자 영화, 실험영화, 제3세계 영화 등의 상영
- 지역 주민 및 청소년들이 제작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기획전
- 자생적인 지역 영화제들에 대한 지원

(4) 지역 공동체 활동의 새로운 매체 확보 지원

-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제작된 시민 창작물과 각종 정보를 웹 상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소통
-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우리 마을 TV 등의 직접적인 공동체 미디어를 개발하고, 지역의 공동체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까지 제작 및 운영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지원 제공
- 지역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지역 소식의 제작과 방송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 네트워크 실현 도구 마련
-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활동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지방 자치 시대 참여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실현. 더불어 사회적 소수자,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확장된 민주주의 기대

4) 주요사업



5) 주요대상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주 대상은 남구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며 나아가 인천광역시 시민과 학생까지 포괄한다. 남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구내 주민들의 계층별 대상 설정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인천광역시 시민들과 관내 학교의 학생들에게 영상교육 기회와 창작기회를 제공한다.

(1) 주부

- 주민자치센터와 복지관등의 문화프로그램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계층
- 삶의 대부분을 지역에서 보냄으로써 지역의 현실에 가장 밝고, 능동적인 지역 참여 활동이 가능하다. 때문에 일상에서의 영상 활용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과 우리마을TV 등 공동체미디어의 지역 내 형성과 정착에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2) 대학생 및 청년층

- 관련학과 전공자와 영상관련 동호회 활동자
- 관내에 많은 대학이 존재하고, 인구비에서도 20~30대가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생 및 청년층은 영상매체에 대한 욕구도 높고, 영상 활용 능력 역시 높은 편이다. 지역 내 영상문화 활동과 퍼블릭 액세스 활동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일반 직장인

-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여가 생활의 여유가 높은 계층
- 교육프로그램 및 기자재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활용한 주거지 및 직장 중심의 영상 문화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삶의 근간인 지역의 교육, 문화, 경제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지역 내 퍼블릭 액세스의 주요 주체가 될 수 있다.

(4) 소외계층 시민들

- 장애인, 이주 노동자, 노인, 저소득 계층의 접근 보장
- 소외계층에 속한 시민들은 미디어접근에 있어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고, 이것은 소외계층의 이해와 요구가 지역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확대 및 광범위한 지역 통합을 위해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찾아가는 영화관 등과 같은 적극적인 아웃리치 사업을 통해 이 계층의 미디어 접근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5) 유관 시설 및 단체 활동가

- 학교 방송반, 영상제작반 담당 교사 및 미디어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 복지관, 문화센터, 청소년센터 등의 실무자
- 지역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 시민 복지 서비스나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 등으로 훈련된 계층으로 주체적인 활동력이 보장되는 집단이다. 지역사회 민주주의 확대나 지역 통합 등에 관심이 많고, 정보 수집 및 처리 능력도 뛰어나다. 퍼블릭 액세스 및 공동체 미디어 주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6) 청소년

- 학교 내 방송반과 영상 동아리
- 학교 특별활동 프로그램
- 복지관, 문화센터 등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 장애인, 저소득층 청소년, 탈학교 청소년 등에 대한 격차 해소
- 영상매체에 대해 큰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일상에서의 영상 활용도 또한 높은 집단이다. 지역 내 전문적 영상 활동 주체로의 성장,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 및 다양한 영상 문화 활동 주체로 성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와 상호간 사업적 연계를 이루고,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7) 독립영화인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인 양성 및 지원
-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영상제작 활동을 추동함으로써 독립영화 제작 주체들이 형성됨으로써 인천에서의 전문적 영상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2. 운영체계

1) 운영 개요

(1) 운영 형태

- 설립기관 : 인천광역시 남구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남구 학산문화원
- 운영위원회 구성
 - 총 8명 내외의 운영위원 위촉
 - 운영위원회를 통해 설립기관과 운영기관의 상호 협의적인 운영방향설정
- 협력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천문화재단 등

(2) 운영 원리

- 비영리 공공문화기반시설
- 공익적 운영을 통한 지역시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강화
- 영상미디어 전문가에 의한 내실 있는 운영
- 공공기관과 위탁기관과의 협의제 운영
- 독자적인 전문운영의 보장과 엄정한 사업 평가시스템 도입

(3) 위탁운영기관 및 운영위원회

① 운영기관 : 남구 학산문화원

-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2003년 9월에 창립하였으며, 그 목적달성을 위한 지역고유문화의 정신을 창발적 사고로 계승 발전시키고 남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구민들을 위한 인천문화의 한 협의체로서 문화의 질적 향상을 주도하고 있다. 동시에 구민들의 문화자치향상과 문화를 매개로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교육활동 및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영화공간 [주안]의 운영위탁을 맡아 그 설립과 운영을 책임졌다.
- 다양한 참여적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컬처팩토리 공간 조성 및 운영

② 운영위원회

-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8인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장

은 운영위원들이 호선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의의를 이해하고, 그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소장(당연직)
- 남구청에서 추천하는 4인 이내
- 남구 학산문화원에서 추천하는 4인 이내

-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업 및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 2인 이상이 심의, 의결을 요구한 사항

- 2009년도 운영위원회 구성

No	구분	성명	소속
1	위원장	김 규 원	경인방송 보도국장
2	위 원	박 광 현	남구의회 의원
3	위 원	손 태 영	남구청 문화홍보실장
4	위 원	손 동 혁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소장
5	위 원	송 정 로	인천인터넷신문 창간준비위원장
6	위 원	이 중 석	(사)한국영화인협회 인천지회장
7	위 원	이 중 용	남구 학산문화원 부원장
8	위 원	전 영 우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9	위 원	정 재 우	인천영상위원회 사무국장

2) 조직

(1) 조직구성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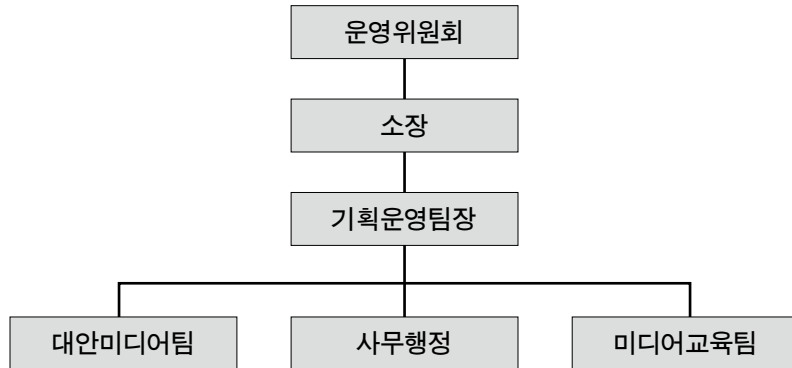
- 공익성 함양 :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맞는 조직 구성
- 전문성 제고 : 영상미디어 교육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최우선 고려
- 참여도 증대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
- 네트워크 추진 : 지역 문화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모델 추진할 조직

(2) 조직구성의 기본 틀

- 독자적인 조직구성의 필요성

-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모델
- 교육사업과 예술경영의 조화 필요성
-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공공성과 합리적 경영을 동시에 추구

(3) 조직 구성



(4) 업무 분장

- 운영위원회
 - 센터의 연간 사업, 예산, 결산, 운영규칙 제정 및 개정 등을 심의 의결하며 남구청 추천 3인 내외 민예총 추천 3인 내외 당연직 소장 1인으로 구성
- 소장
 - 센터 운영을 총괄하며 지역과의 소통채널을 개발하고 관리
- 기획운영팀장
 - 센터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각각의 업무방향을 기획 · 점검 · 평가
- 사무/행정
 - 재정관리, 회원관리, 홍보 등의 관리 및 홍보 업무 담당
- 미디어 교육팀
 - 정규 강좌와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 전반을 운영하며 교사양성, 교재 출판 등의 교육관련 연구 및 네트워크사업을 담당

○ 대안미디어팀

- 미디어를 활용한 지역공동체의 소통구조를 만들어내고, 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상영 프로그램 운영, 창작지원 등의 업무 담당

부 서	역 할		인원
소장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총괄 지역과의 소통채널 개발, 확보, 관리 / 정책 제시		1
기획운영팀장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업무 총괄 업무방향 기획·점검·평가		1
사무/행정	수강생 접수 및 관리 회원관리 재정관리/회계	홍보업무 홈페이지 관리 웹 관련 기획사업	1
미디어교육팀	정규강좌 운영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교육 공간 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안 개발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	2
대안미디어팀	창작지원/기자재 대여 스튜디오 운영 퍼블릭 액세스 지원 시민 제작단 운영	영상 활동 지원 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사업 상영관 운영	2

3.연혁

개관이전

2003.	06	인천지역공공미디어센터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인천지역 13개 단체참여)
2005.	05. 05	문화관광부 지역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신청
2005.	06. 27	문화관광부 지역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선정

2007년

2007.	03. 21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운영위탁
2007.	09. 05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 개관
2007.	09. 13 ~ 16	'Open Indie-CAMF 독립영화의 불한당들' - 인디포럼 영화제 인천상영
2007.	09. 13 ~ 12. 27	학교문화예술교육 - 실업계청소년 영상미디어교육 (운봉고)
2007.	09. 18	'인천 퍼블릭엑세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007.	10. 22 ~ 11. 05	아동복지교사 미디어교육
2007.	11. 23 ~ 25	'서울독립영화제 with 주안'
2007.	11. 24	'두개의 눈을 가진 아일랜드' 기술 시사회
2007.	12. 13 ~ 14	남구 직원 영상미디어 교육
2007.	12. 21	독립단편 쇼케이스 - 무림일검의 사생활, 적의사과
2007.	12. 22	1st '시네마 프랑스 인천'

2008년

2008.	01. 03 ~ 02. 22	독립영화 감독과 함께하는 다큐멘터리 제작교실
2008.	01. 08 ~ 12	2008년 교사 특수 분야 직무연수 <영상미디어교육>
2008.	01. 22 ~ 23	청소년 촬영특강 <10대가 만드는 탕탕파인더>
2008.	01. 24 ~ 25	청소년 편집특강 <디지털 감성족의 쿵쾅쿵쾅 뮤직비디오>
2008.	02. 23	2nd '시네마 프랑스 인천'
2008.	03. 07	퍼블릭 액세스 특강 <내가 만든 영상도 방송할 수 있다>
2007.	03. 21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남구학산문화원 컨소시엄 운영위탁
2008.	04. 01 ~ 5. 02	공동체 미디어 기초 조사
2008.	04. 25	독립영화 정기상영회
2008.	04. 26	디렉터스 뷰 4월 - 나홍진 감독
2008.	05. 01 ~ 12. 30	인천 문화PD(i-culture)
2008.	05. 03 ~ 06. 30	공동체 미디어 심층 조사
2008.	05. 06 ~ 07. 22	장애인 미디어교육 <민들레야학 장애성인 영상미디어교육>

2008.	05. 07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2008.	05. 07 ~ 09	교육자원활동가 상반기 교육
2008.	05. 14	퍼블릭 액세스 특강 <내가 만드는 방송 - 이슈발굴과 기획하기>
2008.	05. 15 ~ 17	아시아나 국제 단편영화제 수상작 순회 상영회<땀다 땀다 아시프>
2008.	05. 15 ~ 07. 31	실버미디어교육 <오춘프로젝트>
2008.	05. 22	3rd '시네마 프랑스 인천'
2008.	05. 28 ~ 07. 30	이주여성미디어교육 <이주여성이어 미디어로 소통의 날개를 달자>
2008.	05. 28 ~ 06. 04	시민단체특강 <영상으로 파이팅, 시민단체 힘 받기 프로젝트>
2008.	06. 05 ~ 08	서울독립영화제 2007 순회 상영회 <인디피크닉 2008>
2008.	06. 10 ~ 11	미디어교육 특강 <우리아이, TV보다 똑똑하게 키우기>
2008.	06. 25 ~ 09. 02	독립영화감독과 함께하는 영화 제작워크숍 <오색감성, 영화로 빛나다>
2008.	06. 28	디렉터스 뷰 6월 - 허진호 감독
2008.	07. 11 ~ 1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2008.	07. 09 ~ 12. 3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동교재 개발 - 출판워크숍
2008.	07. 17 ~ 10. 16	하품학교 영상제작 위탁 교육
2008.	07. 29	창작지원 사업 <오매불망 프로젝트> 공고
2008.	07. 30	4th '시네마 프랑스 인천'
2008.	07. 30 ~ 08. 02	청소년 영상미디어캠프 <청푸름 미디어 캠프 2008>
2008.	08. 01 ~ 11. 30	찾아가는 영화관 - 인천 구석×2
2008.	08. 07	웹진 CAMF 페이퍼 창간준비호 발간
2008.	08. 11 ~ 15	2008년 교사 특수 분야 직무연수 <영상미디어교육 심화과정>
2008.	08. 26 ~ 27	교육자원활동가 하반기 교육
2008.	08. 30	디렉터스 뷰 8월 - 이명세 감독
2008.	09. 02 ~ 11. 25	한부모가정 청소년 영상미디어교육 <나도 영화감독!>
2008.	09. 03 ~ 11. 22	공동체 미디어 기획 조사 - RTV 액세스
2008.	09. 04 ~ 10. 10	여성미디어교육 <아줌마의 바람난 카메라>
2008.	09. 05	개관 1주년 기념 상영회 <CAMF가 쓴다>
2008.	09. 05 ~ 12. 05	성동학교 청각장애청소년 영상미디어교육
2008.	09. 17 ~ 12. 03	청소년 영상미디어교육
2008.	09. 17 ~ 12. 03	실버미디어교육 <오춘프로젝트 2>
2008.	09. 22 ~ 12. 22	청소년 퍼블릭 액세스 제작교실
2008.	09. 26	저작권 특강 <알쏭달쏭 저작권, 알아야 이긴다!>
2008.	10. 09 ~ 10. 16	주안도서관과 함께하는 미디어교육 특강 <우리아이, TV보다 똑똑하게 키우기>
2008.	10. 21	아동복지교사 위탁 보수교육 <미디어 읽기>
2008.	10. 23 ~ 12. 04	인천미디어활동가 워크숍
2008.	10. 25	웹진 CAMF 페이퍼 창간호 발간
2008.	10. 25	디렉터스 뷰 10월 - 원신연 감독
2008.	10. 29 ~ 12. 17	제1기 시민PD 제작 워크숍
2008.	11. 01 ~ 12. 26	<이야기가 있는 인천> 공모사업
2008.	11. 03 ~ 12. 22	대학생 퍼블릭 액세스 제작교실
2008.	11. 07 ~ 12. 20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 워크숍

2008.	11. 18 ~ 21	시민단체 영상제작 특강 <영상으로 파이팅! 시민단체 힘 받기 프로젝트>
2008.	11. 29	디렉터스 뷰 11월 - 이경미 감독
2008.	12. 05 ~ 06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발전을 위한 토론회
2008.	12. 06	5th '시네마 프랑스 인천'
2008.	12. 12	미디어비평 특강 <방송비평, 어떻게 할 것인가?>
2008.	12. 16 ~ 20	포켓미디어제작 특강 <주머니 속의 미디어를 만나다>
2008.	12. 17 ~ 18	국제세미나 <미디어융합과 공동체미디어의 미래>
2008.	12. 19 ~ 20	동시녹음 특강 <동시녹음과 HD-P2 활용>
2008.	12. 25 ~ 28	독립영화 상영회 <이제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어요>
2008.	12. 27	트라이포트 특강 <Fig-Rig 등 다양한 트라이포드를 활용한 촬영 스타일>
2008.	12. 27	포켓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토론회
2008.	12. 30	웹진 CAMF 페이퍼 2호 발간

2009년

2009.	01. 14~04. 15	실버미디어교육 '은빛머리 휘날리며, 레디고'
2009.	01. 30	2008년 오매불망프로젝트 지원작 시상회
2009.	02. 26~28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2009.	03. 04~25	영화로 사회읽기 '거꾸로 보는 영화이야기'
2009.	03.	제2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 위촉
2009.	03. 10~26	촬영 기초에서 활용까지 '내 카메라, 장롱탈출 프로젝트'
2009.	03.~04.	워낭소리 공동체 상영
2009.	03. 21	제6회 시네마프랑스인천 "프랑스 프로방스 이야기"
2009.	03. 28	체험스튜디오 '미디어로 웃자'
2009.	04.	남구학산문화원 위탁협약 체결
2009.	04. 03~04. 10	지역공동체 어린이영상미디어교육-공부방교사 사전교육 '미디어교육 맛보기'
2009.	04. 10~05. 20	동영상제작기초 '네모난 눈으로 답는 영상이야기'
2009.	04. 17~12. 04	지역공동체 어린이미디어교육-어린이영상미디어 놀이터 '일상 속 상상마당'
2009.	05. 06~12. 12	이주여성미디어교육 '익숙한 세상, 미디어로 새롭게 보기'
2009.	05. 20~06. 24	다문화가정 주부미디어교육 '카메라 날개 달고 온 동네를 누벼라'
2009.	06. 03~17	동영상 편집의 달인 '비디오 IN 뮤직'
2009.	06. 4~08. 22	성동학교 청각장애청소년미디어교육 '가슴 속 이야기 카메라로 외쳐라!'
2009.	06. 11~16	촬영기초(다큐) '나는 카메라다'
2009.	06. 12~14	2009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순회상영회
2009.	06. 12~26	다큐기획 '다큐멘터리, 자신을 찾는 색다른 여정'
2009.	06. 16~20	촬영기술 '동시녹음, 소리를 잡아라!'
2009.	06. 18~20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2009.	06. 23~25	사운드 효과 '사운드 이펙트? 사운드 퍼펙트!'

2009.	06. 24~26	인터뷰 다큐촬영 '꾼되기'
2009.	06. 26~28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2009 순회상영전
2009.	06. 27	예능PD 따라잡기
2009.	07. 03~17	영상편집기초 '프리미어 프로 CS3 초급'
2009.	07. 6~09	문학정보고등학교 위탁교육 '방송·영상의 이해-방송현장 견학'
2009.	07. 07~10	문학정보고등학교 위탁교육 '방송·영상의 이해-실무자 특강'
2009.	07. 09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09.	07. 07~16	촬영중급(극) '한류에 영화찍기'
2009.	07. 21~30	에프터 이팩트 초급 '텍스트의 즐거움'
2009.	07. 21~08. 4	동암중학교 청소년 영상제작교육 '즐거운 상상, 꿈꾸는 UCC'
2009.	07. 24~08. 19	영화기획과 시나리오 '영화의 탄생'
2009.	08. 06~08	촬영기초(극) '1분 영화촬영'
2009.	08. 07~09	지역영상미디어센터네트워크사업 '2009 청소년 미디어캠프'
2009.	08. 10~21	2009 문학정보고 하계 직무연수 '영상기획과 구성'
2009.	08. 20~22	편집활용 '나만의 DVD 만들기'
2009.	08. 28	〈날아라 펭귄〉 시민시사회
2009.	09. 02~10. 07	단편영화제작 '단편영화만들기 프로젝트'
2009.	09. 10~11. 10	도서관공동체미디어교육 '수봉도서관 어머니교육-어린이의 세계와 발도르프교육 형 인형'
2009.	09. 11~11. 17	정신장애인미디어교육 '나와 세상과 미디어로 해피투게더'
2009.	09. 15~11. 10	도서관공동체미디어교육 '수봉도서관 어린이교육-책으로 인형으로 마음나누기'
2009.	09. 16~23	도서관공동체미디어교육 '맑은샘도서관 미디어교육특강-미디어로 세상과 소통하기'
2009.	09. 18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2009.	10. 07~11. 25	도서관공동체미디어교육 '맑은샘도서관 어머니교육-어린이의 세계와 발도르프교육 형견인형'
2009.	10.10. 24, 11.17	미디어아트 특강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미디어 아트 특강'
2009.	10. 15~24	제7회 시네마프랑스인천 "환경과 에너지"
2009.	10.26~12.14	시민동아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교육 '연두빛 영상으로 싱그러운 소통하기'
2009.	10.28~11.27	동영상 제작기초 '네모난 눈으로 답는 영상이야기'
2009.	11. 5	퍼블릭액세스 특강 '영상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퍼블릭 액세스'
2009.	11.16~12.15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OBS 경인TV 공동 2009포켓미디어 영상제 작품 공모
2009.	11.11, 18, 26	대학특강 '방송 프로듀서를 꿈꾸다!'
2009.	11.2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동개발교재 평가워크숍
2009.	11.26~12.05	촬영기술 '조명과 동시녹음 한번에 잡아라!'
2009.	11.28	저작권 특강 '저작권 완전정복'
2009.	11.28	제8회 시네마프랑스인천 "프랑스 만화와 회화의 만남"
2009.	12.01~05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2009.	12.02~12.12	영상편집중급 '프리미어가 에프터이펙트를 만났을 때'
2009.	12.09	Workshop-도시의 기억
2009.	12.10	정석항공고등학교 위탁교육 '영화 리터러시 특강'
2009.	12.11	미디어교육 교사네트워크를 위한 교사 간담회
2009.	12.15	2009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공동체미디어교육 포럼 '미디어교육 으로 지역공동체에 소통의 새싹 틔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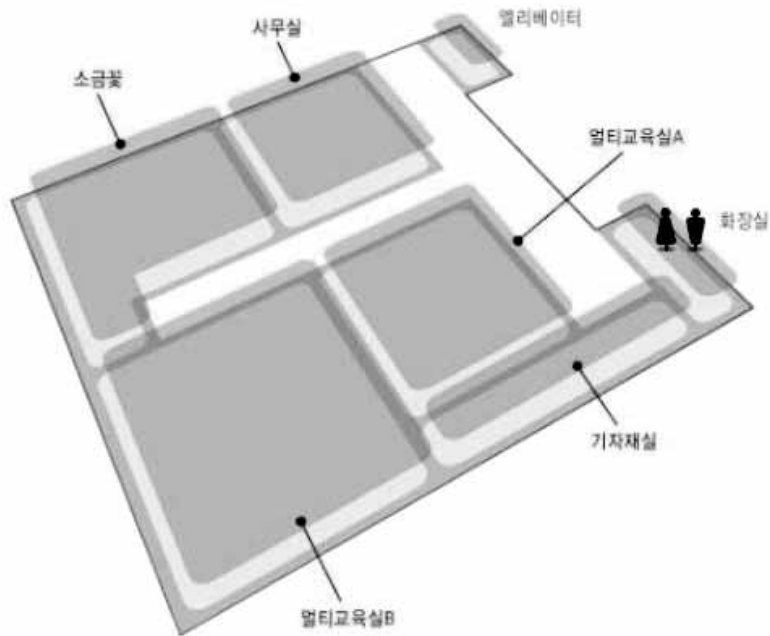
4. 시설현황



- 위 치 :** 센터〉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역길92 (주안1동 232-3) 5, 6층
 상영관〉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1동 166-1 주안메인프라자 7층
■ 규 모 : 센터 653.4㎡, 상영관 (158석)
■ 시설개방시간 : 화요일 ~ 토요일 09:00 ~ 22:00
■ 휴 관 일 : 매주 월요일, 국경일, 노동절

■ 공간 구성

5층



사무실

No	품 목 명	수량	규격(모델명)	제조사
1	CCTV	4	MCC-520	Samsung
2	DVR w/Monitor	1	JSD-800	Samsung

3	NoteBook PC	1	Dell Inspiron 1420	Dell
4	Desktop PC	3	Inspiron 530MT Desktop	Dell
5	TFT-LCD Monitor	3	22"	Dell
6	NoteBook computer(crew)	3	Fujitsu S6311SD20VP	Fujitsu
7	NoteBook computer(rent etc.)	1	Fujitsu P7230SD12VP	Fujitsu
8	Color Printer	1	컬러레이저젯 2605	HP
9	Scanner A4	1	HP G-4050	HP
10	Laser Printer	2	HP-1160	HP
11	InkJet Printer	1	D-900	HP
12	Refrigerator	1	R-B316GB	LG
13	문서세단기	1	PS-70	Fellowes
14	Fax Machine	1	JX-200	롯데캐논
15	Digital Camera	1	EOS400D	Canon
16	Camera LENS	1	TAMR 5N 18-55	Tamron
17	Camera LENS	1	EF 70-200mm	Canon
18	Camera-Grip	1	BG-3	Canon
19	CF-memory	1	1GB	Transcend
20	CF-memory	1	2GB	Sandisk
21	Camera Bag	1		Canon
22	HDV Deck	1	HVR-M25N	Sony
23	HDV Deck	1	HVR-M15N	Sony
24	Deck AL Box	1	2step	DI Plus
25	키폰 주장비+메인 키폰	1	SKP-48H(4/16)	Samsung
26	키폰 전화기	6	AS-30S	Samsung
27	일반전화기	4	GS-460	LG
28	사무용 책상 1 + 의자	5	1800*1200*750 +다이하(중)	에드윈
29	사무용 책상 2 + 의자	1	1800*1200*750+다이하(대)	에드윈
30	이동서랍	6	3step	에드윈
31	OA형 칸막이	1	User format	에드윈
32	사무기기 테이블	2	900*400*900	에드윈
33	책장(도서용)	4	800*900*720	에드윈
34	회의용 테이블+의자6	1	6인용	에드윈
35	냉,난방기	1	9룸 기준	LG
36	MS 오피스	6	standard 2007	MS
37	한글	6	2007	한컴
38	공기청정기	2	LA-S060DC	LG
39	V3 (기업용)	36	Internet platinum	안철수연구소
40	디지털도어락(주문장치)	2	Gateman	Gateman
41	디지털도어락(사무실용)	7	Mille	Mille
42	디지털도어락(강화유리문)	3	Stargate	Stargate
43	LCD TV	1	32LX2DCW	대우전자
44	DVD PLAYER	1	RH-1788	LG

45	TV2룸 TV 장식장	1		에드윈
46	PC w/ 22" Monitor	2	Dell Inspiron 530st Desktop	Dell
47	복합기(팩스,복사,프린터 겸용)	1	HP3055	HP
48	Duplicator	1	DG Wox	신도리코
49	진공청소기	1	V-P1200T	LG
50	휴대용 제본기	1	Probind RS-5200	카피어랜드
51	전기온풍기	2	MF-225	신일엔터프라이즈



멀티교육실 A

총 12평 규모의 영상편집 및 그래픽 교육공간으로 HDV 포맷까지 지원하여 전문적인 수업도 가능하다. 총 11개 편집 스테이션이 마련되어 있어 10명이 동시에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는 공간

품 목 명	수량	규격(모델)	제조사
Workstation	11	HP XW4400	HP
Production Studio Premium CS3	11	CS3	Adobe
Aspect HD V4.13	11	V4.13	Cineform
TFT-LCD Monitor	11	19"	HP
DVCAM VCR - HDV	6	HVR-M15N	Sony
DLP Projector	1	LC-XB40	EIKI
Electronic Screen	1	100"	
Audio System	1	RX-V461	Yamaha
Speaker	1	SCS 178 SAT	JBL
Audio Rack	1	Chamber	
Headphone	11	HD 202	Sony
강사용 책상	1	900*750*720	에드윈
강사용 의자	1	500	에드윈
학생용 책상(편집기 2조)	6	1800*750*720	에드윈
학생용 의자	10	511	에드윈
불박이장	2		에드윈
화이트보드(대)	1		



멀티교육실 B

총 17평 규모의 영상편집 및 그래픽 교육공간으로 HDV 포맷까지 지원하여 전문적인 수업도 가능하다. 총 11개 편집 스테이션이 마련되어 있어 10명이 동시에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는 공간

품 목 명	수량	규격(모델명)	제조사
NLE Workstation	11	HP XW4400	HP
Production Studio Premium	11	CS3	Adobe
Aspect HD V4.13	11	V4.13	Cineform
TFT-LCD Monitor	11	19"	HP
DVCAM VCR - HDV	6	HVR-M15N	Sony
DLP Projector	1	LC-XB40	EIKI
Electronic Screen	1	100"	
Audio System	1	RX-V461	Yamaha
Speaker	1	E20	JBL
Audio Rack	1	Chamber	
Headphone	11	HD 202	Sony
강사용 책상	1	900*750*720	에드윈
강사용 의자	1	500	에드윈
학생용 책상(편집기 2조)	6	1800*750*720	에드윈
학생용 의자	11	511	에드윈
불박이장	2		에드윈
보조의자	1		
화이트보드(대)	1		



기자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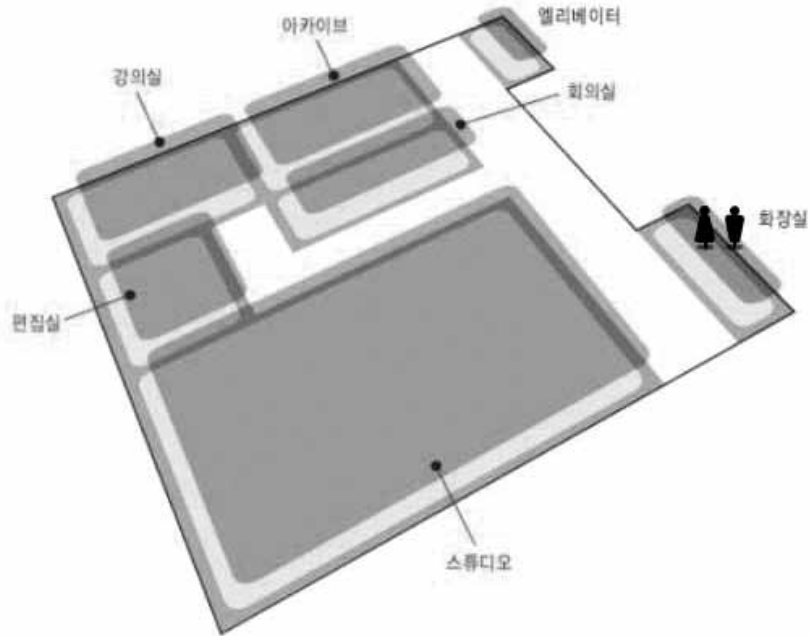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대여용 기자재를 대여 · 반납 · 관리하는 곳으로 4개 군으로 분류된 총 15종의 장비가 비치되어있음

No	품 목 명	수량	규격(모델명)	제조사
1	HDV Camera	3	HVR-V1N	Sony
2	battery(spare) for HVR-V1	6	NP-F970	Sony

3	Quick charger w / adapter(spare)	3	AC-VQ1050D	Sony
4	HVR-V1용 광각렌즈 ?	2	VCL-HG0862K	Sony
5	Camera HDD REC	1	FS-C 100G	Sony
6	W/L Mic. System	2	UWP-C1	Sony
7	62mm UV Filter	3	62UVP	Sony
8	LCD Hood	2	SH-L35W	Sony
9	AL Case(V1N용)	3	2step	DI Plus
10	Tripod	3	503/525kit	Manfortto
11	Kino Flo Gaffer Kit	4	4ft 4Bank	Kinoflo
12	Fresnel Tungsten w/ case	6	650W	Filmgear
13	40" Century C Stand w/ case	10	MSE	Avenger
14	2 1/2" Grip Head	10	MSE	Avenger
15	40" Extension Arm	10	MSE	Avenger
16	Two Way Light w /stand, w/case	6	650W *2	
17	Reflector	2	white	
18	Headphone	4	HD 202	Sony
19	Boom Pole w/XLR audio cable	2	MZA718	Beyer Dynamic
20	Shot Gun Mic	2	AT-815B	Audio Tec,
21	Windscreen	3	VJ	
22	Audio Recorder	2	HD-P2	Tascom
23	DV Camera (Rent, Education)	8	HVR-A1N	Sony
24	HDD Digital Camera (Education)	15	DCR-SR42	Sony
25	Digital Camera(Education)	11	Powershot A710 IS	Canon
26	Tripod - Sony HVR-A1N용	8	TH-950DV	Lubec
27	AL case - Sony HVR-A1N용	8		DI Plus
28	Soft case - HDD camera 용	15		
29	Battery - DV camera 용	10	NP-QM91D	Sony
30	불박이 선반(장비보관용)	1		에드윈
31	보관장	1		에드윈
32	사무용 책상 및 의자	1	1600*1200*750	에드윈
33	제습기	1	WDH-260	LG
34	멀티미디어도구 (Multimedia Kits)	1	M-4110SH	(주)디비코
35	Microphone	1	VideoMic	Rø DE
36	Didital Voice recorders	2	MVR-W700G	(주)세닉스디지털
37	리튬이온전지	30	BN-V428	Bluecell
38	리튬이온전지	6	VW-VBD35	파나소닉
39	Camera Bags	2	2step	
40	RAM	22	DDR2 1G, PC2-5300	삼성
41	PC /22 Wide LCD	1	Inspiron 530	DELL
42	디지털카메라 메모리	4	CF 4GB 75X D&M	TRANSCEND
43	BAG	3	Trekker DayPack2	
44	Light kit Set	1	Dedo	

45	Microphone	5	SBC-MD185	필립스
46	Wireless Mic System	3	ECM-C10	소니
47	Pin MIC 연장선 5M	3	5m	
48	Headphone	5	MDR-Z300	소니
49	Cable Reels	6	KHB-2030N	한베케이블
50	Turn Tables	1	TT-42	마란츠
51	Audio Mixer	3	XENYXX1002FX	Behringer
52	포인터	2	G-pointer LS-300G	네오픽스코리아
53	Camera Bags	2	CRC-14	KATA
54	Camera Bags	2	CRC-18	KATA
55	Mini Disk Players	3	MZ-RH1	소니
56	LCD Monitor	1	E228FWP 22"	DELL
57	LCD Monitor	1	M228WA	LG
58	키보드(무선)	1	EX-90	로지텍
59	노트북받침대	1	AIDATA N005U	
60	현장 녹음용 마이크 Set	1		
61	필드용 모니터 set	1	GV-HD700	소니
62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20	Ultra2 1G	SANDISK
63	Tripod	1	FIG RIG 595B	Manfrotto
64	조명 악세사리 Set	1		
65	리튬이온전지	30	NP-FH70	소니
66	Wireless Access point	1	G054U-2	EFM네트웍스
67	라벨라이터	1	PT2420PC	부라더
68	각종 기타 라인	1		
69	공구상자	1	5호	내쇼날프라스틱
70	전동드릴	1	GSR 12-2	BOSCH
71	일반용공구세트	1	25PCS	세신버팔로
72	블루스크린(크로마키)	1		
73	가변형 히트 펌프 냉난방기	1	LP-H1007D(28평형)	LG
74	Camera Bags	15	J1-952	지호시스템
75	Camera Bags	14	DG302 캐논 로고가방	Digital
76	리튬이온전지	9	NP-QM91D	소니
77	TFT-LCD Monitor	2	19"	HP

▶ 6층 -



스튜디오

30평 규모로 방음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촬영 및 녹음, 선형 편집 및 자막 등의 설비가 갖춰져 있다. 또한 내부에 블루스크린이 있어서 크로마키 작업도 가능하다..

No	품 목 명	수량	규격(모델명)	제조사
1	편집용컴퓨터	16	CT12	삼성
2	컴퓨터모니터	16	PN17KT	삼성
3	VTR	15	SV-K811, 6HEAD	삼성
4	VTR 모니터	15	K15A14F3(CT-14F3)	삼성
5	MIXING CONSOLE	1	CMX-1264	인터엠
6	DVD COMBO	1	SV_DVD920M	삼성
7	무선리시버	1	WRX-9000	Winix
8	CD Player	1	CD-160	Tascom

9	NLE	1	DV Storm	Canopus
10	AV Mixer	1	AG-MX70	Panasonic
11	CG Digital 입력기	1	Aurora 6000 Plus	본전자
12	Editing Controller	1	AG-A850	Panasonic
13	AV Rec BOX	1		
14	Digital Camcorder	2	AG-DVX100P	Panasonic
15	DV DECK	2	DSR-45	Sony
16	DV DECK	1	DSR-1800	Sony
17	DV DECK	1	BR-HD50U	JVC
18	외장하드	1	NQ-351(60G)	네오큐
19	DV Camera	14	GR-DV3000	JVC



편집실

HDV 편집이 가능한 NLE편집기가 2개조 설치되어 있으며 회원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이용 할 수 있다.

No	품 목 명	수량	규격(모델명)	제조사
1	Workstation Production Studio Premium Aspect HD Ingest	2	HP XW4400 CS3 V4.13	HP Adobe Cineform
3	External HDD 320GB SATA2	10	SATA II 320G	WD
4	External HDD Case	10	AIO EASYRACK 301	AIO
5	DVCAM VCR - HDV	2	HVR-M25N	Sony
6	Headphone	4	HD 25 SP	SENNHEISER
7	편집용 책상	3	1800*750*720	에드윈
8	편집용 의자	6	다이어(중)	에드윈
9	볼박이장	3		에드윈
10	Audio Mixer	2	XENYXX1002FX	Behringer
11	LCD Monitor	4	E228FWP 22"	DELL
12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3	WD7500AAKS	웨스턴디지털
13	RAM	8	DDR2 1G, PC2-6400U 방열판	하이닉스



강의실

대형 LCD TV와 5.1채널 사운드가 설치되어있어 시청각 자료를 감상하며 수업이 가능하다. 10~12인 정도가 적정 인원이다.

No	품 목 명	수량	규격(모델명)	제조사
1	교탁	1	CR-9006T	에드윈
2	교사용 의자	1		
3	TV 1	1	XCANVAS 42PC1DB2W	LG
4	Sound System	1	RX-V469+Nothridge E80	Yamaha
5	TV1룸 - 책상(강의용)	6	2400*1200*720	에드윈
6	TV1룸 - 의자(강의용)	12	511	에드윈
7	불박이장(중)	1		
8	화이트보드(중)	1		
9	보조 의자	1		



아카이브

미디어와 다양성을 키워드로 영상자료와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이를 감상 할 수 있는 플레이어 4개조가 설치되어 있다.

No	품 목 명	수량	규격(모델명)	제조사
1	TV	4	Lucoms 2210WBT	대우루컴스
2	DVD/VHS PLAYER	4	LC-6056M	LG
3	Headphone	4	MDR-XD100	Sony
4	Archive	1	DVD, VHS	
5	책상 및 의자, 칸막이	4	4조	에드윈
6	열람용 탁자	1	900*650*720	에드윈
7	열람용 의자	4	다이아(중)	에드윈
8	책장 및 DVD 책장	1	User Format	에드윈



회의실

8~10명 정도가 세미나 혹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No	품 목 명	수량	규격(모델명)	제조사
1	TV 2 (Superslim)	1	CT-32Z40HDP	LG
2	DVD/VHS PLAYER	2	LC-6056	LG
3	화이트보드(중)	1	900*600	에드윈
4	TV2룸 - 책상(회의용)	6	2400*1200*720	에드윈
5	TV2룸 - 의자(회의용)	10	511	에드윈
6	불박이장(중)	2		



상영관

158석의 극장으로 35mm 필름영사기 및 디지털 영사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No	품 목 명	수량	규격(모델명)	제조사
1	Digital Projector	1	PT-D7000	Panasonic
2	Intercomm	6	RT7	RadioTek
3	DVCAM VCR - HDV	1	HVR-M25N	Sony
4	Preview Monitor(LCD)	1	1720TV	Orion
5	Rack for Projector	1	L_M	
6	LCD Mic Receiver	1	LRX-702E	Syscom
7	마이크 분배기	1	MX882	Behringer
8	유선마이크	8	SHURE PG-58	Shure
9	Mic Stand	8	T type	
10	Mixer	1	Makie 1604	Makie
11	DV-HDD-DVD DECK	1	SR-DVM70	JVC

미디어 교육실

No	품 목 명	수량	규격(모델명)	제조사
1	NoteBook computer	6	VOSTRO1500	Dell
2	External HDD	6	SATA II 320G	Seagate
3	External HDD Case	6	FHA 353UA	새로텍
4	DLP Projector w/case	1	LC-XB40	EIKI
5	Portable Screen	1	80" 유압식	
6	Speaker	1	BR-1000A	Britz



2장. 사업 및 결과

1부. 사업 영역 분류 및 개요

2부. 각 권역별 사업 내역

1부. 사업 영역 분류 및 개요

1. 2009년 사업개요

1) 사업 배경

- 인천의 영상 미디어에 대한 욕구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로부터 지역민들로부터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및 영상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사업화할 필요가 있음
- 영상문화형성은 제작과 상영을 한 과정으로 체험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 공동체들은 커뮤니케이션 확대의 필요성과 삶의 공동 영역 혹은 공통 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큼
- 공동체별로 특성과 지향에 맞는 작은 미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게 필요함
- 지역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영상 활동을 하는 주체들은 인천 시민들에게 영상 제작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촉매
- 지역에서 전문적인 영상 활동 주체들을 발굴·육성하고, 이들의 활동이 인천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목표

- 영상 및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욕구를 촉발한다.
- 미디어가 공동체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확장함으로써 공동체와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 성장에 기여함을 보인다.
- 인천을 기반으로 전문적 영상 활동 주체들을 발굴 육성한다.
- 인천에 퍼블릭 액세스를 소개하고, 퍼블릭 액세스 활동을 추동·지원한다.
- 인천 시민들이 미디어를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자기표현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행한다.
- 영상문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3) 사업 방향

- CAMF가 영상 문화 형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로서 인천에 정착
- 미디어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 및 영상 창작 욕구를 이끌어 내고, 이를 CAMF가 지닌 시설·장

비와 연결

- 공동체 미디어를 위한 교육·제작·소통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 공동체 미디어를 운영하는 주체가 공동체 내부에서 발굴·성장하게 추동하고 지원하는 공동체 미디어 사업 수행
- 인천의 전문적 영상 활동 주체가 성장하는 토대 마련
- 퍼블릭 액세스의 개념과 현황을 인천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인천 시민들의 퍼블릭 액세스 활동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지원, 채널 개발 등을 수행
-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미디어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미디어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 인천에서 다양한 미디어교육을 실행할 교사들의 발굴 및 육성
- 인천시민들이 다양한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인천 내 영상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 추진
- 전국의 지역미디어센터와의 협의구조 구축 모색

4) 사업내용

■ 미디어교육 사업

- 정규강좌 운영 사업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사업
- 위탁 및 협력 교육 사업
- 교사 양성 및 교재 개발 사업
- 기타

■ 대안미디어 사업

- 공동체 미디어 사업
- 퍼블릭 액세스 사업
- 2009 포켓미디어 영상제 공모 사업

■ 창작지원 사업

- 기자재실 운영 사업
- 아카이브 운영 사업
- CAMF 특강 사업
- I-culture (인천문화PD) 사업

■ 정책 사업

- 웹진 발간 사업
- 정책 토론회 사업

■ 상영 사업

- 독립영화 개봉 상영 사업
- 기획 상영
- 다양성 영화 정기 상영 사업
- 디렉터 뷰 정기 개최 사업
- 대관, 후원,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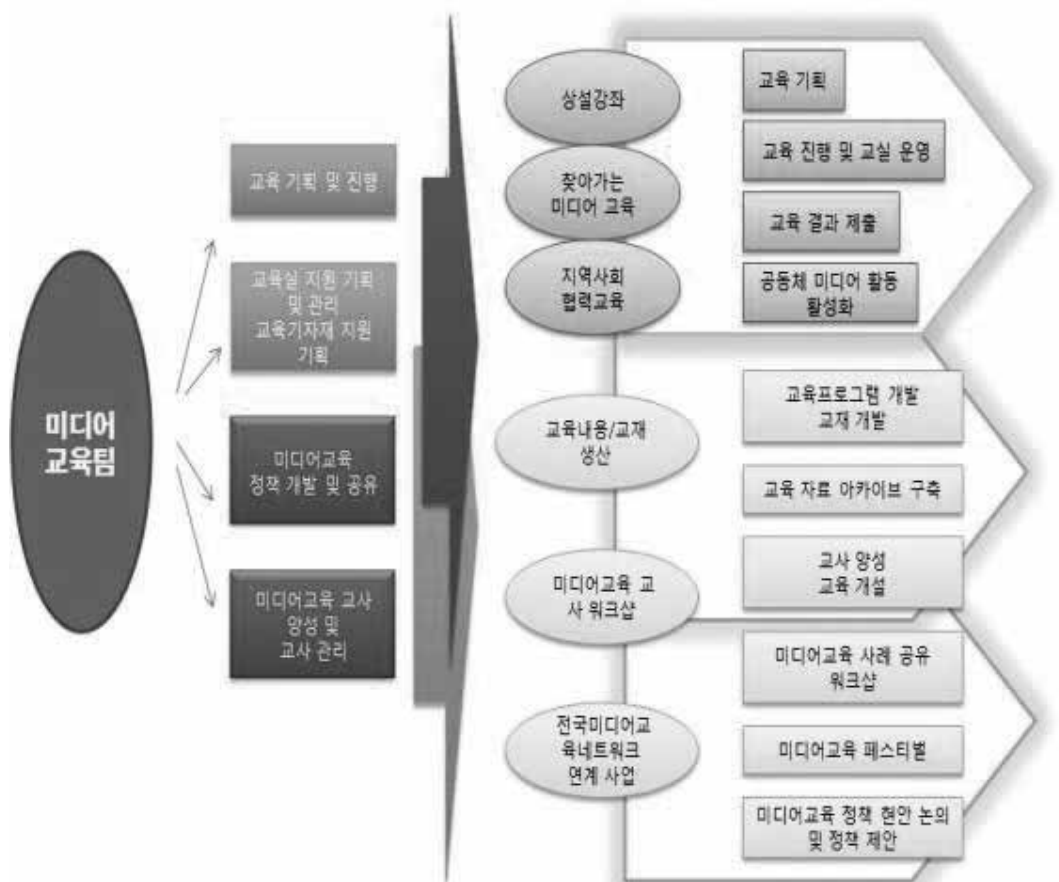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2. 미디어교육 사업

1) 사업 목표

- 지역의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통의 주체로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의 미디어능력을 배양하는 미디어교육의 내용을 생산하고 실행한다.
- 지역의 공공기반 미디어교육 지원 시설로서의 CAMF 포지셔닝 구축. 지역의 주민들이 자유로운 판단을 통해 선택 접근이 가능한 미디어교육 상설 강좌 스펙트럼을 만들고 실행함으로써 공공기반 시설로서 지역 주민들의 미디어활용 능력, 미디어 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구성원들 및 공동체들의 미디어소통 욕구 창출 및 공동체 미디어 활동으로 지속되는 미디어교육 사례 발굴. 지역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미디어격차 해소, 공동체 미디어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가(매개자) 교육을 실시한다.
- ○ 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 양성을 통한 지역 미디어교육 아카이브의 기초를 마련한다.

2) 2008년 미디어교육 사업 개요



3) 사업 방향

- 미디어교육 기획과 운영 총괄
- 교육 공간 및 교육 기자재에 대한 운영 기획 및 운영 총괄
- 미디어교육 정책 개발 및 공유
-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 및 관리

3. 대안미디어 사업

1) 사업 목표

- 인천에 퍼블릭 액세스 주체를 형성하고, 네트워크 한다.
- OBS 경인TV 및 인천 케이블 방송국들이 추진하는 퍼블릭 액세스 방송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발원들의 창구 역할로 자리매김 하도록 건인한다.
- 지역의 공동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미디어 매체들을 개발한다.
- 작은 미디어들을 활용하는 공동체 미디어 사업을 수행한다.

2) 사업 방향

- 구체적 발원들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가서 퍼블릭 액세스를 소개하고, 퍼블릭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교육, 제작 지원을 병행한다.
- 인천 퍼블릭 액세스 주체들을 형성·네트워킹 하고, 퍼블릭 액세스 방송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체들과 케이블 방송국과의 협의 테이블을 구성한다.

4. 창작 지원 사업

1) 사업 목표

- 시민창작 활성화 및 전문 영상제작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 기자재 및 시설 활용 활성화

2) 사업 방향

- CAMF 보유 기자재와 관련한 기자재 사용 특강 진행
- 창작과정뿐만 아니라 제작 결과물의 소통까지 포함한 지원

5. 상영 사업

1) 사업 목표

- 비상업적 영상물의 대안적 상영 활동 개발
- 인천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상물 관람 기회 제공

2) 사업 방향

- Indiespace 등 독립영화 배급 단체와 업무 협조(MOU 체결)를 통한 프로그램 배급
- 지역 대학 영상동아리, 영화제작팀 등의 상영 활용 공간 제공
- 지역 영화제 상영 후원

6. 정책 사업

1) 사업 목표

- 인천의 미디어문화 발전을 위한 방향 연구 공론화
- 창의적 사업 수립과 집행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

2) 사업 방향

- 인천 미디어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생산 및 지역적 확산
- CAMF 스텝에 대한 정기 교육

7.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사업

1) 사업 목표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호간 협의 구조를 일상화
- 동질성을 기초로 한 공동 사업을 통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독립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공동사업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의 규모와 질을 높이고,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사업의 전형을 창출

2) 사업 방향

-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의 공동 논의를 통한 사업 계획 마련
-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실무자들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 사업 진행

2부. 각 권역별 사업 내역

1. 미디어교육 사업

1) 사업실적

구분	교육명	기간	교육 시간	사업실적		
				강좌 일수	참여 인원	연인원
정 규 강 좌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2/26~28	6h	3일	10명	30명
	영화로 사회읽기 〈거꾸로 보는 영화이야기〉	3/4~3/25	12h	4일	5명	20명
	동영상제작기초 〈네모난 눈으로 담는 영상이야기〉	4/10~5/20	30h	10일	8명	80명
	다문화가정 주부미디어교육 〈카메라 날개 달고 온 동네를 누벼라〉	5/20~6/24	12h	6일	4명	24명
	다큐기획 〈다큐멘터리, 자신을 찾는 색다른 여정〉	6/12~6/26	9h	3일	5명	15명
	촬영기초다큐 〈나는 카메라다!〉	6/11~6/16	9h	3일	5명	15명
	사운드효과 〈사운드 이펙트? 사운드 퍼펙트!〉	6/23~6/25	6h	2일	5명	10명
	인터뷰다큐촬영 〈인터뷰 촬영 끝 되기!〉	6/24~6/26	15h	5일	7명	35명
	영상편집기초 〈프리미어CS3초급〉	7/3~7/17	15h	5일	4명	20명
	에프터이펙트초급 〈텍스트의 즐거움〉	7/21~7/30	15h	5일	6명	30명
	영화기획과 시나리오 〈영화의 탄생〉	7/24~8/19	24h	8일	5명	40명
	촬영기초(극) 〈1분영화 촬영〉	8/6~8/8	9h	3일	3명	9명
	DVD만들기 〈나만의 DVD만들기〉	8/20~8/22	12h	4일	4명	16명
	단편영화제작 〈단편영화만들기 프로젝트〉	9/2~10/7	30h	10일	5명	50명
	동영상제작기초 〈네모난 눈으로 담는 영상이야기〉	10/28~11/27	30h	10일	6명	60명
	촬영기술특강 〈조명, 동시녹음 한번에 잡아라〉	11/26~12/5	24h	8일	5명	40명
	사진과 프리미어와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12/1~12/5	6h	3일	4명	12명
	영상편집중급 〈프리미어가 에프터이펙트를 만났을 때〉	12/2~12/12	15h	5일	6명	30명
	미디어아트 특강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미디어 아트 특강〉	10/10	4h	1일	20명	20명
		10/24	4h	1일	8명	8명
		11/17	4h	1일	20명	20명
	대학특강 〈방송 프로듀서를 꿈꾸다!〉	11/11	3h	1일	84명	84명
		11/18	3h	1일	15명	15명

		11/26	3h	1일	43명	43명
	저작권 특강 <저작권 완전정복>	11/28	3h	1일	5명	5명
	퍼블릭액세스 특강 <영상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퍼블릭 액세스>	11/5	3h	1일	11명	11명
소계			306h	105일	303명	742명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실버영화제작교육 <은빛머리 휘날리며 레디-고>	1/15~4/22	51h	17일	11명	187명
	지역공동체 공부방 교사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맞보기>	4/3~4/10	4h	2일	2명	4명
	지역공동체 어린이영상미디어교육 <일상 속 상상 마당>	4/17~12/5	60h	30일	12명	360명
	이주여성미디어교육 <익숙한 세상, 미디어로 새롭게 보기>	5/6~12/12	90h	30일	16명	480명
	성동학교 청각장애청소년미디어교육 <가슴 속 이야기 카메라로 외쳐라!>	6/4~8/22	36h	12일	12명	144명
	정신장애인미디어교육 <나와 세상과 미디어로 해피투게더>	9/11~11/17	42h	14일	6명	84명
소계			283h	105일	59명	1,259명
기타	동암중학교 청소년 영상제작교육 <즐거운 상상, 꿈꾸는 UCC>	7/21~8/4	24h	8일	10명	80명
협력 교육	문학정보고등학교 위탁교육 <방송·영상의 이해-방송현장 견학>	7/6~7/9	2h	1일	72명	72명
	문학정보고등학교 위탁교육 <방송·영상의 이해-실무자 특강>	7/7~7/10	2h	1일	143명	143명
	지역영상미디어센터네트워크사업 <2009 청소년미디어캠프>	8/7~8/9	36h	3일	13명	39명
	2009 문학정보고 하계 직무연수 <영상기획과 구성>	8/10~8/21	61h	10일	6명	60명
	시민동아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교육 <연두빛 영상으로 싱그러운 소통하기>	10/26~12/14	24h	8일	12명	96명
	정석항공고등학교 위탁교육 <영화 리터러시 특강>	12/10	1h	1일	239명	239명
소계			150h	32일	495명	729명
총계			739h	242일	857명	2,730명

2) 교육 참여자 현황

(1) 전체 교육 참여자 현황

- 2009년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팀에서 주관했던 교육 사업은 정규강좌와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교육 및 기타 교육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교육 참여자는 크게 정규강좌에 303명,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에 59명 지역사회 협력교육 및 기타 교육 사업에 495명이었음.

① 전체 교육 참여자 연령 분포

나이	인원(명)	백분율(%)
10대	535	62
20대	202	24
30대	69	8
40대	29	3
50대	10	1
60대	6	1
70대	5	1
80대	1	0
총계	85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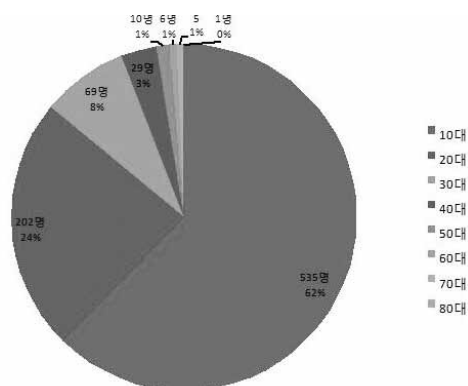


도표1-1. 전체 교육 참여자 연령 분포

② 전체 교육 참여자 성별분포

성별	인원(명)	백분율(%)
여	445명	52
남	412명	48
총계	85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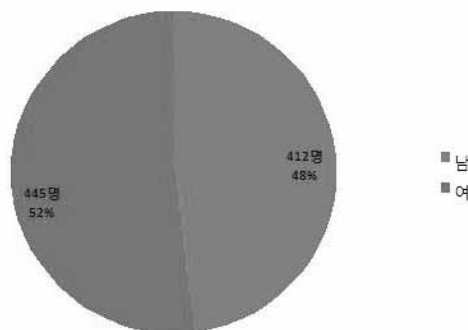


도표1-2. 전체 교육 참여자 성별분포

③ 전체 교육참여자 직업분포

직업	인원(명)	백분율(%)
중고등학생	495	57.8
대학생	178	20.8
주부	51	6.0
초등학생	40	4.7
교사	28	3.3
무직	23	2.7
사무직	14	1.6
예술관련	6	0.7
자영업	5	0.6
시민단체	5	0.6
공무원	5	0.6
서비스	3	0.4
기타	2	0.2
학자	1	0.1
종교	1	0.1
총계	85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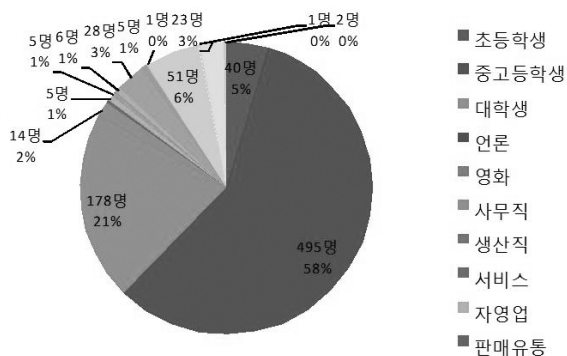


도표1-3. 전체 교육 참여자 직업분포

④ 전체 교육참여자 장애여부

장애여부	인원(명)	백분율(%)
비장애	838	98
장애	19	2
총계	85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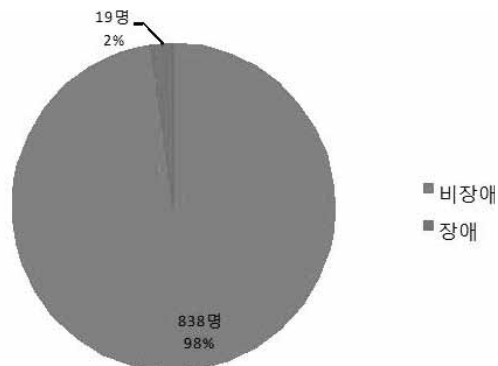


도표1-4. 전체 교육 참여자 장애여부

(2) 정규강좌 참여자 현황

- 정규강좌에는 303명이 참여하였다.
- 정규강좌 참여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10~20대의 비율보다 30~40대의 비율이 높다.
- 정규강좌 참여자의 성별비율은 여성:남성이 7:3으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강좌 수강경위로는 홈페이지가 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인소개, 기타 순이었다.
기타로는 시민단체나 시청홈페이지 게시판, 지역소식지 정보란 등이 있다.

① 정규강좌 교육 참여자 연령분포

나이	인원(명)	백분율(%)
10대	34	11
20대	192	63
30대	56	19
40대	13	4
50대	7	2
60대	1	1
총계	30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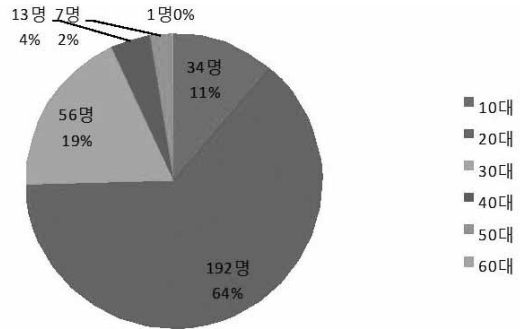


도표2-1. 정규강좌 교육 참여자 연령분포

② 정규강좌 교육 참여자 성별분포

성별	인원(명)	백분율(%)
여	172명	57
남	131명	43
총계	30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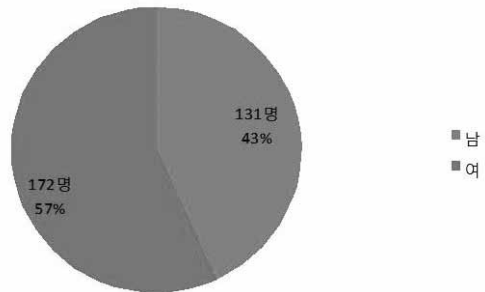


도표2-2. 정규강좌 교육 참여자 성별분포

③ 정규강좌 교육참여자 직업분포

직업	인원(명)	백분율(%)
대학생	178	59
초등학생	28	9
주부	25	8
교사	20	7
사무직	14	5
무직	7	2
중고등학교	6	2
예술관련	6	2
자영업	5	2
공무원	5	2
시민단체	3	1
서비스	2	1
학자	1	0
종교	1	0
기타	2	1
총계	30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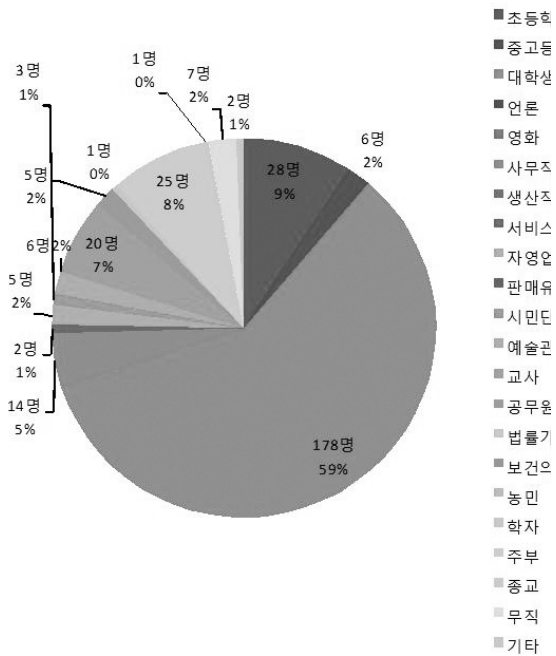


도표2-3. 정규강좌 교육 참여자 직업분포

④ 정규강좌 교육 참여자 장애여부

장애여부	인원(명)	백분율(%)
비장애	302	100
장애	1	1
총계	30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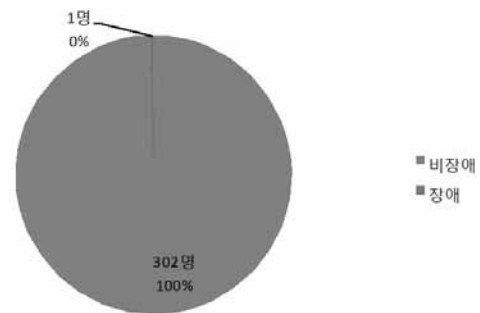


도표2-4. 정규강좌 교육 참여자 장애여부

⑤ 정규강좌 수강경위

직업	인원(명)	백분율(%)
홈페이지	49	16
지인소개	35	11
이메일홍보	6	2
포털사이트검색	5	2
언론홍보	3	1
강좌관련전단	2	1
기타	203	67
총계	30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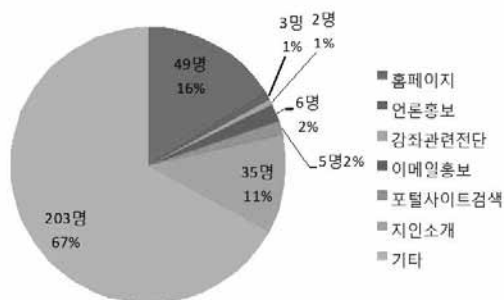


도표2-5. 정규강좌 수강경위

(3)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참여자 현황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참여자는 총 59명이다. 2008년에 비해 참여자 수가 줄었는데, 이는 같은 참여자에게 장기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던 교육이 늘어나고 전체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의 종류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참여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과 30~40대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
-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61% 대 39%로 여성이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 장애인의 비율이 전체참여자의 31%로 다른 교육 사업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①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참여자 성별 분포

나이	인원(명)	백분율(%)
10대	24	41
20대	7	12
30대	10	17
40대	6	10
50대	1	2
60대	5	8
70대	5	8
80대	1	2
총계	5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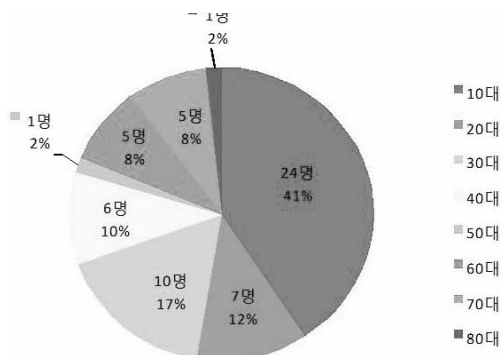


도표3-1.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참여자 연령분포

②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참여자 성별분포

성별	인원(명)	백분율(%)
여	23	61
남	36	39
총계	5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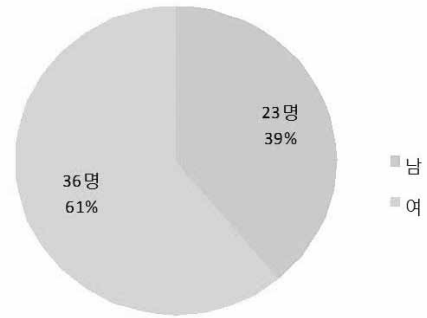


도표3-2.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참여자 성별분포

③ 직업

직업	인원(명)	백분율(%)
무직	16	27
주부	16	27
초등학생	12	20
중고등학생	12	20
교사	2	4
서비스업	1	2
총계	5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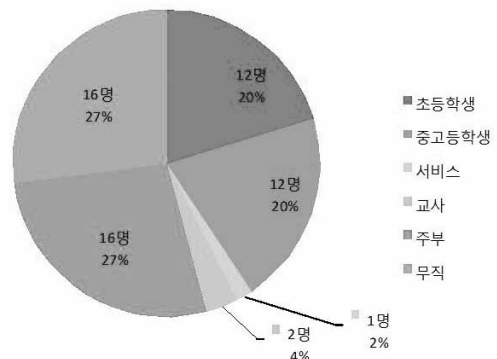


도표3-3.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참여자 직업분포

④ 장애

장애여부	인원(명)	백분율(%)
비장애	41	69
장애	18	31
총계	8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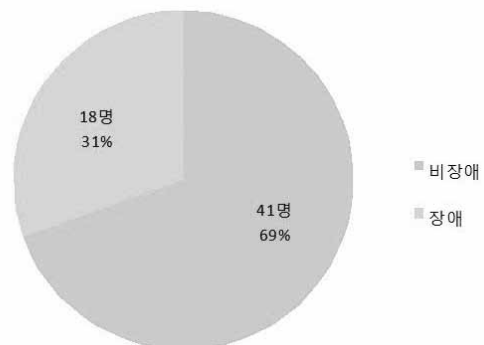


도표3-4.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참여자 장애여부

(4) 지역사회협력교육 및 네트워크교육 참여자 현황

- 지역사회 협력교육 참여자는 총 495명이다. 2008년 56에 비해 참여자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욕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미디어센터의 역할이 직접 교육을 기획/진행하는 것에서 지역의 다양한 단위들과 함께 협력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10년의 미디어교육사업 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 지역사회 협력교육 참여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른 사업들에 비해 중·고등학교의 위탁교육 및 특강 참여인원수가 많은데 이는 학교에서 학급단위로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지역사회 협력교육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48% 대 52%로 남녀의 비율이 비등하게 나타났다.
- 장애인의 비율이 전체참여자의 31%로 다른 교육 사업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① 지역사회 협력교육 참여자 연령 분포

나이	인원(명)	백분율(%)
10대	477	96
20대	3	2
30대	3	1
40대	10	1
50대	2	0
총계	49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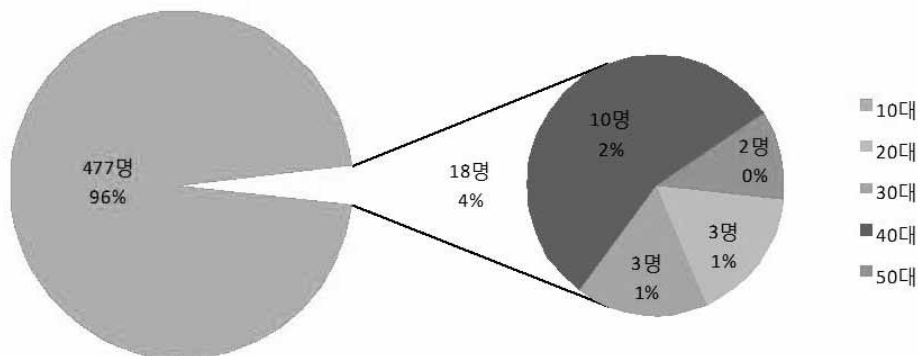


도표4-1. 지역사회 협력교육 참여자 연령분포

② 찾아가는미디어교육 참여자 성별분포

성별	인원(명)	백분율(%)
여	237	48
남	258	52
총계	49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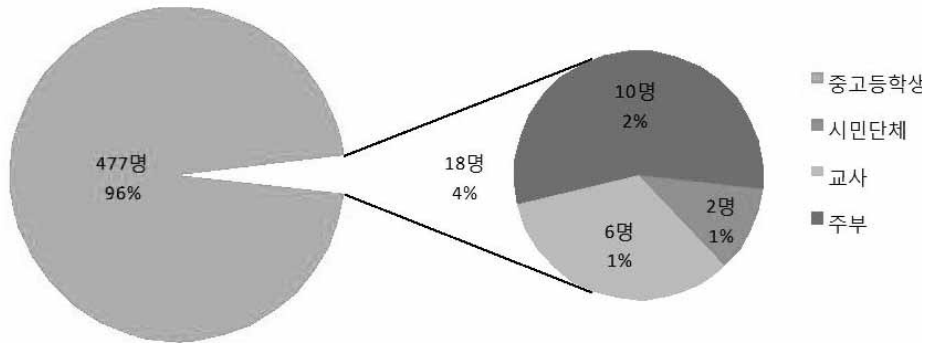


도표4-3. 지역사회 협력교육 참여자 직업분포

③ 직업

직업	인원(명)	백분율(%)
중고등학생	477	96
주부	10	2
교사	6	1
시민단체	2	1
총계	49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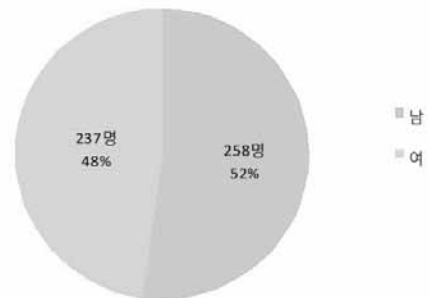


도표4-2. 지역사회 협력교육 참여자 성별분포

④ 장애

장애여부	인원(명)	백분율(%)
비장애	495	100
장애	0	0
총계	495명	

3) 사업 내용 및 평가

(1) 정규강좌

영역	교육명	기간
기획/구성	영화로 사회읽기 〈거꾸로 보는 영화이야기〉	3/4~3/25
	다큐기획 〈다큐멘터리, 자신을 찾는 색다른 여정〉	6/12~6/26
	영화기획과 시나리오 〈영화의 탄생〉	7/24~8/19
촬영	촬영기초(다큐) 〈나는 카메라다〉	6/11~6/16
	촬영기초(극) 〈1분영화촬영〉	8/6~8/8
	촬영중급(다큐) 인터뷰다큐촬영 〈인터뷰다큐 끈되기!〉	6/24~6/26
	촬영기술특강 〈조명, 동시녹음 한번에 잡아라〉	11/26~12/5
포스트프로덕션 -편집, 효과	영상편집기초 〈프리미어 프로 CS3〉	7/3~7/17
	에프터이펙트 초급 〈텍스트의 즐거움〉	7/21~7/30
	영상편집 중급 〈프리미어와 에프터이펙트가 만났을 때〉	12/2~12/12
	사운드효과 〈사운드가펙트? 사운드퍼펙트!〉	6/23~6/25
	DVD만들기 〈나만의 DVD만들기〉	8/20~8/22
제작 통합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2/26~2/28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12/1~12/5
	동영상제작기초 〈네모난 눈으로 담은 영상이야기〉	4/10~5/20
	동영상제작기초 〈네모난 눈으로 만드는 영상이야기〉	10/28~11/27
	단편영화제작 〈단편영화만들기 프로젝트〉	9/2~10/7
특강	대학특강 〈방송 프로듀서를 꿈꾸다!〉	11/11~11/26
	미디어아트 특강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미디어아트 특강〉	10/10~11/17
	저작권 특강 〈저작권 완전정복〉	11/28
	다문화가정 주부미디어교육 〈카메라 날개 달고 온 동네를 누벼라!〉	5/20~6/24
	퍼블릭액세스 특강 〈영상을 통한 또 다른 운동의 발견, 퍼블릭액세스〉	11/5

[1] 기획/구성-영화로 사회읽기

I. 사업내용

기획/구성	영화로 사회읽기 〈거꾸로 보는 영화이야기〉	3/4~3/25
-------	----------------------------	----------

● 교육 목표

- 영화를 함께 보고 비판적으로 분석해보는 경험을 통해 영화가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사회적·정치적 표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 그 속에 담겨 있는 역사와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사회적 소통행위로서 영화를 이해할 수 있다.

● 교육 대상

- 영화감상과 비평에 관심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

● 강사 : 최세진

- 2005년 서울인권영화제 심사위원
- 2006년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 저술
- 2006년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선정
- 2006년 캐나다 토론토 Korean Canadian Film Collective 활동

● 교육 내용

- 첫째 날 : 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 영화의 시작
 - 영화의 사회·정치적 특성
 - 장르영화 살펴보기
- 둘째 날 : 할리우드 영화 다시 보기
 - 전쟁영화, 고대역사물, 영웅물 함께 보기
- 셋째 날 : SF영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
 - SF의 정의와 역사
 - SF영화 계보
 - SF영화 함께 보기
- 넷째 날 : 영화의 사·정치적 요소
 - 다양한 형식의 정치 영화
 - 영화의 정치적 요소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3월	영화로 사회읽기 〈거꾸로 보는 영화이야기〉			
평 가 항 목 별 점 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3
			교육만족도	88
			교육양	88
			내용일치도	90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0
			교수방법	88
			시간효율성	88
			친절성	98
			교자료 적합성	98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83
			센터지원	90
			수강생 수	80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83
			관심도증가	95
센터신뢰도 증가			90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75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88

● 운영자 평가

영화로 사회읽기 〈거꾸로 보는 영화이야기〉		
3월		
준비 및 진행 과정 별 평가	준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1주년 기념 특강으로 진행된 영화읽기 강좌를 2009년에 들어 정규강좌로 배치하였다. 작년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기획하여 대안미디어팀 사업인 DVD클럽과 연계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언론 홍보와 메일링 홍보를 병행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유료강좌로 전환되었기 때문인지 모집정원의 과반수를 채우지 못하여 원래의 강좌 시작 일로부터 2주 연기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진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좌는 일주일에 1번씩 총 4회로, 매 회마다 주제를 가지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을 강사가 준비해서 함께 보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수강생들의 전반적인 평가가 교사의 교수방법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강의에 참여한 수강생수에 대한 부분과 상위강좌 수강에 대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 후 토의하는 과정에서 수강생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강생이 많을 경우 색다른 시각과 이야기들이 교류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듯 했다. 상위강좌 수강에 대한 욕구가 낮은 것은 이론/비평 강좌의 특성인 것으로 추측된다. 영상제작이나 촬영, 편집 강좌에 비해 비교적 부담 없이 참여하고 이후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인 듯 하다. · 수강생들 중 절반정도가 강좌와 관련된 소모임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DVD클럽과 관련된 활동에 관심을 보였다.
	종합 평가 및 차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모집과 관련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 수강생들에게 정규강좌의 여러 강좌들 중 수준별 · 분야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이 갖춰져 있음을 알리고 특히, 이론 강좌의 경우 함께 수강하면 좋은 강좌들을 추천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특강이나 제작강좌 등으로 유도해야한다. 교육이 끝나는 당일에 추천강좌 리스트를 나누어주며 제안해보는 방식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 강사와 DVD클럽의 운영방향과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2] 기획/구성-다큐기획

I. 사업내용

기획/구성	다큐기획 〈다큐멘터리, 자신을 찾는 색다른 여정〉	6/12~6/26
-------	--------------------------------	-----------

● 교육 목표

- 다큐멘터리의 허구와 진실, 즉 다큐멘터리의 진정성에 관한 고찰을 해봄으로써 ‘과연 다큐멘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 접근해 보도록 한다.
- 다큐멘터리의 기획 및 제작과정 등 전체적인 작업의 흐름을 파악한다.

- 자전적 다큐멘터를 기획해보고 이를 통해 주체이자 대상인 ‘나’와 ‘카메라’사이의 관계에 대해 재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교육 대상

-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 ‘어떻게 기획해야 하는가?’ 등의 물음과 함께 다큐멘터리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 강사: 이상우

-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전 영화화 장려상 “제임과 마린”
신승수 감독 조재현 주연 “얼굴” 연출부
Berkeley Film Archive (버클리 필름 보관소 인턴)
미국 대학생 영화제 프로그래머
실험영화, 단편 다큐멘터리 10여편 제작/ 감독
한국 학생 영화워크샵 강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국 영화제 (KIMA) 집행 부위원장
디지털 장편영화 “갈 데까지 간다” 제작, 프로듀서, 감독,
각본 U.C Berkeley student Film Festival 안양 영화제 개막작
SBS 스페셜 “보이지 않는 침입자 먼지” 연출
광주 국제 영화제 프로그래머
김기덕 감독 “시간” 촬영부
김기덕 감독 “숨” 연출부
장편 영화 “Tropical Manila” 트로피컬 마닐라 (한국명 : 트로피컬) 87분, HD, 제작, 프로듀서,
감독, 각본

● 교육 내용

- 다큐멘터리의 진실성에 대한 논의와 다큐멘터리의 모든 것 알아보기
- 다큐멘터리에 대한 기획과 함께 찍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 알아보기
- 스스로 자전적 다큐멘터를 찍어보고 다큐멘터를 통한 정체성 찾기의 시간을 갖는다.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4월	다큐기획 〈다큐멘터리, 자신을 찾는 색다른 여정〉			
평가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100
			교육만족도	100
			교육양	100
			내용일치도	100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100
			교수방법	100
			시간효율성	100
			친절성	100
			교자료 적합성	100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100
			센터지원	100
			수강생 수	95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100
관심도증가			100	
센터신뢰도 증가			100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9

● 운영자 평가

6월	다큐기획 〈다큐멘터리, 자신을 찾는 색다른 여정〉	
준비 및 진행 과정 별 평가	준비 과정	· 다큐기획은 제작 수업과는 달리 이론 수업이어서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사뭇 걱정이 되기도 했었다. 기대이상으로 수강정원의 과반수정도가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두 명이 수업전날 취소를 하게 되어 결국 3명의 수강인원으로 진행을 해야 했다.
	진행 과정	· 첫날 수업은 다큐멘터리의 진실에 관하여 교사의 경험담을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 영화 뒤에 감추어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어서 무엇보다 교육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었다. · 다큐멘터리를 찍어야 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생이 뭔가를 찍어야겠다는 의식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둘째 날 자신의 이야기 또는 주변의 이야기를 직접 찍어오는 과제를 내주었으나 CAMF와 교사가 카메라 대어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과제에 대한 부담을 느껴 결국 과제는 무산이 되었다. · 셋째 날 다큐멘터리, 페이크 다큐멘터리 과정을 거쳐 스토리텔링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은 다큐기획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섰으나 다큐의 허구성과 페이크 다큐 등 연출이 필요한 부분을 고려해 진행이 되었고 오히려 교육생들은 흥미로워하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아갔다.
	종합 평가 및 차후 계획	· 삼주에 걸친 3번의 짧은 강의였지만 교육생들에게 영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직접 기획하여 촬영해 보겠다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 수업이었다. · 이론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제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해방되어있다. 또한 그러한 부담감이 없어서 이론수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론수업을 듣는 교육생들에게 실습과제를 내주는 건 무리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교육실 내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론수업은 이론위주의 교육으로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3] 기획/구성-영화기획과 시나리오

I. 사업내용

기획/구성	영화기획과 시나리오 〈영화의 탄생〉	7/24~8/19
-------	------------------------	-----------

● 교육 목표

- 영상 텍스트를 독해하고 다루는 일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상·영화의 맥락과 층위를 파악하고, 영상의 연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영화기획과 시나리오를 통하여 구체적인 연출 목표를 가지고 영상을 자유롭게 만들어보도록 한다.

● 교육 대상

- 영화에 입문하는 사람으로 영화제작에 앞서 탄탄한 기획과 시나리오를 학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 강사: 최진성

- 2001 <백큐멘터리-박통진리교>, 다큐/ 한국독립단편영화제 우수작품상
- 2002 <그들만의 월드컵>, 다큐/ 올해의 독립영화상
- 2003 <누구를 위하여 총을 올리나>, 뮤직비디오/ 서울 독립영화제
- 2004 <히치하이킹>, 극영화/ 대한민국 영화대상 단편영화상
- 2004 <김추자>, 극영화/ 이탈리아 튜린 국제 게이레즈비언 영화제 최우수작품상
- 2004 <캐치 미 이프 유 캔>, 다큐/ 부산국제영화제
- 2005 <에로틱 번뇌 보이>, 다큐/ 부산국제영화제 영산펀드 지원작
- 2006 <다세포 소녀> 장편영화 시나리오/ 극장개봉
- 2007 <멜빌 스트리트> 뮤직비디오 /서울독립영화제

● 교육 내용

- 이미지와 사운드,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영화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 영화의 시공간, 조명, 사운드 그리고 미장센등 영화 스타일의 요소들을 학습한다.
- 영화의 기획 및 시나리오의 모티브를 찾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프리프로덕션의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최종 점검하는 기회를 갖는다.
- 각자 준비해온 최종결과물(시나리오/스토리보드/촬영본)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7월	영화기획과 시나리오 〈영화의 탄생〉			
평 가 항 목 별 점 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0
			교육만족도	87
			교육양	90
			내용일치도	83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3
			교수방법	87
			시간효율성	83
			친절성	93
			교자료 적합성	83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80
			센터지원	90
			수강생 수	63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83
			관심도증가	87
센터신뢰도 증가			90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67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84

● 운영자 평가

7월	영화기획과 시나리오 〈영화의 탄생〉	
준비	준비 과정	· 강사와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뿐만 아닌 촬영까지 함께 하자는 제안으로 수업의 영역을 확장 시켜보았다.

및 진 행 과 정 별 평 가	진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를 쓰기 전 감독들의 성향과 그들의 다양한 영화들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작은 스토리텔링을 하나씩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완성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촬영에 들어갔으나 정작 촬영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해 시나리오만 작업했던 학생들은 총8강에서 6강을 마지막으로 종강을 앞당겨야했다. · 결국 2인 1조로 하여 교육용 기자재를 대여하여 촬영을 하는 가운데 한명의 독단적인 기자재 점유로 인해 결국 두 학생 모두 촬영을 종료하지 못하였다.
	종합 평가 및 차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 수업의 체계적인 커리큘럼 재고 필요. · 모둠작업으로 기자재 사용 시에는 동등한 배분작업 필요.

[4] 촬영-나는 카메라다

I. 사업내용

기획/구성	촬영기초(다큐) 〈나는 카메라다〉	6/11~6/16
-------	-----------------------	-----------

● 교육 목표

- 영상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가장 접근하기 쉬운 ‘나’라는 소재를 가지고 기초적인 영상 촬영, 편집기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나와 타자와의 관계, 카메라를 통해 바라보는 주관적 또는 객관적인 영상을 배워나감으로써 카메라, 나, 타자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내가 보는 나’, ‘카메라를 통해보는 나’, ‘타인의 눈을 통해보는 나’를 비교해가며 ‘나’를 주관적·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대해 각자의 작품을 가지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 교육 대상

- 동영상 촬영 및 제작의 기초 단계로 영상분야에 첫발을 내딛으려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강사 : 경희령(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팀)

● 교육 내용

- 기초 촬영을 위한 영상문법 익히기
- 전반적 영상제작 과정 이해하기
- 영상물에 대한 비평과 감상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6월	촬영기초-다큐 〈나는 카메라다〉			
평 가 항 목 별 점 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7
			교육만족도	100
			교육양	97
			내용일치도	97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100
			교수방법	100
			시간효율성	97
			친절성	100
			교자료 적합성	100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100
			센터지원	100
			수강생 수	60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100
관심도증가			100	
센터신뢰도 증가			100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6

● 운영자 평가

6월	촬영기초-다큐 〈나는 카메라다〉	
준비 및 진행 과정 별 평가	준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강좌가 1달 여 정도 공백이 있던 상황이라 이런저런 교육에 대한 문의들은 많았으나 막상 강좌를 개설하니 신청자 수가 많지 않았다. 정기적인 홍보방식(메일링, 뉴스레터, 나이스미추 등)대로 강좌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향인 듯하다. · 촬영 기초부터 활용까지 강좌를 개설할 때마다 촬영 기초강좌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촬영 기초강좌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판단 하에 5일 이상의 긴 일정과 수강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 2~3일 만에 간단하게 들을 수 있는 기초 강좌로 세팅하였다. 세부 실습 내용을 극과 다큐로 나누어 2개의 촬영기초 강좌를 세팅하였고, 6월에는 그 중 다큐를 위한 촬영 기초강좌를 개설하였다.
	진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원은 5명이었고 촬영 유경험자는 없었다. 교육 시작 당일 참여자 2명이 강좌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연락이 있어 실 수강인원은 3명이었다. · 수업 인원이 적다보니 짝을 지어 하는 실습내용이 약간 변경되었고, 교육일정도 조금씩 수정되는 등 유동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 교육이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을 잃지 않도록 같은 주제로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술 강좌인 만큼 카메라를 많이 만져보고 다루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제를 부여하여 작품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 이 강좌를 통해 영상제작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한 수강생의 긍정적 평가를 포함하여 교육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나, 참여자 수 항목에 대해서 점수가 확연히 낮았는데 이는 실제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 수가 너무 적어 실습내용이 변경된 것에 대한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종합 평가 및 차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영역의 부재가 이유로 진행되는 강좌에 대한 신청자 축소로 이어지는 것 같다. 정규강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필요하다. · 과제부여에 대해 참여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듯하여 가급적 센터를 벗어나는 교육과제는 축소하고 수업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5] 촬영-촬영기초(극) 1분영화촬영

I. 사업내용

기획/구성	촬영기초(극) 〈1분 영화촬영〉	8/6~8/8
-------	----------------------	---------

● 교육 목표

- 영상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가장 친밀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소재로 기초적인 영상 촬영기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상문법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이미지와 영상언어의 이해를 돕고, 1분 영화촬영 실습을 통해 연출촬영에 대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대상

- 연출 촬영 및 제작의 기초 단계로 영상분야에 첫발을 내딛으려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강사 : 경희령(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 교육팀)

● 교육 내용

- 기초 촬영을 위한 영상문법 익히기
- 전반적 영상제작 과정 이해하기
- 영상물에 대한 비평과 감상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2월		촬영기초(극) 〈1분영화촬영〉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90
			교육만족도	95
			교육양	85
			내용일치도	90

평가항목별 점수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5
			교수방법	95
			시간효율성	95
			친절성	95
			교자료 적합성	100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100
			센터지원	90
			수강생 수	75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90
			관심도증가	95
			센터신뢰도 증가	90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5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0

● 운영자 평가

2월	촬영기초(극) 〈1분영화촬영〉	
준비 및 진행 과정 별 평가	준비 과정	· 영상촬영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설을 하였고 기대이상으로 수강 정원의 과반수정도가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으나 두 명이 수업전날 취소를 하게 되어 결국 3명의 수강인원으로 진행을 해야 했다.
	진행 과정	· 영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직접 카메라를 작동하여 비록 1분이지만 작은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촬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흥미를 보였다. · 적은 인원내 결석하는 학생이 생겨 수업분위기에 조금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종합 평가 및 차후 계획	· 영상을 제작 수요를 잘 선정해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

[6] 촬영-촬영중급(다큐) 인터뷰다큐촬영

I. 사업내용

기획/구성	촬영중급(다큐) 〈인터뷰다큐촬영〉	6/24~6/26
-------	-----------------------	-----------

● 교육 목표

- 카메라를 조작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들을 익힌다.
-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학습하여 촬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촬영 실습을 통하여 빛을 통제하고 화면을 구성하는 등의 계획적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원하는 영상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대상 : 초보부터 촬영 경험자.

(동영상 카메라를 만져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사람, 카메라를 조작해본 경험은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하나의 작품으로 촬영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 자신의 촬영 솜씨를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사람, 다큐멘터리 촬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

● 강사 : 태준식

○ 독립다큐멘터리스트. 다큐멘터리로 소통하고, 그리고 생존하는 사람.

○ 작품목록

- 〈인간의 시간〉
- 〈우리 모두가 구분주다〉
- 〈필승 ver 2.0 연영석〉

● 교육 내용

- 촬영의 기초, 카메라의 구조와 작동법
- 영상언어의 이해와 실습
- 좋은 촬영이란 무엇인가?
- 빛을 통제하고 화면을 구성하는 몇 가지 방법
- 인터뷰 촬영의 실제

● 실습내용

- 실습1 : 5컷 촬영(2강)
- 실습2 : 수동매뉴얼을 이용한 촬영(3강)
- 실습3 : 공간 촬영(5,6강)
- 실습4 : 조명을 활용한 인터뷰 촬영(7강)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6월	인터뷰다큐촬영 〈인터뷰다큐 끝내기!〉			
평 가 항 목 별 점 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5
			교육만족도	90
			교육양	68
			내용일치도	80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5
			교수방법	88
			시간효율성	83
			친절성	100
			교자료 적합성	90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88
			센터지원	80
			수강생 수	98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90
관심도증가			95	
센터신뢰도 증가			98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89

● 운영자 평가

6월	인터뷰다큐촬영 〈인터뷰다큐 끝내기!〉	
준비 및 진행 과정 별 평가	준비 과정	· 교육 기획의 경우 〈촬영중급〉이라는 컨셉만 제시되었을 뿐, 촬영기술교육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내용을 설정하지 못하였다. 〈중급〉이라는 컨셉을 지우고 초보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촬영원리와 실습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접근하였다.
	진행 과정	· 촬영원리를 배울 수 있는 기초적인 이론을 다양한 실습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체적인 현장을 방문, 인터뷰 촬영 활동을 함으로써 촬영원리의 다양한 이론과 방법들 그리고 인터뷰의 기술들을 총체적으로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 실내에서의 인터뷰를 위한 조명 셋팅 방법과 빛의 조절 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종합 평가 및 차후 계획	· 촬영기초와 결합된 형태의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해서 배치. · 촬영에 대한 원리, 촬영관련 장비(카메라, 오디오, 조명) 기술 특강, 프로덕션 중심의 촬영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 · 교육과정에서 원활한 촬영 과제수행을 위해 센터 기자재 활용과 이용규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

[7] 촬영-촬영기술특강

I. 사업내용

기획/구성	촬영기술특강 〈조명, 동시녹음 한 번에 잡아라〉	11/26~12/5
-------	-------------------------------	------------

● 교육 목표

- 상미학의 기본요소이기도한 빛과 음향은 촬영기술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도하다. 영화에서 빛과 음향이 차지하는 부분 등, 빛과 음향의 중요성에 대해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 초보자를 위한 3.0 조명의 기초적 활용을 다룬다.
- 영화에서 단지 대사나 음악이 들리게 하는 수준이 아닌 좋은 소리를 찾고 녹음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하여 습득해 나가도록 한다.

- 교육 대상 : 조명에 대한 기본원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 영화 제작 시 동시녹음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 그리고 영상 편집 후 후반작업에 쓰이는 소리 녹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 **강사 :**

조명 : 연창흠

동시녹음: 노현진

녹색의자

집으로 The Way Home (2002) 연출. 이정향

영어완전정복

광복절 특사 No. 815 (2002) 연출. 김상진

여자는 남자의미래다

지구를 지켜라 Save the Green Planet (2003) 연출. 장준화

역도산

튜브 Tube (2003) 연출. 백운학

괴물

살인의 추억 Memory of Murder (2003) 연출. 봉준호

시간

장화홍련 A Tale of Two Sisters (2003) 연출. 김지운

달의궁전

폰 Phone (2002) 연출. 안병기

댄서의순정

챔피언 Champion (2002) 연출. 박경택

리턴

결혼은 미친 짓이다 Marriage Is a Crazy Thing (2002) 연출. 유하

달콤한나의도시

연애소설 Lovers'Concerto (2002) 연출. 이한

싱글즈 Singles (2003) 연출. 권철인

똥개 Mutt Boy (2003) 연출. 박경택

영어완전정복 Please Teach Me English (2003) 연출. 김성수

말죽거리 잔혹사 Spirit of Jeet Keun Do (2004) 연출. 유하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Woman Is the Future Of Man (2004) 연출. 홍상수

가족 Family (2004) 연출. 이정철

● **교육 내용**

- 조명장비의 이해
- 인물을 위한 표준조명세팅 및 사용
- 영상미학적 접근의 조명 사용 예
- 기초 음향 이론
-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음향장비 사용하기 (마이크와 녹음기)
- 영화음향의 작업 순서
- 영화 제작에서의 동시녹음과 후반작업을 위해 필요한 소리 녹음하기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11월	촬영기술특강 〈조명, 동시녹음 한 번에 잡아라!〉			
평가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90
			교육만족도	90
			교육양	93
			내용일치도	97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7
			교수방법	93
			시간효율성	90
			친절성	100
			교자료 적합성	90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0
			센터지원	93
			수강생 수	77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87
관심도증가			93	
센터신뢰도 증가			97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67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0

● 운영자 평가

11월	촬영기술특강 <조명, 동시녹음 한 번에 잡아라!>	
준 비 및 진 행 과 정 별 평 가	준비 과정	· 조명수업과 동시녹음수업을 따로 분리하여 진행하려 하였으나 개설하였다가 폐강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두 수업을 통합하여 기술 특강으로 수강료를 낮춰 개설하였다.
	진행 과정	· 촬영수업이 끝나고 의례 개설 요구가 끊이지 않는 강좌이기도 하다. 그러나 좋은 커리큘럼과 낮은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이 들지 않아 마지막까지 홍보를 해야만 했다. · 수강일이 대학교의 기말고사와 겹쳐 결석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하여 수강 날짜 선정의 중요성 또한 알게 되었다. · 조명 강사의 경우 영화와 드라마의 조명 경력을 인정받는 실력자였으나 교수법의 부족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여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 조명, 동시녹음 수업은 수강생 모두가 직접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수업이어서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종합 평가 및 차후 계획	· 강사 선정에 있어 실무 경력과 함께 강의 경력의 중요성 확인. · 조명, 동시녹음은 수요를 고려하여 무료특강 운영 재고.

[8] 포스트프로덕션(편집, 효과)-영상편집기초_프리미어CS3

I. 사업내용

포스트프로덕션-편집, 효과	영상편집기초 〈프리미어 프로CS3〉	7/3~7/17
-------------------	------------------------	----------

● 교육 목표

- 개인의 이야기가 사회화되는 과정과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영상제작을 이해할 수 있다.
- 영상이미지, 소리, 텍스트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다.

- 교육 대상 : 디지털비디오카메라로 작업한 영상물을 직접 편집해보고 싶은 사람, 영상제작 경험이 있으나 편집경험이 없는 사람.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 보았으나 체계적으로 인지되어 있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강사 : 황승용

○ 작품 제작

- 04-06 F/W SEOUL COLLECTION WEEK 영상제작
- 05-06 F/W SEOUL COLLECTION WEEK 영상제작
- 2005년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문화컨텐츠공모전 공모작 ‘엘리베이터’
- 2007년 수도권산 박물관 다큐멘터리 ‘이광한의 일기’ 애니메이션2편‘ 제작
- 2008년 K-T1국산제트기 제작 다큐멘터리 제작

○ 미디어교육 관련

- 2007년 인천 양촌중학교 방송반 특강
- 2007년 KBI 미디어교육교사 양성과정수료
- 2008년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오춘프로젝트 보조교사 참여
- 2008년 용일초등학교 미디어교육 예술강사
- 2008~9년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실버미디어교육 강사

● 교육 내용

- 디지털 영상 편집에 대한 이해
- 영상 언어의 마술- 편집
- 영상 제작의 시작- 기획
- 편집의 완성- 텍스트와 사운드
- 종편 및 시사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3월	영상편집기초 〈프리미어 프로 CS3〉			
평가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5
			교육만족도	90
			교육양	73
			내용일치도	83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3
			교수방법	90
			시간효율성	88
			친절성	90
			교자료 적합성	90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80
			센터지원	78
			수강생 수	88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90
관심도증가			90	
센터신뢰도 증가			78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75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85

● 운영자 평가

6월	영상편집기초 〈프리미어 프로 CS3〉	
준비 및 진행 과정 별 평가	준비 과정	· 프리미어 프로 편집툴을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교육 대상의 경우 편집프로그램을 써보지 않은 초보부터 프리미어 프로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사람들까지로 확장했다.
	진행 과정	· 첫 시간은 프리미어 기초인 만큼 인터페이스 설명과 툴의 이해 등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해가 쉽도록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편집의 단위인 shot, scene, sequence등의 개념과 함께 편집된 영상의 의미들을 알 수 있었다. · 실습 위주의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설명들이 늘어나 정작 툴의 사용이나 편집의 기법들을 알고자 하는 수강생들에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종합 평가 및 차후 계획	· 편집 원리와 이론, 실습을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생산이 절실히 요구됨. · 편집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재배치해야 함.

[9] 포스트프로덕션(편집, 효과) - 에프터이펙트 초급

I. 사업내용

포스트프로덕션 - 편집, 효과	에프터이펙트 초급 〈텍스트의 즐거움〉	7/21~7/30
---------------------	-------------------------	-----------

● 교육 목표

- 영상 제작과 후반작업을 통해 영상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 이미지와 텍스트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배울 수 있다.
- AfterEffect의 다양한 표현 효과들을 배움으로써 사고능력 그리고 표현능력의 확장에 대해 배울 수 있다.

- 교육 대상 : 사진 또는 영상제작을 경험해보신 분 또는 경험이 전무하신 분이더라도 After Effect에서 텍스트(자막)를 이용하여 다양한 효과와 함께 다이내믹한 영상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 강사 : 최미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팀)

● 교육 내용

- 동영상 제작과 후반작업에 대한 이해
- 이미지와 텍스트와의 관계
- AfterEffect CS3의 기본 기능 및 텍스트 효과
- 영상편지, 비주얼 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등의 최종 영상물 완성 및 비평가 감상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7월	에프터이팩트 초급 〈텍스트의 즐거움〉			
평가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2
			교육만족도	92
			교육양	90
			내용일치도	94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4
			교수방법	94
			시간효율성	92
			친절성	96
			교자료 적합성	92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0
			센터지원	94
			수강생 수	94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92
관심도증가			94	
센터신뢰도 증가			94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3

● 운영자 평가

7월	에프터이팩트 초급 (텍스트의 즐거움)	
준비 및 진행 과정 별 평가	준비 과정	· 촬영과 편집위주로 편성된 영상미디어센터 커리큘럼에서 에프터이팩트와 같은 효과 위주의 수업에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보여 온 자막을 이용한다면 반응이 좋을 것 같아 자막 위주의 수업을 구성해 보았다.
	진행 과정	· 두 명의 이주노동자와 대학생 그리고 직장인등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수강을 하였고 모두들 조금씩은 에프터이팩트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어 조금은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었다. · 이주노동자들은 한국말 구사력이 뛰어난 분들이었으나 한국의 대학생들과 같이 배우는 과정에서 조금의 격차를 보여 레벨조정에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 5강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지막 수업시간에는 결과물을 제출하게 하여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직접 실습해보고 응용했다는 것에 만족하기도 하였다.
	종합 평가 및 차후 계획	· 이번 수업으로 인하여 효과위주의 에프터이팩트 프로그램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앞으로도 중급 또는 주제별로 응용하여 강좌 개설에 적극 활용 할 것.

[10] 포스트프로덕션(편집, 효과) - 영상편집 중급

I. 사업내용

포스트프로덕션 -편집, 효과	영상편집 중급 (프리미어와 에프터이팩트가 만났을 때)	12/2~12/12
--------------------	----------------------------------	------------

● 교육 목표

- 영상 제작과 후반작업을 통해 영상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 모션그래픽 제작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After Effects와 영상편집 소프트웨어 Premiere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여 간단한 동영상 편집은 물론 모션타이틀제작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 아울러 After Effects의 단점인 컷 편집기능을 Premiere와의 연동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을 발견한다.

- 교육 대상 : 중급레벨의 Photoshop 사용능력과 기초적인 Premiere 조작이 가능하신 분,프리미어와 에프터이팩트 연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 영상편집과 효과에 관심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 강사 : 한요한

2005.5 - 'Art Bash' Invited Artist G2 Gallery, Chicago, IL
 2007.4 - 'http://artonline.home', 큐레이터 Media+Space,서울
 일본 동경대 교수 모리 요시타카의 개인전
 2007. 5 - 'Repetition', 전시 Media+Space, 서울

2007. 5 - 'Omnipravity', 전시 Media+Space, 서울
 2007. 5 - 'Body and Nobody', 전시 Media+Space, 서울
 2007. 7-8 - SFX 2007 Seoul, 큐레이터 토탈미술과, 대안공간루프, 송원갤러리
 2007. 10 - '보이는 소리전, 초청전시 대안공간루프, 서울
 2007. 12 - '아이', 전시 Media+Space, 서울
 2008.4 - 'Universal Letter', 전시 Media+Space, 서울
 2008.5 - '현대미술&영상설치전', 전시, 대구문화예술회관
 2008.5 - 'Media Art Festival in ECC', 수상, 서울 이화여대
 2008.7 - 'Art at Home', 전시, 서울 두산아트센터
 2008.10 - '아주사소한전", 전시, 서울상상마당
 2008.10 - '식', 전시, 서울 Media+Space
 2009. 6 - '유토피아관리전', 서울갤러리175

● 교육 내용

- 동영상 제작과 후반작업에 대한 이해
- 프리미어와 에프터이펙트 각각의 프로그램 사용법 및 활용법
- 프리미어와 에프터이펙트의 연동
- 영상타이틀, 모션그래픽스, 영상작품 등의 최종 영상물 완성 및 비평과 감상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6월	영상편집 중급 〈프리미어와 에프터이팩트가 만났을 때〉			
평 가 항 목 별 점 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95
			교육만족도	100
			교육양	100
			내용일치도	100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100
			교수방법	100
			시간효율성	100
			친절성	100
			교자료 적합성	100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100
			센터지원	100
			수강생 수	100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100
관심도증가			100	
센터신뢰도 증가			100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9

● 운영자 평가

6월	영상편집 중급 〈프리미어와 에프터이팩트가 만났을 때〉	
준 비 및 진 행 과 정 별 평 가	준비 과정	· 프리미어 중급과정을 개설할 목적이었으나 Adobe CS3의 장점인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연동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의 필요성으로 프리미어와 에프터이팩트의 연동 커리큘럼을 준비하였다.
	진행 과정	· 수강생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모두가 프리미어는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중급이상의 수강생들이었고 프리미어와 에프터이팩트의 연동 보다는 오히려 에프터이팩트 자체의 활용 욕구가 더욱 많음을 알게 되었다. · 에프터이팩트의 기초과정부터 진행하게 되었고 다행히 모두들 수업을 흥미로워 하였다. · 교육 결과물로 효과를 이용하여 간단한 영화타이틀 작업을 하는 걸로 하였으나 모두들 직장인이어서 따로 과제할 시간이 되질 않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다.
	종합 평가 및 차후 계획	· 프리미어 프로그램 보다 오히려 에프터이팩트와 같은 화려한 효과를 주는 부분에 많은 관심을 보임. 앞으로 강좌개설시 에프터이팩트 초· 중급과정 개설 요

[11] 포스트프로덕션(편집, 효과) - 사운드효과

I. 사업내용

포스트프로덕션 -편집, 효과	사운드효과 (사운드의펙트? 사운드퍼펙트!)	6/23~6/25
--------------------	----------------------------	-----------

● 교육 목표

- 사운드 포맷의 이해와 영상포맷별 사운드의 차이를 파악한다.
- 사운드 프로그램인 '사운드 부스'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 사운드 이펙트의 원리 및 사용 예를 통해 사운드의 응용력을 넓혀간다.

- 교육 대상 : 영상편집 후 사운드 효과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영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한다.

- 강사 : 정승호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대안미디어팀)

● 교육 내용

- 사운드 기본 지식습득 및 사운드 편집프로그램의 이해
- 사운드의펙트 효과 및 사운드 편집의 이해
- 소리 녹음 후, 사운드효과를 주어 변형시키기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8월	사운드효과 〈사운드가펙트? 사운드퍼펙트!〉			
평 가 항 목 별 점 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0
			교육만족도	93
			교육양	80
			내용일치도	93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3
			교수방법	90
			시간효율성	93
			친절성	100
			교자료 적합성	100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7
			센터지원	97
			수강생 수	100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100
관심도증가			100	
센터신뢰도 증가			93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4

● 운영자 평가

8월	사운드효과 〈사운드가펙트? 사운드퍼펙트!〉	
	준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녹음’ 강좌에서 분리되어 나온 강좌로 사운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수업의 필요성으로 인해 개설하게 되었다. · 하루에 3시간씩 이틀분량의 커리큘럼을 준비하였는데 기대이상으로 수강인원이 모여 사운드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사운드 수업준비 시 수강 신청자들의 수준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어 어도비사의 사운드부스의 사용법과 이펙트 적용방법 그리고 사운드 포맷 형식 등으로 기초적인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준비 및 진행 과정 별 평가	진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날은 이론위주의 수업이 진행되었고 둘째 날은 실습위주의 수업을 실시하였다. 음향기본지식에 대한 이론수업은 대체적으로 어려워하거나 힘들어 하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는 수강하러 들어왔다가 의도와 맞지 않아 다시 돌아가는 일도 발생하였다. · 둘째 날 음향효과와 편집 수업에서는 교육생 대부분이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인 수업 태도를 보였고 영상(10초 배너)주고 사운드 입히는 교육과정에서는 모두들 높은 집중도를 보이며 성실히 임하였다. · 교육생 및 교사는 총 6시간으로 구성된 사운드효과 수업에 대해 교육시간의 부족을 토로하였고, 사운드 프로그램을 처음 다루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더욱더 시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전문기자재장비 부족과 오디오카드가 부재하여 (콘텐서 마이크를 이용한)전문적 레코딩이 불가하였다. 직접 레코딩을 하여 편집하는 실습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기자재 부족으로 실습을 하지 못하였다. · 멀티채널 믹싱을 위하여 프리미어 프로 CS3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하였으나 프리미어 프로 CS3를 잘 못 다루는 교육생이 있어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종합 평가 및 차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운드 효과 수업은 프리미어 프로 CS3 사용가능자와 기초적인 영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 교육시간을 기존의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려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직접 녹음해보고 변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커리큘럼을 추가 · 조정할 계획이다.

[12] 포스트프로덕션(편집, 효과) - DVD만들기

I. 사업내용

포스트프로덕션 -편집, 효과	DVD만들기 〈나만의 DVD만들기〉	8/20~8/22
--------------------	------------------------	-----------

● 교육 목표

- 영상 저장매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전문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DVD 오소링 과정을 일반인에게 교육함으로써 자신만의 영화 DVD 만들기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교육 대상

영상물을 만들어 놓고 별도의 저장매체 없이 방치해 두고 있는 사람,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자기만의 DVD로 만들어 영화처럼 DVD플레이어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 강사 : 한요한

2005.5 - 'Art Bash' Invited Artist G2 Gallery, Chicago, IL

2007.4 - 'http://artonline.home', 큐레이터 Media+Space, 서울

일본 동경대 교수 모리 요시타카의 개인전

2007. 5 - 'Repetition', 전시 Media+Space, 서울

2007. 5 - 'Omnipravity', 전시 Media+Space, 서울

2007. 5 - 'Body and Nobody', 전시 Media+Space, 서울

2007. 7-8 - SFX 2007 Seoul, 큐레이터 토탈미술과, 대안공간루프,송원갤러리

2007. 10 - '보이는 소리전, 초청전시 대안공간루프, 서울

2007. 12 - '아이', 전시 Media+Space, 서울

2008.4 - 'Universal Letter', 전시 Media+Space, 서울

2008.5 - '현대미술&영상설치전', 전시, 대구문화예술회관

2008.5 - 'Media Art Festival in ECC', 수상, 서울 이화여대

2008.7 - 'Art at Home', 전시, 서울 두산아트센터

2008.10 - '아주사소한전',전시, 서울상상마당

2008.10 - '식',전시, 서울 Media+Space

2009. 6 - '유토피아관리전', 서울갤러리175

● 교육 내용

- 영상포맷의 이해
- Adobe Premiere와 Encore의 연동 및 사용방법
- 간단한 동영상편집 및 DVD 타이틀 구성방법 익히기
- 고급 DVD 테크닉(링크, 모션메뉴 등) 익히기
- 각자 개성 있는 DVD제작하기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8월	DVD만들기 (나만의 DVD만들기)			
평가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77
			교육만족도	80
			교육양	87
			내용일치도	77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83
			교수방법	83
			시간효율성	83
			친절성	90
			교자료 적합성	93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80
			센터지원	93
			수강생 수	97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77
관심도증가			90	
센터신뢰도 증가			90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67	
평가총점				85

● 운영자 평가

6월	DVD만들기 〈나만의 DVD만들기〉	
준 비 및 진 행 과 정 별 평 가	준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들의 영상 제작이 늘어나면서 DVD오소링 작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수요도 꾸준히 늘어 적어도 한 해에 한 번의 DVD제작 강좌를 넣기로 하였다. · 대학생에서부터 데이터 아카이빙이 필요한 도서관 관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였다.
	진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코르DVD와 프리미어 심지어 에프터이팩트와의 연동을 이용해 보다 편리한 DVD제작 과정을 알 수 있었다. · 수강생들 중에는 DVD 오소링할 아카이빙 자료들을 직접 가져와 DVD제작 수업에 적극 활용하였다. 그러나 DVD로 오소링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오류가 발생하여 DVD제작에 모두가 실패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 맥에서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 현 시스템의 불안정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결국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수업은 종료가 되었다.
	종합 평가 및 차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시스템 및 Adobe CS3 소프트웨어 점검 필요

[13] 포스트프로덕션(편집, 효과) - DVD만들기

I. 사업내용

제작 통합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2/26~2/28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12/1~12/

● 교육 목표

- 영상언어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미지의 배치와 구성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편집의 원리를 이해하고 편집 기능을 익힐 수 있다.
- 영상 이미지를 배치하여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과 사고를 표현할 수 있다.

● 교육 대상

영상에 관심 있으시거나 처음 접해보시는 분, 자신의 글과 영상으로 작품을 만들고 싶으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 강사 : 경희령(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팀) | 한혜경

- 2004.12 35mm 〈아이스크림〉 연출 / 실습작품
- 2005.12 6mm 〈그 녀석〉 연출 / 실습작품
- 2006.10 6mm 〈the story〉 연출 / 실습작품
- 2006.10 6mm 〈친구여〉 연출 / 실습작품
- 2007.04 6mm 〈명〉 연출 / 실습작품
- 2007.05 부활절 찬양 예배 칸타타 〈십자가상의 칠언〉 무대연출/소망교회 글로리아 성가대
- 2007.06 6mm 〈반응하다〉 연출 / 실습작품
- 2007.09 6mm 〈1-24〉 실험영화 연출 : 24개의 영상 작품 / 실습작품
- 2007.10 6mm 〈white canvas〉 연출 / 실습작품
- 2007.11 6mm 〈the story〉 연출 / 여의도 공공미술 전시
- 2007.12 HDV 〈amore〉 연출 / 실습작품
- 2008.0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강사 (창의적 재량활동 출강) 봉림중학교
- 2008.07 16mm 〈신기루〉 상영 / 이탈리아 제14회 sangio video festival 경쟁부문
- 2008.08 35mm 〈22일〉 스크립터/오페르 영화사
- 2008.10 한혜경 이형석 상영전 (소통과 경계)/inD 상영관
- 2009.0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강사 (창의적 재량활동 출강)/방화중학교
- 2009.0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강사 (계발활동 출강)/도봉중학교

● 교육 내용

- 영상언어의 요소(강의)

- 이미지의 배치와 구성의 관계
- 프리미어 프로CS3의 기본 기능
- 영상에세이 만들기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2월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74
		교육만족도	82
		교육양	74
		내용일치도	94

평가항목별 점수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88
			교수방법	92
			시간효율성	92
			친절성	100
			교자료 적합성	94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78
			센터지원	86
			수강생 수	98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88
			관심도증가	94
			센터신뢰도 증가	92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0

12월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평 가 항 목 별 점 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70
			교육만족도	73
			교육양	63
			내용일치도	68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73
			교수방법	75
			시간효율성	68
			친절성	88
			교자료 적합성	90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73
			센터지원	85
			수강생 수	85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78
			관심도증가	80
센터신뢰도 증가			80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79

● 운영자 평가

2월	사진과 프리미어의 만남, 〈두근두근 포토에세이〉	
준비 및 진행 과정 별 평가	준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 포토에세이와 관련된 수강생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개인 영상작업 시간을 매 수업 끝나고 1시간씩 제공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조정하였다. · 교육시간과 교육에 대한 공간 및 기자재지원 정도에 비례하여 수강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강의시간을 6시간이상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기존에 2일 6시간으로 진행되던 교육을 3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 모집과정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한 낮 강좌에 대한 욕구들이 발견되었다.
	진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들의 연령분포나 컴퓨터 사용 능력 등에 따라 교육에 대한 이해 정도를 고려하여 수강생을 배치하였다. · 전체 수업 내용 중 영상언어의 이해 및 편집원리 이해에 대한 이론 강의의 비중을 줄이고 프리미어 활용과 개인 작업 비중을 늘여서 배치하였다. · 수업시간에 제시한 교육자료 중 빔프로젝터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자료가 있어 교육의 맥락이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멀리서도 잘 볼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해야 한다. · 교육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강생들에게 포토에세이 구성안을 과제로 제시하였으나 잘 수행되지 못하였다. 수업시간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정해진 시간 안에 작품을 완성하기 어려워 교육양에 대한 수강생들의 평가가 낮은 것으로 추측된다. · 수강생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작년에 이어 교육양의 부분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멀티교육실B를 개방하여 개인 작업 시간을 4~5시간 더 제공했음에도 별도 작업시간에 오지 않거나 과제수행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작품제작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 평가 및 차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들이 수업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연달아 3일 배치하는 방식에서 1일/2일을 나누어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 · 연간 포토에세이 일정 중 1회 정도를 주부를 대상으로 한 평일 낮 시간대로 배치 · 교육자료 사전검토 및 대체자료 마련

[14] 제작통합-동영상제작기초

I. 사업내용

제작 통합	동영상제작기초, 〈네모난 눈으로 담는 영상이야기〉	4/10~5/20
	동영상제작기초, 〈네모난 눈으로 담는 영상이야기〉	10/28~11/27

● 교육 목표

- 영상으로 표현하여 소통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실제 생활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촬영 및 편집에 대한 소소한 경험들은 있지만 계획된 과정으로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상제작의 기획과 시사 및 소통되는 과정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영상물에 대한 감상과 비평과정을 통해 다양한 영상소통문화의 필요성과 즐거움을 알 수 있게 하고 창의적 영상제작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게 한다.

● 교육 대상

영상제작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경험이 없는 초보자. 촬영 혹은 편집 경험은 있었으나 기획과 구성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계획적인 작업으로 영상제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 강사 : 문정현

2000년 11월 CAPE TOWN INTERNATIONAL FILM SCHOOL

2002년 3월 성균관대학교 건축학, 영상학과 졸업

2003년 1월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집단 푸른영상

2003년 8월 다큐멘터리 “고향에 가고 싶다” 연출

2005년 5월 다큐멘터리 “슬로브하트의 딸들” 연출

(인권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광주 국제영화제 등)

2006년 4월 다큐멘터리 “아프리카의 미혼모” 연출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 2008년 1월 다큐멘터리 “할매꽃” 연출

(인권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운과상, 서울독립영화제-2007년 올해의 독립 영화,

베를린 국제영화제 등)

● 교육 내용

- 동영상제작과정과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해
- 기획과 구성에 대한 이해와 실습
- 촬영의 원리와 편집의 원리 이해
- 디지털 비디오카메라와 프리미어 프로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실습
- 다양한 영상물에 대한 비평과 감상

○ 교육 세부 내용

- 동영상제작과정의 이해
- 기획안, 구성안 작성법 이해하기
- 촬영의 기초 원리와 실제
- 영상작품 제작 실습

○ 실습내용

- 촬영 기초 실습 : 각자 주제를 정해 촬영 후 결과물 모니터링
- 영상작품 제작 실습 : 각자 기획한 영상을 구성안대로 촬영, 작품 편집 후 시사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4월		동영상제작기초 〈네모난 눈으로 담은 영상이야기〉		
평 가 항 목 별 점 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90
			교육만족도	93
			교육양	90
			내용일치도	93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7
			교수방법	98
			시간효율성	92
			친절성	100
			교자료 적합성	100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2
			센터지원	90
			수강생 수	88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95
			관심도증가	100
			센터신뢰도 증가	97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5

10월	동영상제작기초 (네모난 눈으로 담는 영상이야기)			
평가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0
			교육만족도	95
			교육양	100
			내용일치도	93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100
			교수방법	100
			시간효율성	95
			친절성	100
			교자료 적합성	100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100
			센터지원	100
			수강생 수	100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100
관심도증가			100	
센터신뢰도 증가			100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75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6

● 운영자 평가

4/10월	동영상제작기초, 〈네모난 눈으로 담는 영상이야기〉	
	준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때에 비해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가 유독 많았던 강좌였다. 대학생 중에는 영화계 진출 목적과 졸업 작품을 위해 참여하게 된 친구들도 있었고 미디어의 필요성을 직시하시고 참여한 60대의 목사님도 계셨다. · 수강인원 모두 강화를 듣는 목적이 뚜렷하여 준비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참여 의식을 보여주었다.

준비 및 진행 과정 별 평가	진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생들은 목적의식과 함께 최종결과물에 대한 높은 기대로 출석률은 대부분 우수한 편이었다. · 촬영 수업인 만큼 기자재 대여가 빈번히 일어나는 수업이었다. 수업을 듣는 8명 모두 카메라대여를 필요로 하였고 총 5대를 교육대여 장비로 준비해 둔 미디어 교육팀은 대안책으로 두 명당 한 대의 카메라를 대여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다.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해 카메라 한 대를 예비로 준비해 두었다. · 2인1조로 이루어진 기자재 대여 체계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 비교적 출·반납이 잘 지켜진 상태였으나 교육이 끝나갈 즈음에는 반납이 늦어져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 2인1조 기자재 대여 방식으로 인해 필요할 때 자유롭게 대여할 수 없어 약간의 불편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 수업이 있는 날(매주 수,금) 수업 전 2시간 정도를 강의실 개방 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수강생 대부분이 대학생들이나 직장인으로 평일에는 사용빈도가 현저히 낮았고 주로 토요일 강의실 개방 요청이 많았었다. · 교육을 끝내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에서 상영회를 실시하였고 몇 명은 친구들과 가족을 초대해 교감을 나누고 서로에게 독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종합 평가 및 차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실 개방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수업 전 2시간 개방은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추가적으로 토요일 오후 1~4시 강의실 개방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5] 제작통합-단편영화제작

I. 사업내용

제작 통합	단편영화제작 〈단편영화만들기 프로젝트〉	9/2~10/7
-------	--------------------------	----------

● 교육 목표

- 〈단편영화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개인들의 이야기를 영상언어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고 영화를 만드는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 공동작품 제작 및 상영을 통해 영상제작 욕구를 발현할 수 있다.
- 영화제작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의 영상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기여한다.

● 교육 대상

영상제작에 경험이 없지만 단편영화제작의 경험을 쌓고 싶으신 분, 영화인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 강사 : 이상우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전 영화화 장려상“제임과 마린”

신승수 감독 조재현 주연 “얼굴” 연출부

Berkeley Film Archive (버클리 필름 보관소 인턴)

미국 대학생 영화제 프로그래머

실험영화, 단편 다큐멘터리 10여편 제작/ 감독

한국 학생 영화워크샵 강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국 영화제 (KIMA) 집행 부위원장

디지털 장편영화 “갈 데까지 간다” 제작, 프로듀서, 감독,

각본 U.C Berkeley student Film Festival 안양 영화제 개막작

SBS 스페셜 “보이지 않는 침입자 먼지” 연출

광주 국제 영화제 프로그래머

김기덕 감독 “시간” 촬영부

김기덕 감독 “숨” 연출부

장편 영화 “Tropical Manila” 트로피컬 마닐라 (한국명 : 트로피컬) 87분, HD, 제작, 프로듀서, 감독, 각본

● 교육 내용

- 시나리오 작법, 아이디어 창작법, 시놉시스 작성과정
- 시나리오 창작 및 단편영화분석, 그리고 원컨 원컷 영화촬영
- 본격적인 촬영을 위한 촬영장소 헌팅배우, 스텝 섭외 및 최종회의, 스케줄표 작성,
- 촬영종료 및 편집완료 후 사운드 후반작업
- 후반 작업완료 후 작품시사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9월	단편영화제작 〈단편영화만들기 프로젝트〉			
평가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7
			교육만족도	90
			교육양	83
			내용일치도	87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87
			교수방법	87
			시간효율성	87
			친절성	90
			교자료 적합성	80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7
			센터지원	97
			수강생 수	83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90
관심도증가			97	
센터신뢰도 증가			97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100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0

● 운영자 평가

9월	단편영화제작 〈단편영화만들기 프로젝트〉	
	· 영화전공을 하지 않은 대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많았고 심지어는 청소년들도 수강을 하여 영화를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준비 및 진행 과정 별 평가	준비 과정	· 단편영화감독을 섭외하였으나 자신만의 성향이 짙은 감독이라 오히려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 다양한 학생들의 창의력을 끌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진행 과정	·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어 상영영화 선정부분이나 시나리오 작업에 있어 조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 작품은 영화제 출품을 목적으로 만들기로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좀 더 자극적인 소재를 찾게 되면서 그것을 원하지 않은 학생이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섭외, 촬영, 편집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자체 교육기간은 종료되었으나 감사와 학생들은 끝까지 함께 작업하는 투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 미디어센터에서 제작되는 교육결과물의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장르와 관람할 수 있는 연령층의 제한까지 따르며 완성도 높은 영화를 만들었다.
	종합 평가 및 차후 계획	· 수강생들의 연령층을 고려해 개개인별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며 출품에 목적을 두지 않더라도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로이 표현 할 수 있도록 독려함이 필요함을 느낌.

[16] 특강-대학 특강

I. 사업내용

특강	대학특강 〈방송 프로듀서를 꿈꾸다!〉	11/11, 11/18, 11/26
----	-------------------------	---------------------

● 교육 목표

- 방송기획 · 제작과정과 방송프로듀서란 직업의 본질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 좋은 프로듀서가 되기 위한 필요한 현재와 미래의 덕목을 가름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발상을 강조하여 프로듀서의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성찰에 이해를 돕는다.
- 방송프로듀서가 되기 위한 실전 노하우를 통하여 방송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 교육 대상 :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 재능대 사진영상미디어과 학생들 대상

● 강사 : 김력균 (현 OBS '인사이드' PD)

- 1997. 10 iTV 경인방송 입사
- 1998. 2 iTV '밀착현장르포' 조연출
- 1998. 8 iTV '경찰24시' 조연출
- 1999. 6 iTV '명계남의 위험한 55분' 연출
- 2000. 6 iTV '열전게임챔프' 연출

2000. 12 iTV '르포 인사이드' 연출
 2001. 12 iTV '리얼스토리 실제상황' 연출
 2002. 3 iTV '르포 시대공감' 연출
 2003. 5 iTV '리얼스토리 실제상황' 연출
 2003. 12 iTV '강원래의 미스터리 헌터' 연출
 2004. 7 ~ 12 EBS '다큐미니시리즈 맞수' 연출
 2005. 4 ~ 8 KBS 2TV '인간극장' 연출
 2006. 1 ~ 3 SBS 3.1절 특집 '압록에서 두만까지' 연출
 2006. 6 OBS 경인TV 입사
 2007. 4 ~ OBS '인사이드' 연출

● 교육 내용

- 방송 프로듀서의 세부영역과 역할에 대한 국제적 기준
- 강사의 대표작 '진실을 말하라_의혹의 미산골프장' 감상 및 제작과정의 이해
- 성공적인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덕목인 지식, 꿈, 상상력, 용기, 신뢰.
- 프로듀서와 관련된 취업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히기 위해 지역방송, 연출, 프로듀서 등 세 영역에 대한 전망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대학특강 〈방송 프로듀서를 꿈꾸다!〉
구 두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기획과 제작에 관한 내용들이 흥미로웠다고 함. - 방송영화에 관련된 학과이기는 하나 점수에 맞춰 온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 조금은 소극적인 행동에 학교 관련자들이 우려하기도 하였음.

● 운영자 평가

9월	대학특강 〈방송 프로듀서를 꿈꾸다!〉	
준 비 및 진 행 과 정 별 평 가	준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선정에 많은 고심을 하였고 인천 주안 인근 대학을 중심으로 리서치를 하였다. · 대학특강강사인 만큼 인지도 있는 인사를 섭외하려 하였으나 대학과의 스케줄 문제 그리고 추진하던 운영팀장의 퇴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 올해는 시범적인 출범으로 경인TV 피디를 섭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했다.
	진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방과 및 문예창작과 사진영상학과 학생들은 방송제작에는 많은 관심을 보였으나 특강 주제이기도한 프로듀서를 희망하는 학생이 적어 의외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인하대는 홍보의 부족으로 인천대와 재능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수강하였으나 자발적인 수강으로 참여도는 높았다. · 특강 강사가 직접 기획 제작한 방송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두들 흥미로워 하였고 순간 집중도도 높아지기도 하였다. · 방송제작뿐만 아니라 프로듀서가 갖춰야할 덕목 및 인성에 대한 부분 또한 놓치지 않아 대학생들에게 보다 유익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종합 평가 및 차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특강은 학교의 행정일정대로 맞춰야하는 부분이 있어 미리 기획하고 섭외하여 충분한 홍보와 함께 유익한 정보를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17] 특강-미디어아트 특강

I. 사업내용

특강	미디어아트 특강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미디어아트 특강〉	10/10, 10/24, 11/17
----	-------------------------------------	---------------------

● 교육 목표

- 카메라를 하나의 놀이수단으로 보고 직접 만지고 조작하여 친근함을 갖게 한다.

-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소재들을 이용하여 움직임에 대한 연속성 및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움직임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촬영하여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감으로써 아이들의 적극성을 유도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아이들의 창의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 프레임 by 프레임으로 만들어 지는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될 수 있다.

● **교육 대상** : 미취학아동(5~7세), 초등학교 (1~6학년), 어머니

● **교육 장소** : 늘푸른 어린이 도서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2동)

● **강사** : 한혜경

● **교육 내용**

- 창의력, 상상력의 중요성
- frame에 대한 이해
- 스토리텔링
- 카메라와 친해지기
- 움직임을 표현 할 수 있는 소재 선택하기 (종이접기, 그림그리기, 물체움직이기, 인형놀이, 자신의 몸 움직이기 등등)
- 카메라 조작법 익히기 및 촬영하기
- 상영을 통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결과물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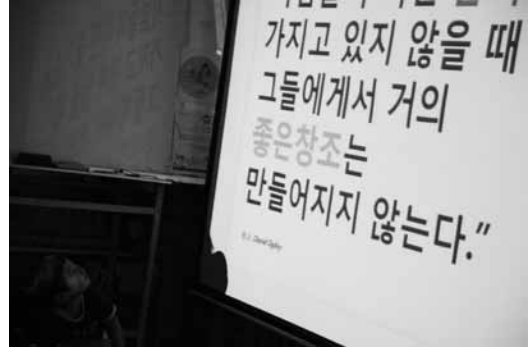
● **교육 운영**

- 움직임 만들기 및 촬영 실습
- 2인 1팀 어머니와 아이가 한 조로 실습
- 소재를 이용해 움직임 만들기 및 촬영의 기초 카메라의 조작 익히기
- 실습내용
 - 실습1 : 카메라 관찰, 만지기 및 촬영 방법 익히기
 - 실습2 : 어떤 소재로 어떤 움직임을 만들지 고민하기
 - 실습3 : 직접 움직임을 만들어 촬영해 보기

● **교육기자재**

※ 디지털 카메라 10대, 트라이포드 2대, 프로젝트 1대, 노트북 1대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미디어아트특강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미디어아트 특강〉
구 두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소품을 가져와 연출하며 카메라로 직접 찍는 작업들이 힘들지만 즐거웠다고 함. - 미리 이야기 거리를 준비하여 그에 맞는 소품을 챙겨온 아이들도 있었지만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소품에 따라 이야기를 만드는 아이들도 있어 아이들의 즉흥성에 모두들 재미있어 함. - 마지막 상영회 날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창의력에, 아이들은 스스로 만든 자신의 작품들에 뿌듯해 하였음. - 이번 교육은 교사, 어머니, 아이들 모두 흡족해한 교육이었고 다음에도 이와 같은 미디어특강을 하자는 제의가 많았음.

10월		미디어아트특강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미디어아트 특강〉
준비 및 진행 과정 별 평가	준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탑모션 애니메이션은 이미 교사가 중학교에서 교육한 것이어서 준비과정에서는 별 무리 없었으나 이러한 교육이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으로 적당한지는 고민되는 문제였다. · 한번 특강으로(4시간) 제작과 상영회가 가능할지 고민이었으나 시간상 상영회는 따로 하자는 도서관장님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진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강 첫날은 아이(미취학아동)와 어머니가 함께하는 수업이었고 미리 소품을 준비할 것을 사전에 공지하였다. 의외로 다양한 소품을 준비해왔고 미취학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 · 아이들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직접 카메라를 사용하여 스탑모션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카메라 조작의 미숙과 함께 연속된 이미지의 이해도가 낮아 보였으나 어머니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 특강 둘째날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구성을 하였고 직접 그림을 그려서 움직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기로 하였으나 이야기를 구성하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 정작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이 부족하였다. ·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조금은 힘들어 하고 지루해 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완성도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어머니와 함께한 미취학 아동들에 비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 특강 마지막 날 상영회는 특강 첫날 참석했던 아이와 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하였고 결과물을 보고 모두들 흡족해 하였다.
	종합 평가 및 차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강 시간을 고려해 보다 짧은 시간 안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의 개발의 필요성

I. 사업내용

● **기록 목표**

- 교육 대상 : 저작권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일반 블로거들, 영상제작자

● 강사 : 오병일

- 1998년 진보네트워크센터 설립 ~ 현재 : 상근활동가로 활동
- 1999년 ~ 현재 :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 2000년 단행본 [디지털은 자유다] (도서출판 이후) 발간
-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정보공유, 대안 미디어 운동 등 다양한 활동

● 교육 내용

- 저작권의 기본 개념
- 공정이용의 개념, 국내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 제한의 내용 (블로거 및 영상제작자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 해외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소개
- 인터넷의 등장과 저작권의 위기
- 저작권 강화로 인한 이용자 권리의 위축
- 전 세계적 저작권 강화의 정치적 맥락
- 저작권의 개정 방향과 정보공유운동에 대한 소개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저작권 특강 〈저작권 완전정복〉
구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엔 법에 관련된 내용들로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움을 느낌 - 막연하기만 했던 저작권법에 관련해 조금은 해갈이 된 듯한 느낌 - 강의가 끝난 후에 각자의 궁금한 사항들 (본인들 상황에 적용되는)에 질문이 쏟아졌고 이에 대한 대답이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말에 조금은 충분히 안아함. - 구체적인 사안들을 예로 들 때는 높은 이해도를 보임

● 운영자 평가

11월	저작권 특강 〈저작권 완전정복〉	
준비 및 진행 과정 별 평가	준비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범위한 저작권법 내용을 교육생들을 위하여 어느 부분(저작권을 독려하는 방향 또는 공정이용을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 고심이 많았다. · 강사와 충분한 상의 끝에 블로거들과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저작권법, 새로 바뀐 저작권법, 공정이용에 대하여 포괄적이지만 핵심들을 추려서 강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진행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대상을 포괄적으로 선정 CAMF 이메일링,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를 하였다. 영상제작에 관련된 단체가 신청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표만 참여하는 수준에 그쳤고 관심대상자의 집중적인 홍보 부족으로 인해 교육수강생은 소수에 그쳤다. 그러나 저작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여느 특강들에 비해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다. · 저작권법 일반과 정보공유운동을 소개 그리고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 소개하는 정도의 교육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다. · 아쉬운 점은 참여자가 시민운동가가 아닌 일반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로써 강의내용이 저작권 공정이용에 대한 내용에 집중 되어 있어 정작 교육생들이 궁금해 하는 상황적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들이 제시되지 않았다.
	종합 평가 및 차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 교육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홍보방안이 필요 ·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저작권법 내용 필요 · 차후 저작권법 강의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조인 섭외 고려

[19] 특강-다문화가정 주부미디어교육

I. 사업내용

특강	다문화가정 주부미디어교육 〈카메라 날개 달고 온 동네를 누벼라〉	5/20~6/24
----	--	-----------

● 교육 목표

국제결혼으로 새롭게 지역사회 구성원이 된 다문화 가정의 주부들이 영상을 통해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은 물론, 자신의 일상과 한국 문화를 창조적 시각에서 경험해보고 한국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형성하며 언어 이외의 새로운 소통수단으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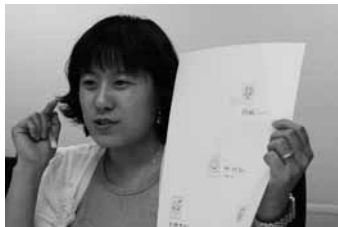
인천에 거주하며 간단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다문화가정 주부들, 컴퓨터와 영상에 관심과 욕구가 있는 결혼이민자 여성들

● 강사 : 경희령(미디어교육팀 스텝) / 조교 : 최윤정

● 교육 내용

- 여러 영상 함께 보고 이야기하기(결혼이민자 여성 영상작품 중심으로)
- 이미지와 영상언어의 기초적 이해
- 사진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 카메라의 기본 작동법의 이해와 실습
- 인터뷰 촬영 실습을 통해 서로를 소개하고 발표하기
- 편집프로그램 프리미어CS3익히기
- 개별 영상에세이 작품 제작 : 기획안 작성, 촬영, 편집
- 완성된 작품 시사하기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6월	다문화가정 주부미디어교육 (카메라 날개 달고 온 동네를 누벼라)			
평가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9
			교육만족도	89
			교육양	82
			내용일치도	87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5
			교수방법	93
			시간효율성	91
			친절성	97
			교자료 적합성	93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87
			센터지원	91
			수강생 수	92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87
관심도증가			93	
센터신뢰도 증가			91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73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6

● 운영자 평가

① 교육 목표와 대상

영상을 통해 미디어가 또 다른 언어와 같은 소통의 수단이라는 것과 자기표현의 다른 방식일 수 있다는 점을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교육이 1차 목표였다. 교육 대상이 다문화가

장 주부들이니만큼 교육이 되도록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때문에 4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4명 중 1명은 일본인, 3명은 중국인으로 같은 그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미 관계가 있는 분들이었고, 그런 이유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에 수월한 면이 있었다. 중국인들은 공통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문화적 동질감을 느끼는 듯 했으며 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한국어 대신 중국어로 설명해주는 등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② 교육내용과 커리큘럼

- 교육은 기초 영상에세이 제작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초반에는 이주여성들이 만든 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중반에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시각이미지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구체화하는 과정, 후반에는 이야기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커리큘럼을 배치하였다.
- 일반 성인여성교육과 비교하였을 때, 크게 차이는 없었으나 편집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속도는 느린 편이었다. 전체적으로 참여자들이 즐거워하며 따라와 주었고, 교육기간에 비해 교육양이 많았다는 판단은 있다.
- 이미지리터러시를 하면서 한국과 출신국과의 문화적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등 양방향적 시각에서 두루 이야기되었다. 이러한 지점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으로 경험하고 사고하면서 겪게 되는 일상적인 일임에도 이것을 스토리로 바꾸어 영상을 만드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듯하였다.
-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각자의 이야기들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교사와 참여자의 욕구가 달라 완성된 영상작품은 참여자들이 각자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③ 센터의 지원

- 교육 공간 및 기자재는 교육기간 동안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강생들의 평가도 높은 편이다. 인원이 적은 교육이라 1인 1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 같다.

④ 후속 교육이나 활동으로 연계되었는가?

- 참여자들의 후속교육에 대한 욕구가 왕성하여 상반기에 이어 1년동안 진행되는 이주여성 대상의 찾아가는미디어교육 심화과정으로 연계하였다.

⑤ 종합

- 제작교육의 한계인 듯 하나 교육참여자들이 이후 집에서나 다른 컴퓨터에서 교육에서 배운 편집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교육에서 좀 더 활용하기 쉽고 구하기 쉬운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 이것이 어려울 경우, 교육 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이 없는 시간대에 멀티교육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후속활동(공간이나 기자재 지원) 지원이 필요하다.

[20] 특강-다문화가정 주부미디어교육

I. 사업내용

특강	퍼블릭엑세스 특강 〈영상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퍼블릭 액세스〉	5/20~6/24
----	--	-----------

● 교육 목표

- 퍼블릭엑세스에 대한 일상적 접근으로 자신이 만든 영상물을 액세스 한다는 것의 의미와 영상물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퍼블릭 액세스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지상파 방송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통해 본인 스스로가 영상매체를 이용하는 주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사회 속에서 혹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퍼블릭 액세스 활동을 기획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대상 : 자신의 영상창작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소통하고 싶은 사람

- 지역사회나 공공영역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영상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지역주민.
- VJ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영상제작과 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 영상기록 및 소통에 관심이 있는 학교 교사, 단체, 지역공동체 실무자.

● 강사 : 태준식

- 다큐멘터리 감독
- 작품 〈꼭 한걸음씩〉(1999), 〈인간의 시간〉(2000), 〈필승 ver 1.0 주봉희〉(2003), 〈우리 모두가 구분주다〉(2005), 〈농담같은 이야기-저작권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1.0〉(2006) 등 다수 작품 연출, 촬영. 부산국제영화제, 인권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작품 상영

● 교육 내용

- 퍼블릭엑세스의 개념과 법적 권리
- 나의 영상을 방송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매체 현황
-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기획의 원칙
- 퍼블릭엑세스 기획에 따른 사례 공유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생 평가

11월	퍼블릭엑세스 특강, 〈영상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퍼블릭 액세스〉			
평 가 항 목 별 점 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89
			교육만족도	89
			교육양	82
			내용일치도	87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5
			교수방법	93
			시간효율성	91
			친절성	97
			교자료 적합성	93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87
			센터지원	91
			수강생 수	92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87
관심도증가			93	
센터신뢰도 증가			91	
⑤	강좌추천	상위강좌수강	73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0

● 운영자 평가

① 교육 목표와 대상

2008년 교육이 영상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퍼블릭엑세스에 대해 알리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하였던 데 반해 2009년 교육은 교사모임에서 퍼블릭엑세스에 대한 강의 컨설팅을 통해 단체로 수강하여 교육 목표가 실제 액세스 활동방법을 이해하는 것으로 바뀐.

② 교육내용과 커리큘럼

- 교육목표가 조정되면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단체나 모임 활동이 영상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조정됨.
- 강사가 제작한 영상을 함께 보고 영상의 과급력이나 퍼블릭액세스 활동을 이해하는 것으로 강의를 진행함. 실제 사례를 통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현장에서 미디어활동을 하는 강사의 설명을 통해 퍼블릭액세스 활동을 비롯한 영상 활동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 강사의 경험치로 인해 단순히 퍼블릭액세스의 개념과 사례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모임을 꾸리기 위한 기초 작업들과 과정들이 세밀하게 설명되어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 같다.

③ 센터의 지원

- 교육 컨설팅을 통해 제안된 교육을 정규강좌 특강으로 연계하여 진행한 사례이므로 센터의 지원은 충분했다는 판단.

④ 후속 교육이나 활동으로 연계되었는가?

- 교사모임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요청한 강좌였으나 이후 모임이 형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 센터 내 모임이나 후속활동이 연계되지는 않음

⑤ 종합

- 수강생들의 전체적인 교육평가가 타 특강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는 수강생들의 목표치와 강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인 것 같다. 영화에 대한 비평이나 배급과 관련한 내용으로 착각하고 있던 수강생이 몇몇 있었고, 퍼블릭액세스라는 개념이 생소하여 어렵게 느끼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 협력 교육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면서, 모집부분을 맡은 교사모임에서 일부 참여자들이 교육내용을 모르고 교육에 참여하여 특강이 아니라 연속된 강좌의 진행이 가능한 연수 형태의 교육으로 오인하기도 하였다.
- 교사모임 쪽에서 교육을 연계하였던 담당자가 컨설팅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거나 교사모임 내부에서 교육 형태나 내용 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 홍보, 모집이 이루어져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이 진행되는 당일에 교육운영은 원활한 편이었으며, 강사의 협의과정을 통해 교육대상에 게 적합한 교육내용으로 전환하여 진행되었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아쉬운 점은 2009년 한 해를 통틀어 시민들을 위한 퍼블릭액세스교육이 한 차례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퍼블릭액세스를 알리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이론 교육은 미디어센터에서 전략적으로 확장해야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2010년에는 무료 특강이나 대학 특강 형태로 규모 있게 퍼블릭액세스 특강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2)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영역	교육명	기간
장애인	성동학교 청각장애청소년미디어교육 〈가슴 속 이야기 카메라로 외쳐라!〉	6/4~8/22
	정신장애인미디어교육 〈나와 세상과 미디어로 해피투게더〉	9/11~11/17
실버	실버영화제작교육 〈은빛머리 휘날리며 레디-고〉	1/15~4/22
여성	이주여성미디어교육 〈익숙한 세상, 미디어로 새롭게 보기〉	5/6~12/12
어린이	지역공동체 공부방 교사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맛보기〉	4/3~4/10
	지역공동체 어린이영상미디어교육 〈일상 속 상상 마당〉	4/17~12/5

① 성동학교 청각장애청소년미디어교육

I. 사업내용

- **교육명** : 청각장애청소년미디어교육 〈가슴 속 이야기, 카메라로 외쳐라!〉
- **교육목표**
 -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적 미디어제작활동에 대한 이해.
 - 영상미디어로 소통하기 위한 영상미디어의 기본 개념과 제작기술 습득
 - 청각장애인의 특성이 담긴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영상을 통해 생각을 표현하고 여러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 습득
 - 청각장애청소년 스스로 영상미디어를 시각 언어적 소통의 매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형성
- **교육대상** : 인천 성동학교 도서관 학생 12명
- **강사**
 - 주장사 : 강묘애(농인영상미디어활동가)
 - 보조강사 : 김주영
- **교육내용**
 - 미디어와 친해지기 : 칭찬릴레이영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고 미디어를 이용해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본다.
 - 미디어 읽기 : 미디어 속에 비춰진 농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봄으로써 미디어에 드러나는 농인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 모듈별 영화제작 : 촬영 및 편집연습, 모듈별로 시나리오 작성, 콘티그리기, 역할 분담 후 작품 촬영 및 편집

- 상영을 통한 소통 : 학교 선생님들, 부모님, 친구들에게 완성된 영상을 시사회하면서 영상을 통한 소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촬영 및 편집

- 상영을 통한 소통 : 학교 선생님들, 부모님, 친구들에게 완성된 영상을 시사회하면서 영상을 통한 소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 목표 평가

시각언어인 수화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농학생들이 그들만의 농문화와 그들의 생각을 영상제작을 통해 표현하여 다른 농인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배우고 비장애인들과도 영상언어로도 충분히 생각을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다. 농학교라는 공간과 극히 적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소수의 공간에서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침체되기 쉬운 학생들이 카메라 앞에서 저마다의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끄집어내어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였다.

이번 교육의 목표는 비장애인들이 잘 모르는 농인들만의 문화, 에피소드, 그들의 비장애인사회에 대한 느낌을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키우는 것과 향후 교육 후에도 카메라 뿐만 아니라 핸드

폰이나 화상캠등을 가지고 UCC의 형태로서 활용할 수 있게하는 것과 모둠 작업을 통해 자칫 이기적 일 수 있는 생각을 버리고 서로가 협동하여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디어읽기를 통해서 굉장히 전문한 농인에 제작한 영상자료들의 제작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외국의 농인들이 제작한 UCC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다른나라와 언어가 달라도다른 방식의 수화로 표현한 영상자료들을 보면서 유대감을 크게 느낀것 같다. 영상제작에서는 아이들이 자신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제작능력보다 높게잡아서 힘들어하는 듯보였으나 마지막까지 편집을 완성하였다.

약간 무리하게 영상제작을 한 모둠은 지친듯한 모습이었으나 무난하게 영상제작을 한 팀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 욕구를 보였다. 다음에는 좀 더 원활한 제작운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 모둠간에 팀원역할 분배를 잘하고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 교육 내용 평가

미디어읽기 부분에서는 비교적 많은 고민을 하지않아도 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고 다른 농학교에서 만든 작품들을 보면서 영상제작에서 많은 참고를 받은 듯했고 다른나라의 농인이 출연한 작품을 보면서 영상을 제작한 후에 공유의 필요성을 느낀 모습이었다. 영상제작단계에서는 아이들이 3명씩 모둠을 짜서 제작을 진행했는데 기획안 단계에서 아이들이 의욕이 앞서서 그랬는지 각 모둠내에서 개별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난이도보다 높게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제작과정에서 무리제작을 좀 더 편하게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했음에도 할수있다는 반응이어서 진행했다가 기획안에서 예상보다 검토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리하여 충분한 촬영준비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바로 촬영단계에 접어들어 충분한 촬영시간을 주었음에도 촬영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편집에서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마지막 수업까지 편집을 끝낼 수 있었다.

주 1회 3시간씩 총 12차시의 수업이었기 때문에 후반작업인 영상제작과정을 감안해서 초반에 미디어읽기수업을 적당히 배치했고 초반에는 미디어수업이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인 저녁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컨디션이 흐트러지기 쉬운 수동적인 수업보다는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즐겁게 집중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수업을 이끄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영상제작단계에서 수화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교사가 혼자 모든 학생들을 일일이 상대하느라 영상제작과정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격적인 영상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각자 1분-5분내의 워밍업으로 영상제작을 경험을 하면서 그들의 농문화를 잘 드러내고 제작운영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다.

● 교육 방법 평가

중3부터 고3까지 학년차가 있음에도 선후배간에 이질감이 없고 아이들이 잘 어울려 참여했으나 영상 제작과정에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팀원에게 전가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둠별로 원활한 제작을 위한 지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사전에 만난적이 없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각자 자기소개를 구체적으로 물어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수업이 끝난 후 담당선생님과 아이들의 성격에 대해 얘기를 들었던 것이 영상제작에서 학생들의 장점이 영상제작에 담길 수 있게 조언을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었다. 수화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아이들의 수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강사뿐이라서 모듈별 진행을 하면서 검토하거나 모듈별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편집 방법을 달리해서 알려줄 때는 다른 모듈팀이 좀 오래 기다려야되는 부분이 있었다.

아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럼없이 이것저것 자유롭게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하였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궁금한 것은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서 문의를 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도를 엿볼 수 있었다.

전체 수업 중 초반에는 저녁에 수업이 이루어져 미디어웍기에서는 가급적 앞에 자주 나와서 게임을 하거나 연기를 해보거나 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고 후반에 이르러서는 방학을 맞이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집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

● 교육 운영 평가

교육운영은 대체로 원활했다. 주안미디어센터에서 계속 미디어수업을 하고 교육 모습이나 평가서를 매주 커뮤니티에 올려 공유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업상황이 파악이 되었다.

미디어웍기 과정에서는 교사가 매 수업마다 ppt 자료 및 영상자료를 준비해서 TV를 통해서 봤는데 TV 화면이 크지않아 뒤에 앉은 학생들이 잘 안보인다고 하였다. 편집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프리미어편집 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화가 가능한 사람이 강사 1명이고 보조교사는 기초적인 수화를 알고 있었지만 실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화로 보조설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강사가 편집 툴을 설명하는 경우, 먼저 스크린 앞에 나와서 스크린을 보면서 수화로 설명하고 난 후, 컴퓨터의 마우스를 움직여서 다음 편집 과정을 일일이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었다. 보조강사가 수화를 알면 강사가 수화로 지시하면서 동시에 스크린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고 시간이 절약되는 점이 있지만 수화가 가능하고 영상제작을 할 줄 아는 농인강사를 찾기가 쉽지않다는 것이 문제였다.

센터에서 사전에 만나서 회의를 통해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강사가 강의준비를 하고 보조강사는 수업이 끝난후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분담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기가 수월했다. 또한 별도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결과물이나 수업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평가서도 올려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한 점이 편리하였다.

● 교육 결과물

작품명	시간	제작자	내용
답답할 수 밖에 없는	7분 3초	최수지, 주민지, 손경희	농인가족의 일상적 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주 특별한 편지	4분 8초	공은정, 이지은, 오보배	어머니와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농인 청소년의 이야기.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다.
안녕, 친구야	5분 56초	공혜빈, 탁혜련, 이지은	수화를 사용하는 성동학교에 전학와서 친구들과 친해져가는 모습을 그린 영화.
학교 짱	11분 40초	장상원, 김성실, 김형철	학교에 새로 전학온 남학생. 첫 등교날부터 건방진 모습에 반 남자아이들이 괜스레 시비를 걸었다 초인적 힘에 눌려 오히려 남학생을 따르게 되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학교 짱과의 맞대결이 벌어지는데...

영상제작에서는 12명이 3명씩 모듬을 만들어 4작품이 나왔다. 남자아이들 3명이 만든 ‘학교짱’은 처음 미디어수업을 할 때부터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 모듬이었다. 남자아이들 답게 행동이 중심이 되는 주제에 관심이 많아 학교내에서 일어나는 소위 남학생들의 주먹세계를 코믹하게 다뤘다. 초기 기획단계에서 TV에서 많이 보던 흔한 내용이 될까봐 보다 제작의도에서 좀 더 진정성이 들어 있는 작품이 될 수 있게 고민을 해보라고 했으나 아무래도 처음인지라 진정성에 대한 고민이 깊게 들어가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기획안 단계부터 편집까지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하게, 편집을 다 끝 내지 못할까봐 수업이 없는 날에도 센터에 나와 편집을 하는 의욕을 보인 작품이었고 다른 친구들끼리 즐겁게 볼 수 있는 작품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답답할 수 밖에 없는’은 가족이 모두 농인인 가족과 학생이 농인이고 부모님은 비장애인인 가족의 모습을 비교하여 소통의 답답함을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었는데 초기 기획안단계에서는 흥미로운 주제라 많은 기대가 되는 작품이었는데 기획단계에서 역할분배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실제로 그 주제로 제작하는 학생 중에 2명이 가족이 모두 농인이어서 영화로 연기하는 것보다 다큐멘터리처럼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해보았지만 그 학생들이 연기로 표현하고싶다고 하여 사전에 각 역할을 연기할 배우들을 잘 섭외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진행과정을 보니 역시나 예상대로 미디어교육내에서 배우섭외가 아닌 외부에서 배우들을 섭외했기 때문에 3명에서 연기지도,촬영, 진행등을 감당하기에 무리였나보다. 결국 제작의도는 좋았지만 촬영이나 흐름이 불분명하게 되었고 그것이 편집에서도 이어져 모든 모듬 중에서 가장 편집하는데 애를 먹었다. 그래도 그 모듬 내 1명이 작년에 미디어수업을 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나머지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마지막까지 편집을 도맡아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안녕 친구야’는 일반학교를 다니다가 농학교에 편입한 학생이 그 모듬에 있었고 편입했을 때 수화를 몰라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지만 마지막에 친구들과 친해진다는 내용이었다. 제작동기는 좋으나 중간에 뭔가 매개가 허전한 듯 했는데 기획단계 이전부터 다른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종종 이 친구들은 그림을 잘 그린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나 친구들의 장점을 영상에 담아보는 것이 어땠겠냐고 얘기를 하여 그림을 잘그리는 편입한 학생이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서 수화를 배우고 친해진다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다. 이 모듬은 촬영을 제일 먼저 끝냈으나 촬영상태나 흐름이 엉망이어서 촬영해온 것을 보면서 지적해주고 구도, 연기연습을 한 후에 다시 촬영해오라고 하였고 더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왔다. 편집도 가장 안정되게 마지막까지 모듬내에서 서로 역할분배를 잘 하면서 작품을 잘 끝냈던 모듬이었다.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편지’는 처음에 수화를 모르는 비장애인 엄마와 자신이 농인인 학생이 자신의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한테 감사한다는 편지를 쓴다는 내용이었었는데 약간 뜬금없는 내용어서 학생들에게 물론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맞지만 자신의 장애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하여 조금 가볍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게 고민을 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수화를 모르는 엄마와 들리지 않는 자신이 매일매일 소통의 어긋남을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엄마가 수화를 조금이라도 배우면 엄마와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엄마에게 영상편지를 수화로 표현한다는 내용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기뻐했던 모듬이었다.

② 정신장애인미디어교육

I. 사업내용

- **교육명** : 정신장애인미디어교육 <나와 세상과 미디어로 해피투게더>

- **교육 배경 및 목적**

2003년부터 미디어센터가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왔던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에 대한 미디어교육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교육 전까지 정신장애인에 대한 미디어교육이 진행되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아마도 정신장애가 다른 유형의 장애보다도 더 더욱 개인의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위험집단이라는 왜곡된 인식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정신장애인의 장애 등록율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단적인 예일 것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미디어교육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미디어활동을 통한 발언과 소통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의 재확립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의 의미로서 중요하다. 이것은 만들어진 영상이 어떻게 배급되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상제작의 과정이 하나의 '자기정립의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의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여가활동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정신장애인의 경우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생존에 필요한 활동뿐 아니라 여가생활까지 확장된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정신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된 낮은 자존감이 이런 현상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디어교육은 정신장애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세상과의 접촉을 넓혀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편견과 당사자들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창조적 여가활동의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 **교육목표**

- 정신장애인들이 영상미디어를 접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고 취미, 여가활동의 선택폭을 넓힘
-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모습을 영상으로 표현해보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
- 정신장애인 생활공동체를 기반으로 미디어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토대 형성

- **교육대상** : 정신장애인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회원 6명

- **강사**

- 주장사 : 박종필(다큐인 영상활동가)
- 보조강사 : 김소연, 송윤혁

● 교육내용

- 장애의 사회적 이해와 비판적 읽기
- 장애인관련 영상 감상 및 토론
- 영상언어의 이해와 촬영원리 이해
- 편집원리 이해와 기초 편집 프로그램 이해
- 일상의 관심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영상미디어 제작실습
-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기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 목표 평가

영상제작이 기획부터 편집까지 일반적인 지적능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교육을 선택했지만 영상제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제작과정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여가활용이 타인과의 접촉 없이 개인적 범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지만 영상제작을 통해 교사와 참여자, 참여자간, 비장애인(지역사회 등을 통하여)간의 접촉과 소통이 이루어졌다. 비장애인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드물다는 A참여자

재래시장에서 5명의 아주머니들을 인터뷰했다. 시장 상인들을 인터뷰 할 때 “아저씨 또 오셨네”라고 시장아주머니가 맞아주셨다. 거리에 지나다니는 아이들을 찍어주면서 A참여자자는 즐거워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또한 상영회를 통해 관객들과의 대화를 경험한 참여자들은 더욱 풍성한 피드백을 받았다. 카메라를 매개로 교육참여자들은 비장애인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였다. 카메라를 통한 소통방식이 정신장애인 당사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준 경우이다.

짧은 교육시간과 장비의 문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영상을 제작하는 작업이 일상적 여가활용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클럽하우스나 미디어센터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보면 일상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미디어로 자연스럽게 담아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리라 판단한다.

연령대에 따라, 장애의 경중에 따라 영상장비들을 다루고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일괄적인 교육으로는 이 차이를 극복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영상에 대한 선이해의 부족으로 자신의 표현욕구와 영상언어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었다. 기존의 형식화된 영상언어 이외에 참여자들의 다양한 표현욕구들을 소통을 통해 조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상작업을 하나의 일로 느끼지 않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로 인식할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다.

● 교육 내용 평가

미디어에 대한 개념을 잡는 첫 시간에 비판적 읽기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진행했다. 주류미디어에 대하여 막연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도 있었고 비판적인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도 있었다. 후에 동일한 교육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될 때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드러내는 미디어들을 함께 시청함으로써 문제의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비판적 읽기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비판적 읽기가 충분히 숙지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자신만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수준은 여타 교육에 비교해볼 때 상당히 높았다고 판단된다. A참여자자의 경우 처음에는 단순히 시장의 정겨운 풍경을 제작하기를 원했지만 교육과정을 통해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영상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완성했으며 B참여자자의 경우에는 시설 내에 있는 매점에 대해 단순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교육과정과 대화를 통해 매점의 장단을 비교하고 매점이 주는 다양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영상물을 제작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완성했다.

해피투게더의 경우 당사자의 자발적 의지로 교육을 선택한 경우라서 다소 많다고 판단되는 교육 시간부분이 소화될 수 있었던 경우라 생각한다. 12회를 진행하고 장비의 결합과 교육생들의 욕구에 의해 2회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하루에 3시간씩 진행되었는데 이론과 실습을 적절히 배분하여 최대한 교육에 대한 집중력과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시도하였다. 개인적 특성으로 인해 기획에서 편집까지 교육생들이 각자 흥미를 느끼는 단계들이 판이했다. 기획의 단계에서 교육생들은 각자 관심사를 중심으로 기획안을 작성하기로 했는데 2주가 소요되었다. 전반적으로 촬영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장비를 어느 정도 능숙하게 다루는데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었다. 처음에는 하드타입의 캠코더를 사용하다 편집프로그램과의 호환성문제로 테이프를 이용한 캠코더로 촬영을 진행했는데 장비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테이프를 삽입하지 않고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편집은 윈도우무비메이커로 진행했는데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비교적 넌리니어 편집의 개념과 활용을 빠르게 숙지한 반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편집이해에 오

랜 시간이 걸렸다. 기본 이론에 대하여 실습할 때는 촬영연습에 많은 비중을 두었고 대부분의 교육생이 촬영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사이드프로그램의 진행 없이 각 차시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교육 후에도 카메라를 구입하여 촬영을 더 해보고 싶다는 참여자가 있었다. 이후 후속활동이 진행된다면, 일상적으로 움직임이 적은 생활을 하는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볼 때 촬영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교육을 더 많이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생 대부분 편집단계에서 어려움을 느꼈는데 다음 동일한 교육이 있다면 편집교육시간을 늘이거나 다른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해볼 것 같다.

● 교육 방법 평가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영상제작이란 교육 자체에 흥미와 관심을 보였고 특히 제작 단계별로 각자의 관심 있는 단계에서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특성상 교육을 하면서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다. 스스로의 결심으로 교육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촬영을 하기 싫어하는 참여자의 경우는 다행스럽게 편집에 관심을 보였다. 이 참여자는 완성된 영상을 수집하여 시사회 오프닝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맡았다. A참여자(기획단계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어떤 사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마련이었지만 영상 형식은 CF이길 원했다. 처음에는 참여자와 교사의 의견이 대립했지만 논의를 통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B참여자는 시적인 언어를 영상으로 표현하고자 했는데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기에 촬영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 경우는 교육생의 의사대로 편집단계에서 기획안을 적절하게 수정했다.

참여자와의 의사소통방식은 참여자마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방식과 정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강사들과 1:1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매 수업 마지막 과정으로 수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분들도 있었고 자신이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학습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분도 있었다.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영상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었는데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기의 커리큘럼에 대한 수정이 다소 이루어졌고 추가교육을 하기도 했다. 매 차시 촬영실습을 진행했는데 이 시간 후에는 반드시 촬영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시간을 통해 교육생들과 교사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작품에 들어가면서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개별적인 작업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참여자들 사이에 상호의존 관계는 활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중에 각자 흥미 있는 과정에 집중하며 서로 비공식적인 상호보완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앞서 예로 든 한 참여자의 편집에 대한 빠른 학습능력이 전체의 영상을 하나로 묶어 오프닝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다른 사람의 작업의 촬영에 자발적으로 결합하기도 하였다.

이번 교육에서 활동의 초점을 둔 부분은 실습을 위주로 한 것이었다.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안에 있는 다른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의 실습 과정 중에 장비에 대한 지식과 컨트롤 능력이 자연스럽게 배양되었다고 판단한다. 촬영은 공동체 내부뿐 아니라 인근 이웃, 주변 시장 등 지역사회에서도 이루어졌다.

교육방법을 재조명해보자면, 미디어교육 참여자 내부의 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다. 팀을 이루어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의사소통과 협의의 과정을 배울 수 있는 통로

가 될 것이다. 또한 이론 위주의 교육보다는 활동중심의 교육을 진행함으로 더욱 빠르게 교육결과물들을 효과적으로 얻어낼 수 있겠다는 판단도 있다.

● 교육 운영 평가

미디어센터의 수업운영자와 교사와의 소통은 비교적 원활했다고 할 수 있다. 운영자는 전체적인 교육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했고 지속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했다. 마지막 추가로 실행된 교육과정에는 센터의 안정된 장비를 제공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카메라가 실습 중 기종변경이 됨으로 교육생들이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었으며 제공받은 편집노트북컴퓨터의 속도와 안정성의 문제로 편집과정에서 교육이 더디 진행된 부분이다.

참여자들이 익숙한 공간인 클럽하우스를 교육장으로 선택하였는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장비를 체크하고 컴퓨터를 세팅하기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교육의 본 과정뿐 아니라 교육의 준비와 마무리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론이 아닌 실습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교육 자료가 양적으로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비판적 미디어읽기를 위한 자료를 적절히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 교육 결과물

작품명	시간	제작자	내용
약간의 페이크성이 있는 돌리 오프닝	2분 20초	이경철	만화영화 '돌리'의 영상을 재편집한 뮤직비디오. 본인의 요구로 인해 비공개함.
교육결과물 상영회 오프닝 영상	1분 36초	이경철, 박종필 공동 연출	다른 교육 참여자의 작품을 가지고 만든 상영회의 오프닝 영상
해스이 (해피투게더 스낵바는 이런 곳이다)	6분 25초	신동주	해피투게더의 휴식공간인 스낵바의 활성화에 대한 회원과 직원들의 생각을 다룬 다큐
시장사람들	4분 41초	이춘범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려움과 따스함을 다룬 다큐
사람 내음 나는 곳, 해피투게더	7분 23초	이성권	해피투게더에 대한 회원과 지역사회의 인식에 대한 다큐
문명과 자연과의 만남	4분 26초	김현정	가을 도시에서 느껴지는 문명과 자연에 대한 이미지를 담은 뮤직비디오

③ 실버영화제작교육

1. 사업내용

- 교육명 : 실버영화제작교육 <은빛머리 휘날리며 레디-고>

● 교육 배경 및 목적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의 발전 속에서 소외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실버세대에 대한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고자 2008년 진행되었던 영상미디어교육 기초과정을 수강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어르신 영상 활동을 특화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화제작 심화교육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시선과 관점이 녹아있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소통하여 지역의 실버 영상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넓게는 인천지역에서 세대의 격차를 넘어선 영상 문화 향유 및 창작능력을 증대하여 지역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고, 좁게는 지속적 노인 미디어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자 한다.

● 교육목표

- 세대적 차이로 인해 미디어 문화에서 소외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미디어 문화 향유 능력 증대
- 영화제작 작업을 통해 상호작용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적 경험 습득
- 지역 어르신 영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디어기술 및 이론에 대한 심화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영상미디어 관련 기초교육을 수강한 어르신 11명

● 강사

- 주강사 : 문정현(푸른영상 영상활동가)
- 보조강사 : 황승용, 양종호

● 교육내용

- 미디어에 대한 이해 : 퍼블릭액세스 권리, 미디어환경과 산업의 이해
- 영화제작의 이해 : 영화문법과 시나리오, 영화읽기, 영화제작과정 및 역할분담
-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스토리텔링 : 실버세대의 공감스토리 찾기, 시나리오와 콘티쓰기
- 영화제작 : 촬영과 편집, 홍보하기
- 작품 상영하기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 목표 평가

심화교육의 차원에서 2008년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화작품제작을 목표로 설정한 지점은 적절했다. 협업을 기본으로 하는 작업이기에 어르신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영상미디어를 이용한 소통은 물론 더 깊이 있는 일상적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같은 소재에 대해 연구하면서 노인이라는 동 그룹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 혹은 살아있는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더욱 성취감을 느끼셨던 것 같다.

‘영화제작’이라는 흔치않은 경험을 통해 미디어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미를 느끼셨고, 색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더욱 활발한 후속활동을 전제로 시작한 교육이라 교육의 목표를 달성했다 하는 지점보다 앞으로 교육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동을 연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로 남는 것 같다.

● 교육 내용 평가

2009년 1월 15일-4월 15일까지 매주 1회 어르신들이 모여 영화를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르신들은 이미 1회 이상의 미디어 제작교육을 받으신 경험들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영화제작에 매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미디어 교육이 제작이 용이한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번 어르신들의 열정은 극영화를 만드는데 충분한 그것이었다. 어르신들은 이 기간 동안 두 모둠으로 나뉘어 기획하기, 시나리오 쓰기, 콘티 짜기, 촬영하기, 편집하기 등 제작과정 전반을 스스로 알아서 하고자 노력하였다. 어르신들이 교육자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신 탓에, 보통 노인 교육 결과물에는 교육자들의 생각이 많이 스며들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은빛머리 휘날리며” 어르신들 교육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의 의지대로 대부분을 기획, 진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때문인지 어르신들의 이번 작품 “작사랑”과 “인생”은 나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전문 배우를 캐스팅 한다가나, 구체적인 콘티를 짰다가나, 숙련된 편집은 아니라 하더라도-그 때문에 극영화가 다분히 다큐멘터리 같

지만-극영화 전반에 대한 이해나 그 제작에 있어 어르신들은 매우 높은 교육의 성취를 이루었다.

작품 “짝사랑”은 어르신들의 노인 복지관에서의 실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노인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 영화이다. 흔히 노인의 사람을 주책이라고 혹은 궁상맞음이라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에 일격을 가하는 재미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어르신들의 사랑에 대한 감정이 다르지 않음을 영화 속 세 편의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담담하게 이야기 한다.

작품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시를 보는 것 같다. 어르신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의 해안과 다양한 경험에 의한 현재의 성찰이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특히나 감독 어르신의 내레이션은 현재의 자신을 사유하고 또한 살아온 삶을 되돌아 볼 수 있게 만드는 매우 실천적인 영화적 장치였다는 생각이 든다.

● 교육 방법 평가

심화교육과정이니만큼 교육방법은 ‘스토리텔링과 영화제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기존에 미디어들에서 보아왔던 노인의 이미지를 벗어나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재미난 소재거리들을 여러 번의 토론을 통해 결정하였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서로 작은 다툼들이 있었으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분담을 맞추면서 각자의 의사들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 주제가 다른데 팀 작업을 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자신의 스토리를 포기하거나 같은 주제임에도 다른 내용들을 하고자 하여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어르신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비단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협업을 전제로 하는 영화작업 현장에서 흔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그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도약을 위한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이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교육이 목표로 하는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미디어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아니었나 싶다.

● 교육 운영 평가

짧은 기간 동안 어르신들은 영화 제작의 각 역할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이는 영화, 혹은 미디어에 대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삶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숙제들을 남긴다. 교육 기간의 짧음과 어려운 편집프로그램의 사용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되어지고 좀 더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영화 제작 중, 구성원들 간의 불화로 중도에 포기하신 어르신이 두 분 있었는데 관계에 대한 조율과 그 방안에 대해 복지관 실무자들을 비롯해 교육 주제들이 모여 좀 더 깊게 논의해야 할 것 같다.

● 교육 결과물

작품명	시간	제작자	내용
인생	15분 44초	프로듀서 김찬희 촬영 김화자 강영길 편집 김찬희 내레이션 강영길 시나리오 강영길 연출 강영길	어린 시절부터 청년시절, 그리고 현재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새삼스레 느끼는 감성과 떠오르는 생각들을 영상으로 표현한 작품

찍사랑	3분 21초	프로듀서 김영근 촬영감독 이기원 편집감독 임영근 출 연 이금선 김용운 김청시 이은표 이옥저 강화할머니 사운드 김청시 감독 권오운	찍사랑이라는 주제로 단편 3작품을 엮은 옴니버스영화. - 빨간모자 오래전에 부인과 사별한 뒤부터 유독 할머니들에게만 친절한 빨간모자 할아버지에 대한 다른 어른들의 시 선을 담았다. - 욕쟁이할머니 강화 유원지에서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를 남몰래 흠모 하는 어르신이 복지관에서 욕쟁이 할머니를 닮은 노래선생님을 보고 가슴이 설렌다. - 뜨개질 복지관에서 뜨개질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찍사랑하는 어르신 할머니들이 많은 뜨개질 반에 청일점으로 들어 가 수업을 받다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선생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한다.
-----	--------	---	--

④ 이주여성미디어교육

I. 사업내용

- 교육명 : 이주여성미디어교육 <익숙한 세상, 미디어로 새롭게 보기>

● 교육 배경 및 목적

국제결혼으로 새롭게 지역 사회 구성원이 된 이주여성들이 영상을 통해 참여적 문화활동과 교육활동이 연계된 창작행위를 경험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삶의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이야기해봄으로써, 문화적 이질감으로부터 오는 소외감에서 탈피하여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한국생활의 어려움이나 일상들을 공유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표현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가족 및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지역사회에 소통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전체를 1년의 과정으로 하여 총 30회차 교육을 1차 교육과 2차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차 교육에서는 교육 참여자들이 영상미디어에 보다 익숙해지고,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간단한 이미지들로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기술을 익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2차 교육에서는 1차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미디어제작과정을 경험하고 자신의 작품을 기획·촬영·편집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 교육목표

-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영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 이해
- 이주여성의 자문화 및 경험 가족 및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이주여성들 간의, 이주여성들과 한국사회 내의 '차이'와 '다양성'을 경험하고 이해
- 영상미디어 및 제작방법에 대한 기초에서 심화에 이르는 단계별 이해

- 다양한 영상언어, 표현형식 및 방법 이해
- 주류미디어 및 대안 미디어의 이주여성/다문화가정에 관한 미디어 비평, 새로운 관점 고민
- 스토리텔링, 미디어비평, 영상제작과정을 통해 이주경험에 기반 한 한국사회 낯설게 보기, 한국에서의 나의 다양한 경험과 위치 낯설게 보기
- 영상제작 및 시사회를 통해 개인의 경험을 공론화하는 계기 마련, 다양한 소통방법 고민

● **교육대상** : 인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16명

● **강사**

- 주강사 : 김성희(연분홍치마 미디어활동가), 이란희(문화예술교육-연극활동가, 단편영화감독)
- 보조강사 : 고민희, 안나영

● **교육내용**

- 영상미디어 함께 읽기
- 영상언어의 이해 및 인터뷰하기
- 연극놀이를 통한 스토리텔링
- 영상을 제작하는 다양한 방법의 이해- '이주여성의 자문화 소개 및 경험'을 토픽으로 한 기초 영상에세이 제작하기
- '한국과의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낯선 경험' 혹은 '이주여성/다문화가정에 대한 경험과 관점'을 토픽으로 한 미디어비평
- 연극놀이를 통해 공동작품 스토리텔링
- 영화제작의 이해 : 시나리오쓰기, 역할분담하기, 촬영 및 편집하기
- 공동작품/개별 작품 심화 영상 제작하기
- 작품 상영을 통한 주변사람들과의 소통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 목표 평가

이주여성의 자문화에 대한 자긍심 획득

1차 교육은 참여자들이 자문화에 대한 자긍심,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자문화에 대한 자신의 경험 혹은 이야기를 이미지로 표현하고 소개하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가족 혹은 지역사회에 참여자들의 자문화를 소개하고 알림으로써, 한편으로는 서로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매개자 혹은 전파자로서 참여자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자 함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가족, 자녀, 지역사회에 참여자들과 관련한 새로운 문화를 소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익숙한 토픽을 영상미디어교육과 연계하여 영상제작과정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이미지를 통한 다양한 표현방법, 능력의 획득

주로 기존 사진 및 이미지를 통해 영상을 제작한 1차 교육, 극영화 촬영 및 편집을 통한 공동제작과정, 개별 작품의 제작과정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영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기 위한 미디어제작방법을 순차적으로 습득하고 익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들(인터뷰촬영, 자문화 소개를 위한 영상제작, 극영화 제작, 개별작품 제작)은 참여자들에게 영상제작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습하여 익히도록 함으로써 낮은 미디어기술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나아가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표현방법 및 과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특히 극영화 제작과정은 참여자들의 경험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지닌다. 때문에 참여자들은 극영화 제작의 즐거움과 의미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참여자들 간 협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왔다.

영상에 대한 평가 및 분석 능력 획득

기획, 촬영, 편집 등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병행해 진행된 리뷰, 토론 및 평가의 과정은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작품을 혹은 다른 참여자들의 작품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다양한 독립영화 혹은 여성영화에 대한 감상 및 비평은 미디어의 새로운 표현양식, 주제, 관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촬영본, 편집본을 함께 리뷰하고 평가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이후 작업을 발전시키고 보완하는 데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나아가 서로의 작품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주여성의 경험을 의미화, 자기표현의 주체로서 사회문화적 위상 확보

자신의 경험 혹은 다른 이주여성의 경험을 작품의 소재로 발굴하고 선택하여 영상작품으로 만들어 낸 전 교육과정은 그 동안 표현되지 못했던 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의미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야기를 기획하고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의 의미, 이를 소통하는 것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었으며, 특히 가족이나 자녀의 일상을 중심으로 한 작품에서 좀 더 나아가 '나'와 다른 이주여성들의 활동과 고민, 경험에 주목하는 영상제작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이주여성 미디어교육의 성과물들이 지나치게 가족 중심적이었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었으며, 사회문화적 차이나 인종적·국가적 차이에 오는 갈등과 어려움을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 교육 내용 평가

비판적 읽기와 참여적 제작의 통합적 접근

비판적 읽기를 위한 교육내용으로 독립영화, 여성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영화 감상 및 체험, 논의를 실행하였다. 전 교육 참여자들의 영상에서부터,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함께 보고 각 작품의 기획의도와 목적, 표현방법, 제작과정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비판적 읽기를 위한 감상 및 비평은 제작교육에 비해 축소되어 진행되었으며, 특히 주류미디어에 대한 분석은 대체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시간적 한계, 적절한 교육텍스트의 부족, 참여자들의 언어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읽기를 위한 비평 수업은 이후 교육과정에서 보완되어야 할 지점으로 보인다.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교육은 대체로 원활히 진행되었다. 자기소개의 과정에서부터 촬영교육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으며, 이후 사진이나 이미지를 통한 제작교육인 1차 교육, 극영화 제작교육, 개별 작품 제작과정 등 다양한 실습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였다. 그 덕택에 최종 개별 작품 제작과정에서는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촬영 및 편집과정을 수월히 진행할 수 있었다.

스토리텔링, 영상기획 및 구성 과정을 강조

전 교육과정은 촬영이나 편집의 기술적 교육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획하며 구성하는 스토리텔링의 과정에 보다 많은 무게를 두고 진행되었다. 때문에 기타 참고 영상뿐 아니라 기획안, 촬영본 혹은 편집본을 텍스트로 삼아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경험 및 표현의 주체로서 영상제작의 의미를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1차 교육결과물과 2차 교육결과물을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과정은 긍정적인 성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는데 참여자들은 자신을 비롯한 다른 이주여성들의 고민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표현하고자 했으며 보다 깊이 있는 주제의식을 영상에 담아낼 수 있었다.

교육 분량과 수준

총 30회차로 진행된 교육과정은 참여자들의 유동적인 상황과 일정에 비해 다소 긴 과정이었다. 긴 교육 과정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진행할 수 있었고, 보다 많은 실습과정을 통해 영상기획 및 표현방법을 잘 익힐 수 있었지만, 참여자들의 참여가 불안정했던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교육의 수준은 기본 교육과정이었던 1차 교육과, 심화교육과정이었던 2차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함으로써 참여자들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 간의 기술적, 언어적 수준에 따라 차별화하여 개인별 수준에 맞는 표현방법 및 과정을 별도로 제안하여 진행하기도 했으며, 상황에 따라 일대일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내용 재조정

사실 이주여성 미디어교육은 참여자들의 유동적인 상황과 변수가 특히나 많은 교육이다. 때문에 참여자들의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육일정 및 내용을 조정하였는데, 1차 교육과 2차 교육의 커다란 목표 및 토픽은 그대로 유지하였지만, 비평교육을 위한 시간을 줄이고 대신 파일럿 프로그램과 같은 제작실습과정을 보다 많이 할애하였으며, 편집을 위한 시간을 재조정하여 교육시간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 교육 방법 평가

관계 중심, 협력을 위한 교육

이주여성들 간의 언어적, 경제적, 인종적, 국가적 차이에 따른 위계적 관계를 경계하고 참여자와 참여자, 참여자와 교사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언어적 수준과, 국가적 차이를 고려하여 참여자들 집단을 구성하고자 했다. 또한 참여자들 간 관계형성을 위해 자기소개프로그램, 연극프로그램 등의 사전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교육과정이 서로에 대해 관여하고 책임지며, 협력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듈별 교육과정 및 공동제작프로그램을 개인 작품 제작과 병행해 진행하였다. 특히 공동제작과정으로 진행된 극영화 제작과정은 참여자 전원이 하나의 작품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인 영화 제작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

읽기와 쓰기의 모든 과정은 참여자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의 경험에 기반해 논의와 토론을 이끌어내고자 했으며, 작품의 소재와 주제 또한 참여자들의 경험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의 경험을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것은 참여자들의 참여 수준과 계기를 높이고, 스스로의 경험에 대해 자긍심을 지니며, 이를 새롭게 의미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경험이 교육과정의 읽기와 쓰기를 위한 지식과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였다.

체험과 실습 중심의 교육

읽기교육에서는 익숙한 주류미디어보다는 접하기 힘든 독립영화, 여성영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주제

와 소재, 영상표현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보다 깊이 있는 미학적 체험교육이 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소재와 주제를 다루는 비주류미디어에 대한 체험과 감상은 참여자들의 문화적 체험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쓰기교육은 다양한 파일럿프로그램들을 진행하여, 강의식 교육보다는 직접적인 실습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하였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들을 통해, 촬영본이나 편집본에 대한 평가와 논의를 통해 영상언어의 효과와 의미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체험과 실습을 통해 영상제작방법 및 과정, 한계와 문제점, 개선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 중심의 교육

교사가 일방적으로 참여자를 교육시키거나 지식을 주입하지 않기 위해, 참여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했다. 참여자의 작품제작과정에 교사가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교사를 포함하여 참여자들과의 평가와 논의를 통해 개선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때문에 촬영본이나 편집본 리뷰 및 평가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 교육 운영 평가

센터의 교육 운영 체계와 의사소통

교사 및 센터 교육운영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은 대체로 원활히 진행되었다. 교육 후 정기적인 평가회의를 통해 센터의 지원부분과 과정을 협의할 수 있었으며, 이후 교육과정 및 방법의 수정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었다.

교육 자료 및 환경

교육을 위한 기자재 및 공간은 적절했다. 그러나 영상비평교육을 위한 적절한 텍스트들을 선정하여 충분한 영상자료들을 제공하지 못한 한계가 남는다.

● 교육 결과물

작품명	시간	제작자	내용
거미줄	5분 9초	소고 나미에	권선징악적 내용을 담고있는 일본 전래 동화를 오브제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보았다.
새해맞이	3분 21초	다나카 미찌코	일본에서 새해를 맞이할 때 풍습과 전통놀이를 사진 영상으로 소개해본다.
몽골설날	4분 16초	몽흐자야	몽골에서 설날을 보내는 방식, 설날 음식만들기 등 한국과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를 영상을 통해 설명해보았다.
일본여름축제	2분 30초	히가시노 가오리	일본 여름축제에서 일본사람들이 즐기는 여름 축제 문화를 포토에세이를 통해 소개한다.
중국단오절 함께 보낼까	4분 53초	류안	중국에서 단오절에 해먹는 음식 쵡즈에 얽힌 유래와 단오절을 보내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
중국민속 문화촌	4분 15초	이혜하	중국 민속문화촌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영상으로 소개해본다.

며느리	3분 59초	바야르마	한가로운 오후, 시어머니와 함께 한 부침개 한 쪽이 쉽지가 않다. 결혼 후 한국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일상의 어려움을 설명한 극영화.
나도 잘 살고 싶은데...	7분 10초	류안	“나도 숙제하고 싶어요.” 언어문제 때문에 초등학생 딸의 숙제를 도와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과 그런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그려낸 극영화.
나도 잘 살고 싶은데...backstage	3분 23초	바야르마	감독 데뷔한 류안, 연기는 어려워 미나, 촬영이 주특기 나미에까지 따뜻한 호빵과 함께 한 그녀들의 영화제작기
날개를 달자	13분 20초	히가시노 가오리	카메라를 든 나미에, 그 네모난 프레임으로 담아본 그녀의 이야기. 인터뷰 중심의 다큐멘터리 영상.
문다-소수파 그녀들의 이야기	23분 01초	소고 나미에	국제결혼을 선택한 그녀들과 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 한 다큐멘터리.

⑤ 지역공동체 공부방 교사미디어교육

I. 사업내용

- **교육명** : 지역공동체 공부방 교사미디어교육 <미디어교육 맛보기>

- **교육 배경 및 목적**

공부방을 거점으로 이루어지는 어린이 미디어 활동의 또 다른 주체이자, 아이들이 가족 다음으로 일상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인 공부방 선생님들에게 미디어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중요성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사 미디어교육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미디어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고, 미디어 활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공부방 교사 미디어교육을 통해 교사들에게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미디어를 이용한 활동에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여 어린이 미디어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육목표**

- 다양한 어린이 미디어교육사례를 통해 미디어교육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미디어 소통 놀이를 통해 미디어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접해보고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영상제작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므로써 미디어를 이용한 자기표현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인천 부평구 십정동 해님공부방 교사 2인

- **강사**

- 주장사 : 김수목(미디어교육활동가)

- 보조강사 : 안나영

● 교육내용

- 어린이 미디어교육 사례 발표/어린이 영상작품 함께 보기
- 해님공부방 어린이 교육 목표 및 세부 커리큘럼 검토
- 미디어교사-공부방교사 간의 질의 응답을 통한 미디어교육과 소통(퍼블릭액세스)의 의미에 대한 이해
- 교사교육 시간에 함께 해보고 싶은 미디어 소통 놀이 2~3가지 고르기
- 이미지와 영상의 이해(리터러시)
- 미디어교육 방법(미디어 소통 놀이1, 2, 3)
- 영상 기획 · 촬영 · 편집 · 시사 체험하기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 목표 평가

해님공부방에서 이루어진 미디어수업의 시작은 교사교육에서부터였다. 그리고 이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에서 이러한 사전교육의 목표가 일정 정도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때의 경험이 장기간 함께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준 소통의 경로를 만들었고, 덕분에 어린이교육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떤 내용을 진행할 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

예초에 공부방교사교육을 진행한 목적이 미디어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린이 미디어교육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사교육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얻게 된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예상하지 못했던 교사교육과 어린이교육의 연계부분이었다. 교사교육 때 나온 교육 결과물을 공부방에 전시하거나 어린이교육 첫 시간에 상영하게 되면서 외부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처음 만나는 아이들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소통 활동 체험 결과로 선생님들의 얼굴이 그려진 OHP 필름을 공부방 벽에 전시하고 아이들이 한마디씩 적을 수 있도록 종이를 붙여두었더니 의외의 적극적인 반응들을 보였는데, 이러한 과정이 전시한 그림 속 미디어선생님들을 낯설지 않게, 친근하게 여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어린이교육 오리엔테이션 때 아이들이 보조강사 선생님을 처음 보았음에도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사람처럼 반가워했으며, 첫 대화의 화두로 필름 속에 담긴 교사들의 얼굴 그림이 아이들로부터 언급되기도 하였다.

또한 어린이교육 첫날 공부방 교사가 만든 영상작품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경험이 교사들이 단지 교육을 진행하고 자신들을 지켜보는 존재가 아닌 구성원으로서 같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동질감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 같다.

● 교육 내용 및 방법 평가

설명과 함께 미디어교육에 대한 낯설음을 해소하기 위해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교사와 참여자 모두가 참여하여 서로의 경험들을 공유해보았다.

- OHP얼굴 그리기: 두 명이 짝이 되어 OHP종이를 서로의 얼굴에 대고 그림을 그리면서 상대를 인터뷰한다. 완성 후 자신이 그린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그 사람을 다른 참여자들에게 소개시켜 준다.

- 소통게임: 3명 이상이 한 팀이 되어 팀마다 진행자가 사진을 한 장씩 보여준다. 처음 본 사람이 뒷사람에게 본대로 전달하고 그 사람도 또 뒷사람에게 전달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한 후 마지막 사람이 어떤 사진인지 맞추는 게임이다. 소통이 어떤 건지, 왜 필요한지, 일방적 소통과 쌍방향 소통을 비교체험 해보는데 적절하다.

- 미디어 연대기: 수업에서 살펴본 미디어의 정의를 토대로 난 어떠한 미디어를 접했으며, 그 미디어를 통해 어떤 생각들을 표현하고 공유하며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미리 준비한 각종 미디어 사진들을 시간대별로 나열해보고 그에 얹힌 사연들을 이야기해 본다.

두 번째 교육에서는 디카를 활용하여 동네를 다니며 사진을 찍어보고 윈도우 무비 메이커를 이용하여 사진 영상 편집을 한 후 상영회를 하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두 교사에게 공부방과 동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한 뒤 동네에 나가 사진을 찍어보고 그 사진들을 이미지 채료로 음악과 자막을 넣어 무비메이커로 영상을 편집하였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간단하게 편집 팁만 알려주고 교육을 종료하였다. 전체 커리큘럼 진행과정, 공부방 교사와 미디어교사의 시간상의 부족으로 2회 이상 교사교육이 힘들다고 판단했지만 2회에 걸쳐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촬영과 편집을 2시간에 끝낸다는 것도 사실 힘든 일이었음. 결국 편집은 알려드리기만 하고 직접 실습은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함께 감상하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린이 교육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보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연계하였다.

교사교육을 통해 공부방 교사와 미디어교사 간에 편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어린이미디어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소통과 이해가 깊어진 듯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교육 운영 평가

공부방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미디어교실 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미디어교실 운영에 대한 공유와 소통뿐만이 아니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교사들 간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남는다. 하지만 공부방 교사들의 일정 문제로 수업 시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필요를 체험할 수 있는 소통게임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 교육 결과물

작품명	시간	제작자	내용
열우물아이	2분 27초	강현구	어린이절 동네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변화해가는 동네의 모습을 안타깝게 그린 사진 에세이 영상

⑥ 지역공동체 어린이미디어교육

I. 사업내용

● 교육명 : 지역공동체 어린이영상미디어교육 <일상 속 상상 마당>

● 교육 배경 및 목적

어린이들이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지역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배움의 공간일 수 있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 속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꺼리들이 늘상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일상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어른들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일상공간을 설정하는 청소년들과는 달리 어린이들은 동네가 주된 일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동네 문화 생산의 주체이자 소통의 매개가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어린이들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영상미디어를 능동적으로 다루어보고, 어린이들 스스로의 생각과 이야기가 동네 안에서 소통되는 과정을 경험해봄으로써 계층, 연령 차이에 관계없이 독립적 의사표현의 주체이자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영상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자 하였다.

교육기간동안 달성하고자 노력한 교육목적은 아래와 같다.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발견되는 소소한 일상들과 관련된 자기표현물을 자신들이 직접 기획, 생산해봄으로써 소비 지향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 주류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고,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정형화된 세계가 아닌 자신의

일상과 현실 속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습득하여, 어른들의 시각에서 훈육이 필요한 미숙한 대상으로만 존재해온 어린이의 이미지를 깨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독립적 의사표현의 주체, 문화 활동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

그와 더불어 지역구성원들과 어린이도 문화와 소통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이들만의 문화와 소통방식을 공동문화 활동이라는 형태로 지역사회에 드러내고 공유하는 과정에 집중하여 활동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 미디어교육 사례를 창출하고자 한다.

● 교육목표

- 워크북,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이미지 등의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자기 표현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보고 또래 친구들의 생각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끼리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소통활동을 통해 말하고 듣는 기본적인 의사 소통에서부터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까지를 교육 시간을 통해 다양하게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사와 참여자, 참여자와 참여자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진 찍고 이야기하기 활동을 통해 '나'와 '동네'에 대한 일상적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같은 공간에 살고 있다는 동질감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한 일상적 소재들로 소통하는 것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사진전을 통해 다양한 미디어를 주체적인 소통의 도구로 인식하고 스스로 활동의 주체가 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삶의 터전인 지역 공동체 안에서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공유되고 소통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센터 방문 및 애니메이션 제작 특강을 진행하여 영상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즐겁게 미디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읽기 쉽고 친근한 영화교재를 활용하여 영상의 원리와 제작과정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 기획, 촬영, 편집, 배급이라는 영상제작의 단계를 골고루 경험해보고 좀 더 깊이 있게 미디어를 통해 나와 내 주변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 나와 내 주변의 이야기를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표현해보고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소통을 시도해본다.
- 상호존중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을 아주 작은 단위의 모둠에서부터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배워나가고 연습해보도록 한다.
- 상영회를 스스로 기획, 준비해봄으로써 나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친구들과의 협동심을 기르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대상 : 해님공부방 4, 5, 6학년 어린이 12명

● 강사

- 주강사 : 김수목(미디어교육활동가)
- 보조강사 : 안나영, 강현구(공부방교사)

● 교육내용

- 워크북 만들기
- 소통게임하기
- 나와 동네를 주제로 디카로 사진 찍기 :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개인별 사진 찍기, ‘공부방에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것’ 모둠별 한 컷 사진 찍기
- 동네 보물지도 만들기 : 모둠별 동네 보물 사진 찍기, 동네 지도 그리기 / 보물 이야기하기 / 발표하기
- 나의 일상의 ‘소리’를 담아본다
- 뉴스 형식을 빌려 우리 동네 이야기 소개
- 사진전 준비 및 진행 : 포스터 만들기/초대장 만들기, 사진전 진행)
- 영화보기 체험활동 : 영화 ‘요시노 이발관’ 감상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방문 : 페이퍼애니메이션 체험활동
- 애니메이션 제작 특강 : 모둠별 클레이 애니메이션 제작
- 영상제작의 원리 이해
- 인터뷰란 무엇일까, 누구를 인터뷰할까 : 인터뷰에 대한 이해, 모둠별로 인터뷰 기획, 촬영, 편집을 경험해보기
- 인터뷰 촬영, 편집 본격적으로 해보기 : 모둠별로 인터뷰 기획하기, 모둠별로 인터뷰 촬영 구성지 작성하기, 모둠별로 인터뷰 촬영하기, 모둠별로 인터뷰 편집하기
- 상영회 기획하기 : 상영회에 대해 이해하기, 나의 상영회 상상해보기, 아이들의 기획회의, 역할 나누기 및 상영회 연습해보기, 상영회 준비하기(초대장 만들기)
- 상영회 : “해님방이 났다”- 우리들이 만든 인터뷰 영상제 진행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 목적 · 목표 평가

첫 번째 목적의 경우, 삶의 공간에서 발견되는 소소한 일상들과 관련된 자기표현물을 직접 기획, 생산해보는 경험을 가지고 일상과 현실 속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관찰력을 기르는 것까지는 달성되었다. 사진 찍고 이야기하기 활동을 통해 자신과 친구들, 동네에 대한 사진을 찍어보면서 주변을 들여다보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반기 동안 진행된 교육 내용 및 결과물을 바탕으로 사진전시회를 진행함으로써 어른들의 시각에서 훈육이 필요한 미숙한 대상으로만 존재해온 어린이의 이미지를 깨고 스스로를 의사표현의 주체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반기에는 참여자들이 촬영, 편집한 인터뷰 영상을 직접 기획하고 상영하는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문화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목적의 경우, 사진전을 통해 교육 참여자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나 공부방 선생님들에게 어린이도 문화와 소통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아이들의 표현물인 사진 작품들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평가들은 가능했으나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였고, 또한 사진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통이 활발해졌다고 보기에 역부족인 부분들이 있다. 이는 하반기 교육에서 주로 달성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동네와 지역에 대해 생각하고 관찰하여 자기표현 해보는 것을 목표로 했던 상반기 교육 활동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공동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소통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활동을 배치하고자 하였으나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인터뷰’의 대상이 지역주민들에서 해님방 친구들로 좁혀지면서 지역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 측면은 있다. 상영회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잘 알리지 못했고 1년의 과정 안에서 소화되기에는 큰 목적이었다는 판단이다.

또한, 하반기교육에서 첫 번째 목적에서 구체적으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던 미디어와 세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리터러시 활동을 배치하여 그러한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커리큘럼에서 영상리터러시를 시도하였으나 아이들이 비판적 시각을 가지려면 아이들 주변 현상에 대해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먼저 배양되어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상반기에 진행된 리터러시 과정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현실을 새로이 보고 쉽게 관찰하며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진 찍고 이야기하기 활동이었으며 교육과정으로서 매우 적절했다고 할 수 있

다. 사진이라는 미디어에 어떤 것을 담을 수 있고 담을 수 없는지를 몸으로 이해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시각자료나 영상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과정보다 월등히 교육효과가 뛰어났다고 판단된다. 사진을 통해 주변 사물을 새롭게 보고, 사진과 실체가 다르다는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그러한 이해가 가능했을 것이다. 수업내용과 주제의 초점이 지역과 동네로 설정되면서 아이들이 지역 주민으로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해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과정을 확장하여 하반기 활동 전반을 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아이들을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소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였다. 그러나 상영회 당일의 준비 미흡과 참여자들과 교사들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하반기 교육동안 함께 준비 해온 만큼 모두에게 뿌듯함을 안겨주지는 못했다. 때문에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고 참여자를 비롯하여 공부방에 머무는 친구들, 교사들, 학부모들에게 공동체적 교육의 효과와 참여자들에 대한 가능성을 드러내고 보여주지 못하여 무척 아쉬웠다. 그로인해 간접적으로 참여자들을 통해 이야기로 혹은 참여자들의 작은 변화의 모습만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린이 미디어교육에 대한 느낌이나 상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원래 목적하였던 부분은 달성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1년간의 교육 활동으로 참여자들의 자발적 공동문화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다. 그러나 공동문화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친밀감 형성이나 참여자와 교사와의 관계형성 등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 이는 지속적인 전망을 가지고 내년이나 그 후에 아이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그 활동을 서로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을 통해 계속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 교육 내용 · 방법 평가

사진으로 담아낸 해님이들의 이야기

교육 참여자들에게 미디어라는 내용은 생소한 개념일뿐더러 익숙하지만 교육이라는 형태로는 처음 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미디어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보다는 일단 몸으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교육을 통해 만들어보자는 데 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있었다. 참여자들 사전설문을 공유한 뒤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 혹은 잘 할 수 있는 매체를 찾아보자 해서 사진을 선택했다.

처음부터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상반기는 어떤 활동, 하반기는 어떤 활동을 하자고 정해놓고 사진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굳이 사진을 선택했던 이유는 참여자들에게 친숙하고 다른 매체에 비해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수월했기 때문이다. 즉석리뷰도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작업이 쉬워 참여자들이 접근하기 좋았던 부분도 있었다. 물론 다른 미디어를 통한 다른 교육도 진행되었다. 소리를 녹음하거나 스튜디오를 체험해보는 활동이 그러한 예이다. 하지만 교육 참여자들의 연령적 특성에 따른 이해의 범주나 활동정도, 교육시간 등 모든 환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한 가지 미디어를 통해 다양하게 활동을 전개해하는 것이 교육 진행과 참여자들의 적응에 유리하여 사진 활동에 집중하였다.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기 위한 사진 리뷰 방법의 고민

참여자들이 촬영한 사진으로 이루어진 리뷰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특히 사진이야기를 다

루는 부분에 있어 수업 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양 보다 많은 활동내용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다루기 위한 시간이 여러 차시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이는 함께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주장사의 진행이 멎고 끊기가 잘 되지 못했던 이유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운영된 리뷰는 때 차시 시간을 촉박하게 이용함으로써 수업을 끝마무리 한다는 느낌을 참여자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개인 리뷰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동네에서 촬영된 사진들이 공동체 활동으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지 못한 점도 있다. 아마 하반기 교육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일 것이다.

구성원들의 소통으로 시작되는 지역과의 소통

해님공부방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활동을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선택에 있어 사진이라는 미디어가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는 활동 수단이 된 것 같다. 다만 미진했던 부분이 사진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속에 담긴 개인들이 이야기가 소통의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무게중심을 더 크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상반기 교육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구성원 관찰과 그에 대한 분석(선호도에서부터 주변 환경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 정도, 그리고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 있어서 분명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의 교사와 공부방 친구들이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는 이러한 시행착오 끝에 얻어낼 수 있었던 결과일 것이다.

사진전 이야기

이번 사진전 기획의 특성 상 공부방 주변의 이웃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기회는 되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사진전을 만들어낸 구성원들과 이들의 주변에 선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주변을 찍은 동네 사진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공부방 아이들, 또 이러한 소재들로 구성된 퀴즈 시간에 공간을 움직이며 열심히 문제를 맞힌 부모님들까지 사진전과 함께 한 소통의 경로는 무척 다양했으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공부방 친구들이 주위 분들에게 자신들이 소통의 중심, 즉 열우물 이야기를 생산하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운영방법의 공유와 소통방법 찾기

수업 초반에 교사가 설정한 교육의 목표치와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수업 참여의 이유가 잘 공유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 간극이 특히 운영 방법에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주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소통의 구조가 참여자들에게는 약간 낯선 방식이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수업에서는 참여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기를 원하는데 그 주체가 되는 해님방 친구들은 이런 나눔이 어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험의 문제로, 공부방에서 이 사업과 같은 장기적인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부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은 매일 할당량의 교과 학습을 진행하고, 학습이 끝나면 공부방 주변에서 친구들과 뛰어 놀거나 각자의 취미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된

다. 그런데 미디어 교실에서는 본인에게 주어진 할당량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혼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는 과제가 주어질 경우, 미디어 수업에서는 주어진 내용에 따라 잘(!) 찍어온 결과물이 그리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이루어진 활동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방에서 진행했던 여타의 프로그램 운영에 익숙했던 참여자들에게는 적응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하지만 상반기 교육이 끝난 지금은 사진 촬영 같은 놀이가 곧 학습이 되는 과정 중심의 문화 활동이 참여자들에게도 공감의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교사들이 왜 자꾸 질문을 할까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엔 왜 저 질문을 할까에 대한 똥한 표정들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질문들인지 이해하고 이에 어울리는 자유로운 의견들이 대담으로 표현되고 있다. 구성원들이 경험적으로 서로의 소통 방법에 대해 이해해가는 과정인 것이다.

하반기 교육을 위한 중간점검

처음 미디어수업을 세팅하면서 계획했던 교육 목적에 대한 이야기이다.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 교육 목적에 대한 실현 가능성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다가갔는가, 그리고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 것이었나, 에 대한 의견 교환이다. 그 평가를 참여자들이 지역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가 아닌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냐가 이야기 되어야 하반기 교육 설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능성을 발견했던 시간이라고 평가한다. 때문에 아직은 구체화된 형태를 고민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의 활동 목표와 비교하여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발현되지는 않을 거라는 느낌이 있다.

어쩌면 이러한 평가는 열우물 공동체에 적합한 소통 방법을 아직은 찾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 참여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시간이 많았지 지역 전체를 통틀어 평가했을 때 이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교사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오는 결과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역에서 순환되고 있는 공부방 교사들과의 관계와 이야기들 속에서 더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하반기 교육의 시작, 다큐의 이해

다큐란 단어 들어보기에만 익숙하지 실제로 무엇을 담는 것인지 어떻게 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특강을 준비했다. 그 안에서 다루어진 다큐들은 그 표현방법이 무척 다양했고 이를 통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법에는 무엇들이 있을까에 대한 예시를 들 수 있는 영상이었다. 하지만 그 다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재가 참여자들에게 관심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다. 유대인 학살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에게 자막까지 덧입혀 보여진 영상들은 친구들이 쉽게 집중하지 못하게 된 주요 요소가 됐다. 하지만 흥미로웠던 사례 발표 시간,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몸을 움직여 활동하게 했던 시간이었다. 이런 부분에서 유동적으로 교육 내용을 바꾸어 진행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영상제작과정의 이해

상반기에 보기만 하고 제대로 가지고 놀아보지는 못한 캠코더라는 미디어도구를 활용하여 제작과정을 배워보았다. 인터뷰 형식으로 기획, 구성부터 촬영, 편집을 거쳐 상영까지 제작의 기본과정을

경험하였는데 상반기에 활용해보지 못한 미디어도구라는 점에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호기심이 많고 그것을 습득, 응용하는 속도가 빨라 처음해보는 영상 제작에서도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인터뷰라는 형식자체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형식으로 가볍게 다가갔기에, 인터뷰를 기획하는 과정과 촬영, 편집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흥미 있는 시간이자 오랜 시간 노력한 결과물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물론 모든 참여자들이 전 과정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다. 어떤 친구는 촬영은 좋아하는데 편집은 싫어하고 어떤 친구는 기획은 좋은데 촬영은 별로 재미가 없는 등 개인차가 크게 드러났다. 그래서 이 과정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전 과정을 경험해보면서 영상을 통해 각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 또 각자에게 맞는 활동은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알게 되거나 새로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기획, 촬영, 편집, 상영 각각의 활동에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얼마만큼 활동목표를 공감하고 이해했는가와 관련한 것인데, 각 활동의 맥락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교육에 참여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인터뷰를 왜 하는지, 촬영은 왜, 편집은 왜, 상영은 왜??? 활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야기를 서로 나눔으로써 활동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반기 교육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그러한 소통들이 의미 있게 진행되었었고, 하반기에도 이를 염두에 두고 교육을 진행했지만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010년의 과정 속에서 풀어나갈 것을 기약하면서 주의 깊게 챙겨 가야 할 부분이다.

서로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인터뷰 만들기

인터뷰 만들기는 영상미디어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동네 안으로 한걸음 더 들어가 보고자 했던 활동이었다. 상반기에 동네보물지도를 만들면서 지역 공간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재구성해보았다면 인터뷰는 그 공간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시선에서 담아 보고자 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의 폭을 좀 더 확장시키고자 하였으나 인터뷰 주인공이 모두 공부방 친구로 정해지면서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 공부방 외의 사람으로 주인공을 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없었기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쉽고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공부방 친구들을 정하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인터뷰를 준비하고 찍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활동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고 실천해볼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었고, 함께 모듬을 이룬 친구와 의견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였으며 그 안에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나갔다. 더불어 하루에 몇 시간을 늘 함께 있으나 잘 몰랐던 친구의 취미, 이상형,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등을 알게 되면서 좀 더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왜 우리가 인터뷰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아이들이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하반기 미디어교육활동의 의미와 더불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야기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상반기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의 폭이 좀 더 확장되었던 활동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번 활동이 그 목표에 다가가는 중요한 밑바탕이 된 것 같다.

인물 정하기부터 편집까지 함께 만들어가기

인터뷰 활동은 모두 모둠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가 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인터뷰를 기획하고 촬영, 편집하는 과정은 친구와 협동해나갔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를 주인공으로 할지부터 어떤 인터뷰 영상으로 보이게 할지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과정이었다. 인터뷰 주인공을 하고 싶은 친구도 다르고 궁금한 점도 다르고 촬영을 하고 싶은 곳도 다르고 편집하는 방법도 아이들마다 다 다르다. (물론 조금씩의 차이를 빼곤 결과적으로 비슷했지만 말이다.)

이 다른 차이점을 어떻게 서로 맞추어 가느냐가 수업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였다. 자기의 의견과 친구의 의견이 다를 때, 상반기에는 교사가 모둠 안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다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조율해야할지를 아이들 스스로 방법을 찾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경험해보도록 하였다. 모둠 안에서 결과물이 나와야하니 한 친구가 빠지면 다른 친구가 그 친구의 몫까지 활동을 하면서 활동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편집을 할 때 한 친구만 계속 편집을 해서 다른 친구가 속상해하는 일도 있었다. 의사소통 과정이 폭력적으로 되어버려 상처를 받는 친구도 있었다. 반면 혼자서는 재미가 없어서 안하고 싶던 활동이 옆에 친구로 인해 재미가 생기기도 하였고,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힘든 일임에도 함께 활동을 함으로 인해 상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또 나의 의견을 말하고 하는 것 등이 상시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다른 친구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상대를 존중해가는 방법들을 조금씩 배워나갈 수 있었다. 교사들에게는 각각의 친구들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활동이기도 하다.

상영회 직접 기획하기

우리가 만든 영상물을 가지고 동네의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회의를 해 본 과정이다. 이것은 아이들 스스로가 문화생산의 주체이자 소통의 주인이라는 큰 목표에 한걸음 다가가는 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 상반기에 사진전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것은 교사들이 전체 기획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하였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공간에 교사개입이 많았던 것이다. 상반기가 소통의 간보기였다면 하반기는 제대로 맞보기라고 할 수 있다. 사진전의 경험이 아이들에겐 상영회를 직접 준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었다. 기획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일정과 준비물을 하나씩 정리해볼 수 있었다. 누가 올지, 몇 명이 올지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함부터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정하는 막막함과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서 하나로 정해졌을 때의 뿌듯함, 그리고 즐거운 간식정하기까지 기획회의를 즐기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이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인공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기획회의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아이들의 일방적이고 약간의 폭력적인 의사소통의 과정, 집중의 문제 등은 여전히 교육의 과제로 남아있고 이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들이 만든 인터뷰 영상제

인터뷰 영상제는 그동안 아이들이 준비한 것들을 작게는 공부방 사람들과 가족, 크게는 지역의 구성원 혹은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상영회 일정과 내용을 직접 만들고 당일의 역할까지 자원하였기에 아이들의 긴장감과 책임감은 사진전에 비해 엄청 컸던 것 같다. 게다가 첫 상영회를 넓은 영화관에서 진행하니 그곳에 적응하기까지도 쉽지만은 않았다. 상영공간에서의 리허설

이 있었어야 했으나 생각과 시간의 부족으로 리허설을 해보지 못함으로써 각각의 진행에 대한 아이들의 부담감 또한 컸던 것 같다. 그럼에도 자기가 하기로 한 역할은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완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에 이야기한 내용들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무슨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 계속 교사에게 묻거나 의논하였고 전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에는 이제 자신이 무대로 나가는 게 맞는지 등을 계속 점검하였다. 전체 사회자를 맡은 참여자는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영회에 대한 교사의 준비 부족과 몇 가지 문제 등으로 아이들이 상영회 행사 진행 전 최종점검을 하지 못하였고 상영회 시간, 순서, 관객과의 소통 등 전체 진행이 산만하게 이루어졌다. 하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상영회이자 1년의 미디어교육이 마무리되는 자리였음에도 그런 것들이 관객과 충분히 소통되지 못하였고 상영작 또한 소리와 화면의 문제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상영회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본다면 인터뷰 편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상영회 기획을 직접하고 역할을 나누고 자신의 역할에 맞는 대본과 준비물을 챙기고 상영회 마지막까지 자신의 역할을 잘해내었던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였다. 자신이 나오는 영상이 부끄러워 잘 보이지 못하고 연습까지 했던 관객과의 대화도 쑥스럽고 긴장하여 아쉽게 마무리되긴 했지만 아이들이 상영회 때 보여주었던 책임감과 소통의 시도는 아이들이 문화 생산자이자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자리이기도 하였다.

● 교육 운영 평가

처음 참여자 선정 방법으로 설정한 것은 기초생활수급가정 어린이나 한부모가정 어린이에게 개별적인 선택권을 주고 우선 모집한 뒤 나머지 인원은 일반으로 공개모집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공부방이 선정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검토하면서 주 교육대상으로 설정된 4, 5, 6학년 친구들이 총 12명으로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부방의 제안이 있었다.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공부방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설정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학교가 끝난 뒤 공부방으로 와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과였기 때문이다. 전체가 모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였으나 공부방 프로그램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의사가 없을 경우 참여자들에게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에는 선택의 자율성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거부감을 표현하는 아이도 있었으나 공부방의 또래 대부분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교육에서 재미를 느끼는 부분을 발견하면서 점차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린이교육은 애초 계획했던 교육 커리큘럼에서 일정 정도 조정이 되었는데, 이는 참여자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교사들과 수업을 통해 직접적인 관계 맺기를 시작하면서 참여자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교육 커리큘럼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을 자세히 파악하면서 수업의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수업양이 지나치게 많이 설정된 측면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공부방에서 수업을 하는 당일의 일과에 대한 미디어교사들의 실제적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교육을 시작한 한 달 동안은 매 차시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고민이 멘토 회의에서 논의되면서 월별로 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매 차시 교사회의를 통해 수업내용에 대한 자체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어린이교육 3회차부터 공부방교사도 교사회의에 결합하면서 아이들의 반응에 대한 분석이 세밀하게 진행되었고, 공부방 프로그램과 일정을 사전에 알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계획된 일정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발행했다. 사업 중간평가워크숍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워크숍 참여를 위해 1회 교육 일정이 밀렸다. 수업을 진행하는 중 영상작업의 특성상 참여자들의 속도 차이가 컸기 때문에 작품 편집 마무리를 위한 보충수업을 진행해야했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과 교육 전체평가 차시로 잡아놓은 마지막 수업을 보충수업으로 대체하게 되었고, 전체평가를 차시로 잡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연말 행사대관이 잦은 상영관 섭외 문제 때문에 인터뷰 상영회 날짜가 한 주 미루어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는 교육일정이 빠듯한데다 사업수행단체 및 공부방의 다른 일정들도 겹쳐있어 수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원래 계획한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었다.

어린이교육의 경우, 매 차시 간단한 교육 평가지를 통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 하였다. 처음에는 평가에 진지한 모습을 보였으나 교육이 끝나는 시간이 공부방 저녁식사 시간과 같아 참여자들이 교육을 끝마치기 위해 평가지를 서둘러 작성하는 경향이 었보여 사진전 준비 차시가 진행되는 때부터 한 사람씩 차시마다 돌아가며 그날 교육의 소감을 진행하고 끝마침 인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교사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학교에서 하는 마침인사와 같은 형식적인 인사로 마무리되었다.

이와 관련한 평가가 교사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하반기 교육 참여자들의 의사반영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나뭇잎 평가지는 그대로 진행하되, 매 차시 참여자들이 생각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평가지에 질문을 기재하여 나누어주도록 한다. 그리고 특별한 활동으로 배치된 차시의 경우(이틀테면 사진전과 같은) 별도의 평가 시간을 배치하여 참여자들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하반기의 경우 교육 과정 중 참여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나뭇잎 평가와 셀프카메라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다.

- 나뭇잎 평가 : 초등학생들에게 일주일이란 생각보다 긴 시간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졌던 프로그램임에도 다음 시간이 되면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학기 때의 활용 방법이 아닌, 지난 시간을 되돌려보고 그에 대한 기억을 되돌릴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는 수업 후 바로 이어지는 점심시간 때문에 대충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고, 그 날의 활동과 연계하여 사고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 같다.
- 셀프카메라 :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의실과 분리된 공간에 캠코더를 설치하고 셀카를 촬영할 수 있도록 세팅했다. 차시별 셀카에 대한 주제를 제안했는데, 이는 그 날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떠올려볼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었으며 교사들이 없는 자리에서 좀 더 편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 셀카 기록들을 돌이켜봤을 때 기획한 의도에 맞는 방법이었다고 생각되지만(방과후학습 때문에 미디어수업에 자주 참여하지 못했던 한 참여자의 경우, 주변 친구들에게 평소 하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시간을 만들기도 했다.) 그 회차가 두 번 밖에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 교육 결과물

작품명	시간	제작자	내용
페이퍼애니메이션 체험영상작품 3편	25초~35초	해님공부방 4, 5, 6학년 12명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애니메이션체험프로그램 참여 결과물
달걀	1분 13초	전민지, 정은서, 신혜수, 하유림	오브제 애니메이션. 달걀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중 잘난척 하는 달걀이 다른 달걀과 싸우다 죽고 나머지도 하나둘씩 사라지는데...
강아지와 전봇대	4초	백승호, 전영진	전봇대 주위를 맴돌며 생활하는 강아지의 모습을 표현한 클레이애니메이션.
목욕	19초	김재준, 하대훈, 김예복	클레이 애니메이션. 토끼와 그의 부하 곰탱이가 다른 부하들을 데리고 굳은 결의를 다지며 어디론가 향하는데...
픽셀레이션 체험영상작품 2편	1초~4초	전영진, 김시원, 백승호	사람 몸의 움직임을 사진을 찍어 붙인것과 같은 애니메이션 실습작
야구	3초	전영진, 김시원, 백승호	야구공이 날아가는 모습과 공을 치는 모습 등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였다.
내친민 (내 친구 민지를 소개합니다)	4분 42초	하유림, 전민지	해님공부방 하반기 교육 결과물, 공부방 친구들 인터뷰 영상
ㅋㅋ 우리들	4분 40초	신혜수, 백승호	
식스틴		이재준, 전영진, 서지련	
야구를 좋아하는 재준이에 대해?	6분 10초	김예복, 하대훈, 김시원	
교육 메이킹영상 2편		김수목	상반기, 하반기 교육메이킹영상

(3) 지역사회 협력 및 위탁교육

영역	교육명	기간
기타 협력교육	동암중학교 청소년 영상제작교육 〈즐거운 상상, 꿈꾸는 UCC〉	7/21~8/4
	문학정보고등학교 위탁교육 〈방송·영상의 이해-방송현장 견학〉	7/6~7/9
	문학정보고등학교 위탁교육 〈방송·영상의 이해-실무자 특강〉	7/7~7/10
	2009 문학정보고 하계 직무연수 〈영상기획과 구성〉	8/10~8/21
	시민동아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교육 〈연두빛 영상으로 싱그러운 소통하기〉	10/26~12/14
	정석항공고등학교 위탁교육 〈영화 리터러시 특강〉	12/10

① 동암중학교 청소년 영상제작교육 〈즐거운 상상, 꿈꾸는 UCC〉

I. 사업내용

- **교육명** : 동암중학교 청소년 영상제작교육 〈즐거운 상상, 꿈꾸는 UCC〉
- **교육목표**
 - 다양한 영상들을 접하고 비평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영상작품을 기획·구성
 - 영상작품을 제작하여 영상미디어를 이용한 창작의 즐거움을 느낌
 - 일상 속에서 영상을 자기표현의 매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주체적으로 경험함
- **교육대상** : 동암중학교 방송반 및 영상에 관심 있는 학생 12명
- **강사**
 - 주장사 : 황제은(중앙대학교 영화과)
 - 보조강사 : 최윤정
- **교육내용**
 - 다양한 영상물 감상 및 토론
 - 영상의 기획 및 구성의 이해
 - 짧은 영상작품 제작(촬영 및 편집)
 - 영상작품 상영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 목표 평가

영상을 보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영상작품을 제작해본다.

교육차시는 많이 짧았던 것 같다. 그 시간 안에 영상물이 완성되기는 빠듯했다.

교육참여자들이 그 날 그 날 배운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교육시간 안에 아이들과 피드백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 교사가 알려준 내용을 스스로 체득할만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아이들의 연령대 특성에 대한 사전 이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보다 치밀하게 수업 진행방식이 준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지적인 이해정도가 교사가 목표로 한 것만큼 높지 않았고 또한 또래의 특성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이에 대한 선행적 고려가 필요했다.

그러한 교육대상의 특성을 볼 때,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3회 3시간씩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았나 싶다.

사전에 교육참여자들의 개별적 특성을 좀 더 심도있게 알 수 있었다면 아이들에 대한 교육방식을 다르게 좀 더 쉬운 교수법을 고안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영상작품을 제작하여 영상매체를 이용한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영상을 자기표현 매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주체적으로 경험해본다.

전체적으로 영상제작은 즐겁게 이루어졌고, 주체적으로 영상을 만들어보는 경험이라는 목표 또한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결과물의 경우 3팀이 각 1작품씩 총 3작품을 예상하였으나 한 팀의 팀원들이 후반부 출석이 저조해지면서 2팀이 영상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 교육일정에 비해 영상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을까 싶다.

또한 두 작품은 주제가 처음 기획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그 이유는 영상제작과정에만 집중하여 기획 부분 즉, 이야기를 만드는 부분이 짧아졌기 때문인 것 같다.

일정이 좀 더 장기간으로 조정하지 않는 한 이번에 진행된 교육 커리큘럼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주어진 일정상에서는 단순한 이미지의 이해나 간단한 10컷짜리 영상작품 제작 커리큘럼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이번 교육은 청소년 영상제 출품과 작품 완성에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중심으로 움직였던 듯하다. 영상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얻어지는 성취감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소통에 집중하여 자기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의 초점이 재설정 될 필요가 있다.

● 교육 내용 평가

전체적으로 비판적 읽기 부분이 부족한 감이 있다. 대중매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퍼블릭액세스 영상이나 일반 시민들이 만든 영상, 독립영화 등의 좋은 영상을 함께 보고 영상을 보는, 혹은 세계를 보는 다양한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커리큘럼 비중을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

일정에 비해 교육량이 너무 많았다. 방학 때 교육을 몰아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으나 반드시 결과물을 도출되어야하는 상황에서 시간대비 교육량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영상촬영이나 편집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초적인 교육부터 진행되었고, 기획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여름휴가로 빠지면서 변수가 작용했던 부분이 컸던 것 같다. 기초 제작과정이었으므로 교육의 수준은 적합하였으나 기획과정이 짧아 촬영으로 넘어가지 못하여 전체 차시가 늘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내용 중 보태어 진행해야 할 부분은 영상리더리시 부분이다. 어떤 영상이 좋은 영상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과 비판적인 읽기를 통해 주류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가치들을 재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획 및 스토리텔링과정을 보다 충실하게 진행하여 참여자들이 수업시간에 작품제작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미디어를 보다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 교육 방법 평가

참여자들이 교육에 대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 모집과정에서 개별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방송반선생님이 설득을 하는 등의 비자발적 선택에 의한 참여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욕구를 표현 해오는 친구들이 없었던 데다 방학 보충 때문에 학교활동 외의 활동 자체를 귀찮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 오히려 학기 중에 1시간씩 진행했다면 더 수월했을 것 같다.

자기 진로를 방송 영상 쪽에 가지고 있는 친구 1명 빼고 방송반 아이들 다른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영상제작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다. 또한 일상적으로 영상을 소통도구로 활용하는 것도 여러

가지 여건 상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다. 저소득층 아이들이라 캠코더를 또 만져보고 편집하는 즐거움을 일상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또 일상공간이 학교와 동네를 벗어나 주안에 있는 미디어센터에 오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던 듯하다. 영상편집 기자재 문제로 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점검해서 활용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영상을 사전에 경험했던 친구들과 경험 하지 못했던 친구들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도 몇몇 친구들이 편집에 흥미를 모이며 재미있어했다.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었다. 기획단계에서 참여를 못하다가 아이들이 구성안을 쓴 것을 보고 충분히 고민을 안하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별 작품에 대해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만한 시간이 부족했다. 영상제 출품을 통해서 자기 작품에 대한 책임감은 가질 수 있었겠지만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소통과정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여 아쉬웠다.

촬영까지 했었던 한 팀이 편집과정에서 빠져버려서 아쉬웠는데,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총 세 모듬이다 보니 교사들의 주의력이 소홀해졌던 것 같다.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계속 피드백이 이루어졌었어야 했다.

처음에 작업을 시작했을 때 아이들의 무책임함에 좀 고민이 들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가면서 아이들끼리 협동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고 책임감에 대해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동 작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다. 책임감을 느끼고 끝까지 마무리한 아이들은 교사들이 끊임없이 피드백을 했던 아이들이었던 것 같다. 교사와 계속 관계를 가지고 관심을 보여준 것 때문에 끝까지 남아준 것 같다.

참여욕구가 많이 떨어지는 팀의 경우 진혁이는 방송반을 그만둘 수도 있다는 고민이 계속 있었고 그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중반부터 갑자기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

모듬별 작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끼리 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았던 편이었다. 진혁이에게 편집을 하도록 권유했으나 그 한 마디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 상현이는 친구가 관심이 많았는데 왜 진혁이랑 같이 갑자기 나오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모듬작업을 하다 보니 욕구가 몰리는 아이에게 역할이 집중되는 편이라 다른 아이들이 좀 지루해하는 눈치였다.

추후에 학교에서 영상을 상영하는 것을 함께 논의해보아야 할 것 같다. 학교 상영에 손님들도 초대해서 자기들이 상영회의 주인공이 되고 자신들의 작품을 영상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한 성취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활용도의 측면과 재미있게 미디어를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유리하다는 측면에서도 스틸사진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편집을 통해 포토에세이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교육과정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전체 교육내용의 단순화, 반복 설명 등의 교수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모듬활동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영상에 대한 경험별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모듬이 많으면 교사들이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교육기간이 길고 참여자와 관계 맺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모듬활동을 할 때 아이들 특성을 잘 파악해서 재배치했을 것이다.

● 교육 운영 평가

교육의 후반부로 갈수록 교사들 간의 소통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주장사와 보조강사의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가 달랐던 것이 수업시간에 작품에 대한 피드백 방식의 차이로 드러났던 것 같다. 보조강사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에 집중하였고, 활동 자체를 재미있는 활동으로 느끼기를 바랬다. 반면 주장사는 영상의 완성도와 구성력을 갖춘 작업에 집중하였다.

이렇듯 교육방식이 일치되지 않았던 지점이 발견된 데에는 학교와 센터라는 분리된 공간에서 교육을 진행해야 했던 것과 청소년영화제 출품 기간 때문에 결과물 완성 일자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듯 보인다. 또 아이들 작품 제작기간이 늘어지면서 편집과정에 오랜시간 집중하다보니 교수자들이 많이 지쳐있었던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에 교사들의 절적인 개입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편집과정에서도 교사들의 개입이 깊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교사가 계속 길을 잡아주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교사의 지도는 당연한 것이나 구성을 완성하고 재촬영하도록 지도했던 이유는 극중 배우가 교육에 불참하면서 보충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제대로 된 편집과정이 필요했으나 프리뷰 보충촬영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편집시간이 축소되었다.

학교환경은 촬영하기에 무난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미디어센터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이 있어 쉽게 찾아오기 부담스러워했다. 또 워낙 촬영본이 많이 바뀌어 재기획되고 새로 촬영되는 과정이 길어져 편집실에서 대부분의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편집실 자체가 좋은 구조가 아니어서 소통하는 데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학교보다는 닫힌 공간이어서 참여자들이 보다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뒤늦게 든 생각이지만 미디어센터 공간 활용에 대한 실질적 안내나 간단한 견학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 교육 결과물

작품명	시간	제작자	내용
내 마음의 작은 꿈	3분 6초	윤건웅, 김윤호	방송국 PD가 꿈인 건웅이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아보았다.
흥이의 부담감	4분 24초	임정묵, 김지홍	실제이야기를 극으로 재구성한 짧은 영화. 학원기기가 너무 싫은 지홍이.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학원을 쉬겠다고 하는데...

영상 구성력과 작품 완성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주제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기획과정에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다양한 시각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작품을 제작하는 중 자기이야기에 대한 부담이 있던 친구도 있었다. 학교에서도 보고 친구들도 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조심스러워했는데, 교사가 극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본래 경험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었다.

② 문학정보고등학교 위탁교육 <방송·영상의 이해-방송현장 견학>

I. 사업내용

- **교육명** : 문학정보고등학교 위탁교육 <방송·영상의 이해-방송현장 견학>
- **교육목표**
 - 인천지역 내 방송 현장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정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대상** : 문학정보고등학교 미디어콘텐츠과 3학년
- **교육 장소** : 경인방송 라디오제작 스튜디오
- **교육내용**
 - TV프로그램 제작 스튜디오(주/부 조종실), 라디오 제작 스튜디오와 외부 조종실 견학 및 프로그램 제작과정 견학

II 사업 평가

인천에 있는 방송현장과 미디어 관련 고등학교의 연계를 통해 체험학습 진행.
교육 내용은 경인방송에서 운영되는 견학 프로그램을 그대로 차용함.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됨.

③ 문학정보고등학교 위탁교육 <방송·영상의 이해-실무자 특강>

I. 사업내용

- **교육명** : 문학정보고등학교 위탁교육 <방송·영상의 이해-실무자 특강>
- **교육목표**
 - 인천지역 내 방송 현장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정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대상** : 문학정보고등학교 미디어콘텐츠과 2, 3학년
- **강사** : 박기호(라디오방송 PD)

- **교육 장소** : 문학정보고등학교

- **교육내용**

- 방송 스텝의 업무 이해
- TV/라디오 프로그램 제작과정
- 방송 현장 실무의 이해

II 사업 평가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강을 교과과정 중 배치하여 실행함.
진로 탐색 과정 중 일환으로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 협력교육을 기획, 진행함.

④ 2009 문학정보고 하계 직무연수 <영상기획과 구성>

- **교육명** : 2009 문학정보고 하계 직무연수 <영상기획과 구성>

- **교육 배경**

영상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된 문학정보고등학교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인 영상기획과 구성관련 교과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영화를 비롯한 다큐멘터리, 방송드라마 등의 다양한 영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실습을 통해 기획과정을 경험해보는 과정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는 문학정보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로 선정되면서 관련 학과에 대한 창의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 **교육목표**

- 영화 예술과 영상 산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영상 콘텐츠의 특징을 이해
- 다양한 영상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
- 영상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시나리오 작법 및 영상구성법을 익힘
- 기존 영상을 분석·토론함으로써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읽히는 비평을 익힘
- 창작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영화 예술 창작 지도를 위한 방법을 개발

- **교육대상** : 문학정보고등학교 교사 6명

- **강사**

- 영상기획과 시나리오 : 주영상(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디지털영화아카데미 시나리오 전임강사)
- 다큐멘터리 기획과 소재발굴 : 문정현(푸른영상 다큐멘터리 감독)
- 방송기획 및 편성 : 박기호(라디오제작PD)

● 교육내용

- 영화기획과 시나리오의 이해
- 시나리오 습작 및 비평실습
- 다양한 영상 함께 보고 이야기하기
- 다큐멘터리 및 퍼블릭액세스의 이해
- 다큐멘터리 소재 찾기의 방법 - 스토리텔링
- 영상 기획안 및 구성안 작성법 실습
- 방송기획 및 방송콘텐츠 제작과정의 이해
- 방송편성과정 함께 훑어보기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 참여자 평가

7월	에프터이팩트 초급 (텍스트의 즐거움)			
평가항목별 점수	①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평가	교육목표달성	90
			교육만족도	90
			교육양	90
			내용일치도	92
	②	교수방법 및 교육과정평가	교사만족도	97
			교수방법	95
			시간효율성	95
			친절성	97
			교자료 적합성	92
	③	교육환경 및 운영방식평가	교육환경	93
			센터지원	95
	④	교육 후 태도 평가	활용가치	95
			관심도증가	98
			센터신뢰도 증가	92
	⑤	강좌추천	강좌추천	100
평가총점				94

● 운영자 평가

직무연수를 위탁, 기획할 당시에는 영화 시나리오 작법과 관련한 실습 중심의 강의로 기획되었으나 학교와 세부 커리큘럼 협의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영상 장르의 기획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싶다는 욕구를 반영하여 전체 기획의 컨셉을 변경, '영상기획과 구성'이라는 틀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현장의 이야기들과 기획 및 구성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였다.

강의의 전체 비중으로 보았을 때, 시나리오 작법과 관련된 강의 및 실습이 70%정도를 차지하였고, 다큐멘터리 기획 및 구성이 20%, 방송특강이 10%를 차지하였다. 시나리오 작법 강의는 매 회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단편 시나리오를 한 편 완성해보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었다. 다큐멘터리 기획 및 구성 역시 다큐멘터리와 퍼블릭액세스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하여 짧은 스틸 사진으로 구성안을 만들어보는 실습을 병행하였다.

강의에 대한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는 총점 94점으로 높은 편이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교사만족도와 친절성, 관련내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 항목이었다.

직무연수의 목적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활용가치부분과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었나를 살펴본 부분도 95점, 92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참여자 모집과정 중 몇몇 참여자가 온전히 실습 위주의 강의인 줄 오해한 경우가 있어 교육 목표 달성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 참여자가 본 강좌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평가하였는데, 큰 틀에서 ‘영상기획과 구성’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장르를 접목한 방식의 강의가 신선하고 유용했다는 판단이다.

⑤ 시민동아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교육 <연두빛 영상으로 싱그러운 소통하기>

I. 사업내용

● **교육명** : 시민동아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교육 <연두빛 영상으로 싱그러운 소통하기>

● **교육배경 및 목적**

생태관련 강좌를 통해 만들어진 환경 소모임의 내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모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형태의 교육을 기획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기존에 만들어진 커뮤니티를 영상을 통해 활성화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데 교육의 목적이 있으며, 교육과정 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관계 맺기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목표**

- 사진 및 영상리터러시를 통해 영상언어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미지의 배치와 구성의 관계 이해
- 영상 편집의 원리와 기능을 이해하고 영상 이미지를 배치하여 각자의 감정과 사고를 영상으로 표현
- 영상작품 제작 및 상영을 통해 미디어로 소통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공동체적 소통과 함께 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재발견

● **교육대상** : 계양구 생태연구모임 회원 10명

● **강사**

- 주강사 : 김수목(인천 미디어교육활동가)
- 보조강사 : 안나영

● **교육내용**

- 이미지 리터러시
- 영상언어의 요소 이해
- 이미지의 배치와 구성의 관계
- 기초 편집 툴 무비메이커의 기본 기능
- “나, 생태, 삶”을 소재로 한 포토에세이 만들기
- 에세이영상 시사하기

● 기록



II 사업 평가

● 교육 목표 평가

사진 및 영상리터러시를 통해 영상언어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미지의 배치와 구성의 관계 이해 수업 전체로 보았을 때, 이미지 및 영상리터러시 시간의 비중이 영상제작에 할당된 시간보다 컸다. 때문에 숨을 고르며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고, 반응을 피드백 받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충설명하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예시를 들어 반복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다. 영상이나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음에도 참여자 대부분이 큰 어려움 없이 영상 언어의 원리나 이미지 배치 및 구성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다.

영상 편집의 원리와 기능을 이해하고 영상 이미지를 배치하여 각자의 감정과 사고를 영상으로 표현 수업과정과 커리큘럼을 사전에 공유했음에도 참여자들은 단순 영상 제작 수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다. 영상제작과정 전에 리터러시 과정이 참여자들의 기대보다 오랜 시간 진행되면서 정작 영상제작 관련 기술 강좌가 진행되는 차시에 처음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결석하거나 늦게 참석하게 되어 수업진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끝까지 수업에 참여하여 영상작품을 완성한 참여자가 전체의 80%인데다 작품을 끝까지 제작한 참여자의 대부분이 작품을 완성하여 시사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위의 목표는 일정정도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이 각자의 영상작품을 기획할 당시 설정한 주제와는 달리 실제 제작된 영상의 주제는 훨씬 축소되어 진행되거나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진행된다. 영상을 처음 제작해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영상제작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여 실제 교육 기간 안에 작품을 완성하기 어려운 주제나 많은 내용을 설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상제작과정에서 개별 코멘트를 진행하였으나 교사들과 참여자들의 기대치가 달라 참여자들이 절충점을 찾지 못했던 것 같다.

영상작품 제작 및 상영을 통해 미디어로 소통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공동체적 소통과 함께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재발견

상영은 크게 2회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교육생들끼리 만든 영상을 함께 시사하며 평가하는 마지막 자리에서였고, 두 번째는 모임 송년회를 빌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여 상영을 직접 기획/진행하였다. 영상이 소통되는 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경험했다는 점에서는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함께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고 공동체적 소통을 경험했는지의 여부는 잘 판단되지 않는다.

● 교육 내용 및 방법 평가

교육내용은 '주부'라는 교육대상에 맞게 천천히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과제가 부여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참여자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일상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수업의 내용이 조금씩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했다.

이미지 및 영상 리터러시를 진행할 때 가장 반응이 좋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다, 비판적 읽기를 위한 자료를 대상에게 적합한 것들로 선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아파트 광고나 김치냉장고 광고 읽기, 여성잡지 이미지 분석하기, 생태적 삶에 대한 주제로 사진 콜라 이야기하기 등 참여자들이 흥미나 관심을 가질만한 소재들을 통해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시각을 뒤집어보고 서로 토론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후반부에는 거의 제작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톨 설명을 개별 참여자마다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학습속도의 차이라기보다 제작 전단계인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었던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 계속 연달아 진행되는 과정에 늦게 참여하게 되면서 발생한 어려움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영상제작과정에서 참여자들끼리 관계를 맺거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리터러시 과정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서로의 영상을 봐주고, 서로 모르는 점은 알려주는 등 개별적으로 관계 맺기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러한 과정이 내부의 친밀함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매우 긍정적이라 평가된다.

● 교육 운영 평가

전체적인 교육 운영은 매우 원활한 편이었다.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커리큘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터 교육 운영자와 주강사, 보조강사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교육이 실제 진행 될 때에도 주강사와 보조강사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며, 그로인해 매 차시 진행되는 교육 내용을 서로 빠르게 피드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장이 미디어센터와 거리가 멀어 기자재를 이송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택시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기 때문에 강사가 해결하기 벅찬 부분이 있었고, 교육 운영자가 많은 부분 지원하였으나 무거운 편집용 노트북 7~8대와 캠코더 등을 옮기는 일은 쉽지 않았다. 기자재 이동에 대한 센터차원의 지원이나 강사의 기자재 운송비용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때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찾아가는미디어교육과 같이 외부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의 폭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며, 그것은 곧 교육의 질과 관련이 있다.

차후 미디어센터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고민하고, 외부 교육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 교육 결과물

작품명	시간	제작자	내용
2009 새로운 나의 삶	1분 53초	서미자	생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꽃과 곤충들, 그리고 밭에서 기르는 채소들 사진으로 표현해본 에세이 영상
굴업도를 자연공원으로 보존하자	3분 48초	이현남	인천의 아름다운 섬 굴업도를 지키고자하는 마음을 담은 영상
계양산 둘레길과 야생화	3분 52초	이현남	계양산 둘레길을 걸으면 볼 수 있는 다양한 자연물들과 길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담은 영상
나의 삶 수업에서	3분 5초	김경영	집 정원에 있는 작은 꽃 하나를 통해 보게되는 생명의 신비와 새로이 발견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그린 영상
내가 머물고 싶은 곳	3분 59초	장기순	아이들과 함께 산에서 생태놀이를 하는 기록 사진을 모아 만든 영상
옹달샘의 생명여행	3분 9초	노주숙	샘물이 흘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 사람의 삶도 흐르듯이 살아가야한다는 에세이 영상
초록누리 한 씨앗되리	4분 48초	박은영	가족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함께하는 삶	3분 25초	전경순	인간의 일생을 생명의 낱과 죽음으로 빗대어 묘사하면서 상처받고, 자라고, 성장해가는 인간의 삶을 표현 영상

⑥ 정석항공고등학교 위탁교육 <영화 리터러시 특강>

I. 사업내용

● 교육명 : 정석항공고등학교 위탁교육 <영화 리터러시 특강>

● 교육배경 및 목적

청소년들의 영상미디어의 활용이 문자미디어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범람하는 영상물들을 기준 없이 소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영화를 비판적으로 보는 훈련을 통해 사회를 들여다보고 미디어로서의 영화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정석항공고등학교 3학년

● 강사 : 최세진(영상비평가)

● 교육장소 : 정석항공고등학교 대강당

● 교육내용

- 비판적 사고란 무엇인가? : ‘국산영화’, ‘국산기업’에 대한 고찰
- 영화, 사진, 광고, 뉴스 등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
- 미디어는 왜, 누구를 위해, 어떤 거짓말을 하나?
- 함께 영상보기-괴벨스의 입

II 사업 평가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주류미디어를 보는 시각과 비판적 리터러시에 대한 강의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접근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시간이 50분 인데다 참여인원이 200명가량 되어 강의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질의 응답시간을 갖지는 못하고 관련 영상을 보며 수업을 마무리 하였다.

사회적 이슈나 일반적 사고방식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한 이미지, 텍스트들을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 자리잡아온 사회적 편견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대강당에서 단체로 듣는 강의라 반응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 중 몇몇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으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급작스럽게 학교 쪽의 요청으로 기획된 특강이라 강의할 내용의 맥락을 잡기 어려웠으나 강사의 역량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다. 이후 청소년 혹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강좌를 개설하는 데 바탕이 되는 커리큘럼이라는 판단이다. 1회성 특강이 아니라 차분히 함께 영상을 보고 토론할 수 있는 강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후 정규강좌에 미디어비평 강의로 바꾸어 진행해봄직하다.

(4) 미디어교육 교사양성사업

① 미디어교육교재 평가를 위한 교사회의

I. 사업내용

- 사업명 : 미디어교육교재 평가를 위한 교사회의

- 사업목적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공동교재 평가워크숍을 위해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가장 활발히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교재 활용 평가회의를 진행함으로써 교재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교재를 활용하게 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현장에서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일시 : 2009. 11. 16 오후 6시 ~ 7시

- 대상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교사

- 사업내용

- 공동교재 개발과정 및 교재의 목적 설명
- 공동교재 평가워크숍 취지 공유, 설문 작성
- 공동교재에 대한 의견 공유

- 참여자 명단

이 름	구 분
김수목	어린이, 여성미디어교육
안나영	어린이, 노인미디어교육
최운정	청소년미디어교육
이상림	청각장애청소년미디어교육
김 영	청소년, 성인미디어교육
박종필	장애성인미디어교육

II 사업 평가

- 운영자 평가

2008년 교재가 완성된 이후 개발된 교재를 센터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배포하였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동안 교재 사용에 대한 현황과 미디어센터 교육에서 활용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미디어센터 교육에 참여하는 교사들 대부분에게 메일을 통해 사전에 설문을 배포하였고, 그 중 특정 분야의 교육에 경험이 있는 교사들로 선별하여 회의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설문을 받은 교사들 중 일부는 교재를 받은 뒤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설문에 응답하며 자세히 읽을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럼으로써 교사들이 교재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한다.

2008년 교사양성과정 수료식 이후 교재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를 갖지 않아 교재를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교사들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 일정정도 의견을 교환하고 교재활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정리, 수렴하였다는 판단이다.

● 회의 기록 요약

1. 교재 전체 평가

1) 성인교재

- 전체적인 영상제작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중심이 되어 쉽게 서술되어있다. 또한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목적에 비해 기술적인 파트의 비중이 커 불필요하게 보이기도 한다.

- 교재가 그냥 강사가 참고하기에 좋고 특정 장애인미디어교육의 경우 비장애인교육과정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 미디어센터의 설립 취지와 정신을 적절히 표현했고 포괄적이고 대중적인 영상미디어교육 교재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

-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한다. 교육 참여자에 맞게 강사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면 좋을 거 같다.

-미디어센터의 설립 취지와 정신을 적절히 표현했고 포괄적이고 대중적인 영상미디어교육 교재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

-교재의 상당량이 일반적인 촬영기술과 편집프로그램의 소개에 할애되고 있다.

이 부분은 줄이고 예제영상을 실어주고 예제영상을 활용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내용으로 삼으면 좋겠다. 미디어교재가 영상기술교재처럼 만들어진 듯한 면이 많다.

-장점의 경우 이론적인 설명부분을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놓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사가 교육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이 잘되어 있다. 또한 이해한 것을 바로 실천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놓아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도표나 그림, 팁 등을 활용하여 빠지는 부분없이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미디어교육 시간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예시들이 많이 있어 단계마다 적절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단점은 미디어교육 시간에 교재를 참고교재로 사용하고 주교재로 활용하지 않았기에 단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 할 바가 없다.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이 교재를 거의 주교재로 활용해보면서 교재의 장, 단점을

참여자들과 함께 느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용이 충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디어 교육을 행하는 자, 혹은 받는 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글들이었다. 단점은 편집 과정에 있어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거?

2) 어린이교재

- 우선 미디어교육에 활용할 교재가 있다는 것에 큰 도움을 받았다. 예시안으로 활용하여 수업에 적용하였지만, 교재를 나누어주고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직접 미디어 교육 교재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교재만 훑어봤을 때는 구성면에서는 마음에 든다.

-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별 편차가 매우 심하다. 이 교재는 5학년~6학년 정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재이다. 그런데 교재의 디자인은 저학년들에 어울리는 것 같다.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서 교재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식으로 단계별로 교재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

- 우선 어린이용 미디어교재가 나왔다는 것에 반가웠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집중력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시선을 끄는 부자리는 TEXT를 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 자체를 활동 도구로 여겨질 수 있게 하는 좋은 자료인 것 같다. 미디어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 설명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루 일과 예시표에 담겨진 미디어들이었다. 대부분이 소비를 부추기는 매스미디어가 예시로 실렸는데 이는 실제로 교재를 보게 될 친구들 또한 이러한 미디어만을 소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 관점이 생산의 의미를 가진 퍼블릭 액세스와 연동되어 설명되었더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2. 교재에 대한 의견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

1) 성인교재

- 기술적 설명들/ 조명의 원리에 대한 쉬운 설명 필요

- 영상제작에서 기획과 편집이 제일 어려운데 시나리오전개방식을 다른 영화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이미 제작된 영화들을 사례로 해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편집도 가편집 상태와 편집 상태를 알 수 있게 영상물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음

-실제 교육에서는 교육참여자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데 본 교재는 그러한 교재를 만드는데 참고가 될 만한 좋은 자료라 생각한다.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이 값도 비싸고 그 작동도 쉽지 않으며 보급형 컴퓨터에서 쉽게 돌릴 수 있는 가벼운 프로그램도 아니다. 이 교재를 제작한 이유가 올바른 미디어의 활용, 그리고 활발한 제작에 초점을 맞춘 퍼블릭 액세스에 있는데 과연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이 이 취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이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혹은 이게 왜 적절한 대안이 못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겼더라면 좀 더 좋았을까..

2) 어린이교재

- 좀 더 새롭고 다양한 미디어 놀이, 미디어읽기 방법들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음

- 불필요한 부분은 없었고, 제가 활용한 방향이 재량활동 중 계발활동이었다.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계발활동을 반에서 뽑은 3명 정도로 20명이 한 반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20명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학습욕구가 매우 낮아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는 미디어교육보다는 체험활동에 가깝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나와 나의 주변이야기를 끌어내는 부분에서 조금 더 풍부한 예시활동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교사의 역량이나 아이들의 흥미도 문제였겠지만...

-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미디어에 접근하게 되는 이유가 재미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 같다. 목적이 재미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얻는 정보의 성격도 대부분 단순한 재미 위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고민이 드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애초 미디어 활용의 목적이 재미에 있는데 이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얼마나 어필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다. 왜 미디어가 재미를 위한 소비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비판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이 교재를 보는 친구들에게 얼마만큼 쉽게 소화될 수 있는 부분인 지에 대해 가늠이 잘 안 간다.

- 처음에 교재를 봤을 때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음. 교재를 활용하여 교육을 하는 곳이 생기고 내년에 다시 그 결과,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면 좋을 듯.

② 미디어교육 교사 간담회

I. 사업내용

- 사업명 : 미디어교육 교사네트워크를 위한 교사 간담회

- 사업목적

2009년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미디어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에 대한 상호교류를 통해 미디어교육 교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센터 미디어교육 기획 및 운영에 대한 강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일시 : 2009. 12. 11 오후 6시~7시

- 대상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교사

- 사업내용

- 2009년 교육사업 진행사항 공유 : 정규강좌 및 찾아가는미디어교육, 도서관공동체미디어교육, 공동체미디어교육 포럼,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동개발교재 평가워크숍 등
- 미디어교육 기획 및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에 대한 방향과 제언, 앞으로의 역할

- 참여자 명단

이 름	구 분
김수목	어린이미디어교육 주강사
안나영	어린이, 이주여성미디어교육 보조강사
나정민	조명 · 사운드의 이해 조교
문정현	실버영화제작교육, 동영상제작기초 강사
이란희	이주여성미디어교육 연극강사
박종필	정신장애인미디어교육 강사
황승용	실버영화제작교육 보조강사
황제은	동암중학교 UCC제작교육 강사
고민희	이주여성미디어교육 보조강사
이상림	성동학교 교사
김태우	미디어교육교사양성과정 수료
최세진	DVD클럽, 영화로 사회읽기 강사
이예지	DVD클럽 보조강사

II 사업 평가 및 평가

● 사업결과

- 간담회 내용 요약

- 교사재교육이 있었으면 한다. 학교에서만 미디어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들에서 한계가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늘어놓고 배울 수 있는 재교육 장이 있었음 좋겠다.
- 정규강좌들이 너무 기술 강좌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미디어 리터러시쪽 강의의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다.
- 청각장애 청소년들과 교육을 2년간 했었는데 강사선생님께서 수화로 이야기하시는 장애인 분이신데 그분하고 학교선생님하고 주안센터하고 교육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강사가 수화를 못하더라도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들과 소통 할 수 있는 사람이어도 좋을 것 같다.
- 요즘 많이 보급되는 DSLR의 사용법, 응용법, 팁 등을 다루는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
- 멀티교육실의 컴퓨터 관리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가끔 수업 중에 편집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시간도 늘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장비대여하시는 담당자 분이 매뉴얼을 잘 모르고 오래된 장비들은 매뉴얼이 자체가 없어서 불편하다.
- 고장 난 장비들이 수리가 안 된 채 계속 대여가 되어서 현장에서 당황할 때가 종종 있다. 나사 풀린 볼 볼 같은 경우도 하다가 이거 우리가 고장 낸 건가 불안하기도 했다.
- 그건 대여할 때 고장 여부를 안 알려줘서 그런 것 같다. 교육실 컴퓨터에 인터넷연결이 잘 안될 때는 수업이 늘어지거나 많이 고생하기도 한다.
- 그리고 이번에 이주여성분들과 수업하면서 극영화 만들기를 처음 시도했었는데 앞으로 수업 때 극영화를 해봐도 좋을 듯하다. 이전에 공동체 미디어교육이나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에서는 다큐 위주인데 극영화를 해도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다. 요즘 수업을 다니는 공부방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극영화를 봤는데 아이들이 흠비디오 찍은 것이었다. 공부방 대문을 그냥 감옥으로 쓰기도 하고 선생님이 아무 의상 없이 경찰로 나오고 자유롭게 재밌게 찍은 것 같았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시원스레 표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 제안해 본다.
- 이번 극영화 수업 때... 저도 전해들은 이야기라 잘은 모르지만 아는 고등학생이 참여했었는데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좌진행에 있어서 센터의 목적과 강사분의 목적이 공유가 잘 안되면서 좀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올해 센터 정규강좌로 들어간 극영화제작 수업이 있었는데 강사섭외하고 수강생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었는데 강좌가 진행되면서 수강생들이 자꾸 결열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자세히 말하면 섭외된 강사분이 처음에 수업하실 때 수업을 이왕 시작을 한 거 영화제까지 출품해보자 제안했고 처음엔 목표가 있어서 동기유발이 잘 된 것 같기도 했는데 그게 시나리오 작업 중에 강사분이 청소년 영화제에 출품하고 상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소들을 넣으면 잘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게 살인, 근친상간 등의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였는데 강좌 수강생들이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었다. 그게 크게 작용해 결열같이 되면서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 지는 수업이 되었다. 처음 참여자들이 가졌던 아이디어와 목표가 강사의 의도랑 충돌되어 본인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경우인 것 같다.
- 수강생들은 대부분 극영화작업을 해본 적이 없고 수강동기도 작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지가 궁금해서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센터에서 며칠 밤 새가며 편집하고 그러는 힘든 수업이 되었다고 한다. 수업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강사가 수강생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동상이몽, 엉뚱하게 진행한 수업이라는 의견을 전해 들다. 작년에 제가 극영화 수업을 들었을 때도 어느 정도 위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기획자와 깊이 있게 토론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들이 더 부각되고 심해진 것 같다. 이걸 단순히 강사의 문제라기보다 기획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 안타깝다. 작년에는 그래도 기획자가 많은 부분을 수렴해주고, 또 수강생은 센터에서 처음 시도하는 워크숍이라 이해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는 데 올 해의 이 사례는 교육목적이나 의도 자체가 너무 어긋난 것이 아닌가 싶다.
- 정규강좌 담당자 말로는 강사분이랑 강좌의 방향이나 수준을 공유 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결과도 그랬다 생각했는데, 막상 교육이 시작되고 과정을 모니터 해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이미 다른 분들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 작년에도 극영화 강좌가 뻑뻑하고 힘들게 진행 돼서 축소하여 초급에 맞는 방식으로 새로 기획하여 진

행했다고 알고 있다. 그게 이렇게 문제가 커져서 안타깝다. 극영화 수업을 들어오는 참여자들이 여러 가지 욕구가 있겠지만 작년에 들었던 수업이나 이번에 진행된 수업의 문제가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제작 과정이나 촬영기기사용과정을 보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인 경우가 있는데 강사가 작품의 완성과 완성도에 집중하셔서 참여자들의 소화범위를 넘은 강도로 진행한 것 같다. 격하게 표현하면 강사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느낌이었을까...

- 작년의 문제를 수정해서 보다 쉽고 재밌게 만들고자 했던 게 올해 극영화강좌인데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같아 내부에서 좀 더 이야기 해봐야 할 것 같다. 처음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반성을 하고 내년 극영화강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

- 강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작년이랑 비교하면서 이야기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정규강좌에 미디어교육정책이라던가 교육방법이라던가 듣고 싶고 들을 만한 수업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것 없이 기술 강좌 정도로만 진행된 것이 안타깝다.

- 또 교육에 대한 호보가 어떻게 되는건지... 가까운데 있는 미디어엑트는 온라인 회원만 가입해도 웹진이나 메일링이 오는데 주안센터에서는 그런 교육관련 소개 메일을 자주 받지 못했던 것 같다. 저 같은 경우엔 바빠서 홈페이지에 자주 못 들어가니 이메일이 오는 편이 편하더라. 다른데는 가끔 메일 들어가면 매달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 이런 분들이 들어라하는 팁까지도 알려주더라.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주면 좋겠다. 영상관련 이메일이 센터보다 인천문화재단에서 더 많이 오는 게 좀 놀랍기도 하다.

- 저는 이번에 DVD클럽에 처음 보조강사로 들어왔는데...담당 강사분께 이 교육이 어떻게 개설되고 취지가 뭐고 어떻게 하려했는지 등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운영하시는 분과는 이런 얘기를 체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구조가 없어서 역할분담을 어찌야 하는가의 감을 잡기가 좀 어려웠다. 다른 곳은 교육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회의하며 교육의 목적과 방향, 참여자들의 이후활동 계획을 이야기 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가져가는 지를 계속 이야기해서 의도나 취지를 알기가 쉬운편이다. 수업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좀 알고 있으면 해결 가능한 게 있지만 20차시 정도 수업을 진행하며 전체 교육목적을 앞에서 공유하고 가는 거랑 공유안하는 거랑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귀찮을 지도 모르지만 교육 초반의 기획 회의라던지 중간 점검이라던지 등의 회의가 왜 진행되지 못한 건지 궁금하다.

- 그 사업의 경우 선생님 말고 다른 보조강사분과 사전에 먼저 진행을 했었다. 그분이 중간에 그만 두시면서 선생님께 연락 드린건데 뒤늦게 드린 요청임에도 수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있다.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진행자가 바뀌고 결정된 최세진 선생님과 그분과 함께 준비했던 보조강사분은 3개월 정도 사전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중간에 그 선생님이 취업 때문에 그만두시면서 대신 맡게된 것.

- 또 하나 말하자면 센터에서든 외부에서든 센터가 결함해서 진행하는 수업이 많은데 교육장비가 다들 모자란 상황이다. 심지어 두 분이 한 대를 나눠 쓰거나 장비가 없어 수업차시가 밀리기도 한다. 주안센터에서 하는 수업도 장비가 없어서 난리가 나는데 다른 단체나 공간에서 수업을 하려고 장비를 여기서 빌리려 해도 주안 자체 수업도 힘든 상황이라 빌려가고 싶어도 못 빌려가는 상황이다. 장비도 수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품목 역시도 전문 촬영용 장비들이 많고 교육용 장비는 빌리고 싶어도 장비들은 수량이 없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다. 내년에는 구입계획이 없는지... 이대로라면 인천에서 하는 수업에 쓸 장비를 미디어엑트까지가서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 내년에 구입할 계획이다. 미디어교육 스텝들도 교육에 쓸 기자재를 서로 조율하고 계획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 해야하는 교육 양에 비해 장비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 그럼 감당 할 수 있는 만큼만 기획하는 건 어떤가요?

- 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획한다 생각해왔다. 미리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여건도 이미 다 계산하지만 아시다시피 교육이란 것이 변수도 많고 일정이 유동적인 편이라 사전에 계획을 한다 해도 일정이 밀리고 서로 엉키는 경우가 많다.

-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장비가 절대적으로 모자라긴 한 거 같다. 지역에서 요구는 많아지는데 감당할 수 있는 기자재는 너무 제한적인거 같다.

- 내년 구입 예정 기자재 목록에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이나 협력교육 등 기초 교육에 쓸 수 있는 장비들의 품목을 늘렸고 수량도 늘렸다.

- 확실히 내년에 그 분량만큼 구입되는건가요?

- 계획은 확실히 있으나 예산이 확실히 분배될지는 알 수 없다. 예전에 인수받은 JVC카메라가 올해계속 교육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센터도 만 3년간 기자재를 사용했기에 이번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내년에 예산을 받아봐야 확실해 질것 같다. 교육은 늘어나고 센터에서 하는 교육 말고도 외부에서 교육용 기자재 대여요청이 많은데 그걸 잘 못하는 상황이라 꼭 확충되었음 한다.

- 다른 이야기로 교육프로그램 만들 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수강생들이 중간에 일이 생겨 빠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주여성 쪽 교육은 너무 길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주부들이) 수업의 수강생들이 취업이나 가족 대소사가 생기면 수업에 잘 참여 못하는 편이다. 개인적으로 수업을 듣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가족에게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우리나라 이주여성(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그 정도로 낮다. 현실에 맞춘다면 수업을 좀 줄이고 똑 같은 수업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진행한다거나 하면 더 적합할 것 같다.

- 기존의 공공적이고 대안적인 소통이 축소되고 있는 것 같다. Rtv나 인디스페이스가 계속 위협당하고 서울인권영화제가 영진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일이 늘어서 영상교육을 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듯하다. 센터의 경우는 교육 마치고 제작발표회 한번 하는 게 다인데 그 이외의 배급의 경우 수강생이 자체적으로 한다거나 강사가 다 한다. 소통공간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센터가 연말에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을 모아 상영회를 한다거나 센터가 기획해서 지역영화제를 한다거나 하는 소통공간을 확충하려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한다.

- 또 다른 얘기로 홈페이지에 동영상 올리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은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이다.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은 그 방법을 잘 모를텐데 인터넷을 통해 자기 콘텐츠를 노출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빈민에 대한 교육은 없는 것 같다. 빈곤지역 공부방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있는데 빈민자체를 정확한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은 잘 진행되는데 사회적 약자로 잘 용인 안 되는 정신장애라던가 빈민이라던가 그런 대상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편이라 본다. 정신장애 경우는 다른 장애인과는 차별되어 위험한 사람 개인적인 문제로 많이 인식되고 빈민에 대한 사회적 시각 역시 개인의 부족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럴수록 빈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로 용인되는 대상 이외의 약자들에 대한 미디어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철거민 대상 미디어교육은 못 들어봤다. 그나마 2006년도에 미디어엑스에서 노숙인 교육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엑트도 그 강좌를 접었고 그 이후로 미디어센터가 노숙인 빈민 철거민에 대한 교육을 했단 이야기는 잘 못 들어 봤다.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소수자 뿐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 약자들을 위한 교육이 확충되었으면 한다.

- 그러한 부분은 센터도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참 공공기관인 센터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실행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 늘 과제로 남아있는 영역이다. 그래도 조금씩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기획자 개인의 역량문제가 아니라 센터차원의 방법 모색이 필요한 부분인 듯하다.

- 서울에 '홀리스 행동'이란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2005년도부터 노숙 당사자 분들을 교육해 왔었고 2007년부터 주말배움터라고 해서 토, 일요일 교육을 봄 학기, 가을학기해서 진행 해왔다. 내년에 야학으로 발전시킬 계획인데 이번 주 일요일 학예회 비슷한 행사를 진행한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물론 그런 단체에서도 미디어 교육을 했었지만 보다 안정적인 공공의 영역에서 진행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또 서울 뿐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 저는 이번에 센터 공간을 빌려 영화학교를 진행했다. '시민영화학교' (대관사업)라고... 기획 잡아 진행하다보니까 장비가 없어서 이 곳 장비를 대여하는 식이었는데 인하대 팀도 있고 몇 팀 정도가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동아리나 팀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었음 한다. 제작지원의 형식으로 강좌후속모임을 지원 할 수 있었음 좋겠다. 그간 교육을 통해서나 이래 저래 센터를 다녀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한다.

- 일단은 진행되던 교사네트워크부터 잘 해야 할 텐데... 교사양성과정을 작년에 진행 했는데 기존에 교육 활동을 하시던 분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수업을 들었다. 여기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 분들이시고... 그 후속 활동으로 교사네트워크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고 올 초에 한번 만나서 활발하게 만들어 보자로 기획했는데 잘 안되었다. 교사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만들면 참가할 사람도 있을 거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을 거래 생각한다.

- 온라인 모임으로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온라인으로 모임을 시작하는 건 무리라고 본다. 오프라인에서 먼저 활성화 되어야 온라인에서도 뭉치는 거니까...네트워크문제는 구성원들이 고민 내용이 공통된 게 없어서 잘 안 된 듯하다. 미디어교육에 대한 고민보단 영상수업에 대해 고민하는데 그 관심 지점이나 이유가 달라서 만나도 딱히 할 이야기가 없고 그래서 잘 안된 것 같다.

- 네트워크 자체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 안에서 고민지점은 각자 다를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내기 위해선 네트워크를 만들고 전체모임을 추진하는 경우에 전체 모임에 대한 확실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 때문에 만나야하는 동기생기면 잘 뭉칠것이다. 그 무엇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관심사가 다른 건 분과 식으로 관심사가 비슷한 소모임들이 만들어지면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 모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건 강의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시간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면이 있다. 차라리 재교육 식으로 가면 목표도 생기고 해서 더 잘 모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오실 수 있으신지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은...?

- 강의가 적은 편인 겨울에 한다면 가능 할 듯하다. 1, 2월 정도가 좋겠다.

● 사업평가 및 과제

- 2007년 미디어센터가 개관한 이후 함께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해온 미디어교육 강사들과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전혀 없었다. 이번 간담회를 빌어 미디어교육 강사들이 생각하는 센터 미디어교육에 대한 현황과 과제들을 공유하고 미디어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래의 사업 목적을 어느 정도는 달성하였다는 판단이다.

- 2008년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 이후 만들어진 교사모임에서 2차례 소모임 형태로 비공식적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2009년에 계속 연계되지 못하여 미디어교육 교사들이 서로의 교육 현장을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다. 이번 간담회가 일정정도 교사네트워크를 위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공통적 관심사나 논의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다.

- 미디어센터가 교사들에게 자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 친밀해지고, 교육에 대해 함께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구체적으로는 미디어교육교사들을 위한 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교육 혹은 워크숍을 기획하거나 미디어리터러시와 관련된 스터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 같다.

- 교사네트워크나 모임이 긴밀하고 빈번하기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여 재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대부분 참여 가능한 기간은 1월~2월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지점을 고려하여 2010년 교사양성사업이 기획·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5)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① 2009 청소년 캠프

■ 사업내용

■ 사업주최

○주관 : 주안, 김해, 대구, 안동영상미디어센터

■ 목적

- 미디어·영상 관련기관과의 효율적인 연계구축 및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 도모를 통하여 미디어·영상분야의 잠재인력을 조기 발굴, 지역의 영상문화 진흥에 기여
- 자발적 참여와 체험을 통해 자기주도적 능력을 겸비한 청소년 미래상을 제시
-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예술자원과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폭 넓은 영상문화 체험기회를 제공

■ 사업내용

- 주 제 : YOUTH! WHO? 미디어를 소통하다!(가칭)
- 일 시 : 2009. 08. 07(금) ~ 08. 09(일)(3일간)
- 장 소 : 경북 안동일원
- 참 석 대 상 : 80명
※ 4개 권역(김해, 대구, 주안, 안동) : 각 지역별 청소년계층 20명
- 캠프일정

1.일자	행사명	주요내용	장소	주관
8. 07 (금)	① 입소식	캠프 입소식 및 선서	안동대학교 강당	안동미디어센터
	② 중식	중식 및 휴식	안동대학교 숙소	참여기관 전체
	③ 감독초청 특강	영화관람 및 감독과의 대화	안동대학교 강당	참여기관 전체
	④ 기획회의	조편성 및 제작기획	안동대학교 숙소	참여기관 전체
8. 08 (토)	⑤ 조식	조식 및 휴식	안동대학교 숙소	참여기관 전체
	⑥ 현장체험 학습	안동 전통마을(조별 촬영)	전통 하회마을	참여기관 전체
	⑦ 중식	중식 및 휴식	하회마을 일원	참여기관 전체
	⑧ 현장체험 학습	래프팅 및 극기훈련	청량산 일원	참여기관 전체
	⑨ 석식	석식 및 휴식	안동대학교 숙소	참여기관 전체
	⑩ 작품제작	1.조별 편집 및 작품완성	안동미디어센터	참여기관 전체
	⑪ 작품발표회	작품시사 및 발표	안동대학교 강당	참여기관 전체
8. 09 (일)	⑫ 조식	조식 및 휴식	안동대학교 숙소	참여기관 전체
	⑬ 수료식	수료증 수여 및 퇴소	안동대학교 강당	안동미디어센터

II 사업 평가 및 평가

■ 사업결과

- 전국 고등학생 74명 사전교육 및 캠프 참가
- 전국대학생과 각 센터 직원들 24명이 스텝으로 참여
- 2009년 8월에 2차로 추진하는 청소년캠프사업으로써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4곳이 공동으로 계획하고 집행한 사업. 4개 각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담당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 2박3일간 진행되는 캠프의 원활한 진행과 각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개별사업과 공동사업간의 유기적 결함을 목적으로 사전교육 진행- 영상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제작 기초교육
- 총 10개조 10작품 제작

팀명	제목	장르	작품길이
1조	와~ 올레	단편	3:19
2조	하회마을홍보	단편	2:25
3조	소원을말해봐 A버전/B버전	단편	1:10
4조	안동홍소핑	단편	2:51
5조	혹시,당신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공익광고	1:51
6조	우리의 추억	단편	2:25
7조	그 남자의 사정	단편	3:45
8조	소원을말해봐	단편	2:44
9조	lost	단편	1:47
10조	하회마을자랑거리	단편	3:32

■ 기록



■ 사업평가

- 참여 학생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사전교육을 받고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추가모집을 단행
- 두 그룹의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을 추가로 모집하였고 청소년 미디어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서로의 경계로 순탄한 진행의 어려움을 겪음
- 청소년 영상미디어캠프의 안정적 운영과 조별작품 제작 및 상영을 통해 영상미디어교육에 대한 지역 영상미디어센터의 전문성을 드러냄
- 영상제작을 위한 기자재, 시설,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들의 공동사업을 통한 영상미디어캠프의 차별성 확보
- 총 10개조 10작품 제작
- 사업 결정부터 추진까지의 기간이 짧음으로 인해 전국에 산재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실무자 서로가 원활한 논의를 통한 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
- 날씨의 변화로 그에 따른 스케줄 조절에 있어 대책마련이 부족

②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동개발교재 평가워크숍

I. 사업내용

- 사업명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동개발교재 평가워크숍

- 사업형태

- 주최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 공동주관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대구영상미디어센터,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 사업목적

2008년 개발된 미디어교육 교재 2종에 대한 지역별 활용 현황 및 평가를 공유하고 장기적인 교재의 수정 및 세부 평가계획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 사업방향

- 공동으로 교재를 개발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5곳의 교육실무자들이 모여 교재평가워크숍 준비회의를 진행, 교재 평가방법 논의 및 교재평가워크숍의 규모와 방향 설정
- 교재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메일을 통해 공동교재 수령자를 중심으로 배포, 취합
- 교재평가워크숍에서 설문지 분석을 통한 1차 교재평가 및 지역별 교재활용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교재 현황 파악, 평가의 초석 마련

- 일시 : 2009. 11. 20 오후 3시 ~ 5시

● 장소 :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세미나실

● 대상 : 공동교재 개발에 참여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실무자 및 미디어교육활동가

● 사업내용

- 공동교재 평가설문 내용 및 분석자료 발표
- 교재 활용 사례 발표(성인1, 어린이1) 및 토론
- 공동교재 세부 평가 계획 논의

● 워크숍 사회 및 발제자 명단

이 름	구 분
이희람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동교재개발 기획자, 인천 미디어교육활동가
경희령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담당자
안나영	인천 미디어교육활동가-어린이미디어교육
김경탁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담당자
김재훈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담당자
김정훈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담당자
진종두	김해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담당자

● 기록



II. 사업 평가 및 평가

● 사업결과

- 공동교재 평가워크숍 논의 내용 요약

공동교재 평가 설문 방법

교재가 전국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와 영상미디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들에 배포된 후 각 지역의 교육 현장에서 교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평가 설문을 실시한 첫 번째 목적이며, 두 번째는 설문을 배포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미디어교육을 기획·운영·실행하고 있는 교육현장에 있는 미디어교육 기획자 및 활동가들에게 미디어교육교재를 다시 펼쳐보게 하고 교재를 꼼꼼히 훑어보게 하여 향후 교재의 활용 및 평가에 대해 보다 많은 단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미디어교육 기획자 및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메일을 통해 배포·수렴된 설문은 총 85부(성인교재 54부, 어린이교재 31부)이며, 설문에 기재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공동교재의 양적 평가를 위한 설문 작업을 진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단위는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김해영상미디어센터,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아리랑미디어센터,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익산영상미디어센터, 전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진주영상미디어센터,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춘천시청자미디어센터의 총 15곳이며, 교재 평가 설문 응답자의 다수는 2008년 교재가 배포된 단위들 중 교재를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교사, 미디어교육활동가 등이었다.

설문은 성인교재와 어린이교재가 각각 따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의 문항은 교재 전체평가, 교재 활용도 평가, 교재의 적절성 평가, 교재 내용평가, 기타의견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방식으로는 5개의 항목 중 택일하여 점수를 매기는 5점 평가지표와 직접 기재, 항목별 순위매기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공동교재 평가 설문 분석 및 워크숍 논의 내용

성인교재의 경우 교재 전체평가에서는 응답자의 90%가 교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92%가 미디어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교재에 충실히 드러난다고 답하였다. 교재 활용도 평가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0%가 교재를 미디어교육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답하였으며, 교재활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64%가 미디어교육에 교재를 활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의 87%가 교재를 교육에 활용할 의사가 있으며 교재가 기초교육에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어린이교재의 경우 교재 전체평가에서는 응답자의 87%가 교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90%가 미디어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교재에 충실히 드러난다고 답하였다. 교재 활용도 평가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8%가 교재를 미디어교육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답하였으며, 교재활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38%가 미디어교육에 교재를 활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교재를 미디어교육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87%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며 전체의 42%가 학교 방과 후 교육에 가장 적합한 교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교재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성인교재는 예상보다 여러 교육에서 다양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어린이교재는 성인교재에 비해 낮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교재를 미디어교육에 활용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교재 수정사항에 직접 기재하는 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데 이는 실제 교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진행한 교육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주로 수강생들의 평가에서 이러한 지

점이 눈에 띄는데 직업연수의 개념으로 미디어교육을 접한 사람들에게 교재는 너무 어설피고, 미디어에 대해서 처음 배워보고자 센터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교재가 두껍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 대해서 워크숍 참여자들이 논의한 바로는 이 교재가 난이도가 중심에 있는 교재가 아니라 교재 생산에 참여했던 5개의 센터들의 공통분모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작기초 강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것이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미디어교육 교재가 단순히 교재로서의 의미보다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고민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제작교육에 대해 수강생들이 욕구하는 기술적 부분에 대한 충족과 수업과정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어 영상작품으로 완성해봄으로써 온전히 제작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잘 절충되어 조화롭게 하나의 교육과정에 녹아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과제로 남았다. 교사의 역량에 따른 교재활용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도 또 하나의 과제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미디어교육 기획자와 교사의 관계 설정 및 미디어교사의 재교육문제와 연결되어있어 이것 역시 교재활용만의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하거나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 결과물

지역영상미디어센터네트워크 공동개발 교재 평가워크숍 자료집 발간 (1종)

● 사업평가 및 과제

-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든 교재가 어떤 과정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탄생된 교재인지 맥락을 드러내어 설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한다. 이에 따라 교재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교재의 현장 활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공동교재를 생산한 5개의 센터를 중심으로 공동교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이후에는 이러한 평가를 여러 단위와 함께 공유하고 교재평가를 넘어서는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을 같이 풀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 지속적인 미디어교육 실무자들의 만남과 미디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연결되는 사업들 간의 긴밀한 소규모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통해 이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그려보고, 그에 맞게 공동교재를 새로이 다듬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6) 찾아가는미디어교육 기자재 지원사업

① 사업내용

● 목적

-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 불평등한 조건에 놓여 있는 지역의 사회구성원들의 커뮤니케이션권리와 미디어교육권리 신장
- 지역 공동체들의 민주적 소통과 자치, 퍼블릭엑세스 활동을 지향하는 공동체 미디어활동의 활성화

● 방향

- 유료와 무료지원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형태로 지원 실행
- 미디어교육, 공동체미디어활동, 퍼블릭엑세스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공동체 및 단체 지원

● 개요

- 기간 : 2009년 1월 ~ 12월
- 대상 :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인천에 소재하는 개인 혹은 단체.
(단, 상업적 용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형태
 - '가'형 지원 - 기자재를 유료로 이용
 - '나'형 지원 - 기자재 할인 이용
 - '다'형 지원 - 기자재를 무료로 이용
- 지원 절차
 - 신청서 제출 → 지원여부 결정 → 이용료 지불(무료이용의 경우 예외) → 이용 및 반납 → 교육결과물 제출(유료이용의 경우 예외)
- 지원기자재 구성

분류	품명	모델	세부구성	구비수량	대여비 1일 기준
촬영	디지털 캠코더	JVC GR-DV3000KR	· DV3000 본체 · 충전기 · 배터리 · 카메라 케이스	8대	5천원
편집 편집	데스크탑 컴퓨터		· 데스크탑 본체 · 모니터 · 각종 전원선	15대	5천원
	노트북		· 노트북 본체 · 전원선, 마우스 · 노트북 가방	6대	1만원

※ 편집프로그램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상시
 - 모집방식 : 홈페이지 공고
 - 모집대상 :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인천에 소재하는 개인 혹은 단체.
 - 지원방법 : 서류작성 후 이메일(edu@juancamf.or.kr)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찾아가는미디어교육 기자재 지원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개인), 단체 사업자등록증 1부(단체)
- 지원여부 결정 :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지원 여부 결정 개별 통보

② 사업결과 및 평가

● 사업 결과

지원 형태	지원 신청자(단체)	관련 사업명	지원 기자재	지원 수량	지원 일수	비고
'다'형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야 놀자	청소년 문화동아리 웹진 제작을 위한 합숙교육	데스크탑 컴퓨터	6	6	무료 지원
'가'형	서울국제여성 영화제	다문화 부부가 만드는 '함께하는 카메라'	노트북	6	1	유료 지원
			디지털 캠코더	8	11	
			디지털 캠코더	3	7	
'다'형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정신장애인 미디어교육	데스크탑 컴퓨터	3	14	무료 지원
			디지털 캠코더	5	14	
'다'형	십정동 해님공부방	지역공동체 어린이미디어교육	데스크탑 컴퓨터	2	65	무료 지원
			디지털 캠코더	2	1	

● 사업결과 및 평가

- 미디어교육을 기획,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단체와 시설 및 개인들을 대상으로 함.
- 미디어센터에서 컨설팅한 교육의 경우, 무료로 찾아가는미디어교육 기자재를 지원함.
- 센터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게재, 찾아가는미디어교육 및 지역사회 협력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주민들의 개별 전화 요청이나 단체의 교육 기자재 사용에 대한 요청에 지원제도 안내 및 연계
- 처음 사업이 시행된 2008년에 비해 지역사회의 요구가 늘어남, 이에 따라 지원 기자재 수를 늘리는 방법이나 기자재를 확충하는 방법 등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 있음.
- JVC 캠코더의 경우, 미디어센터에서 새로 구입한 장비가 아닌 기존의 장비를 인수인계 받은

것이라 이미 오랜 사용으로 노후화 되어 빈번한 고장으로 인한 상시적 수리 필요. 이로 인한 수리비용이 급증되었으며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판단. 노후화된 기자재 처분 및 새로운 기자재 확충 필요.

- 지역사회에서 기자재 지원을 신청하여 진행되는 교육이 기초교육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디지털 카메라나 소형 핸디캠(HDD캠코더) 등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더 많음. 또한 데스크탑의 경우 장기적 형태의 교육에 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있어 기자재 이동의 문제 발생, 중간점검과 관련하여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 데스크탑 및 노트북의 경우 편집프로그램을 운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컴퓨터들이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함. 또한 일상적인 기자재들의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라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에 포함하거나 업무의 분담 필요.

(7) 미디어교육 컨설팅 사업

① 사업내용

● 목적

- 지역 내에서 미디어교육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단위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미디어교육이 여러 단위에서 실행되어 미디어교육의 저변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주민들이 미디어교육을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미디어교육 및 미디어활동과 더불어 미디어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방향

- 인천에서 미디어교육을 실행하고자 하는 지역 내 단체, 기관, 모임 등의 단위를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의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각 지역의 미디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대상별, 계층별, 조건별 미디어교육 사례들을 바탕으로 교육 목적과 환경에 적합한 교육 커리큘럼을 교육실행단위와 공동개발
- 미디어센터 내에 구축되어있는 교사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교육에 적합한 미디어교사 섭외
- 미디어교육 실행 단위의 교육 목적과 환경에 따라 정규강좌 특강 및 지역사회 협력 교육으로 연계가능

② 사업결과 및 평가

● 사업 결과

- 총 16개 단위(개인포함) 18개 영상미디어교육 관련 상담 후 영상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및 미디어교육 관련 자료 제공
- 정규강좌 특강 및 위탁·협력교육 형태로 연계
- 교육 커리큘럼 협의 및 강사 소개

대상	컨설팅 내용	컨설팅 결과
삼산중학교	디카 활용교육 문의	디카 활용교육 교육 내용 제안 및 교사 연결
주안도서관	영상미디어관련 평생학습 교육 내용 협의	주안도서관 협력사업-엄마와 아이를 위한 미디어아트 체험 특강 공동주관
동구청소년수련관	사진으로 영상 만들기 교육 문의	사진으로 만드는 영상에세이 교육 내용 제안 및 교사 연결
문학정보고등학교	영상컨텐츠과 2, 3학년 대상 방송 관련 현장학습 협의	문학정보고 위탁교육-방송국 체험학습 연계 문학정보고 위탁교육-방송 실무 특강으로 연계
	특성화고등학교 선정으로 인한 교육과정 협의	하계/동계 직무연수교육 커리큘럼 공동구성

고양문화재단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취지 및 역할, 미디어센터 운영 현황 조사, 고양시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관련 컨설팅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투어 및 운영구조, 미디어교육사업 현황 자료 제공
동암중학교	영상제작교육과정 협의	동암중학교 협력교육-청소년UCC영상제작교육으로 연계
인천 교사모임	교사 영상동아리교육 협의	정규강좌-퍼블릭액세스 특강으로 연계
시민문화예술센터	영화제작워크숍 교육 내용 협의	교육 공간 대관 및 교사 연결
부일여자중학교	영상제작교육과정 협의	협력교육 형태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학교 사정으로 미루어짐
남촌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영상미디어교육 관련 문의	어린이미디어교육 교재 및 커리큘럼 안내
정석항공고등학교	수능 이후 3학년 대상 리터러시 특강 지원 요청	정석항공고 위탁교육-영화 리터러시 특강으로 연계
성공회대학교 대안언론소모임 청개구리	어린이 및 청소년 미디어교육 관련 활동 참여 문의	2009청소년미디어캠프로 사전교육 및 캠프자원활동으로 연계
계양구 생태연구모임	소통중심의 미디어교육과정 협의	계양생태연구모임 협력교육-시민동아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교육으로 연계
미디어관련 전공 대학 생 이메일 혹은 전화 문의	국내 미디어교육의 역사 및 현황 자료 요청	미디어트 미디어교육실 담당자에게 안내
	인천 미디어교육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 및 연간 사업 자료 요청	교육기획자 인터뷰 참여, 미디어교육 관련 사업 자료 제공
	미디어교육활동에 대한 문의, 교사양성과정 참여 욕구 표현	문의자 거주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교사양성프로그램으로 연계

● 사업평가 및 과제

지역사회 안에서 미디어센터의 중요한 역할로 부각되고 있는 컨설팅 사업이 2008년에 비해 크게 확장하여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영상제작 및 기술적 이해부분에 대한 단순질문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미디어교육을 기획, 운영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만큼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한 환경에서 가능한 미디어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야했으며, 강좌의 목적과 세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논의하기에 적합한 미디어교사 또한 필요했다. 때문에 미디어교육팀 스텝이 지역사회 교육현장과 강사, 미디어교육 자원을 적절한 교육기획으로 연결하고 매개하는 수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였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역량의 강화가 필요할 듯 하다.

2. 관리 및 운영사업

1) 회원 사업

(1) 사업목적

- 회원은 CAMF 사업의 고정적인 1차 대상이며, 자립을 위한 재정적·내용적 기반이다. 잠재적인 CAMF 자원 활동가 혹은 인천 내 영상 활동가의 인적 자원의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사업방향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에 대한 다양한 지지층 확보
- 회원에 대한 혜택 확대 및 일상적인 소통 확대

(3) 사업내용

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회원제도

- 온라인회원 : 최초 가입시 적용되는 회원등급으로 가입비와 연회비가 없고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 대관신청이 가능하다. (기자재 대여나 전문 편집실 대여등은 불가능)
- 일반회원 : 온라인회원에서 가입비 1만원과 연회비 1만원을 납입 후 교육을 이수한 회원에게 부여되는 회원등급으로 모든 시설대관, 교육프로그램 신청 및 기자재 대여가 모두 가능하다.
- 정회원 : 온라인회원에서 가입비 1만원과 연회비 12만원 (분할납부 가능)을 낸 납입 후 교육을 이수한 회원에게 부여되는 회원등급으로 기자재 대여나 교육 프로그램 수강시 30%의 할인 적용을 받는다.

②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회원가입절차

- CAMF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신청 (정회원, 일반회원 선택)
- CAMF가 운영하는 회원교육프로그램을 이수
- 가입비와 회비를 납부

(4)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 총 회원수 및 연간 회원 가입자 비교

- 2009년 총회원 수
 - 온라인회원 : 411명

· 일반회원 : 47명

· 정회원 : 3명

○ 연간 회원 가입자 비교

구 · 군	전체 회원
2008년 회원 가입수	294명
2009년 회원 가입수	167명
08년 대비 증감률(%)	-43%

■ 운영자 회원사업 평가

CAMF의 회원제도는 온라인회원, 일반회원, 정회원 3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무료회원인 온라인회원의 경우 400여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비와 연회비 1만원씩 내야하는 일반회원의 경우 현재 47명이 가입되어 있다. 일반회원은 기자재 대여와 전문편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정회원의 경우에는 가입비와 연회비 포함해서 1년동안 13만원을 납부, 교육수료후 자격이 주어지는데 현재 3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기자재 대여나 교육수강시, 또는 공간대여시 3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2009년 회원가입자수는 2008년에 비해 약 40%가 줄은 167명을 기록했는데, 홍보전담자의 부재와 기자재 양적 질적인 부족과 노후에 따른 이용메리트 부족으로 생각이 된다. 2010년에는 새로운 홍보담당자와의 지속적인 홍보연계와 기자재 확충, 그리고 구식 기자재들의 대여료 인하를 통해서 회원들의 대여 및 대관을 위한 회원가입을 유도할 생각이다.

3. 대안미디어사업

1) 아카이브사업

(1) 사업목표

- 인천 시민들이 영상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을 수집, 데이터화 한다.
- 인천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영상물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 인천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영상물들을 손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 데이터화한다.
- 인천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DB화 한다.

(2) 사업방향

- 영상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기초 자료 및 영상물들을 수집해 『영상문화 창고』를 구축한다.
- 인천지역과 관련된 영상물을 자료조사를 통해 발굴·수집한다. 또한 인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위한 ‘인천 이야기’를 모아낸다.
- 아카이브에 구축된 자료들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3) 사업 내용

① 아카이브 자료 구축

- 인천지역의 영상문화 형성을 위해 영상을 포함한 각종 미디어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아카이브의 자료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성격별로 ‘영상문화 창고’, ‘CAMF 창고’, ‘인천영상 창고’로 구분 하여 홈페이지에 목록을 정리해 둔다.
- ‘영상문화 창고’ 구축
 - 시민들의 폭넓은 영상문화 이해를 위한 다양한 영상물들은 물론 각종 미디어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구축한다.
 - ‘영상문화 창고’ 자료로는 영상문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적 및 영상물을 물론 독립영화, 예술영화, 실험영화 등 영화의 다양한 접근을 유도할 수 있는 영상물을 포함한다.
 - 영상문화 자료들은 연간 계획을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자료를 구입하고, 목록을 정리한다.
- ‘음악활용 자료’ 구축
 - 교육 등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안에서 만들어지는 영상물에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음악자료들을 구축한다.

- 교육을 비롯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업진행에 활용되어질만한 음악자료들을 엄선해 구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을 정리한다.
- ‘인천영상 창고’ 구축
 - ‘인천영상’이라 함은 인천의 역사나 문화를 담고 있는 영상물을 말한다.
 -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영상물들을 수집하고, 인천지역 영상활동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인천을 담은 영상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DB화시킨다.
- ‘영화공간 주안 주민시네마테크’ 아카이브 활용
 - 예술영화전용관 영화공간주안에서 인천시민들과 영화 마니아들을 위한 행사로 매월 다른 테마를 선정해 무료로 상영하고 있다. 상영자료들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아카이브에서 대여해 주는 것으로 영화공간주안과 영상미디어센터의 협조를 통해 진행이 되고 있다.

② 아카이브 자료 온라인 등록 및 영상자료 DVD 제작

- 아카이브에 구축된 자료들은 회원 및 일반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목록을 등록하고, 자체 제작 및 사업결과 영상물들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상영관인 CAMF-ON과 연동해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한다.
- 인천지역 영상물을 비롯해 CAMF 사업결과물, I-culture PD 등 수집된 1차 영상 자료들은 DVD로 제작해 보관한다.
- 자료의 온라인 등록은 분기별로 진행하고, 매체화 하는 작업(DVD 제작)은 연간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

■ 제작과정

- 2009년도 I-culture PD 제작물과, 정규강좌 제작물,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의 제작물들은 홈페이지에 CAMF-ON과 연동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 CAMF-ON에 등록된 영상들에 대해서는 수집된 영상물들을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DVD로 제작해 보관해 놓았다.
- 제작과정에서 12월분까지의 자료를 모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부족 문제와 방대한 자료의 양에 비한 적은 예산 측정이 사업에 진행에 예로사항이 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제작은 완료되었다.

(4) 사업결과

○ 2009년 아카이브 영상자료 구축 현황

구 · 군	2009년 구축		아카이브 총계
	DVD	VHS	
한국독립단편	25		64
한국독립영화	10		100
한국일반	25		103
중국+홍콩	5		48
일본	8		79
미국	40		217
	18		112
제3세계	1		21
애니메이션	27		46
기타	2		5
계	161	0	795

○ 아카이브 도서자료 구축 현황

구 · 군	2009 구매	아카이브 총계
미디어,방송		34
영화		50
영상		1
인천문화		52
기타	5	10
합계		147

■ 아카이브 이용 현황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이용건수	9	6	5	.	2	.	1	2	5	.	5	6	41
이용시간	26	14	13	.	4	.	2	6	15	.	34	22	136

■ 아카이브 주민시네마테크 대여 현황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대여건수	13	13	9	13	12	13	12	13	98
대여일수	37	35	34	33	35	35	33	35	277

■ 2009년 아카이브 운영사업 평가

CAMF의 아카이브는 CAMF의 회원과 인천시민들의 영상자료창고로서 개인이 소장하기 힘든 영상 자료들이나 도서자료들, 인천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구비하고 언제나 개방하고 있다. 2009년 회원들의 아카이브 이용의 특징은 2008년처럼 단순히 수적으로 많은 이용보다는 영화를 좋아하는 특정한 회원들과 무료상영이 필요한 공동체의 필요에 의한 이용 및 대여가 주로 이루어졌다. 아카이브의 이용률이 적은 이유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와 아카이브의 인지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회원들의 이용률이 적은 이유는 영화 감상 장비 및 시설의 열악함 때문이라 생각되고 있다.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공간의 문제는 조금씩 해결해나가야 하겠지만 인지도 부족으로 이용률이 미미한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해결해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2010년에는 아카이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공동체를 위한 대여’를 추진할 것이다.

(5) DVD 클럽 운영

① 배경

- 문자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시대였던 20세기에는 ‘독서클럽’이 사회 구성원들의 인문학적 성장을 만들어 내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21C세기에 들어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영상미디어의 활용이 문자미디어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범람하는 영상물들을 기준 없이 소비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상물을 텍스트로 하는 ‘DVD클럽’으로 ‘영화로 사회읽기’가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② 방향

- 학교, 시민단체, 공공시설, 문화예술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CAMF DVD클럽을 운영한다.
- 시범 운영 평가와 사례 수집을 기초로 커리큘럼과 운영 안을 제시한다.
- CAMF 아카이브에 구축된 자료를 중심으로 ‘DVD클럽’ 활동을 지원한다.

③ 교육과정

- 총 12강에 계획에 맞추어 진행되었던 DVD클럽 사업은 ‘영화로 사회읽기’란 제목 으로 SF영화를 주제로 인문학적 개념으로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교육 및 토론이 이루어 졌다.

- 강사 : 최세진, 보조강사 : 이예지

- 인천 청천동에 위치한 공동체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야 놀자’와 5강을 진행 후 열악한 장소의 문제로 인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강의실로 그 장소가 바뀌었다. 초반 5차시의 수업은 공동체분들과 함께 영화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7차시분의 센터 내에서 수업은 대학생과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다.

- DVD클럽 교육 내용 (총 12차시)

차시 (날짜)	교육내용	강의장소
1차 (9.16)	- SF란 무엇인가 - 'Master of Science Fiction' 1편 상영	산곡동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야 놀자'
2차 (9.23)	- '영화 읽기' 강의 : 카메라, 편집등	산곡동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야 놀자'
3차 (9.30)	- 'The Man from Earth' 상영 - 영화감상 토론	산곡동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야 놀자'
4차 (10.7)	- '마녀 배달부 키키' 상영 - 토론 : 여성주의	산곡동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야 놀자'
5차 (10.14)	- '가타카' 상영 - 토론 : 정보통신의 발전과 감시, 통제	산곡동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야 놀자'
6차 (10.28)	- 'The Man from Earth' 상영 - 'SF란 무엇인가' 강의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강의실

7차 (11.4)	- '영화읽기 1' 강의 : 카메라 앵글, 편집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강의실
8차 (11.11)	- '영화읽기 2' 강의 : 영화의 사회적 의미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강의실
9차 (11.18)	- '화씨 451' 상영 - 토론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강의실
10차 (11.25)	- '신체 강탈자의 침입(1979년판)' 상영 - 토론 : 타인에 대한 시선, 해석의 다양성, 현재에 서의 의미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강의실
11차 (12.2)	- '대통령의 죽음' 상영 - 토론 : 미디어와 뉴스의 특성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강의실
12차 (12.9)	- '블레이드 러너' 상영 - 토론 : 인간의 정체성, 그 뒤 나온 SF영화와의 관계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강의실

④ 교육기록



⑤ 사업 평가

■ 아카이브 사업 평가

○ CAMF의 아카이브는 센터의 창립 시점인 2007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2년3개월간에 걸쳐 인천 영상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도서자료 및 영상물들을 구축했다. 2009년에 구입하거나 지원받아 새롭게 구비한 DVD자료 161편과 도서 5편을 포함해 총 942여 종의 자료가 구비되어 있어 아카이브의 자료들은 시민들의 폭넓은 영상문화 이해와 다양한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DVD의 경우 예술적 가치성이 있고, 참고할 만한 영상자료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장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미디어 교육을 위한 영상자료나 애니메이션도 확충해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도서 자료는 2009년에는 저작권 관련 서적과 교육팀 요청자료들을 구비했다.

○ CAMF 'DVD클럽'은 영화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영상을 그 자체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확장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소동아리 모임이다. 아카이브의 자료 활용을 통해 영화를 단지 기술적 접근이 아닌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모색했다. 12강에 강의시간 동안 'DVD클럽' 수업은 강사에 일방적인 진행 수업이 아닌 토론을 통해 서로의 느낀 바를 공유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2010년에도 이런 좋은 강의의 계속 유지, 다양한 계층의 수강생들의 모집을 통해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다.

○ CAMF의 아카이브 사업은 CAMF-ON이라는 온라인상영관과 영상자료의 DVD제작을 통해서 그 영역을 더욱더 확고히 해 나아가고 있다. 폐쇄적인 아카이브가 아닌 온라인을 통한 개방된 상영관의 구축, 그리고 CAMF내의 자료들을 DVD로 제작을 함으로서 영상을 참고로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방향을 제시 할 수 있게 되었다.

■ 향후계획

아카이브는 신규 자료 구입 사업과 DVD클럽 그리고 온라인 상영관 구축과 같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카이브 자료 구입시는 센터내부의 자료요청의 수렴과 센터회원들과 DVD클럽 수강생들의 요청자료들을 토대로 구입을 해 나아갈 방침이다. 온라인 상영관의 경우 아이컬처 PD와 교육결과물 등의 영상물을 위주로 계속해서 상영을 할 방침이고 DVD클럽의 경우 보다 더 다양한 계층의 수강생들의 모집과 다양한 주제의 영화를 토론,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획할 생각이다.

2) 공동체미디어사업

(1) 사업 실적

구분	교육명	기간	교육 시간	사업실적		
				강좌 일수	참여 인원	연인원
공동 체 미 디 어 교육	도서관공동체미디어교육 〈수봉도서관 어린이교육 - 책으로 인형으로 마음나누기〉	9/15~11/10	19h	9일	12명	108명
	도서관공동체미디어교육 〈수봉도서관 어머니교육-어린이의 세계와 발도로프교육 형 인형〉	9/10~11/10	27h	9일	15명	135명
	도서관공동체미디어교육 〈맑은샘도서관 미디어교육특강-미디어로 세상과 소통하기〉	9/16~9/23	6h	2일	6명	12명
	도서관공동체미디어교육 〈맑은샘도서관 어머니교육-어린이의 세계와 발도로프교육 형 인형〉	10/7~11/25	24h	8일	8명	64명
총 계			76h	28일	41명	319명

① 사업 내용

수봉도서관 어린이교육 <책으로 인형으로 마음나누기>

■ 사업내용

● **교육명** : 수봉도서관 어린이교육 <책으로 인형으로 마음나누기>

● **교육배경 및 목적**

도서관과 협력하여 공동체미디어교육을 기획·진행함으로써 도서관을 교육 및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민들에게 도서관이 일상적 문화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특성에 맞는 공동체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이 생활공간 속에서 미디어를 통해 자기표현활동을 경험하고 공동체 내에서 문화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서관 공동체미디어교육을 통해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문화적 경험과 소통이 모여 공동체 내부에서 미디어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새로이 창출되고, 그러한 욕구의 실현을 통해 또 다른 문화 활동이나 미디어 활동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공동체 내의 민주적 소통을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도서관 공동체미디어교육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거점이 될 수 있는 도서관에서 자녀를 둔 학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미디어(인형, 사진, 동화책)를 활용한 인형제작 워크숍 및 연극 놀이를 통해 대안교육철학인 발도로프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미디어교육의 필요성과 공동체 내에서 대안적 미디어로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도서관을 중심으로 마을 내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가족공동체, 나아가 지역공동체 내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교육목표**

- 책과 함께하는 이론(이야기) 수업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강점과 긍정적 자원을 발견하며 자아 존중감을 높인다.
- 교육놀이감인 형짚 인형을 직접 만들어보며 미적 감수성을 키우고 성취감을 맛본다.
- 인형극 활동을 통해 관계 속의 문제해결능력을 고양하고 협동놀이의 즐거움을 몸으로 느끼며 공동체에서 소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타인에 대한 이해력을 높인다.

● **교육대상** : 초등 4, 5, 6학년 어린이 12명

● **교육장소** : 수봉도서관 3층 배움누리

● **강사**

- 주강사 : 김경영(발도로프교육 강사)
- 보조강사 : 박은영

● 교육내용

- 인형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스스로 이야기를 펼쳐내는 과정을 경험
- 인형을 활용한 인형극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 여러 친구들과 인형극을 함께 준비해보면서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또래들과의 친밀감 및 유대감 형성

● 기록



■ 사업평가

● 교육 목표 평가

수동적으로 지시되는 생활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소중함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 뿐 아니라 화, 미움, 불안 같은 감정들도 필요할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활동을 함으로써 이후의 활동이나 나 아닌 타인의 입장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교육은 동화읽기, 자유토론, 동화와 관련된 활동, 인형만들기로 이루어졌다. 모든 과정에서 참여하는 아이들이 부담 없이 가볍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였고, 아이들은 많은 부분에서 적극적이고 재미있게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학교 수업의 연장이나 학습을 위한 과외활동이 아닌 데서 오는 편안함이 아이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활동들을 자유롭게 하였음이 명백한 것 같고 이러한 교육 활동이 이후의 생활에 활력을 주었으리라 기대해본다.

● 교육 내용 평가

내 안의 나와 만나기, 나를 표현하기, 인형만들기의 통합적 접근

교육내용을 분류하면 독서활동과 관련한 ‘내 안의 나와 만나기’와 인형극 활동이 주가 되는 ‘나를 표현하기’, 그리고 두 가지 활동과 함께 우주복을 입은 형깃인형인 ‘인형만들기’ 활동이 기간별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먼저 내 안의 나와 만나기 기간에는 나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도서와 활동으로 자기 열기를 하였고 경험과 기억을 이야기 나누며 자기감정에 대해 이해하기, 관계속에서 들여다 본 나의 모습, 인형으로 나를 이야기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진정한 ‘나’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도서과 이에 연계된 독서활동으로 이어졌다.

나를 표현하기 기간에는 인형극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각자의 역할이나 준비사항들을 아이들이 직접 해낼 수 있도록 도왔다.

인형만들기 시간은 예상외로 깊은 집중과 즐거움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바느질 솜씨가 좋았고 가르쳐주는 데로 잘 따라갔으며 자신이 해놓은 작업물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만족해했다.

책은 〈너는 특별하단다〉, 〈중요한 사실〉, 〈친구랑 싸웠어!〉, 〈로쿠베, 조금만 기다려〉, 〈겁쟁이 빌리〉,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등이며 연계활동은 완소나무 만들기, 풍선불어 감정 표현하기, 안대로 가리고 로쿠베 되어보기, 인형으로 나를 말하기 등이 있었다. 아이들은 손작업과 책과 이야기와 놀이를 통해 자신을 거르지 않고 드러냈고 전체 균형을 살피며 인형을 만들어내었으며 이따금 옆 친구의 작업을 살펴주는 등의 배려와 협동심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모습은 강좌가 끝난 지금까지 너무나 진지하고 아름답게 기억 되고 있다.

단, 만들기와 관련하여 작업의 미숙함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은 하였으나 이른 보완해 주는 작업에서 강사의 애로가 컸다. 10명 아이들의 또 10명 인형친구들을 매주 일일이 손으로 고쳐주고 다듬어주는 작업은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가는 기나긴 작업이 되었다.

9차시의 교육 강좌가 한 주 한 주 각각의 독립된 주제를 가지고 있으나 지난 시간과 다음 시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고 성인강좌와는 달리 개인적인 발표를 하거나 숙제가 있거나 하는 등의 모든 부담감을 배제하였다.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랐고 그에 반해 수업에 임하는 태도는 진지하고 출석률이 매우 높았다.

인형 만들기도 그 주의 진도에 따라 만들기를 마치면 집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고 강사가 다시 거두어 다음 주 진도에 맞는 재료와 함께 나누어주도록 하였는데 이는 아이들의 바느질 상태를 다시 손보아야 할 필요와 함께 마무리 못한 채 숙제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인형극 준비가 시간관계상 충분하지 못해 걱정되었지만 이 또한 잘 소화해주었다.

● 교육 방법 평가

여는 문

동화책 읽어주기를 도입활동으로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이 이미 다 읽어본 책이라 해도 강사가 직접 그림을 넘기며 읽어 주었다. 눈으로 읽는 것에만 익숙해있는 아이들이 소리죽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천천히 책을 읽어줄 때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팔을 베고 책상에 엎드리기도 하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반쯤 누워있는 등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들었고 그렇게 쉬면서 이야기에 빠져들기도 하였다.

독서활동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아이들과 책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었고 이와 관련된 독서활동을 하였다. 특히 아이들은 이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고 즐겁게 참여하였다.

모든 활동은 될수록 아이들이 직접 몸을 움직여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했는데 교육실이 시끄러워지기는 하였으나 활동에 임하는 아이들은 몰입하며 즐거워하였다.

특히, 안대로 눈을 가리고 구덩이에 빠진 강아지가 되어보는 체험과 강아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번갈아가며 활동한 것을 제일 기억에 남는 놀이로 말하였다. 활동을 마친 후에는 돌아가며 소감나누기를 하였다. 자신이 느낀 점을 초등학교 4,5학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분명하게 말할 줄 알며 또 옆 친구의 다른 의견 또한 인정하고 들을 줄 아는 모습을 보였다.

상호 의존

아이들과 강사, 그리고 아이들간의 원활한 소통과 친밀감을 위하여 어머니 강좌와 마찬가지로 내 미래의 모습에 이름 달아주기를 하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별칭으로 서로를 불러주었다. 낯선 얼굴들, 낯선 시간들이었는데도 아이들은 빠르고 쉽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 들였고 이렇게 금방 친해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서로 친해져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강의

독서활동과 관련하여 그 주의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준비하였다. 관계에 대한 개념, 소통에 대한 이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였고 표현하기의 중요성도 함께 이야기하였다. 강의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듯이 내용을 반복하여 같이 외치고 되풀이하여 말하는 등 놀이형식으로 진행하여 지루하지 않게 준비하였다.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아이들은 단순하고 명쾌하게 받아들이고 웃어 넘겼다.

인형만들기

차시에 맞추어 인형 만들기를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이어가게 하고 어려운 부분은 강사가 따로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해나갔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우려했던 점과는 달리 아이들은 하나같이 신기해하고 즐거워했다.

● 교육 운영 평가

전반적인 교육운영은 매우 만족할 수준으로 훌륭했다. 수업 운영안을 강좌가 시작되기 이전에 회의하고 나누었지만 매 차시 수업에 대한 평가와 다음 수업에 필요한 준비사항들이 짧게나마 이야기되었다. 참여자들을 운영자가 관리하였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주어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운영자가 운영자로서가 아니라 참여자들과 똑같은 눈높이와 자리에서 강좌에 참여하여 참여자들의 운영자에 대한 의존도와 친밀감이 컸다.

교육 자료는 대부분 강사가 준비한 텍스트 문서나 활동자료와 놀이재료, 영상파일 등, 이며 또 하나는 그 때 그 때 진행되는 인형 만들기 수업에 필요한 재료들이었다.

교육실이나 도서관의 시설 또한 훌륭하여 준비해간 교육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으며 아이들도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은 남구에서 새로 개관한 수봉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찾아가는 미디어공동체교육이니만

큼 지역에서의 담당자나 기관의 역할도 중요한데 신생도서관인 이곳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거나 이를 위한 문화적인 역할을 고민하고 담당할 의지가 강한 곳이어서 수업에 필요한 여러 시설들을 적극 지원해주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었긴 하나 지역의 공동체가 목적인 수업이었던 만큼 아이들의 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준비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간단한 설문지 정도나 강좌에 대한 안내문과 수업내용을 부모님께 전해드리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등의 작업은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후 다른 교육 강좌에도 자연스럽게 이들의 부모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 같다.

● 교육 결과물

구분	형태	내용
어린이교육발표회 인형극 영상	영상 기록 (DV-TAPE)	교육발표회 때 각자가 만든 인형에게 편지 낭독하는 순간을 기록한 영상
교육 수료 작품 12점	전시 및 사진기록	발도로프 인형 (우주복 인형)

위의 것 결과물 이외에도 매 차시마다 그 때 그 때 놀이재료를 가지고 독서활동을 한 결과물이 있었고 이것은 참여 아이들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자기의 자랑거리로 자신의 소중함을 표현하여 나무에 열매를 다는 놀이를 하였는데 무엇을 잘하고, 언니나 오빠가 어떤 사람이고, 부모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외부적인 조건을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반면 내놓을 능력이 그다지 화려하지 않아도 자기 소중함을 찾아보려는 내면의 애씀이 있는 아이들이 그것을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서로에게 가르침이 되어주는 소중한 수업이었다. 만들어진 결과물보다는 이러한 과정의 나눔들이 훨씬 가치 있는 교육 결과물이 아닐까 한다.

유형의 결과물인 인형을 가지고는 인형극에 활용하는 발표를 하였다. 인형으로 무대에서 감동적인 극을 연출하고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고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하였다.

② 수봉도서관 어머니교육 <어린이의 세계와 발도로프 형깃인형>

■ 사업내용

● 교육명 : 수봉도서관 어머니교육 <어린이의 세계와 발도로프 형깃인형>

● 교육목표

- 독일 발도로프 학교에서 중요한 교육도구로 쓰이는 “형깃인형”을 직접 만들어본다.
- 필독도서를 함께 읽고 어린이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내 안의 어린이성을 되새기며 생명과 삶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운다.
- 건강한 ‘나’ =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나누고 실천한다.

● 교육대상 : 자녀를 둔 어머니라면 누구나

● 교육장소 : 수봉도서관 3층 배움누리

● 강사

- 주강사 : 김경영(발도로프교육 강사)

- 보조강사 : 박은영

● 교육내용

- 발도로프 교육과 형짚인형에 대한 소개, 형짚인형의 교육적 가치 이해하기

- 내 손으로 발도로프 형짚인형 만들기

- 인형만드는 과정과 대안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탐구(필독도서 탐독)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자기 안에 내재된 어린이성을 발견해본다.

- 필독도서 목록

〈딤스〉 V. M. 엑슬린 저 / 〈들어주자 들어주자〉 박문희 저

〈놀잇감으로 길러주는 상상의 날개〉 카린 노이슈츠 저

● 기록



■ 사업평가

● 교육 목표 평가

지역 내의 공동체실현이라는 공동체미디어교육의 목적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서 강좌를 실시함으로 종강 이후에도 소모임이나 동아리 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주부들의 경우 육아와 교육에 비해 소홀히 하기 쉬운 자기성장이나 자기 삶의 철학적 사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이는 관계의 건강함에 기여토록 하고자 했다.

교육은 크게 발제, 토론, 강의 그리고 인형 만들기로 이루어졌다. 모든 과정에서 최대한 참여자들의 자발성으로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의 내용을 풍성히 담아주었다. 발제는 두 분씩 돌아가면서 강의 주제에 맞는 혹은 자기 삶을 투영할 수 있는 자유발제로 이루어졌는데 성실히 감당해주었고 이는 다른 참여자에게도 자극과 도전 혹은 감동을 나누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자기 생활에 비추어 다시 보기하고 글로 써서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부담스럽고 어려워 하셨으나 마치고 난 후는 공부가 많이 되었다고 만족해하셨다. 될수록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순서 또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첫날에 정하여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오히려 편안하게 숙제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책을 읽고 토론하고 발제하여 발표하고 하는 과정의 딱딱한 학습적인 분위기 아닐까 생각될 수 있지만 수작업으로 인형 만들기과 병행되고 만들기 수업은 다시 이후의 강좌와 연결되어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 교육 내용 평가

어린이성에 대한 이해와 인형 만들기를 통한 통합적 접근

어린이성이라함은 물리적인 외형만의 어린이를 말함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씨앗으로서의 근본적인 인간상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같이 했다. 그리하여 모두가 잊고 있는 그것을 함께 회복하고 가꾸어 성장시키자는 것에 동감하고 적극 참여해주셨다. 이를 위해 우리는 〈딤스〉, 〈들어주자 들어주자〉,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등의 필독서를 함께 읽고 토론하였으며 매차시 놀이, 치유, 관계, 교육, 감각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를 병행하여 이해의 깊이를 더하였고 다시 이것은 인형 만들기를 통해 재현해낼 수 있도록 했다. 수작업이 단순히 손만 놀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사유를 유연하게 해주고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다.

각각의 차시에 그날 그날의 마무리를 통해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했고 이것이 다음 차시를 기대하는 것이 되도록 그 다음 강좌의 내용을 예고하였으며 이는 높은 출석률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한 주라도 결석한 분이 게실 때는 그 분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어진 시간 이외의 지연시간이 많았고 수고가 많았다.

9차시의 교육강좌가 모두 관계배우기라는 하나의 주제를 관통할 수 있도록 교안을 정했으나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 자신의 삶이라던지, 어린시절의 기억이라던지 자기 드러내기와 표현이 필수요소인 수업인 만큼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던가 참여자들간의 친밀감 형성은 수업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를 위

해 매 시작은 노래 부르거나 늦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지난 시간에 대한 환기차원에서 수다 떨듯 가볍게 의견을 나누거나, 시를 읽고 시작하는 등 “여는 문”에 대한 장치를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중요하게 다루었다. 강사로서 강의를 준비 하지만 실제적인 텍스트는 참여자의 삶에 대한 자기표현이 가장 비중 있게 이야기되므로 이 장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임하는 분들도 계시고 소극적이고 말을 잘 못하는 분도 계셨지만 나중에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수업 안에서 하나의 끈으로 서로서로 손 잡듯 마음을 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다.

강좌 내용의 수준이나 참여자의 수준 여하에 관계없이 나름대로의 분량만큼씩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부분이 다르나 그것은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 생각된다.

● 교육 방법 평가

여는 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는 문에 대한 보이지 않는 비중이 크다. (여는 문이라 명명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명칭이다.)

첫날의 여는 문은 ‘자기 삶에 이름붙이기’를 해보고 수업 내내 이야기될 부분에 대한 전초작업을 이 활동으로 시작하였다. 이 활동은 참여자들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참여자들이 지금보다 나은 그리고 자기에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자기성장의 욕구가 대체로 많이 드러났으며 아이사랑, 자기애의 표현으로도 이름붙인 경우가 있었다. 여는 문에 대한 준비는 강사가 직접 준비하였으나 이 부분에도 참여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용은 대부분 좋은 글을 한사람씩 돌려가며 같이 읽거나 음악을 함께 듣거나 노래를 하거나 시를 읽거나 했는데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발제, 자유토론

참여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었으나 대체적으로, 아니 참으로 원활히 잘 이루어졌다. 발제의 내용은 다양하고 자유로웠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간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초기에 책을 읽어 오지 않아 분위기가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으나 이는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 이런 분들을 위하여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먼저 설명해주는 시간도 준비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학술적인 내용을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매시간 눈물을 흘리는 참여자가 많았고 이는 귀담아 듣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었다. 나의 이야기를 건성 듣지 않고 소중히 들어주는 타인에 대한 느낌 때문인지 점차적으로 각자의 삶을 나누고 객관화하고 또 반성하여 평가하는 과정들을 참여자들이 스스로 진행해나갔다.

상호 의존

참여자들과 강사, 그리고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별명부르기, 여는 문으로 들어오기, 자유발제 등의 노력을 하였고 성과는 예상보다 컸다. 나이, 성격, 거주지역이 모두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열고 대화나누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은 수작업을 통한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강좌 기간에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강의

시간 이후에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참여자간에 상호 친밀감 형성이 꾸준히 진행되었고 강사와의 관계 또한 원활했다.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은 전화를 따로 하시거나 메일을 보내오는 방법으로 강사와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강의

최소한의 이론적인 공부는 필요했기 때문에 책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했다. 이 시간은 항상 이야기시간의 마지막에 마무리하여 닫는 문으로 활용하였다.

발도로프 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형질인형에 대한 교육적 의미, 매 시간 이야기되는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강의로 준비했고 참여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다.

인형 만들기

차시에 맞추어 인형 만들기를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이어가게 하였으며 한 명은 강좌에서 한 명은 집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강좌에서만 하는 것으로 끝나고 집에서 혼자 해보지 않으면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한 명의 재료분량을 따로 준비하여 나누어드렸다.

한 강좌 당 3시간 분량의 반을 만들기 시간으로 채웠는데 인형 만들기 시간은 또 다른 자유로운 형식의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었다. 손을 부지런히 놀리면서 머리로 사고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웃고 이야기하는 노작수업이었다.

매시간의 분량을 그 시간에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늦거나 결석으로 놓친 사람들은 상호 협조하여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기 시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듯 했다.

참여자

미디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공동체의 필요 인식하기, 수작업으로 인형 만들기, 마음공부에 관한 다양한 이론공부가 한꺼번에 통합되는 강좌여서 참여자들의 이해와 수용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한 강좌였다. 다행히 매 차시 본인의 느낌이나 새로운 정보와 깨달음에 대해서 그 때 그 때 말씀해주셔서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이해를 가늠할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고 객관적으로 다시보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언뜻 언뜻 어린 시절의 자기 모습과 그 속에서 미처 몰랐던 상처와 기쁨을 만나면서 울고 웃기도 하였으며 말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역할을 많이 하신 분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어떤 방식의 참여와 활동이었든 참여자가 모두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교육 참여자들이 대부분 이후의 심화교육이나 재교육을 원하였다. 공동체 교육의 또 다른 매체를 개발하여 새롭고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이분들이 바로 센터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상 미디어교육을 이후의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이야기되었던 내용들을 인형과 함께 사진이나 동영상에 담거나 또 새로운 이야기를 표현하고 그려가는 것에 대해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분들이니 말이다.

동아리가 형성되어 강좌가 끝난 이후인 지금도 활발히 만남이 진행되고 있고 온라인 상에서도 카페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자 대부분이 센터내의 미디어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교육 운영 평가

교육운영은 매우 만족할 수준으로 훌륭했다. 수업운영안을 강좌가 시작되기 이전에 회의하고 나누었지만 매 차시 수업에 대한 평가와 다음 수업에 필요한 준비사항들이 짧게나마 이야기되었다. 참여자들을 운영자가 관리하였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주어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운영자가 운영자로서가 아니라 참여자들과 똑같은 눈높이와 자리에서 강좌에 참여하여 참여자들의 운영자에 대한 의존도와 친밀감이 컸으며 이로 인해 장소가 도서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영상센터에 대한 이해까지 원활이 이어진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교육 자료는 대부분 강사가 준비한 텍스트 문서나 음악cd, 영상파일 등이며 또 하나는 그 때 그 때 진행되는 만들기 수업에 필요한 재료들이었다. 복사해야할 문서가 많았던 관계로 수업시간 전에 준비가 많았는데 도서관 담당자와 운영자가 큰 도움을 주었다.

교육실이나 도서관의 시설 또한 훌륭하여 준비해간 교육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컸다.

이번 교육은 남구에서 새로 개관한 수봉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공동체미디어교육이니만큼 지역에서의 담당자나 기관의 역할도 중요한데 신생도서관인 이곳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거나 이를 위한 문화적인 역할을 고민하고 담당할 의지가 강한 곳이어서 참여자, 강사, 담당자, 운영자가 모두 상호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활동하는 동아리형성과 후원에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참여자들도 강좌 이후의 활동을 기약하는데 힘이 되었다.

도서관이든 센터든 지역주민이 활발히 움직여 상호 교류하고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힘이 되는 것이 중요하나 이것을 지역민 스스로가 움직여 자발적인 참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해주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이를 위한 사업이 찾아가는 미디어공동체 교육이었다는 생각이다.

● 교육 결과물

구분	형태	내용
교육 발표회 영상	영상 기록 (DV-TAPE)	교육발표회 때 각자가 만든 인형에게 편지 낭독하는 순간을 기록한 영상
교육 수료 작품 24점	전시 및 사진기록	발도로프 인형 (사지인형)

교육 결과물이라고 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마음공부에 관련된 부분과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유형의 결과물인 인형에 대해서 참여자, 도서관 관장 및 담당자, 센터 운영자, 강사가 모두 만족하였다.

인형은 9차시였던 발표회 현장에서 전시되었고 수업 참여자와 초대받은 외부인들, 센터와 도서관 관계자분들이 진심으로 축하와 감동의 인사를 보내주었다. 인형전시에 대한 준비와 전시현장 꾸미기를 모두 참여자들이 직접 준비하여 진행하였고 형묘인형 자체가 갖는 사랑스러움이 맘껏 발현될 수 있도록 도서관 근처의 낙엽 등 자연물과 함께 전시가 되어 발표회를 찾은 모든 이들에게 따듯한 웃음을 선사해주었다. 이론 공부의 마무리 결과는 만든 인형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글을 낭독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9주간의 시간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성찰의 시간이 되었는지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③ 맑은샘도서관 미디어교육특강-미디어로 세상과 소통하기

■ 사업내용

● **교육명** : 맑은샘도서관 미디어교육특강 <미디어로 세상과 소통하기>

● **교육목표**

비주얼 이미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이미지로 매개되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어떻게 보고 읽고 판단할 것인가 하는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성숙한 관점을 키우는 것과 더불어 아이들을 주체적인 의미 생산자로 서게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 **교육대상** : 자녀를 둔 어머니라면 누구나

● **교육장소** : 맑은샘도서관 2층 교육실

● **강사** : 이신정 (미디어 리터러시 강사)

- 한겨레문화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 전문교사 과정> 전임강사
- 영상기획 <해오름> 기획이사
- 한국언론재단,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교원연수 강사
- 교육용 단편애니메이션 컬렉션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우리가 다시 그려요>, <더불어 사는 세상> 출간
- 애니메이션 리터러시 시리즈 <달걀꼬리> 출간

● **교육내용**

- 미디어교육, 왜 필요한가?: 미디어시대에 나와 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 비주얼 리터러시1: 이미지에 말걸기, 이미지와 싸우기
- 비주얼 리터러시2: 단편애니메이션과 함께하는 비주얼리터러시의 실제

● **교육운영안**

어머니 미디어교육특강 <미디어로 세상과 소통하기>			
교육내용			교육진행 방식
단 계	1 강	<p>이미지에 말걸기, 이미지와 싸우기</p> <p>미디어 리터러시와 비주얼 리터러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보도사진, 그림, 광고 이미지와 같은 다양한 시각자료들을 통해 이미지를 해독하는 훈련을 시도한다.</p>	강의 및 다양한 시각자료를 통한 대화와 토론

	2강	단편애니메이션과 함께 하는 비주얼 리터러시 훈련		단편 애니메이션 감상 및 해설과 토론
	움직이는 영상으로서 예술적 성취를 이룬 단편 애니메이션을 함께 감상하고 그 기법과 미학, 그리고 교육적인 메시지들에 대해 함께 토론한다.			
준비물	수업자료	이미지 리터러시 자료, 단편애니메이션		
	기자재	노트북, 빔 프로젝터, VTR		

● 기록



■ 사업평가

● 교육 목표 평가

2008년 도서관과 연계특강으로 진행된 바 있는 미디어교육특강을 공동체미디어교육 전에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를 이용한 소통에 대한 이론 강좌로 배치해보았다. 교육대상이 기존에 진행되었던 미디어교육특강과 동일하였으나 6명이라는 소규모 인원과 이미 서로 관계가 있거나 친근한 분들이 많아 소통활동이 원활하였다.

● 교육 내용 평가

-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한 강사의 강의가 수강생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예시들로 이루어졌으며,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 2008년에 진행된 도서관 특강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나 아이교육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교육 컨셉으로 교육내용을 전환함으로써 교육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사진, 말을 통해 가벼운 스토리텔링 체험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처음 만나는 참여자들과도 유대감이 형성되며 이야기가 활성화 되었다.
- 참여자들이 처음부터 특강 형태로 받아들여 짧은 교육 기간에 아쉬움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강사의 교육내용에 대한 지지나 강의로 인한 지적인 만족도가 높아 이러한 형태의 강좌를 생소하게 느끼기보다 신선한 자극으로 생각하는 듯 했다.

- 2회라는 짧은 시간에 알맞는 커리큘럼이었으며,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좀 더 활동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 종합 평가

- 미디어특강 이후로 인형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참여자들이 이 두 강좌를 연계강좌라고 생각하지 않아 특강 이후부터 수업에 나오는 참여자들이 꽤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강좌를 홍보할 당시 도서관과 긴밀히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 비슷한 교육 컨셉과 내용임에도 수봉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교육의 취지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하였으나 모집이나 홍보와 관련하여 긴밀하게 상의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맑은샘도서관을 섭외했던 시점이 수봉도서관에 비해 늦었던데다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는 상황이 열악한 편이어서 도서관쪽에 업무분장된 모집 및 홍보 부분이 매우 어려웠으리라 짐작한다. 이 부분은 동시에 두 곳에서 교육 참여자가 모집되면서 먼저 교육이 진행되는 수봉도서관에 더 많이 집중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때문에 맑은샘도서관의 경우, 교육공간이나 모집기간의 문제 때문에 모집 처음부터 참여자를 1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협의하였는데도 참여자가 8명이 모집되었다.
- 위와 같은 이유로 미디어특강 때 참여한 실제 인원이 예상보다 적었고, 서로 관계가 없는 참여자들이 관계를 트고 마음을 열기에는 충분하였으나 모든 인원이 참여하지는 않아 애초에 기대했던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지기에는 조금 부족했다.
- 강의 내용이나 참여자의 반응은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특강 형태로 기획된 만큼 참여자들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했음에도 평가 설문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④ 맑은샘도서관 어머니교육-어린이의 세계와 발도르프교육 형견인형

■ 사업내용

- 교육명 : 맑은샘도서관 어머니교육 <어린이의 세계와 발도르프 형견인형>

- 교육목표

- 독일 발도르프 학교에서 중요한 교육도구로 쓰이는 “형견인형”을 직접 만들어본다.
- 필독도서를 함께 읽고 어린이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내 안의 어린이성을 되새기며 생명과 삶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운다.
- 건강한 ‘나’ =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나누고 실천한다.

- 교육대상 : 자녀를 둔 어머니라면 누구나

- 교육장소 : 맑은샘도서관 2층 교육실

● 강사

- 주강사 : 김경영(발도로프교육 강사)
- 보조강사 : 박은영

● 교육내용

- 발도로프 교육과 형깁인형에 대한 소개, 형깁인형의 교육적 가치 이해하기
- 내 손으로 발도로프 형깁인형 만들기
- 인형만드는 과정과 대안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탐구(필독도서 탐독)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자기 안에 내재된 어린이성을 발견해본다.
- 필독도서 목록
〈딤스〉 V. M. 엑슬린 저 / 〈들어주자 들어주자〉 박문희 저
〈놀잇감으로 길러주는 상상의 날개〉 카린 노이슈츠 저

● 기록



■ 사업평가

● 교육 목표 평가

지역 내의 공동체실현이라는 공동체미디어교육의 목적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서 강좌를 실시함으로 종강 이후에도 소모임이나 동아리 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주부들의 경우 육아와 교육에 비해 소홀히 하기 쉬운 자기성장이나 자기 삶의 철학적 사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이는 관계의 건강함에 기여토록 하고자 했다.

교육은 크게 발제, 토론, 강의 그리고 인형 만들기로 이루어졌다. 모든 과정에서 최대한 참여자들의 자발성으로 내용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의 내용을 풍성히 담아주었다. 발제는 두 분씩 돌아가면서 강의 주제에 맞는 혹은 자기 삶을 투영할 수 있는 자유발제로 이루어졌는데 성실히 감당해주었고 이는 다른 참여자에게도 자극과 도전 혹은 감동을 나누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자기 생활에 비추어 다시 보기하고 글로 써서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부담스럽고 어려워 하셨으나 마치고 난 후는 공부가 많이 되었다고 만족해하셨다. 될수록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순서 또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첫날에 정하여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오히려 편안하게 숙제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책을 읽고 토론하고 발제하여 발표하고 하는 과정의 딱딱한 학습적인 분위기 아닐까 생각될 수 있지만 수작업으로 인형 만들기과 병행되고 만들기 수업은 다시 이후의 강좌와 연결되어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 교육 내용 평가

어린이성에 대한 이해와 인형 만들기를 통한 통합적 접근

어린이성이라함은 물리적인 외형만의 어린이를 말함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씨앗으로서의 근본적인 인간상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같이 했다. 그리하여 모두가 잊고 있는 그것을 함께 회복하고 가꾸어 성장시키자는 것에 동감하고 적극 참여해주셨다. 이를 위해 우리는 〈딤스〉, 〈들어주자 들어주자〉,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등의 필독서를 함께 읽고 토론하였으며 매차시 놀이, 치유, 관계, 교육, 감각에 대한 이론적인 공부를 병행하여 이해의 깊이를 더하였고 다시 이것은 인형 만들기를 통해 재현해낼 수 있도록 했다. 수작업이 단순히 손만 놀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사유를 유연하게 해주고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었다.

각각의 차시에 그 날 그 날의 마무리를 통해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했고 이것이 다음 차시를 기대하는 것이 되도록 그 다음 강좌의 내용을 예고하였으며 이는 높은 출석률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한 주라도 결석한 분이 게실 때는 그 분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어진 시간 이외의 지연시간이 많았고 수고가 많았다.

8차시의 교육 강좌가 모두 관계배우기라는 하나의 주제를 관통할 수 있도록 교안을 정했으나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 자신의 삶이라던지,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던지 자기 드러내기와 표현이 필수요소인 수업인 만큼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라던가 참여자들 간의 친밀감 형성은 수업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를 위해 매 시작은 노래 부르거나 늦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지난 시간에 대한 환기차원에서 수다 떨 듯 가볍게 의견을 나누거나, 시를 읽고 시작하는 등 “여는 문”에 대한 장치를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중요하게 다루었다. 강사로서 강의를 준비 하지만 실제적인 텍스트는 참여자의 삶에 대한 자기표현이 가장 비중 있게 이야기되므로 이 장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야기에 임하는 분들도 계시고 소극적이고 말을 잘 못하는 분도 계셨지만 나중에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수업 안에서 하나의 끈으로 서로서로 손 잡듯 마음을 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다.

강좌 내용의 수준이나 참여자의 수준 여하에 관계없이 나름대로의 분량만큼씩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부분이 다르나 그것은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 생각된다.

● 교육 방법 평가

여는 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는 문에 대한 보이지 않는 비중이 크다. (여는 문이라 명명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명칭이다.)

첫날의 여는 문은 ‘자기 삶에 이름붙이기’를 해보고 수업 내내 이야기될 부분에 대한 전초작업을 이 활동으로 시작하였다. 이 활동은 참여자들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참여자들이 지금보다 나은 그리고 자기에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자기성장의 욕구가 대체로 많이 드러났으며 아이사랑, 자기애의 표현으로도 이름붙인 경우가 있었다. 여는 문에 대한 준비는 강사가 직접 준비하였으나 이 부분에도 참여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용은 대부분 좋은 글을 한사람씩 돌려가며 같이 읽거나 음악을 함께 듣거나 노래를 하거나 시를 읽거나 했는데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발제, 자유토론

참여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었으나 대체적으로, 아니 참으로 원활히 잘 이루어졌다. 발제의 내용은 다양하고 자유로웠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간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초기에 책을 읽어 오지 않아 분위기가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으나 이는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 이런 분들을 위하여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먼저 설명해주는 시간도 준비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학술적인 내용을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매시간 눈물을 흘리는 참여자가 많았고 이는 귀담아 듣는 자세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었다. 나의 이야기를 건성 듣지 않고 소중히 들어주는 타인에 대한 느낌 때문인지 점차적으로 각자의 삶을 나누고 객관화하고 또 반성하여 평가하는 과정들을 참여자들이 스스로 진행해나갔다.

상호 의존

참여자들과 강사, 그리고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별명 부르기, 여는 문으로 들어오기, 자유발제 등의 노력을 하였고 성과는 예상보다 컸다. 나이, 성격, 거주지역이 모두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열고 대화나누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은 수작업을 통한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강좌 기간에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강의 시간 이후에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으로도 참여자간에 상호 친밀감 형성이 꾸준히 진행되

었고 강사와의 관계 또한 원활했다.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은 전화를 따로 하시거나 메일을 보내오는 방법으로 강사와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강의

최소한의 이론적인 공부는 필요했기 때문에 책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했다. 이 시간은 항상 이야기시간의 마지막에 마무리하여 닫는 문으로 활용하였다.

발도로프 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형묘인형에 대한 교육적 의미, 매 시간 이야기되는 내용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강의로 준비했고 참여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다.

인형 만들기

차시에 맞추어 인형 만들기를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이어가게 하였으며 한 명은 강좌에서 한 명은 집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강좌에서만 하는 것으로 끝나고 집에서 혼자 해보지 않으면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한 명의 재료분량을 따로 준비하여 나누어드렸다.

한 강좌 당 3시간 분량의 반을 만들기 시간으로 채웠는데 인형 만들기 시간은 또 다른 자유로운 형식의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었다. 손을 부지런히 놀리면서 머리로 사고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웃고 이야기하는 노작수업이었다.

매시간의 분량을 그 시간에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늦거나 결석으로 놓친 사람들은 상호 협조하여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기 시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듯 했다.

참여자

미디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공동체의 필요 인식하기, 수작업으로 인형 만들기, 마음공부에 관한 다양한 이론공부가 한꺼번에 통합되는 강좌여서 참여자들의 이해와 수용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한 강좌였다. 다행히 매 차시 본인의 느낌이나 새로운 정보와 깨달음에 대해서 그 때 그 때 말씀해주셔서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이해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번 맑은샘 도서관 교육에서 참여자의 특징 중 하나는 수강하신 분들이 두 파트로 나뉘어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한 파트는 도서관에서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고 또 한 파트는 직장에서 함께 오신 분들이었다. 두 파트가 각기 좋은 활동을 해오고 계셔서 서로 더욱 풍성하게 다른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경우에는 분리된 분위기여서 아쉬웠다. 이것은 강사에게도 강좌를 이끄는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이 되었다. 참여자를 구성함에 있어서 공동체 내로 찾아가 모두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구성되던지 아니면 모두가 각각의 개인적인 신청자로 참여하는 것이 수업분 위기에는 더 좋을 것 같다. 맑은샘 도서관에서는 인형수업이 있기 전에 영상미디어 교육이 선행되어 이미 참여자간의 정보와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모듈으로 분리된 듯한 분위기는 마지막까지 이어져 안타까웠다.

교육 참여자들이 이후에 심화교육이 있다면 받고 싶다고 원하였다. 그러나 이미 맑은샘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교육 강좌나 사업이 넘치는 형편이라 이후의 심화교육을 이곳에서 또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오히려 이곳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영상교육이나 전혀 색다른 수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정해진 지역에서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심도 있게 교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고민하고 기획해야하는지 숙제가 남는다.

● 교육 운영 평가

교육운영은 매우 만족할 수준으로 훌륭했다. 수업운영안을 강좌가 시작되기 이전에 회의하고 나누었지만 매 차시 수업에 대한 평가와 다음 수업에 필요한 준비사항들이 짧게나마 이야기되었다. 참여자들을 운영자가 관리하였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주어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운영자가 운영자로서가 아니라 참여자들과 똑같은 눈높이와 자리에서 강좌에 참여하여 참여자들의 운영자에 대한 의존도와 친밀감이 컸으며 이로 인해 장소가 도서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영상센터에 대한 이해까지 원활이 이어진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교육 자료는 대부분 강사가 준비한 텍스트 문서나 음악cd, 영상파일 등이며 또 하나는 그 때 그 때 진행되는 만들기 수업에 필요한 재료들이었다. 복사해야 할 문서가 많았던 관계로 수업시간 전에 준비가 많았는데 도서관 담당자와 운영자가 큰 도움을 주었다.

맑은샘 도서관은 교육실이 따로 있지를 않아서 매 차시마다 도서관의 행사 유무에 따라 장소가 이리 저리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약간의 산만함이 있었고 도서관 자체의 행사로 교육에 집중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강좌를 기획할 때 장소에 대한 사전준비와 도서관이나 기관의 자체행사 등도 미리 관리하여 강좌와 행사가 겹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도서관의 시청각 시설은 훌륭하여 준비해간 교육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은 부평구의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맑은샘 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공동체미디어교육이니만큼 지역에서의 담당자나 기관의 역할도 중요한데 오랜 기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과 교육이 풍성한 이곳에서의 강좌가 맑은샘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특별하거나 신선해 보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운영의 능숙함으로 참여자, 강사, 담당자, 운영자가 모두 상호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은 큰 장점이다.

따라서 이 후의 동아리 결성이라든지 이번 강좌에서 파생된 주제를 가지고 지역 내에서의 활동을 위한 조언을 따로 강조하지는 않았다. 이들의 행보는 이곳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힘으로 역동적으로 잘 굴러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찾아가는 미디어공동체의 장소를 결정할 때 우리 교육이 시급한 곳을 우선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활동이 왕성한 곳에서의 새로운 피드백을 주는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자생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곳이 더 의미 있는 활동이지 않을까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다양한 방식으로 소외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개발과 건설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인천의 현실에는 이런 움직임이 절실하다.

도서관이든 센터든 지역주민이 활발히 움직여 상호 교류하고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힘이 되는 것이 중요하나 이것을 지역민 스스로가 움직여 자발적인 참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해주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이를 위한 사업이 찾아가는 미디어공동체 교육이었다는 생각이다.

● 교육 결과물

구분	형태	내용
교육 수료 작품 16점	전시 및 사진기록	발도로프 인형 (사지인형)

교육 결과물이라고 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마음공부에 관련된 부분과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유형의 결과물인 인형에 대해서 참여자, 도서관 관장 및 담당자, 센터 운영자, 강사가 모두 만족하였다.

교육 결과물이라고 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마음공부에 관련된 부분과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유형의 결과물인 인형에 대해서 참여자, 도서관 담당자, 센터 운영자, 강사가 모두 만족하였다.

8차시였던 마지막 나눔의 날에 인형을 전시하여 기념사진도 찍고 완성된 인형을 보며 기쁨을 나누었고 인형과 음식과 각자의 장기들을 서로 나누며 마지막 날을 풍성한 잔치의 자리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론 공부의 마무리 결과는 만든 인형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글을 낭독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8주간의 시간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성찰의 시간이 되었는지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⑤ 공동체미디어교육 포럼 <미디어교육으로 지역공동체에 소통의 새싹 틔우기>

■ 사업내용

- 사업명 : 공동체미디어교육 포럼 <미디어교육으로 지역공동체에 소통의 새싹 틔우기>

- 사업배경 및 목적

지난 2년 동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이하 CAMF)를 통해 실행된 미디어교육은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CAMF는 인천의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교육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도록, 미디어활동에 대한 욕구와 실천이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소통의 현장을 발굴하고 확장하는 작업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어왔다.

2007년 개관 직후부터 CAMF는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미디어 소외계층의 미디어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여성 등의 대상별 미디어교육은 지역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양성하고, 각각의 그룹들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굴레는 벗어던질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둔 장기적 형태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그러한 교육들을 다양하게 기획·운영함과 더불어 CAMF는 전략적으로 수강생모임을 추동하고 수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심화교육 및 후속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과정에서 몇몇 교육의 모임이 만들어졌으나 활동이 지속되지 못하였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수강생들의 자발적 커뮤니티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물음을 통해 어떻게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것인가에 고민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2009년에 CAMF에서 기획하여 진행된 공동체미디어교육은 그러한 고민의 연장선상에 놓여있음과 동시에 미디어로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미디어교육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 중 하나는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진행되는 미디어교육들 대부분이 '영상'미디어교육에 집중되어있었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영상'의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기술적 과정에 대한 습득이 미디어교육의 핵심적인 목표인 것처럼 오해되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어떻게 기술적인 과정을 '자기표현' 속에 잘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미디어교육 교사들의 가장 큰 화두이기도 했다.

2008년 CAMF를 비롯한 5개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서 공동으로 개발된 미디어교육 교재를 기

획·개발하는 단계에서 가장 고민했던 지점 역시 동일한 부분이었다. 최근 있었던 공동교재평가워크숍에서도 역시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영상’미디어의 생산자가 되는 것에 대해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이질감은 기계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과 전문가들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부분을 경험한다는 것에 대한 이질감일 것이다. 그러한 두려움과 이질감은 반대로 기술적, 전문적 과정에 대한 욕구로 표현되기도 한다.

미디어교육이 영상기술교육이나 직업교육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특히, 일상적 삶의 공간인 ‘지역’ 혹은 ‘마을’ 단위의 미디어활동을 추동하고 그 공간에서 미디어가 친숙한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 교육을 수강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이질감, 그리고 그를 반증 하는 기술적 욕구들과 ‘마을’단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사이를 좁혀나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2009년 공동체미디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미디어교육은 기존에 공동체미디어교육이 실행되던 방식-이미 일정한 특수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꾸린 공동체에 직접 들어가 미디어교육을 진행하는 방식-과 새로운 공간,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시도, 그리고 생활공간인 ‘마을’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교육이 모두 포함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공동체미디어교육 포럼을 통해 2009년 진행된 각각의 교육사례들을 돌아보면서 인천의 공동체미디어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할지, 그 과정에서 미디어센터와 각 협력단위들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되어야할지를 미디어교육에 참여한 단위들과 미디어교육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지역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를 통해 도서관, 공부방 등 인천지역의 여러 규모의 공동체들과 2009년 공동체미디어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협력을 위해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넓게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 및 미디어교육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대외적으로 알리고 미디어교육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일시 : 2009. 12. 15 오후 4시~6시

● 장소 : 학산문화원 대강의실

● 참여자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2009년 공동체미디어사업 참여단위 및 인천지역 도서관 및 공부방 관계자, 지역공동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교사, 미디어활동가 등

● 사업내용

가. 2009 공동체미디어교육 방향

- 공동체미디어교육 포럼 개최 배경
- 공동체미디어교육 사례 소개(교육대상, 교육형태, 활용미디어를 중심으로)

나. 2009 공동체미디어교육 사례 발표

- 정신장애인미디어교육 〈나와 세상과 미디어로 해피투게더〉 사례 발표
 - 발제자 : 박종필(다큐인 다큐멘터리감독, 정신장애인미디어교육 주강사)
 - 발제 내용 : 정신장애인 미디어교육의 의미, 교육 목적/목표 설정, 교육 진행과정/결과물 발표, 교육 평가 및 논의 지점
- 지역공동체어린이영상미디어교육 〈미디어놀이터, 일상 속 상상마당〉 사례 발표
 - 발제자 : 김수목(어린이미디어교육 주강사)
 - 발제 내용 : 교육 목적/목표 설정, 교육 진행과정/결과물 발표, 교육 평가 및 논의 지점
- 도서관공동체미디어교육 〈엄마와 아이, 형묘인형으로 속닥속닥〉 사례 발표
 - 발제자 : 김경영(도서관공동체미디어교육-발도로프교육 주강사)
 - 발제 내용 : 교육 목적/목표 설정, 교육 진행과정/결과물 발표, 교육 평가 및 논의 지점

다. 전체 토론

● 포럼 발제자 및 토론자 명단

이 름	구 분
박종필	정신장애인미디어교육 주교사
송윤혁	정신장애인미디어교육 보조교사
김종현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간사
김수목	지역공동체어린이미디어교육 주교사
안나영	지역공동체어린이미디어교육 보조교사
신소영	십정동 해님공부방 대표
강현구	십정동 해님공부방 초등부 교사
김경영	도서관공동체미디어교육 주교사
박은영	도서관공동체미디어교육 보조교사
최진희	수봉도서관 사서

■ 사업결과 및 평가

● 사업결과

- 공동체미디어교육 포럼 논의 내용 요약

사례1. 정신장애인미디어교육 사례 발표

해피투게더 영상미디어교육

〈나와 세상과 미디어로 해피투게더〉

발제자(박종필-정신장애인 영상미디어교육 주강사):

9월 초에 인천에 있는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에서 정신장애인분들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하게 된 계기는 작년에 인천의 지체장애인분들과 함께 민들레야학에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같이 영상교육을 했습니다. 그 때 교육을 할 때 제가 시민방송 R-TV에 정규 프로그램을 엑세스하고 있었어요, 그 때 이제 해피투게더를 다뤘습니다. 해피투게더를 다루면서 저도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까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다가 다양한 장애 유형보다도 사회적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03년부터 미디어센터가 막 생겨났었죠. 다양한 장애유형에 미디어교육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정신장애인 영역에서는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민들레장애인이야학 교육하면서 주안센터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미디어교육이 없는 상황이고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 유형보다 사회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받고 있고 사회적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해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요청을 드렸었고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해피투게더에서 계속 미디어교육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부터 미디어센터가 많이 생겨났는데, 센터가 생겨나면 제일먼저 하는게 장애인에 대한 미디어교육이죠,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 주로 어떤 장애인 이냐 하면 주로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소통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위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쨌든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장애유형과는 다르게 개인적 문제 그리고 정신장애의 경우 선천적이기 보다는 후천적 관계 속에서 발생을 하고 개인의 부족함의 문제로 인식이 확립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범죄가 발생하면은 정신장애인이 한 게 아닐까하는 추측을 한다던가하는 상황이 많고 영화에서 정신장애인을 왜곡시키는 사례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장애인 등록률이 다른 장애 유형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죠.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이 1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용사,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거나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거나 하는.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위나 칼이나 사용을 공식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있는거죠. 다른 장애 유형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접 접하지 않고 주류 미디어에서 다루는 정신장애인의 이미지로만 판단하면 안되는거잖아요. 특히 정신장애인은 그렇게 해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 해피투게더 영상물을 만들면서 정신장애인을 다루면서 저도 직접 접해보면서 언론에서 다루는 정신장애인의 이미지는 굉장히 왜곡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우리 사회 문제에 발생하는, 다른 장애 유형보다 더더욱. 그래서 사회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 사회적 소수자 약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미디어센터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활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료를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작업을 하면서 해피투게더에 계신 회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가 활용을 할 것들이 없다,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미디어 교육이 비판적 의식도 필요하지만 놀이로써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교육의 목적에 여가 활용이라는 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 기간은 2009년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매주 월요일, 금요일 3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편집프로그램에 대한 보충수업이 진행이 되었구요. 그리고 해피투게더가 5시에 일과가 다 끝나요, 5시 되면 다 퇴근하시는데 영상 교육 받으시는 분들만 6시까지 활동을 하였고, 처음에는 다들 퇴근하는데 이렇게 남아서 교육을 하는게 안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었고, 상황봐서 유동적으로 조절하기로 했었는데 다행히도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세시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사실 이번 교육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자발성에 근거해서 교육이 진행된 경우도, 그렇지 않은 분들을 교육한다면 세 시간은 교육이 적당한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국에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은 처음인데, 여기 해피투게더 미디어교육 후에 서초구에 정신장애인 이용시설에서 미디어교육을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영상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직원까지 합하면 18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는 팀별로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팀별로 담당직원이 결합해서 3팀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었는데, 아주 경증인 분들, 그리고 중간정도의 분들, 아주 중증인 분들 이렇게 3팀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런 교육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해야 될 것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 그것이 자발성에 기초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정신장애인분들에게 어느 정도 제시하는 의미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서 경증인 분들은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증인 팀들은 억지로 따라가는 느낌이 좀 들고, 사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어요. 어떤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인건지.

정신장애인 교육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하나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교육을 선택 하는데 있어서 자기결정권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데 제시하는 것과 강제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수업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지적장애인 학생들에게 선택할고 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 지점에 있어서 정신장애인 영역은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사례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잘 어떤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구요.

교육횟수는 12회 진행이 되었고, 장소는 해피투게더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비는 미디어센터에서 갖다 주셔서 가능했구요, 그리고 참여인원은 처음엔 회원 7분이었고, 좀 들쭉날쭉했습니다. 참관하시는 회원분들도 계셨고, 직원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제작까지 마친 회원은 5분 정도가 있었습니다. 5분 중에 처음부터 결합하셨던 분은 3분이고 중간에 결합하신 분이 2분. 그리고 저 말고 두 분이 함께 했는데 이 두 분은 작년에 같이 해피투게더 영상물을 같이 만들었던 사람이라 미디어교육에 관한 경험은 없었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 내용과 커리큘럼은 정신장애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썼던터라 이것은 2003년부터 지체장애 인본들의 교육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고요, 이 순서대로 교육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교육하면서 참여자 척도, 이해도에 따라 수정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커리큘럼하고 가장 다른 점은 촬영실습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카메라를 만지는 것을 즐거워하셨었고, 거의 매 수업때마다 촬영 실습하고 편집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편집할 때 후반작업에 많이 걸렸어요. 이걸 장비에 문제도 있었는데, 편집프로그램을 익히는 편차가 컸습니다. 편집을 수월하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오래 걸리거나,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분들도 계셨었고. 그래서 주안미디어센터에 와서 점심때부터 저녁 7-8시까지 두 번에 걸쳐서 편집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줄 보시면 여가 활용이 타인과 접촉없이 개인적 범위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지점에 미디어 교육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와 참여자 간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하는데 카메라를 들고 지역사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 접하는 이런 관계가 정신장애인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재래시장이 있었는데요, 주변의 재래시장의 간단한 스케치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찍으면서 일상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 힘들잖아요? 이런 것은 카메라를 통했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를 통한 외부와의 소통이 정신장애 당사자에게 뭔가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닐까하는 판단을 좀 하구요. 정신장애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 유형도 마찬가지인데, 해당 기관이나 센터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미디어가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기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안미디어센터나 클럽하우스에서도 미디어교육을 받았던 분들에 대한 영상 미디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4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까지 대상자가 참여했었구요, 컴퓨터를 아예 다뤄 보지 않은 사람부터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 있었구요, 그리고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그렇게 중증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기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영상장비를 다루는데 있어서 차이를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편차가 큰데 일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증의 경우, 비장애인과 별한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중증 분들은 지적 장애인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의욕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이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신장애인분들 교육할 때는 병중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증 같은 경우엔 굉장히 늦게 들어오신 분이라도 빨리 적응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병중에 따라서 일괄적인 교육을 할 것인가하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끝에 썼다시피 영상작업을 하나의 일로 인식하지 않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의 놀이로써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래야 부담감 갖지 않고 여가 활동으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내용 보면 재래시장을 찍으신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해피투게더 스넥바를 찍으신 분이 있고, 그 답에 해피투게더 정신장애인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 지역사회의 비장애인들의 생각을 담은 작품이 있죠. 자신의 결과물을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편집이나 촬영은 굉장히 빠르게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에 요구를 하셔서 상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께 제안을 했었죠, 다른 분들이 많은 영상을 가지고 상영회 때 틀 오프닝 영상을 만들면 어떠냐 했는데, 되게 싫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저랑 같이 만들어보자 해서 공동연출을 해서 저와 만들었는데, 사실 이 분이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 분은 자기를 들어내는 걸 부담스러워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사실 비판적 읽기는 썩 잘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준비하지도 못했었고, 사전에 관장님과 작년에 제작을 하면서 해피투게더에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거

나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커리큘럼에서 명시를 해서 교육하지는 않았었고, 일상적으로 교육 속에서 조금씩 미디어에서 정신장애인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가 비판적 읽기의 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과 관련되서는 좀 조사가 더 필요한 것 같구요, 조사 속에서 어떤 교육자료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신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정신장애인분들과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진행하면서 교육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시장과 어머니'에서 재래시장이 어려운 점들, 재리시장이 자꾸 바뀌는 모습에 대해서 주목을 했구요.

또 한분은 시설 내 매점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려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매점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매점의 다양한 의미, 그리고 매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이 있는 반면 글로 써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고 하는 일종의 기획·구성 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촬영 쪽에 자신을 가지는 분들도 계셨구요.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 다른 장애유형보다, 지체장애인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컸어요. 그건 아마도 지체장애인분들 경우는 관계 속에서 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반면 정신장애인분들은 자기가 좋으면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김중현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김중현(해피투게더 직원):

그것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냐면, 정신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지역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 해피투게더 같은 경우엔 클럽하우스모델의 철학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예요.

클럽하우스 모델을 약간 이해를 하시면 왜 자발성으로 본인에 대한 선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얘길하면 방대해 질 것 같아요. 일단 원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940년대에 미국에서 출발한 모델이거든요, 정신장애인들 10명이 스스로 자조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한 모델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모델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와 간호사가 결합이 되면서 발전이 되어 온 모델이고, 그만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당사자 선택입니다. 이게 클럽하우스 모델의 가장 큰 핵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센터나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면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클럽하우스 모델 같은 경우엔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게 저희는 프로그램 위주의 회복과정을 밟기 보다는 클럽하우스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업무들을 모든 직원과 회원이 함께 보고 함께 책임을 지고, 운영자체를 함께 한다는 것에 근본적 차이가 있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회원분들이 여가생활이나 취미활동을 좀 더 재밌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스를 주는 거지 그거 자체가 본인에게 회복이라던가 재활의 의미를 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아가 서울의 '열린 세상' 같은 경우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회원님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이게 회복에 도움이 될지 말지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 프로그램에 운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고, 해피투게더 같은 경우엔 여가 활동 수단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구요, 그것은 장단점을 따져봐야 하는 것 같아요. 내 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가중되는 스트레스로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떤 게 더 좋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 몫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철학에서 오는 관점 자체가 출발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제공되는 부분은 저희는 더디게 보는 편이 있어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5명이 최종적으로 영상물을 만들어 냈고 시사회를 했습니다. 근데 직접 참여해서 영상물을 만들고 했던 참여자는 소수이지만 그걸 바라봤던 회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시사회에 와주셨던 다른 기관의 정신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이 그걸 보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의 자발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과 몇몇이지만 보여주면서 할 수 있구나 하며 시야를 넓혀줘서 다음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에서도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궁극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종필(발제자) :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판적 미디어 읽기 에 대한 자료가 확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정도로 발제를 하면 될 것 같구요. 정리를 하자면 센터나 미디어활동가, 교사 분들이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에서 용인된 인식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을 하고 다른 시각으로 정신장애인을 바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장애인현장운동에서 장애인 활동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인 것 같아요.

장애인 운동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이 열악하고, 가장 열악한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이번 교육이 다른 센터라던가 여러 교육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곳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미디어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다른 유형처럼 정신장애인 영역에서도 정리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2. 지역공동체 어린이미디어교육 사례 발표

재미와 소통이 함께 한 <일상 속 상상마당>

- 해님공부방 지역공동체 어린이미디어교육 돌아보기-

발제자(김수목-이런미디어교육 주강사):

이번 미디어교육은 아이들도 조금씩의 변화가 있었겠지만 교사도 같이 변화를 겪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교육이라는 이름 안에서 만났지만 재밌게 놀고 즐기고 이야기하면서 '미디어 놀이'와도 같은 개념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공동체의 주체로서 그리고 지역을 일상공간으로, 그 속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문화를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올해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작했구요. 미디어교육은 성인에게도 중요하고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중요함을 이미 이야기 하고 있지만 특히 어린시절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세상을 보면서, 통찰력을 키우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미디어교육을 접할 기회는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방이라는 곳에서 미디어교육을 받을 기회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교육을 공부방에서 한 이유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와서 공부방에서 밥을 먹고 공부하고 놀다가 이렇게 집으로 가서 잠깐 있다가 학교에 가는 식인데, 이런 일상의 공간을 공부방에서 보내는데, 공부방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상을 제작하고 공부방이라는 공간 안에서 미디어교육이 시행되었을 때, 공동체로서 공부방이 충분히 될 수 있단 생각이 들었고, 더 나아가 공부방은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같은 또래를 만나서 즐기는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일상의 모습이라든지 이야기 거리라든지 공부방이라는 공간에서 소통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여기서 미디어교육을 하면 우리가 원래 목표로 하던 미디어를 통해 공동체와의 소통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부방 중에서도 '해님 공부방'으로 장소를 정하게 된 것은 공부방을 졸업한 해님이라던지

공부방 학부모의 모임 자모회라던지, 얼마 전에 여기 선생님이 만드신 고등부 패밀리라고 해서 이는 공부방에서 졸업하고 난 후 고게 아쉬운 선생님과 아이들이 동아리 같은 형식으로 만드는 등 공동체로서의 소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공부방의 기존 선생님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해가 더 깊으신거예요, 그런거 우리들도 좋아한다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하고 싶다고 하셨구요. 그랬기 때문에 더 해님공부방에서 미디어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4명의 교사들이 함께 했었는데 아이들의 자발성이라던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어요, 이 공부방은 졸업을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한 학생이 다시 공부방 선생님을 하더라도, 아니면 자원활동의 개념으로 라도 순환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것 처럼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힘이 느껴졌고, 이런 것이 (앞으로 미디어교육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도)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핸드아웃자료에 보시면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주로 했던 교육 내용이 워크북 만들기 나와 동네를 주제로 디카 사진 찍기, 나의 일상소리 채집하기 등등을 했구요, 마지막으로 사진전을 1학기의 마무리로 같이 했었구요.

또 방학 동안에 영화보기, 그리고 체험활동으로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가서 체험활동을 했었구요, 아이들이 애니메이션도 만들어보고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학기에는 인터뷰라는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1학기에는 사실 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 1학기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재미였습니다. '신나게 놀아보자' 식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수업내용도 디카를 가지고 찍고 싶은 거 마음대로 찍어오거나 나무타서 올라가서 찍어오기, 동네 보물지도 만들기를 했었는데요.

동네 보물지도 만들기기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 보물이라는 개념이 동네 안에서 각각의 아이들이 알고 있는 보물들이 있었을 것이라든가 전제하에 아이 각자마다 보물지도를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 결과물이 뒤에 붙어 있는 내용물입니다.

동네속속들이 모둠 별로 사진을 붙이고 사진에 얹힌 에피소드 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이들하고 교사들하고 관계를 맺어 왔지만 수업해야 교사들과 만들고, 교사도 수업 이외에 아이들을 만날 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활동을 하면서 교사들과 함께 동네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관계가 한번 더 좋아진 수업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잠시 보셨을 텐데, 사진전이 있었는데요, 목표 중에 하나가 32페이지를 보시면요 교육 목적과 교육목표를 적어놨습니다. 거창하죠? 1년을 예상하고 잡았던 거창한 목적과 교육 목표고요, 네모 칸으로 되어 있는 건 구체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스스로 문화를 생산, 소통해보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잡았었는데요, 사진전 같은 걸 하면서 역할을 맡아서 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사진전이 뭔지, 상영회가 뭔지 고민하면서 스스로 기획해 보자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전체 적인 틀 같은걸 짜보고 그 안에 내용들은 어떤 식으로 사진을 배치할지 고민을 아이들 스스로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사진전 때는 아이들이 우리 사진을 천장에 붙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자신의 특징을 살린 이름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사진전은 공부방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공부방에 사람들이 30-40명 정도 왔었는데, 아이들이 12시부터 와서 뚫겠다고 해서 교사들도 놀라고, 간식들도 아이들이 놓는 등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또 사진전에 미션놀이 라는 것을 했는데요, 사진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보면 속담같은 것, 청출어람을 연상하게 하는 사진을 찾아봐라 이런 식의 미션을 주고 관람하는 사람들이 그걸 찾아서 그걸 미션 퀴즈를 맞추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아주 재미있게 사진전을 마감할 수 있었구요.

2학기에는 인터뷰라는 주제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라하면 우리는 동네 안에 사는 사람들을 인터뷰 하자거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 나눠보자거나 이런 취지 였는데, 그랬기 때문에 교사들은 슈퍼 아주머니나 공부방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을 인터뷰 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은 보통 공부방 친구들을 인터뷰 하더라구요.

이 모둠이면 저 모둠 친구를 인터뷰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터뷰 하는 형식이 되었어요.

인터뷰가 무엇인지를 기획하고 인터뷰를 촬영, 상영까지 편집이란 거를 아이들이 처음 해봤는데, 아이들이 이라서 그런지 받아 들이는게 빠르긴 하더라구요.

물론 개인차가 있어서 거의 개인 과외하 듯이 알려준 친구들이 있었기도 하지요. 인터뷰 촬영본을 가지고 상영회를 했는데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교사가 많이 준비를 못한 것도 있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를 못한 점이 아쉬워요.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소리가 잘 들어가려면 가까이서 찍어야 한다고 해서 아이들 얼굴이 크게 만 나오고 소리도 잘 잡히지 않아서

그냥 노트북에서 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상영회할 때는 잘 안들렸습니다.

인터뷰 기획과 상영회 기획을 아이들이 직접했는데요, 사회자하고 서기를 뽑고, 아이들은 뭐를 뽑을 때 가장 잘하고 쉬운 게 가위바위보라서 그런 식으로 결정하더라구요.

이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아이들의 몰랐던 면을 발견하기도 하였지만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듣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도, 몇몇 아이들은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잘 기다려주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기도 해서 지켜보는 교사로서는 약간 난감해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어떤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 해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전체 활동보다는 모둠 활동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모둠활동이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소외됨이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활동의 경우,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도 아무런 대답도 안 나오는데, 모둠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집중력이 높아지기도 하고, 교사들은 아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 친구와 친구의 이야기를 잘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던 거 같아요.

다음에도 어린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모둠활동을 하면 적극 추천할 생각입니다.

전체 활동일 때는 소극적인 친구들도 일대일로 보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서 교사와 아이의 관계도 쌓이고,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주는 능력도 생기고,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처음엔 대답을 안하고 고 던 아이들이 나중엔 교사가 질문을 던지면 자기 표현을 잘해요. 하지만 한 가지 아직 안되는 건 다른 친구의 이야기 들어주기인 것 같아요. 표현하는 것 만큼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미디어 활동을 익히는 것만큼 중요한 수업인 것 같구요,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한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이야기 끝에 될 것이라 생각해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름 생각을 해보았던 건 미디어를 재밌게 즐기고 미디어 안에서 소통의 장을 소통하고 조금씩 다가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미디어 읽기가 바탕이 된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후속활동이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들어간 교육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교사들도 서로를 알고, 또 아이들마다 어떤 미디어 도구를 잘 활용하는지 관찰하여 한명 한명에게 좀 더 적합한 방식으로 더 표현해 내고, 그것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데 한발짝 더 나아가게 하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평가라고 하면은 지역 공동체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고, 아이들의 교사들간의 신뢰나 이런 게 잘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후 1년차 2년차의 교육까지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후속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는 없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해서 2년차 교육도 해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논의 지점은 아직 어렵긴 한데.. 두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지역공동체 안에서의 소통을 위해 미디어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고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한계는 무엇일까? 거창하죠. 그냥 어떤 역할을 미디어 교육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구요.

또 하나는 학교의 경쟁시스템은 견고해 지는데, 공부방의 기본활동들 자체가 위협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 예요. 어느 때 부턴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빨리 빨리 오지를 못해요, 무슨 일이나고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성적이 넘지 못하면 안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학교 이외의 활동들이 점점 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하는 고민 속에서 공부방에서는 미디어교육 뿐 아니라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활동들이 함께 해 나갈 수 있고, 또 미디어 진영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례3. 도서관공동체미디어교육-발도로프인형으로 소통하기

공동체미디어교육

〈엄마와 아이, 인형으로 속삭속삭〉을 마치고

발제자(김경영-도서관미디어교육 주강사):

발제 전에 간단하게나마 발도로프 교육이 어떤 건지, 미디어 교육으로 왜 발도로프를 하는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발제하셨던 햇님공부방 미디어교육을 보니 되게 행복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의 발도로프라는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학교 이름이 발도로프라고 불려졌고, 이후에서도 발도르프 학교라고 불려지고. 발도로프 교육이라고 명명되고 있는데 슈타이너는 아이의 존재를 영적인 존재, 교육은 인간의 본질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언제나 인간이 가져야 하는 내적세계 의지. 정신 등 다양한 활동들을 교육 활동에선 모방에서 있다고 보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정서를 내면화하고 이런 것을 자기 성장으로 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사도, 어른도 교육을 하기 이전에 자기 삶을 먼저 돌아보고 본인 스스로도 끊임없이 내적 성장을 일으킬 수 있고 자기 스스로를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고 봐요.

수업 시간에 발도로프적하게 수업한다고 말한다면 예를 들어, 이것은 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물을 마시고, 모든 것들이 나와 과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자기와 소통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예요.

발도로프 인형은 인형의 역사를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어요. 인형은 발도르프 교육에서의 놀이감 뿐만 아니라, 굉장히 주술적인 도구로도 쓰였고 지금은 교육적 도구로도 쓰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디어 교육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교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형? 미디어교육에서 뽕뽕맞게 식이 아니라 미디어 매체 중에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해서 좋았습니다.

특히 요즘 작은 도서관 운동이 일어나서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화적인 미디어매체를 가지고 공동체를 일궈내는게 도서관이란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에서 발도르프교육 메이킹 명상을 만든게 있는데요,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인형을 직접 제작하고 그것과 함께 필독도서들도 함께 읽고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린이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나를 찾고, 나는 건강한 공동의 일부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실현한다는 것이 목표였고요, 저희는 9주차에 걸려서 어린이 교육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자리가 교육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교육 후에 성과와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을 토론하는 자리인줄 알았어요. 근데 각 강좌가 생소하다보니까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라도 교육소개를 해야겠네요.

일단 어린이든 어머니들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든 아이든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지는 직장인이든 남자는 여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많이 아프잖아요, 대부분이 주부들이었는데 이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강좌에서는 놀이터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놀이터라 하는 것은 마음껏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발가벗고 원천적인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 어른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서건 간에 어떤 가면들을 수시로 써야하는데 마음의 울림 없이 지내고 있는데.. 또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수업에서 만큼은 이름을 안 부르고 닉네임을 불러서 불렀어요, 이름조차도 내 가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내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앞으로 나에게 있어질 내 삶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주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름을 잘 알고 내가 원하는 삶을 자꾸 불러주니까 참여자들이 느꼈던 어떤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듯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아이들은 어떤 것을 모방할 것이며 무엇을 내면화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수업내용은 노작이라고 해서 노동과 작업의 중간 교육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것들이 서로 막 연결이 되어서 손으로 계속 만지고 다시 또 반복해서 다시 사고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가슴으로 느끼고 각각의 독립적인 강좌이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교육 내용을 보면 첫째는 저희는 장치를 해요, 여는 문이라는 장치를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장치지만 그것이 수업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자기 삶의 이름 짓기나 수업 전에 매주 시를 읽는 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업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치를 합니다.

또 수업에선 각각의 주제에 맞는 주제와 자기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발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담스러워 하더라구요, 부담스러워도 강제성을 띄고 했습니다. 한주에 두분씩 발제를 했어요. 그게 처음엔 원하는 사람부터 잘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학술적인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제와 삶이 어떻게 버무러지고 내 인생하고 어떻게 버무러지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특히 어머니들은 자길 들어낼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주가 거의 그래서 그런지 매주가 눈물바다처럼 되었죠.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내 이야기를 할 곳이 있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출석률이 거의 100프로에 가깝게 나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인형만들기는 출석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장치죠, 하루 빠지면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 빠지게 되어도 어떻게든 전화를 하시고 그러세요.

자유롭게 발제하고 거의 강의 위주보다는 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하게끔 유도 했는데 그게 참 잘 되었던 경우고 그래서 늘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자연스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손작업으로 뭔가를 한다는 기쁨이 매주 매주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병행이 되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참여자들끼리는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이야기를 하시도록 했구요, 그리고 강의 내용은 하나씩 순서에 맞게 썼거든요 필독 도서 세권을 읽고 발제를 하고 이런 내용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인형을 한주 한주 완성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공유한 것은 나중에 나 자신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내 원초적인 어린이성을 되찾는 것 그것에 같이 고민을 했고 그것은 바느질 한땀 한땀 이어간다는 것의 이미지와도 일치했어요.

인형을 한땀 한땀, 너무나 조심스럽게 내 삶을 엮어간다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형들이 아주 기게

적으로 정교한 게 아니라 마음을 많이 담기 때문에 만드는 스스로도 함부로 못하는 경이로운 작품으로 돌아오는.. 그거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핸드아웃자료로도 나와 있지만 읽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인형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강의를 하고 발제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손 놀리고 머리를 쓰고 시도하다가 실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몸으로 계속 익혔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창조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과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업 커리큘럼을 보면 잘 나와 있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구요.

자기가 완성한 인형을 가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인형은 다소 뻘뻘하지만 그것을 나중에 커서 시집갈 때 까지 가지고 있을래요 라고 말하고, 자기 인형을 가슴에 안는 모습을 보며 진짜 거기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면서 든 논의 지점이라면 미디어교육이 가지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데 나는 무엇으로, 나만의 창조적인 미디어를 생산해 나가고 있는가 그것은 끊임없이 이야기 나누는 주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위한 모든 것을 미디어라고 한다면 미디어교육에 몸담고 토론하고 하는 지점에 와있는 우리들은 이런 논의들이 유익미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미디어 활동을 통해서 상상하니까 즐겁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는 길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죽고 같이 살려면 이런 나눔과 교육이 이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나눔의 장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최진희(수봉도서관 문화교육프로그램 사서):

발제자분께서 작은 도서관 이야기들은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여러 교육들이 함께 진행이 되므로 한 강좌에만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리고 저희가 영상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최종적으로 좋았던 것으로 이 교육으로 인해 결국에는 도서관 이념을 잘 실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동체 미디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공동체 교육이 이렇게 아날까 생각이 들고,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드리고 쏟아 낼 수 있는 장, 그게 바로 공동체 교육의 의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도서관이나 기관에서도 많은 관심가지고 확장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발제자(김경영):

대부분의 강좌에서 후속모임이 만들어집니다.

참여자들끼리 끈끈하고, 오래 전에 만났던 친구들 보다 가까워져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교육 이후에 인형극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지역의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새롭게 다른 일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고.

동아리를 만드셔서 계속 만남을 지속하면서 작은 도서관과 이용해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고,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를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 결과물

공동체미디어교육 포럼 자료집(1종), 공동체미디어교육 사례 자료집(1종) 발간

● 사업평가 및 과제

- 사전 준비과정에서 개별 발제자들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했음에도 최종 발제문이 너무 늦어져 포럼 자료집을 준비하기 매우 어려웠다. 생각보다 여러 단위에서 참여해주었고, 다른 교육들에 대한 관심도 많았으나 원활하지 못한 포럼 진행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지는 못했다.
- 처음 의도 했던 대로 발제를 짚막하게 진행하고 다양한 경험들과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해피투게더, 해님공부방, 수봉도서관, 그리고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 참관한 여러 기관 및

단체 관련자, 인천에서 활동하는 미디어교육활동가들이 2009년 진행된 미디어교육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조언하는 방식의 종합토론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

- 그럼에도 포럼을 통해 미디어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미디어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단위들을 마주하고 네트워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는 충분했다는 판단이다.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지역사회에 일정정도 기여하고 있으며, 각 단위가 당면한 과제들과 미디어교육이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또한 각 영역이 어떻게 교차하여 만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또한 미디어센터 중심의 미디어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공동체에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미디어교육을 실행하고자 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비슷한 영역에서 이미 교육을 실행해본 단위의 조언이 아닐까 한다.
-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은 크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관계가 형성되고 공동체교육에 싹을 틔우기에는 충분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이렇게 지역에서 다양하게 연계하여 미디어교육을 실행하는 단위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것이 인천지역의 미디어교육의 거점으로써 미디어센터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 총평

2009년 공동체미디어사업은 크게 2가지로 정리된다. 도서관과 협력하여 진행한 공동체미디어교육과 공동체미디어교육 포럼이 그것이다.

2008년 공동체미디어사업으로 진행된 우리 마을TV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공동체적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개별 지역공동체에 맞는 구체적인 미디어활동 및 공동체미디어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동체미디어조사사업을 통해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였다.

2008년에 이어 마을공동체, 즉 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어 있는 단위와 함께 활동중심의 공동체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미디어센터가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면서 마을단위와의 소통 및 세부계획 수립이 어려워지면서 2009년 상반기, 마을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공동체미디어사업이 잠시 정체되었다.

그러던 중 2009년 인천광역시의 마을도서관 증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공동체적 거점으로 도서관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지역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들은 도서관 고유의 자료축적과 지식의 공유라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중요한 공간이다. 최근에는 평생학습과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보장받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욕구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마을단위의 작은 도서관들은 물론, 시립도서관과 같은 규모를 가진 도서관까지 기존에 도서관이 동안 수행해온 정적인 역할 만큼이나 지역공동체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미디어센터는 장기적으로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새로이 자리매김하게 될 도서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교육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이미 미디어 교육 사업으로 도서관과 연계사업을 실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미디어에 대한 개념을 ‘TV나 라디오, 영상과 같이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하여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좁은 개념에서 '내적 의사소통 수단, 다양한 범주의 소통을 매개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까지 확장해봄으로써 매스미디어나 뉴미디어가 등장하기 전 훨씬 인간에게, 공동체에게 친근했던 책과 인형이라는 매개를 넓은 의미에서 '미디어'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2009년에는 도서관공동체교육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교육들이 진행되었다. 지역사회에 등지를 튼 여러 공동체들과 협력을 통해 진행된 교육은 교육 형태에 따라 찾아가는미디어교육이나 지역사회 협력교육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모두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어 사실상 공동체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인천지역에서 새롭게 시도된 미디어교육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그 사례를 지역사회에서 미디어교육에 관심 있는 여러 단위들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단위들이 서로 네트워크하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체미디어교육 포럼을 기획, 진행하였다.

2009년 공동체미디어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깊은 우물을 팔 것이냐 넓게 밭을 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인천지역에서는 아직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마을 미디어활동'을 긴 호흡으로 진행해볼 것이냐, 아니면 '공동체미디어'가 어디서든 숨 쉴 수 있도록 소통중심의 공동체 미디어교육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는 순서를 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센터의 역량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냐의 문제였다.

2008년 공동체사업이 지역사회 곳곳에 미디어센터를 알리는 시기였다면, 2009년은 인천지역에 '공동체미디어'라는 개념을 낱설지 않게 확장하는 시기였다. 다가올 2010년은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토대로 미처 추진되지 못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중심의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퍼블릭 액세스 사업

(1) 포켓미디어 영상공모전

① 사업 목표

- 현존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간편한 포켓미디어이면서 HD 디지털 방송 및 극장 상영까지도 가능한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및 휴대폰 등 포켓미디어 영화영상 공모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역 SO 및 네트워크의 방영/상영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퍼블릭 액세스의 전형을 창출
- HD 디지털 방송 규격에 준하는 포맷을 지향하되, 자체적인 테스트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상영 포맷 및 기술 기준, 워크 플로우의 초석 마련
- 공모를 통한 다양한 영화 영상물이 지역 SO 및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적인 퍼블릭 액세스로 이어지게 유도

② 사업 방향

- 대표적 포켓 미디어이면서 HD 디지털 방송에 준하는 고화질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주머니 속 휴대가 가능한) 및 휴대폰 등을 통한 영화영상 공모로 퍼블릭 액세스 활동을 지속하는 전문적 시민영상제작자를 발굴
- 글로벌한 HD규격에 맞는 포맷 중 포켓(컴팩트) 사이즈 디지털 카메라로서 현존하는 1280x720, 1440x1080, 1920x1080/24P, 30P, 60P 포맷을 기준으로 포켓 미디어 디지털 규격 테스트를 실행하여 자체적인 기술 및 워크플로우 확보
- 디지털 카메라를 통한 지역 내 영화영상제작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OBS 등 지역 SO를 통해 광범위한 퍼블릭 액세스로 이어지게 유도

③ 사업 내용

- 사업명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OBS 경인TV 공동 2009 포켓미디어 영상공모전
- 포켓미디어 영화영상 공모: 10월 ~ 11월
- 공모 진행 및 기술 테스트: 10월 ~ 11월
- 포켓미디어 영화 영상 공모 진행: 11월
- 심사 진행 및 결과 공표: 12월
- 심사 부분: 총상금 삼백오십만원
 - 1) 작품상(대상): 상금 일백만원
 - 2) 연출상: 상금 오십만원
 - 3) 촬영상: 상금 오십만원
 - 4) 편집상: 상금 오십만원
 - 5) 아이디어상: 상금 오십만원
 - 6) 포켓미디어상: 상금 오십만원
-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장항준	영화감독
심사위원	조근식	영화감독
심사위원	김동천	촬영감독

④ 수상자 작품 명단

수상	접수번호	작품명	상영시간	제출자	출생년도
작품상(대상)	16	마리오네뜨 환타지	04분09초	오승근	1977
연출상	13	유고영상	08분15초	백우종	1987
촬영상	3	Give or Take	04분05초	최성우	1976
편집상	12	Real Life...?	03분45초	조병희	1981
아이디어상	9	아래	03분43초	정찬수	1989
포켓미디어상	15	서울, 색	03분02초	이지은	1991

⑤ 사업 평가

○ 단기간에 이루어진 공모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의와 관심을 접할 수 있었고, 총 32편의 소중한 작품들이 접수되었다.

○ 기본 영화 스텝들이나 전문 영상인들의 수준 높은 작품들과 일반인들과 학생들의 아마추어 영상들의 간극이 있긴 하였으나, 포켓미디어(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주머니 속의 휴대가 가능한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핸디캠(소형 캠코더))라는 매체의 제한과 상영시간(3~15분)의 제한 속에서 공통적인 맥락으로 읽혀질 수 있는 영상들이 접수되었다.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연출, 촬영, 편집, 아이디어 그리고 포켓미디어 정신 등 5가지 객관적 지표와 점수의 가이드라인을 심사위원들에게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시도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평가된다. 여기서 포켓미디어 정신이란, 영상기록매체의 휴대성, 항시성, 즉각적인 반응성 등을 말한다.

○ 1990년대 미국의 거장 영화감독 '프랜시스 코폴라'- [대부], [지옥의 묵시록] 등 - 가 "미래의 감독들은 스튜디오를 어깨에 매고 다닐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영화스튜디오가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다. 포켓미디어 프로젝트는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사업이다.

⑥ 기록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NMF와 OBS 경인TV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2009 포켓미디어 영상제에
당신의 작품을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09년 11월 16(월) ~ 12월 15(화) 한 달간

공모내용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등 주머니(포켓) 속 휴대가 가능한 모든 종류의
이러한 매체를 활용한 동영상으로, 편집에는 제한이 없음

제출조건
- 제출매체 : DVX파일, DVD 플레이어에서 재생이 가능한 형식(MP4, AVI, WMV 등)
- 영상시간 : 3분 ~ 15분
- 작품내용 : 제한 없음
- 제출방법 : DVD 레코더로 1. 직통제출, 2. 제출처에寄送(택배) 이용
3. 제출기 중도반납도, 4. 휴대폰, 5. 이메일, 6. 우송을 하여 총 5가지의 DVD를 제출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22-3 3층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포켓미디어 영상제 담당자 앞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하든 : juancinema@nate.com

참가비용
1. 제출한 영상물은 반환되지 않고 영상제 기간이 끝난 후 폐기됩니다.
2. 제출한 영상물은 영상제의 홍보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심사내용
- 총 상금 350만원
- 작품상(대상) : 100만원
- 감독상, 촬영상, 편집상, 아이디어상, 포켓미디어 상 / 총 5개 부문 각 50만원
- 시상일시 : 12월 말경 OBS 경인TV
- 시상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층 OBS 경인TV에서 직접 방송됩니다.

심사위원
- 심평원, 영화감독, [미디어를 사랑해] [복여아 불려] 등
- 포드식, 영화감독, [영화감독] [그 해 여름] 등
- 심평원, 촬영감독, [관공룡 역사] [나자신] [영화감독] [연예계 산대] 등

주최/주관
CNMF OBS 경인TV

CNMF OBS 경인TV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NMF/OBS 경인TV공동
2009포켓미디어
영상제 작품 공모

2009. 11. 16(월) ~ 12. 15(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NMF와 OBS 경인TV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2009 포켓미디어 영상제에
당신의 작품을 공모합니다!

포켓미디어_전단

(2)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송출사업

① 사업 개요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P와 NIB 남인천 방송이 공동으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송출 사업을 기획하여 지역 영상미디어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미디어를 통한 지역 문화 참여도를 적극 고취

■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각종 영상미디어 공모 사업 및 미디어 교육을 통한 결과물들 중 양질의 영상물들을 프로그램 및 송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미디어를 통한 적극적 지역 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

■ 전국 미디어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그램 수급으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인지도시키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자랑이자 전국 미디어 문화운동의 허브로서의 자리 매김

② 사업 내용

■ 프로그램 편성: 상호 합의를 통한 프로그램 편성을 기본으로 하되, 음주, 흡연, 폭력, 선정성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송윤리법을 준수

■ 편성 시간대: 상호 합의를 통한 편성 시간대를 선정하되 프로그램 수급량의 변화에 맞는 탄력성을 유지

■ 채널: 직접사용채널 3번

■ 프로그램 수급 포맷: HDV(1080I/720P), DVCAM, DV, DVD

4. 창작지원사업

1) 기자재실 운영사업

(1) 기자재 대여

① 사업내용

■ 사업목표

- 저렴한 가격으로 영상 및 음향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직접 영상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를 제작 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상물을 비롯한 미디어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자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한다.

■ 사업대상

- 회원교육을 이수한 시민과 제작을 하고자 하는 개인
- 관련 교육기관, 학교 방송반, 지역공동체, 시민단체 등 제작을 하고자 하는 단체

■ 기자재 대여 절차

처리절차	일정	내용	결과	비고
홈페이지 신청 ↓	D-3 이전	∴ 기자재 대여 신청	차주 장비 준비	신청자
대기 ↓	D-2 이전	∴ 미입금 [문자발송등]	미입금자 기자재 취소	관리자
승인 ↓	D-2 이후	∴ 최종 입금자 확인	기자재 준비	담당자
대여 ↓	당일	∴ 본인여부 확인 및 대여	기자재 대여	담당자 신청자

■ 기자재 대여 현황

○ 장비별 대여 현황

장비명	수량	대여건수				대여일수			
		소계	유료	교육	지원	소계	유료	교육	지원
Sony HVR-V1N	2	55	6	0	49	408	236	0	172
Sony HVR-A1N	8	193	23	139	31	870	57	625	188
Panasonic DVX100P	2	17	7	8	2	69	20	10	39
JVC GR-DV3000	6	94	84	10	0	100	84	16	0
Manfrotto 503 Tripod set	3	8	0	2	6	25	0	4	21
Libec TH-950DV	8	146	23	88	35	618	7	407	204
Sony HVR-V1N용 광각렌즈	2	37	0	0	37	138	0	0	138

FIG RIG 595B	1	8	1	0	7	37	4	0	33
Reflector 42"×42"	1	7	4	2	1	25	10	4	11
Wireless Mic UWP C-1	2	34	0	0	34	126	0	0	126
Wireless Mic TX-755PM	8	50	8	23	19	150	8	54	88
Condenser Mic Audio Technica 815B	2	41	8	28	5	137	12	50	75
Dedo Light Set	1	2	2	0	0	4	4	0	0
Tungsten 650W Set	3	8	4	4	0	15	7	8	0
KinoFlo 4ft 4bank Set	2	6	2	2	2	15	2	4	9
Jupiter Light	6	6	2	2	2	16	2	4	10
Grip Set (C-stand Griphead arm)	1	6	3	3	0	14	9	5	0
BEHRINGER XENYX 1002	3	5	1	3	1	4	1	3	0
Sennheiser K6 Mics ME66 (Boompole 포함)	1	26	9	11	6	92	18	18	56
TASCAM HD-P2 Portable Recorder	2	22	7	9	6	132	12	11	109
Sony GV-HD700	1	7	1	2	4	22	1	0	21
EIKI LC-XB40 프로젝터	1	12	0	9	3	12	0	9	3
80인치 유압식 스크린	1	6	0	5	1	8	0	7	1

○ 월별 사용 현황

월	대여건수				대여일수				비고
	소계	유료	교육	지원	소계	유료	교육	지원	
1월	50	24	22	4	68	32	22	14	
2월	77	2	61	14	204	8	130	66	
3월	18	.	5	13	70	.	16	54	
4월	86	4	49	33	217	8	84	125	
5월	44	1	10	33	173	4	38	131	
6월	60	4	28	28	211	17	88	106	
7월	55	8	27	20	158	13	52	93	
8월	27	7	.	20	111	18	.	93	
9월	62	5	35	22	430	14	100	316	
10월	67	22	28	17	194	35	98	61	
11월	73	43	19	11	391	67	277	47	
12월	35	20	6	9	65	32	11	22	
총 계	654	140	290	224	2,292	248	916	1,128	

○ 연간 대여 현황

	대여건수				대여일수			
	소계	유료	교육	지원	소계	유료	교육	지원
2008년 총계	906	107	345	453	2492	239	572	1680
2009년 총계	654	140	290	224	2292	248	916	1128
08년 대비 증감률(%)	-27.8	30.8	-15.9	-50.5	-8	3.8	60.1	-32.9

○ 연령별 대여 현황

	20대	30대	40대	60대	총계
남	4명	11명	3명	1명	19명(65%)
여	6명	3명	0명	1명	10명(35%)
총계	10명(35%)	14명(48%)	3명(10%)	2명(7%)	29명(100%)

※ 연령별 대여 현황에는 교육대여의 사용자는 합산되지 않은 값입니다.

② 운영자 평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인천시민들의 다양한 영상 제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촬영장비, 녹음장비, 조명장비를 구비,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대여하고 있다. 기자재는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에 교육을 수료한 회원(일반회원, 정회원)을 대상으로 대여되고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이용할 수 있다.

2009년도 이용 현황을 보면 월 평균 50건의 대여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대여건수 기준으로는 교육대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지원대여, 유료 대여 순이었다. 교육대여에서는 촬영 수업에 기자재 대여가 가장 많았고 지원대여는 아이컬처 PD부분이 90%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 유료대여 부분에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10월 이후에 기자재 대여건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지원대여 부분에서의 아이컬처 PD 사업은 인천영상위원회와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천의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인력 양성과 문화콘텐츠 제작을 통한 지역 문화자산을 축적, 홍보하는데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장비의 세부 대여 현황을 보면 카메라 장비 Sony HDV HVR-A1N, Sony HDV HVR-V1N과 촬영 장비 Libec TH-950DV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으며, 무선 마이크 Wireless Mic UWP C-1, Wireless Mic TX-755PM의 이용도도 높은 편이다. 반면 Dedo Light Set, Tungsten 650W Set등 조명장비의 대여가 전반적으로 적었으며 카메라 촬영장비 FIG RIG 595B의 활용빈도도 상대적으로 적다.

2008년과 2009년의 장비 대여를 비교해보면 유료대여 부분에서는 2008년보다 소폭의 증가를 보여 주었다. 이는 교육생이나 아이컬처 PD의 대여가 아닌 일반시민들의 기자재 사용량 늘어났음을 말해준다. 교육에서의 기자재 사용량 역시 약 60%(일수기준)가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센터내의 교육시 수강생에게 교육장비 대여를 폭넓게 해 준 결과로 보인다. 지원부분에서의 감소량은 아이컬처 PD들의 자가장비 활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컬처 PD 4인중 2인이 자신의 캠코더와 편집기기를 이용 촬영을 하였고, 2008년도 보다 사용률이 많이 떨어졌다.

성별 및 연령별 현황을 보면 30대 남성이용자의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14명), 20대(10명), 40대(3명), 60대(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의 이용비율을 보면 남성이 65%로 여성보다 많았다.

2) 공간 운영 사업

① 사업내용

■ 사업목표

- 저렴한 가격으로 편집 기자재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직접 영상물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를 제작 할 수 있도록 한다.
- 미디어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자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한다.

■ 사업대상

- 회원교육을 이수한 시민과 제작을 하고자 하는 개인
- 관련 교육기관, 학교 방송반, 지역공동체, 시민단체 등 제작을 하고자 하는 단체

■ 사업내용

- 전문편집실 대여 및 관리
- 스튜디오 대여 및 관리

■ 공간대여 현황

○ 전문편집실 대여 절차

처리절차	일정	내용	결과	비고
홈페이지 신청 ↓	D-3 이전	∴ 전문편집실 이용 신청	편집실 예약	신청자
대기 ↓	D-2 이전	∴ 미입금 [문자발송등]	미입금자 기자재 취소	관리자
승인 ↓	D-2 이후	∴ 최종 입금자 확인	편집실 준비	담당자
대여 ↓	당일	∴ 본인여부 확인 및 대여	편집실 대여	담당자 신청자

○ 편집실 월별 이용 현황

월	대여건수				대여시간			
	소계	유료	교육	지원	소계	유료	교육	지원
1월	17	.	.	17	124	.	.	124
2월	6	.	.	6	52	.	.	52
3월	9	5	.	4	40	20	.	20
4월	17	1	.	15	124	4	.	112
5월	10	.	.	10	88	.	.	88
6월	7	.	.	7	56	.	.	56
7월	7	2	.	5	44	8	.	36

8월	5	.	.	5	36		.	36
9월	6	1	.	5	40	4	.	36
10월	7	.	.	7	80		.	80
11월	14	3	.	11	100	12	.	88
12월	10	4	.	6	84	16	.	68
총 계	115	16	0	98	868	64	0	796

○ 편집실 총 이용 현황

	대여건수				대여시간			
	소계	유료	교육	지원	소계	유료	교육	지원
2008년 총계	181	41	16	124	1076	200	76	800
2009년 총계	115	16	0	98	868	64	0	796
08년 대비 증감률 (%)	-36.4	-60.9	-	-20.9	-19.3	-68	-100	-0.5

○ 스튜디오 대여 절차

처리절차	일정	내용	결과	비고
홈페이지 신청 ↓	D-7 이전	∴ 스튜디오 이용 신청	스튜디오 예약	신청자
대기 ↓	D-3 이전	∴ 미입금 [문자발송등]	미입금자 기자재 취소	관리자
승인 ↓	D-3 이후	∴ 최종 입금자 확인	편집실 준비	담당자
대여 ↓	당일	∴ 본인여부 확인 및 대여	편집실 대여	담당자 신청자

○ 스튜디오 월별 이용 현황

월	대여건수				대여시간			
	소계	유료	교육	지원	소계	유료	교육	지원
1월	4	4	.	.	12	12	.	.
2월	2	2	.	.	3	3	.	.
3월
4월
5월	1	1	.	.	1	1	.	.
6월	2	.	2	.	5	.	5	.
7월
8월	3	3	.	.	18	18	.	.
9월	1	1	.	.	4	4	.	.
10월
11월	6	3	3	.	32	17	15	.
12월	4	1	3	.	14	2	12	.
총 계	23	15	8	0	89	57	32	0

○ 스튜디오 총 이용 현황

	대여건수				대여시간			
	소계	유료	교육	지원	소계	유료	교육	지원
2008년 총계	15	3	9	3	41	3	34	4
2009년 총계	23	15	8	0	89	57	32	0
08년 대비 증감률(%)	53.3	400	-11.1	-	117	1800	-5.8	-

② 사업 평가

■ 편집실 운영 평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 및 영화제작 이후 후반작업을 위한 편집공간을 마련해놓고 있다. 전문 편집실은 2인 편집시스템 2대를 갖추고 있으며, HDV 테크를 비롯해 22인치 듀얼 모니터, 오디오 믹서, VTR 등이 설치되어 있다. 편집프로그램으로는 프리미어 CS3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HD영상을 작업하기에는 지금의 시설이 부족하여 활용 빈도가 낮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 하드웨어의 추가 구비가 필요하며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도 필요 하다. 전문편집실 역시 회원을 대상으로 대여되고 있으며, 하루 3타임(각 타임별 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전문편집실의 이용은 인천문화재단과의 협력사업인 아이컬쳐 PD사업 지원의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유료이용 역시 영상에 대한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의 사용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 달 평균 10건의 편집실 대여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여시간으로 보면 1일 평균 2.4시간씩 사용되고 있다.(365일 기준)

■ 스튜디오 운영 평가

스튜디오는 30평 규모로 스튜디오 촬영 및 녹음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자재의 노후화로 인해 유료 대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09년에는 체험스튜디오를 시범적으로 개최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어 2010년에도 기회가 되면 초등학생 현장체험 교육을 위한 시간을 또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의 스튜디오의 용도는 나레이션 녹음공간 및 촬영이나 조명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2010년에도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009년 녹음장비의 구입으로 공간 활용의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할 생각이다.

(3) 2009년도 기자재 및 공간 운영 전체 평가

■ 기자재 및 공간 운영 평가

전체적으로 기자재 시설이나 공간 이용도가 전년과 비슷했다. 기자재의 경우 기자재 이용 및 대여, 지원에 대한 문의는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대여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기자재 시설에서 특별히 팔목할만한 점은 인천지역 초.중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위한 정기적인 대여문의가 들어오고 또한 대여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와 같은 기관에서도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

을 인지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되면 이용하려는 의지들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규교육과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은 꾸준히 진행되면서 교육과정을 통해 기자재들이 정기적으로 활용되었고 센터 내부 사업 외에 외부 사업들이 센터 사업과 연계되면서 기자재 지원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일반 대여의 경우 간단한 영상물 제작이나 단편영화 촬영을 위한 목적으로 촬영장비와 조명장비들이 대여되었으며, 지원의 경우에는 인천 문화콘텐츠물 제작을 위한 아이컬처 PD 지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자재 운영과 관련해서는 장비 대여가 꾸준히 이루어져서 검수 및 관리 역할 비중이 높아졌으며, 한편 중요해지고 있다. 2009년 한 해 동안 기자재 부분에서는 JVC 캠코더의 노후화로 여러 차례 A/S 수리를 받아야 되었고, 대여 중 개인의 부품 마모, 훼손으로 인해 개인이 따로 A/S를 받게 된 적도 있었다. 2010년에는 기자재들의 조금 더 노후되고 있어 장비 점검에 있어서 더욱더 세밀히 진행 및 기자재 대여 시 기자재에 대한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이다. 전문편집실의 경우 컴퓨터를 많은 사람이 자주 이용하는 만큼 자주 오류를 발생해 자체 프로그램 오류복구를 10여 차례 정도 진행하였다. 일상적인 검수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그때 자체적인 복구나 A/S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만큼 소모되는 기계장비들인 만큼 시기에 맞춰 전체적인 점검 및 A/S가 필요하다. 2010년 이후로는 영상문화가 더욱 더 발전하고 성숙해져서 시민들의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 기자재든 공간이든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해나가면서 시민들과의 접점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향후 계획

2010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자재 및 공간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내의 정규강좌 교육과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과의 연계로 더욱더 장비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학교들과의 연계로 기자재와 시설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장비사용계획과 대여 장비들을 컨설팅 해 줌으로서 보다 더 알찬 사용을 할 수 있고 대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다.

3) 2009 프로그래머 양성사업

“영화제, 예술/독립영화관과 프로그래머”

(1) 사업 목적

- 지역 내 영화제 및 각종 영화영상관련 행사들을 기획하고 다양한 영화 및 영상물을 상영, 홍보, 진행하는 영화 배급 유통 전문 인력 양성
- 지역 영화제, 국내 영화제 및 각 영화 기관 등과 관련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접근 기회 확대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
- 국내 주요 영화제와 주요 영화영상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 관계 구축

(2) 사업 방향

-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한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성
- 영화제작 외 영화 유통구조와 시스템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산업과 분리된 지역 내 다양한 문화유통 구조 모색
- 지역 내 커뮤니티 구성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

(3) 사업 내용

- 교육생 공개 모집 - 관련 사이트 온라인 홍보 및 배너/전단 오프라인 홍보
- 대상 - 만16세 이상
- 수강료 - 100,000원
- 정원 - 10인
- 장소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4) 사업 일정

- 홍보 및 수강생 모집 : 2009년 10월
- 수강생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2009년 11월
- 수료 영화제 : 2009년 12월
- 평가 및 후속 사업 계획 수립: 2009년 12월

(5) 세부 일정

	일시	내용
제 1강	11월4일(수)	오리엔테이션, 전체 강의 개요, 프로그래머의 정의/역할
제 2강	11월7일(토)	부산국제영화제, 칸국제영화제와 프로그래머
제 3강	11월11일(수)	전주국제영화제, 베니스국제영화제와 프로그래머
제 4강	11월14일(토)	특성 영화제와 프로그래머(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중심으로)
제 5강	11월18일(수)	예술/독립영화관과 프로그래머(KT&G 상상마당을 중심으로)
제 6강	11월21일(토)	워크숍(행사 참여): 인천영상위원회 디렉터스 뷰
제 7강	11월25일(수)	예술영화관과 프로그래밍, 예술영화의 배급, 홍보, 마케팅
제 8강	11월29일(토)	프로그래머의 공공적 성격 및 미래(지역 극장을 중심으로)
수료 영화제	12월 중	수강생 스스로 만드는 작은 영화제

(6) 강사

	일시	강사
제 1강	11월4일(수)	김정옥, 영화공간주안/주안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래머
제 2강	11월7일(토)	전찬일,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칸국제영화제 한국 프레스
제 3강	11월11일(수)	유운성,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베니스영화제 한국 프레스
제 4강	11월14일(토)	손희정,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제 5강	11월18일(수)	배주연, KT&G 상상마당 프로그래머, 전주국제영화제 심사위원
제 6강	11월21일(토)	인천영상위원회 주관 및 교육 지원
제 7강	11월25일(수)	윤범석, 스폰지하우스 프로그래머, 스폰지이엔티 배급팀 과장
제 8강	11월29일(토)	최선희, 한국예술영화관협회 사무국장, 前)한국영화진흥위원회
수료 영화제	12월 중	진행: 김정옥/ 지원: 영화공간주안 스탭

(7) 2009 프로그래머 양성사업 평가

① 개괄적 평가

- 지역 내 영화제 및 각종 영화영상관련 행사들을 기획하고 다양한 영화 및 영상물을 상영, 홍보, 진행하는 영화 배급 유통 전문 인력 양성한다는 계획은 현재 지역 내 대표적인 소규모 영화제인 인천여성영화제와 인천인권영화제의 프로그래머와 기획팀, 그리고 아마추어 영화제인 하품영화제의 대표(하품학교 교장)가 참가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
- 지역 영화제, 국내 영화제 및 각 영화 기관 등과 관련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접근 기회 확대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와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서울국제여성영화제, KT&G 시네마 상상마당, 스폰지하우스, 한국예술영화관협회의 프로그래머들의 워크숍을 통한 강의와 담화, 지속적인 접촉에 대한 상호 약속을 통해 성공적으로 실행되었다.

② 세부 사항 평가

■ 기획 및 홍보

- 영화 프로그래머에 대한 관심과 교육열에 반해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워크숍 개설은 기획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성과 또한 성공적이었다.
-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홈페이지 및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홍보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어 영화 프로그래머의 관심도와 센터의 기획의도가 적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교육 성격 상 10명을 정원으로 한 워크숍(수강료 10만원) 수강인원 제한에도 불구하고, 참가를 절실히 원하는 일부 추가 인원을 받아들여 총 13명의 소규모 영화제, 혹은 프로그래머를 희망하는 영상관련 종사자들이 최종적으로 참가하였다.

■ 워크숍 및 특강

- 사전에 통보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100% 출석률로 개괄 강의 및 특강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 영화 프로그래머에 대한 개괄적인 강의 외에 수강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영화제 기획, 영화 수급, 홍보 및 마케팅 등 실무적인 부분의 특강이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호 교류적인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 워크숍 기간 중 수강생 일부가 참여하는 인천인권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수강생이 현 예술영화관(필름포럼/이모션픽처스)의 기획팀으로 입사하는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졌다.
- 특강 사진 참조

■ 수료영화제

- 전체 워크숍을 마무리하는 수료영화제 또한 프로그램 선정에서부터 이벤트 기획, 홍보 및 마케팅까지 수강자들 스스로가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마무리되었다.
- 비록 교육 수료 영화제인 관계로 많은 관객을 동원하지는 못했지만 근본 취지인 교육 및 체험 효과는 성공적으로 충족되었다.
- 전단 및 배너, 영화제 사진 참조

③ 차후 개선 사항

- 프로그래머 특강 외에 성공적인 영화제나, 다양성 영화관 등을 방문하고 직접 체험하는 현지답사의 아쉬움이 있었다.
- 수강생들의 대부분이 소규모 영화제의 기획 및 진행 경험이 있어, 수료 워크숍 보다는 수료 간담회나 관련 주제 토론회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수강생들의 열의나 많은 개강 요구를 반영해 볼 때 연 1회의 워크숍보다는 연 2회 이상의 워크숍 개설이 합당하다고 사료된다.

[illegible]

프로그램비 홍보물제작비 A조전단시안

【 영화공간주안 프로그램어 워크숍 수료영화제 】

세리와 하르

13:30

우리는 숨쉬는것도
꿈꾸는것도 불법??

베트남에서 시집온 엄마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림 받지만
반세기처럼 유명한 골짜기 되어
인정받는 꿈을 가지고 있는 세리,

불법체류자의 딸로
언제 단속에 걸려 추방당할지 몰라
한국 사람처럼 주민등록증을 갖고
합법적으로 사는 것이 꿈인 하르

두 소녀의 우정과 갈등을 통한 성장 드라마

마이너리티 영화제

2009.12.05

이제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

프로그램어 홍보물제작비 B조건단시안

5. 상영 사업

1) 다양성영화 상영사업

(1) 시네마 프랑스 인천

제7회 시네마프랑스인천

“환경과 에너지”

2009.10.24

주인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컬처팩토리관

- 전시 : 에너지, 내일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안 아르튀스 베르트랑 사진전
- 영화상영 [펭귄-위대한 모험]
- 영화상영 [홈+HOME]
- 주제강연 [지구 온난화! 우리의 선택은?] -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 인천알리앙스프랑세즈-프랑스문화원 이진개원기념리셉션



〈에너지, 내일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안 아르튀스-베르트랑 사진 전시

안 아르튀스-베르트랑에 의해 설립된 곳 플레네티 프랑스의 공립 교육부 장관과 환경부, 에너지자원부, 지속가능한 에너지발전 부와 도시 관리부 장관의 협력으로 여는 사진 전시회입니다. 에너지자원을 위한 이 교육학적 전시회는 안 아르튀스-베르트랑과 환경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다른 프랑스 사진작가들의 사진 20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화와 자각을 불러 일으키는 목적으로 기획된 이 전시는 다양한 여러 형태의 에너지원과 그 에너지들의 지리학적, 역사적, 사회적, 경제학적 그리고 지질학적인 측면에서의 쓰임을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지구에서 일어난 변화들과 지구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펭귄 - 위대한 여행 La Marche de l'empereur (2005년)

연소자 관람가 / 85분 / 다큐멘터리 / 프랑스, 미국 / 감독 : 랭 자케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전해오는 마음을 울리는 감동!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한 황제의 여행은 계속 된다. 수 만 년 동안 내려온 황제 펭귄들의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여행을 담아낸 〈펭귄 - 위대한 모험〉은 4년의 제작기간 동안 그들이 수천, 수 만년 동안 되돌아 해온 탄생의 비밀을 생생하게 밝혀 낸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TV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시작했던 영화는 촬영 도중 경이롭고 감동적인 그들의 삶에 대한 랭 자케 감독과 스텝들의 확신으로 스크린을 장만 영화로 방향을 전환하여 영화 제작 역사상 보기 드문 기록들을 남기며 영화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홈 HOME (2009년)

연소자 관람가 / 95분 / 다큐멘터리 / 프랑스 / 감독 : 안 아르튀스-베르트랑

지구는 우리의 홈HOME입니다. 〈홈〉은 하늘에서 바라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을 통해, 지구는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집+HOUSE' 이 아닌 현재의 66억 명의 인류와 모든 동식물, 그리고 미래의 자손들 모두가 함께 사는 '가장+HOME' 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환경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세계적인 사진작가 안 아르튀스-베르트랑이 연출을 맡아 세계 54개국, 217일의 촬영기간 동안 100% 항공촬영으로 이뤄진 〈홈〉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주제 강연 :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지구온난화! 우리의 선택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대규모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지구 '온난화 현상' 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화석 에너지를 넘어 신 재생 에너지의 확대와 더불어 개개인의 삶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갈 길을 들어 보았습니다.

제8회 시네마프랑스인천

프랑스 만화와 미술

2009. 11. 28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 전시 <프랑스어권 만화 백 년 전>
- 영화 <빨간풍선>
- 영화 <페르세폴리스>
- 강연 <한국만화 100년 그 시대별 흐름>
- 결산 <2009 CINEFI 보고>

<프랑스어권 만화 백 년 전> 만화 전시



앙굴렘 국립 만화영상물 센터의 오리지널 소장품 총 7000여 점 중에서 35 점을 채택해 다들은 작품들로 구성된 전시로 프랑스와 유럽에서 그리고 아마도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한 예술분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작품들을 살펴 볼.

본 전시는 앙굴렘 국립 만화영상물 센터의 오리지널 소장품 총 7000여 점 중에서 35점을 채택 해 다들은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프랑스와 유럽에서 그리고 아마도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한 예술분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들을 되짚어보는 소중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대사 없는 스토리를 놀라운 만큼 현대적인 방식으로 활용한 까랑 다쉬 CARRAN D'ACHE 에서부터 완벽한 테크닉의 구사를 보여주는 니콜라 드 크레씨 NICOLAS DE CRECY 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와 벨기에 작가들의 1세기가 넘는 기간의 작품들이 우리 눈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한국만화 100년 그 시대별 흐름" 강연



강 연 자 : 서승택
(유지엄만화규장각 본부장)

한국만화 100년의 흐름을 조망하고 당대의 스타 작가들 소개와 장르별 최초의 만화가 그리고 한국 만화 역사상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유지엄 만화규장각에 대한 소개도 있을 예정입니다.

페르세폴리스 Persepolis 2007

12세 이상 | 95분 | 애니메이션 | 프랑스
감독 : 마제인사트라피, 빈센트파로노드



마르잔 사트라피 감독의 동명 그래픽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2500년 전, 태양 아래 가장 부유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배경으로, 이란에서 태어난 한 소녀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 이슬람 혁명기 시절, 권력을 가진 근본주의자들은 여성들에게 차도르를 쓸 것을 강요하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투옥시켰다. 영화는 이렇게 사람들의 희망이 산산 조각나는 과정을 아이러니하게도 아홉 살 소녀 마르잔의 귀여운 눈을 통해 전달한다. 마르잔은 혁명수호대를 속이고 아바와 아이언 메이든과 같은 펑크록을 즐기는 영리하고 용감한 소녀다. 신나는 펑크록을 들으며 마음껏 헤드뱅잉 하는 것이 마르잔의 스트레스 해소법! 그러던 어느 날 마르잔에게 최고의 영웅이었던 삼촌이 무고하게 처형당하고, 이란과 이라크 전쟁으로 태어난 주변에 폭탄이 투하되면서 이란엔 끊임없는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재치 가득한 마르잔 덕분에 영화는 사중일관 유쾌하고 통쾌한 웃음 그리고 감동과 눈물까지 우리에게 선사한다. 또한 카툰처럼 간결하고 귀여운 화풍의 개성 있는 그림은 친근함을 선사해 마치 절친한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 같은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2007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

2007 밴쿠버국제 영화제 인기상 수상

2008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 노미네이트

빨간 풍선 À la recherche du ballon rouge 2008

12세 이상 | 115분 | 드라마 | 프랑스 | 감독 : 허우 사오시엔
출연 : 줄리엣 비노쉬, 시몽 이페아비, 송광, 이폴리트 지라르도



2007년, 개관 20주년을 맞은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미술관은 미술관장의 특별 제안으로 현대의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각자의 분야에서 파리와 오르세미술관의 현재 모습을 담는다는 한가지 조건만을 제시한 채 작품을 의뢰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허우 사오시엔 감독에게 맡겨진 '영화부문. 대안 감독의 눈으로 바라본 파리의 일상은 제작 초기부터 화제를 모을 수밖에 없었다.

파리에 살며 중국 정통 인형극을 제작, 연기하는 전문직 여성 수잔은 일곱 살짜리 아들 시몽을 둔 이혼녀. 일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자기 자리를 잡은 그녀이지만 집안일이나 이웃 간에 벌어지는 일상다반사에는 마냥 서투르지만 하다. 그런 그녀의 아들 시몽 역시 삶이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 가끔 하늘을 통통 떠다니며 잠힐 듯 결코 잡히지 않는 '빨간 풍선'이 유일한 친구이던 시몽에게 어느 날, 특별한 사건이 생겼다.

중국 유학생 송광이 새로운 베이비 시터로 온 것이다

(2) 2009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전국순회 상영회

- 개요: 한국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와 공동 주관한 장편 영화 상영 사업
- 일시: 2009년 6월 12일(금) ~ 14일(일)

○ 장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제목	감독	장르	상영시간	등급
1	장례식의 멤버 (Members of the Funeral)	백승빈	드라마	99분	12세 이상
2	어떤 개인 날 (The Day After)	이숙경	드라마	87분	12세 이상
3	그녀들의 방 (The Room Nearby)	고태정	드라마	106분	15세 이상
4	제불찰씨 이야기 (The Story of Mr. Sorry)	곽인근, 김일현, 류지나, 이은미, 이혜영	애니메이션	64분	15세 이상

(3) 2009 ASIFF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전국순회상영회

○ 개요: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가 주최하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주관하는 단편영화 전국 순회 상영회

○ 일시: 2009년 6월 26일(금) ~ 28일(일)

○ 장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프로그램 주제	상영작 편수	상영시간
프로그램 1	발칙한 상상력	7편	78분
프로그램 2	베스트 오브 유럽	5편	84분
프로그램 3	상급한 단편	6편	89분

(4) 특별 상영회

	행사명	일시	내용	프로그램
1	호국의 달 추념 상영회	2009년 6월 16일~ 19일	6월 호국의 달 추념 6.25 전우 회, 재향 군인회 등 초청상영	[7급 공무원] 상영
2	예술영화특별상영회 및 감독과의 대화	2009년 6월 20일	예술영화 특별상영회 및 감독 과의 대화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 는 곳] 상영 전수일 감독과의 대화
3	[날아라 펭귄] 시민시사회	2009년 8월 28일	인천문화재단 인천영상위원 회 공동주최 시민시사회	[날아라 펭귄] 상영

(5)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교육/수료 작품 상영회

○ 개요: 주안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을 통한 교육/수료 작품 상영회

○ 일시: 연중 상시

○ 장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2) 상영관 대관사업(유료 대관)

(1) 디렉터스 뷰(Director's View with IFC)

- 개요: 인천영상위원회와 연계한 영화 상영 및 GV(Guest View) 사업
- 주제: “영화가 현실에 말 걸다”
- 연계 형태: 2008년 공동 주관에서 2009년 유상 대관으로 전환

	일시	영화	GV	Moderator
1	2009년 3월28일(토)	[워낭소리]	이충렬 감독	맹수진, 영화평론가
2	2009년 5월30일(토)	[멋진 하루]	이윤기 감독	오정연, 씨네21 기자
3	2009년 7월14일(토)	[똥파리]	양익준 감독	조영각,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4	2009년 9월19일(토)	[킹콩을 들다]	박건용 감독	남다운, 영화평론가
5	2009년 11월21일(토)	[호우시절]	허진호 감독	문학산, 영화평론가

(2) 유료 대관

	대관 신청자	일시	내용
1	크로스픽처스 시사회	2009년 9월10일	[벨라] 주민시사회
2	민주노동당 인천지부	2009년 9월12일	[날아라 펭귄] 상영회
3	전교조 인천지부	2009년 11월6일	[날아라 펭귄] 상영회

3) 상영관 대관사업(대관 지원)

	행사명	일시	내용
1	남구 미추홀축전	2009년 5월23일	[초코초코 대작전] 상영회
2	인천여성영화제	2009년 7월10일 ~ 12일	“수상한 바람이 분다” 인천여성영화제 행사 및 상영
3	주안미디어문화축전	2009년 9월22일 ~ 27일	유스필름페스티벌 행사 및 상영
4	남구학산문화원	2009년 10월30일~11월1일	하품영화제 행사 및 상영
5	남구청	2009년 11월26일	남구 노인복지센터 초청상영회

4) 캠페인(CAMF-A-In) 사업

(1) 사업 목적

- ①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전문성 고취를 위한 한국독립/예술 장편영화의 극장 상영본 아카이브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각종 상영사업의 장기적 토대를 마련
- ② 사업을 통해 작가 감독들과 독립/예술 영화 배급사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활동과 사업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며 이를 통한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확대

(2) 사업 내용

- ① 센터의 사업적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는 한국독립/예술영화 감독들(배급사)의 작품(극장용 장편 영화)을 극장 상영이 가능한 포맷으로 납본하여 라이브러리를 구축
 - 2009년 하반기 기준 10 작품 이상의 납본을 예정
- ② 납본은 디지털 소스(Digital Source)로 이루어지며 센터 전용상영관 포맷에 맞는 HDV(Sony 60I) 혹은 DVCAM(NTSC) 포맷을 기본으로 이루어짐
 - 저작권 및 배포권, 상영권 마찰의 소지가 있는 DVD 백업은 하지 않음
- ③ 납본자들(감독 혹은 배급사)에게 센터의 취지에 부합되는 상영회 및 아카이브의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차후 상영에 대한 개별 합의를 통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
- ④ 비영리 및 공공의 목적을 기본으로 하되, 차후 상영 사업의 활용에 따른 변동에 대해서는 개별 케이스별로 별도의 합의를 진행

(3) 사업일정

- 2009년 8월~ 12월 : 납본 가능한 감독/배급사의 작품 섭외 및 납본
- 2009년 12월 : 결과 및 평가, 향후 계획 논의

(4) 결과 및 평가

	제목	장르	등급	상영시간	감독	주연
1	[북극의 눈물]	다큐멘터리	전체	81분	허태정 조준목	나레이터 안성기
2	[미안하다 독도야]	다큐멘터리	전체	98분	최현목	나레이터 김장훈
3	[야스쿠니]	다큐멘터리	12세	123분	리잉	한,중,일 공동합작
4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	드라마	12세	96분	전수일	최민식
5	[아부지]	드라마	12세	100분	배해성	전무송, 박철민, 박탐희
6	[가벼운 잠]	드라마	15세	93분	임성찬	최아진, 윤찬
7	[낮선 곳 낮선 시간]	드라마	12세	86분	김영혜	김지완, 조하나
8	[말보로 전쟁]	드라마	청소년 불가	77분	명중오	연제욱, 이은우
9	[보통 소년]	드라마	청소년 불가	95분	박성훈	서울예술대학교 영화과 장편 프로젝트
10	[세리와 하르]	드라마	12세	91분	장수영	장미지, 정하은, 최세나
11	[하늘을 걷는 소년]	드라마	12세	93분	노진수	허이재, 강산
12	[푸른 강은 흘러라]	드라마	12세	77분	강미자	김예리, 남철

- 납본작품 리스트: 극장용 장편영화 총 12편
- 상영관의 디지털 상영시스템 완비로 DVD의 극장 상영 및 Blue-ray의 출시에 따른 Full-HD급 고화질 영상의 극장상영과 아카이빙이 동시에 가능하므로, 디지털 극장상영본의 납본 및 아카이빙의 큰 효과를 보지 못함
- 저작권, 배급권, 상영권 등의 법적 절차 및 매체변환 등의 비용과 노력에 비해 적은 수의 상영본만을 납본할 수 있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내의 DVD 혹은 Blue-ray의 아카이빙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2009년 사업결과 및 평가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DVD 아카이빙 사업으로 귀속시켜 진행시킬 계획임.

5) I-Culture PD 사업

(1) 사업내용

I-culture PD사업은 지역을 위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인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 사업으로 (재)인천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4인의 I-culture PD를 위촉해 인천에 역사나 문화에 관한 콘텐츠를 생산하였으며, 시민들의 쉽고 폭넓은 인천의 문화 이해를 위해서 인천지역에 영상물들을 지속적으로 제작하였다.

■ 사업 목표

- 인천의 공연, 전시, 대회, 축제, 인물 등의 생생한 문화 소식 및 정보를 기획 취재하여 문화콘텐츠 영상물로 제작한다.
- 생산된 문화콘텐츠는 DB화를 통해 지역 문화자산을 축적하고 홍보물로서 활용, 궁극적으로 지역 문화역량을 강화한다.
- I-culture PD에 대한 교육 및 활동 축적을 통해 인천의 문화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 한다.

■ 사업 대상

- 문화피디 활동을 희망하는 개인
- 문화피디 활동으로 조성된 콘텐츠를 이용할 인천시민

■ 사업 내용

- 인천문화재단, 인천영상위원회와 협력 운영
- 인천문화예술 관련 영상물 제작
- I-culture PD 4인이 월 4편, 11개월간 총 44편 제작
- 사업 진행 일정

기간	내용	비고
2월 13일	문화(I-culture) PD 4인 선발	사유진, 노현진, 조선기, 이승희
3월 5일	문화(I-culture) PD 1인 재선발	1인 교체 이승희 -> 이동준
4월 27일	인천 I-culture PD 운영을 위한 (재)인천문화재단과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재협약 체결	
2월 1일 12월 31일	I-culture PD 활동	11개월 동안 총44편 제작

■ 제작 작품

No	월	작품명	제작PD
1	2	도담도담 월디 장난감 도서관	사유진
2		인천 아트플랫폼	노현진
3		잊혀진 부두	조선키
4		수인역 나들이	이승희
5	3	외국인 묘지	사유진
6		단청박물관	노현진
7		달동네	조선키
8		계양산	이승희
9	4	민남순, 은울탈출보유자	사유진
10		커피콘서트	노현진
11		인천내동교회	조선키
12		영흥면 작은도서관, 영종도서관	이동준
13	5	만신 김금화 선생과 곳	사유진
14		은울 탈출	노현진
15		화도진 축제	조선키
16		서해안 배연신 곳	이동준
17	6	최초의 천일염전	사유진
18		중구 도보관광	노현진
19		유형문화재 강화도 돈대	조선키
20		신포니에타 조화현단장	이동준
21	7	노동시인 박영근	사유진
22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노현진
23		강화도 돈대 1부	조선키
24		답동성당	이동준
25	8	인천근해도서지방 상여소리	사유진
26		인천바로알기종주	노현진
27		인천의인물이동열단장	조선키
28		무의도 여름바다 춤축제	이동준
29	9	2009아동예술제	사유진
30		아벨서점 곽현숙	노현진
31		인천코끼리	조선키
32		팔미도등대	이동준
33	10	미추홀 보이즈, 제주 원정기	사유진
34		인천 효도회 신한옥 회장	노현진
35		낙가산 보문사	조선키
36		인천아트플랫폼 개관	이동준

37	11	범패와 작법무	사유진
38		항진원 합주단 지도교사 -고동재	노현진
39		인천 양키시장	조선기
40		제13회싸리재대동굿축제	이동준
41	12	인천의 24시 - 경인운하	사유진
42		인천의 24시- 인천대 구 캠퍼스	노현진
43		인천의 24시 - 크리스마스이브	조선기
44		인천의 24시 - 연안부두 수산시장	이동준

(2) 사업평가

■ 사업 평가

인천I-culture PD 사업은 지역을 위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지역의 전문 인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 사업으로 2008년부터 인천문화재단과 함께 진행하였다. 2009년 인천I-culture PD 사업은 44개의 문화 콘텐츠 생산과 생산된 콘텐츠의 정기적인 웹 게시를 통한 정규 유통 등 많은 성과를 남긴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 인천문화재단과 I-culture PD들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재와 주제에 대한 선정을 위해 매달 정기적인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항상 유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다. 지역적인 소재라 너무 단편화 될 위험이 있었지만 I-culture PD들의 고민이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소재들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콘텐츠들로 표현 될 수 있었다. 또한 초창기에 I-culture PD들 사이에서 편차를 보이던 콘텐츠의 질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향평준화 되어 갔다.

■ 향후 계획

2010년에는 인천I-culture PD들의 작품들이 웹 상영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전달 이외에도 지역SO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영상을 전달 할 것이다. 그 외에 I-culture PD 생산된 영상물을 DVD 또는 Blue-Ray로 제작해 고화질의 영상을 전달하는 일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콘텐츠가 단순한 정보전달의 매개로 활용되기보다는 정서적 교감을 만들 수 있는 작품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항상 I-culture PD들에게 인천지역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6. 정책사업

1) 웹진 발간 사업

(1)사업내용

① 사업개요

- c 명칭- CAMF PAPER
- c 제작형식-격월웹진
- c 배포방식- 이메일링발송, 인터넷 게시판등록
- c 배포대상-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회원 및 이메일링 리스트 가입자, 유관기관, 지역의 시민단체 및 공동체

② 사업목적

- c 미디어문화와 교육, 미디어산업과 정책, 대안미디어활동등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소통하고 나아가 지역의 미디어 정책 생산과 담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업방향

- c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회원 및 영상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 글쓰기를 한다.
- c 지역 매체로서 지역에 밀착하여 구체화하고 드러낸다.
- c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공동체미디어 활성화라는 운영방향이 드러나는 기획을 통해 타 웹진과의 차별성을 꾀한다.

④ 세부운영

- c CAMF PAPER 편집위원회 구성 (CAMF PAPER의 운영방향과 내용기획)
- c 편집위원
 - 이희량 : 미디어운동 활동가
 - 허경 : 전국미디어운동 네트워크 간사
 - 허은광 : 인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 최세진 : 영상비평 활동가

⑤ 편집위원회 회의

- 편집위원회 간사 1인과 편집위원 5인으로 구성
- 편집위원회 간사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스태프가 맡으며 CAMF PAPER 편집회의의 진행 및 웹진 제작을 함

⑥ CAMF PAPER 카테고리

c 메일 카테고리

•〈이슈와 쟁점〉 미디어난장

- 미디어환경에 대한 거시적 담론들을 소통한다.
- 지역에 기반하여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미디어산업 및 기술, 미디어환경과 동향, 비판과 전망

• 미디어·교육

- 미디어교육의 현장들이 공유되고 전시되는 미디어교육 페스티벌
- 미디어교육 관련 정보들이 소통되는 교사재교육의 장
- 미디어교육의 다양한 현장
-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교재료, 교재 소개

•미디어ACTIVIST

- 미디어활동을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다양한 현장과 활동가들 소개
- 미디어활동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이슈와 쟁점에 대한 이해
-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미디어활동현장
- 미디어ACTIVIST 및 단체 소개-인터뷰 및 취재

•IN천 스토리

-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방향인 공동체미디어활동에 대한 저변 공유
- 인천의 학교, 마을, 단체, 노조, 생협 등등 공동체미디어활동에 대한 공유
- 공동체의 소통과 그 안에 담겨 있는 공동체의 이야기

•〈영화읽기〉 천개의 눈@천개의 영화

- 영화읽기를 통한 생산적 독해의 장
- 영화를 통해 현실을 읽어내고 드러내는 메타비평의 장
- 독립영화등 다양성 영화에 대한 영화비평
- 비평전문가들이 아닌 다양성 영화 매니아들, 지역시민들이 참여하는 영화비평의 장

⑦ 사업내용

- c 웹진 3호 발간 2009년 5월 28일
- c 웹진 4호 발간 2009년 8월 29일
- c 웹진 5호 발간 2009년 10월 14일
- c 웹진 특집1호 〈공동체미디어〉 발간 2009년 12월 12일
- c 웹진 특집2호 〈저작권법〉 발간 2009년 12월 31일

2) 정책 토론회 사업

(1) 워크숍 〈도시의 기억〉

①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와 함께 도시 곳곳에 쌓여있는 사람들의 흔적과 기억들까지 사라져 가고 있다. 워크숍을 통해 광역도시 인천을 기록하는 작업의 의미와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 사업개요

일시 : 2009년 12월 9일(수), 오후3시 30분~6시

장소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 강의실

주최 :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

■ 참여자

주제 : 도시의 기억

사회 : 손동혁(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

발표 1 : 사유진(I-CULTURE PD)

발표 2 : 정두용(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추진단)

발표 3 : 정지경(언덕을 오르는 바다길)

발표 4 : 이진우(거리의 미술)

토론 : 강덕우(인천광역시 역사자료실)

노수연(인천영상위원회)

전광식(OBS PD)

정진오(경인일보 기자)

■ 기록





3장. 부록

1. 아카이브 목록
3. 교육공간 이용 안내
4. 기자재 대여 안내
5. 아카이브 이용 안내
6. 상영관 대관 안내

1. 아카이브 목록

1) 자료 현황

구분	도서자료	영상자료		총계
		DVD	VHS	
수량	144	700	88	932

2) 도서 자료 목록

구분	번호	제목	저자	출판사
미디어 방송	1	학교로 간 미디어	미디어문화 교육연구	다할미디어
	2	1인 미디어의 힘	정완진, 김양하, 이석근, 민승기	매일경제신문사
	3	미디어 소유와 집중	질리언 도일	커뮤니케이션북스
	4	미디어 리터러시의 도구상자	(사)일본민간방송연맹	커뮤니케이션북스
	5	한국대중매체사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6	인터넷 방송 기획실무	김용섭	커뮤니케이션북스
	7	인터넷 시대, 실천취재 보도론	김창룡	커뮤니케이션북스
	8	기사쓰기 워크북	하준우	나남
	9	부르디외,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다	스테판 올리브지	커뮤니케이션북스
	10	근대초기 매체의 역사	베르너파울슈티히	지식의 풍경
	11	정보 불평등	허버트 실러	민음사
	12	미디어의 이해	마셜 매클루언	커뮤니케이션북스
	13	IPTV 혁명	니시 타다시	전자신문사
	14	언론홍보 핸드북	신동호	코리아뉴스와이어
	15	퍼블릭 액세스	김봉수	방송통신위원회
	16	ACT!-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ACT! 편집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17	미디어교육 자율적, 문화적 군대로 도전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18	커뮤니케이션 권리 핸드북	CRIS 캠페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19	미디어융합시대,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가	김동현 외 11명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20	융합시대 영상미디어운동의 전략	김명준, 황규만, 헤리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21	디카, 대화, 출발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22	미디어교육 새로운실천 2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23	방과후 학교와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적용 모델 연구	오정훈 외 4명	문화관광부

미디어 방송	24	전환기 시청자미디어교육의 확산과 수렴 프로젝트	강수연 외 18명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25	소리로 여는 라디오 세상	고영재 외 5명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26	ACT!-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1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27	ACT!-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2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28	ACT!-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3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29	ACT!-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6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30	ACT!-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5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31	ACT!-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7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32	ACT!-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8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33	ACT!-진보적 미디어 운동 연구저널 4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34	미디어엑트 2006년 활동백서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영화 영상	1	한국영화사 (개화기에서 개화기까지)	김미현	커뮤니케이션북스
	2	쇼트 (영화의 시작)	엠마뉴엘 시에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3	시점 (시네아스트의 시선에서 관객의 시선으로)	조엘 마니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4	몽타주 (영화의 시간과 공간)	뱅상 피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5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백선거	커뮤니케이션북스
	6	로버트 로드리게즈의 십 분짜리 영화학교	로버트 로드리게즈	(주)도서출판 강
	7	시나리오 마스터 (필름 스토리텔링의 건축학)	데이비드 하워드	한겨레 출판
	8	옥스퍼드세계영화사	제프리 노웰-스미스	열린책들
	9	시네마1 (운동-이미지)	질들뢰즈	시각과 언어
	10	디지털영상 세대를 위한 스토리보드의 이해	박연웅	동양문고, 상상공방
	11	장르를 쓰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표창원 외	영화진흥위원회
	12	2005 한국 시나리오 선집 (상)	영화진흥위원회 엮음	커뮤니케이션북스
	13	2005 한국 시나리오 선집 (하)	영화진흥위원회 엮음	커뮤니케이션북스
	14	2006 한국 시나리오 선집 (상)	영화진흥위원회 엮음	커뮤니케이션북스
	15	2006 한국 시나리오 선집 (하)	영화진흥위원회 엮음	커뮤니케이션북스
	16	다락방에서 타자를 만나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도서출판 여이연
	17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독립 다큐멘터리 연구 모임	예담출판사
	18	한국영화 정책사	김동호 외	나남출판
	19	식민지 시대 대중예술인 사전	강옥희 외	도서출판 소도
	20	매혹과 혼돈의 시대 (50년대의 한국영화)	김소연 외	도서출판 소도
	21	영화프로듀싱과 홍보 마케팅 입문	채윤희 외	도서출판 큰사람
	22	영화와 표현의 자유	임상혁	청림출판
	23	전쟁과 영화	폴 비릴리오	한나래
	24	HD 영화제작의 이해	구재모	여울미디어
	25	한국영화와 근대성	주유신 외	도서출판 소도
	26	나의 사랑 씨네마	김수용	씨네21(주)

영 화 영 상	27	영화 영상 기술용어집	유재형	집문당
	28	다큐멘터리 입문	빌 니콜스	한울 아카데미
	29	한국 영화감독 사전	김종원	국학자료원
	30	한국 영화 제작 매뉴얼	안영진 외	커뮤니케이션북스
	31	영화마케팅론 이론과 실제	이종철	일문사
	32	2005 영화관객 성향조사	영화진흥위원회	커뮤니케이션북스
	33	2006 영화관객 성향조사	영화진흥위원회	커뮤니케이션북스
	34	영화정책 평가지표 개발 연구	정현일 외	(주) 계문사
	35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70호	영화진흥위원회	젤 커뮤니케이션
	36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71호	영화진흥위원회	젤 커뮤니케이션
	37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72호	영화진흥위원회	젤 커뮤니케이션
	38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78호	영화진흥위원회	젤 커뮤니케이션
	39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79호	영화진흥위원회	젤 커뮤니케이션
	40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80호	영화진흥위원회	젤 커뮤니케이션
	41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81호	영화진흥위원회	젤 커뮤니케이션
	42	KOREAN FILM Observatory No.28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43	국제영화제 평가시스템 개발 및 2005년 국제영화제 평가	김도학 외	한국영상산업정책연구소
	44	2006년 국제영화제 평가	김도학 외	한국영상산업정책연구소
	45	KOREAN FILM DATABASE BOOK 1995-2008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46	세계영화사강의	임정택 외	연세대학교 출판부
	47	영화와 방송의 연계방안 연구	류형진	커뮤니케이션북스
	48	일본 영화시장 연구	박영은	커뮤니케이션북스
	49	2004년 세계 영화시장 규모 및 한국영화 해외 진출 현황 연구	김현정 외	커뮤니케이션북스
	50	영화 스타일의 역사	데이비드 보드웰	도서출판 한울
	51	영상 이미지 읽기	마르틴 졸리	문예출판사
	52	Korean Animation Collection 2008 Short Film		문화체육관광부
	53	Korean Animation Collection 2008 TV Series		문화체육관광부
인 천 문 화	1	인천문화비평 9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2	인천문화비평 10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3	인천문화비평 11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4	인천문화비평 12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5	인천문화비평 13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6	인천문화비평 14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7	인천문화비평 15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8	인천문화비평 17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9	인천문화비평 18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10	인천문화비평 19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인천문화	11	인천문화비평 20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12	인천문화비평 21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13	인천문화비평 22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14	인천문화비평 23	인천민예총	다인아트
	15	황해미술 2	인천민족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16	황해미술 3	인천민족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17	황해미술 4	인천민족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18	황해미술 5	인천민족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19	황해미술 6	인천민족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0	황해미술 7	인천민족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1	황해미술 8	인천민족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2	황해미술 13, 14	인천민족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3	황해미술 15	인천민족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4	황해미술 16	인천민족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5	황해미술 18	인천민족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6	황해미술 19	인천민족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7	황해미술 20	인천민족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8	황해미술 21	인천민족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29	황해미술 22	인천민족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30	황해미술 23	인천민족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31	황해미술 24	인천민족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32	황해미술 25	인천민족미술인협의회	다인아트
	33	인천민족예술 1	민예총 인천지회	(주)강산광고인쇄출판
	34	인천민족예술 2	민예총 인천지회	청림인쇄공사
	35	인천민족예술 7	민예총 인천지회	펼디자인
	36	문학예술 3	민예총 인천지회	청림인쇄공사
	37	문학예술 4	민예총 인천지회	청림인쇄공사
	38	문학예술 5	민예총 인천지회	
	39	문학예술 6	민예총 인천지회	펼디자인
	40	진우촌 전집-구가정의 끝날	윤진현(썬은이)	다인아트
	41	사진으로 보는 우현 고유섭의 한국 탐파 (+모음집 CD)	민예총 인천지회	다인아트
	42	문화, 현장, 방법론	신병현, 이황현아, 현광일	다인아트
	43	풍경, 함세덕	윤진현	다인아트
	44	행복한 인천연극	윤진현	다인아트
	45	인천 1950	고든 L. 리트먼	플래닛 미디어
	46	인천땅 '이만큼 알기'	인천지리답사모임 [터사랑]	다인아트
	47	문화도시로 가는 길-지역문화와 문화에 대한 성찰	이현식	다인아트
	48	인천공부-인천문화와 인천학의 탐구	김창수	다인아트

인 천 문 화	49	왜 다시 인천인가	새천년 인천의 희망 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다인아트
	50	仁川 근대도시 형성과 건축	이안	다인아트
	51	황해에 부는 바람	최원식	다인아트
	52	월미도가 달꼬리라고?	최재용	다인아트
기 타	1	할수있다! 드림위버 CS3 쉽게 배우기	신미영	영진닷컴
	2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S3 그대로 따라하기	김성욱	도서출판 헤지원
	3	After Effects CS3	김지영, 웰기획	웰북
	4	포토샵 CS3	김석일, 이향아, 웰기획	웰북
	5	부서진 미래	김순천 외 10인	삶이 보이는 창

3) 영상 자료 목록

구 분	번 호	제 목	감 독	제 작 사
한 국 독 립 단 편	1	Stand by ME	최지영	미디액트
	2	Welcome 2 the freak show(최진성 단편 영화컬렉션)	최진성	
	3	나는 내가 의천검을 켜 것처럼 외 : 독립영화 보부상 프로젝트	윤성호	미디액트
	4	나의 아름다운 단편 : 한국영화아카데미 단편컬렉션		
	5	나의 아름다운 단편 2 : 한국영화아카데미 단편컬렉션II		
	6	내 청춘에게 고함	김영남	이모션 픽처스, NHK
	7	뇌절개술	김선,김곡	미디액트
	8	다섯은 너무 많아	안슬기	씨알필름
	9	독립영화 관객을 만나다 Vol.1	정승구 홍재희 이미랑 이채운	한국독립영화협회
	10	동백꽃 프로젝트	최진성,소준문,이승희일	
	11	둘 하나 섹스	이지상	(주)인디스토리
	12	Dinner Party for Women (필름메신저)	유은정 외	
	13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1	조진	한국독립영화협회
	14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2	김동원	
	15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3(오!꿈의 나라)	이은, 장동홍, 장윤현	
	16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4	이상인	
	17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5	김태영	
	18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6(파업전야)	이은,이재구,장동홍,장윤현	
	19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Vol. 1		
	20	매혹의 기억, 독립영화 Vol. 2		
	21	미메시스 단편애니메이션 작품집		

한국 독립 단편	22	반변증법 / 시간의식	김곡, 김선	
	23	사라지는 순간들 : 김종관 단편영화 컬렉션	김종관	
	24	서울독립영화제 2003 수상작		
	25	서울독립영화제 2004 수상작		
	26	서울독립영화제 2005 수상작		
	27	서울독립영화제 2006 수상작		
	28	신성일의 행방불명	신재인	신재인랜드
	29	아스피린-이선영촬영감독컬렉션		
	30	이공 1 (디지털단편옴니버스프로젝트)	민규동, 조민호	
	31	인디스토리10주년1998~2008	김정구외	인디스토리
	32	옴니버스 프로젝트 <제국>	최진성, 최현정, 윤성호	MEDIACT 영화진흥위원회
	33	자본당 선언 : 만국의 노동자여, 축적하라!	김선, 김곡	곡사
	34	최진성 단편영화컬렉션 2002-2004	최진성	프릭쇼
	35	프락치	황철민	씨네굿
	36	피터팬의 공식	조창호	LJ필름
	37	한국독립애니메이션 컬렉션1		진공
	38	한국단편애니메이션 컬렉션2		(주)케이디미디어
	39	서울독립영화제 2007 수상작		서울독립영화제
	40	정병길 감독 삼색 컬렉션	정병길	미디어엑트, 한독협
	41	울면서 달리기	강혜연 외	한독협
	42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시아 단편경선 역 새 수상작 모음1997~2007	박찬옥 외	한독협
	43	개와 늑대 사이의 시간	전수일	프리미어엔터테인먼트
	44	검은땅의 소녀와	전수일	프리미어엔터테인먼트
	45	경계	장률	프리미어엔터테인먼트
	46	괜찮아...울지마	민병훈	태원엔터테인먼트
	47	궤도	김광호	아인스 M&M
	48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안해룡	영화진흥위원회
	49	낮선곳 낮선시간	김영혜	태원엔터테인먼트
	50	내마음에 불꽃이 있어	김백준, 정성욱	러프 컷 & 양양필름
	51	벌이 날다	민병훈	태원엔터테인먼트
	52	브레인웨이브	신태라	CJ 엔터테인먼트
	53	오! 꿈의나라	이은, 장동홍, 장윤현	프로덕션 진공
	54	오프로드	한승룡	프리미어엔터테인먼트
	55	우리 종내자	황철민	프로덕션 진공
	56	이리(30년간 잊혀진도시)	장률	프리지엄
	57	살결	이성강	태원엔터테인먼트
	58	슬리핑 뷰티	이한나	와이드미디어
	59	포도나무를 베어라	민병훈	태원엔터테인먼트
	60	한국단편애니메이션 컬렉션3	최현명 외 9명	인디스토리
	61	확장된 셀룰로이드, 연장된 포노그래프	이행준, 홍철기	Balloon & Needle

한 국 독 립 영 화 다 큐	62	허스	김정중	스폰지
	63	똥파리	양익준	Ein's M&M
	1	0506 기로에서 : 돌아보기,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태준식	미디어엑트
	2	192-399 : 더불어사는집 이야기	이현정	서울영상집단
	3	22일간의 고백	김태일	푸른영상
	4	4월 9일	김태일	푸른영상
	5	54일,그여름의기록	홍형숙, 홍효숙	서울영상집단
	6	708호 이등병의 편지	김환태	
	7	IMF한국, 그 1년의 기록 - 실직 노동자	박종필	다큐인
	8	개방농정의 시대-2001 농촌보고서	권우정	다큐인
	9	결혼 전 이야기	박현선	푸른영상
	10	결혼, 가족 그리고 나	정현주	푸른영상
	11	경계도시	홍형숙	서울영상집단
	12	계속된다-미등록 이주노동자 기록되다	주현숙	미디어엑트
	13	그들만의 월드컵	최진성	
	14	기찻길 옆 공부방	서경화	푸른영상
	15	김종태의 꿈	김성환	푸른영상
	16	꽃파는 할머니	박성미, 김성진	다큐인
	17		박종필	다큐인
	18	나는 행복하다	류미래	푸른영상
	19	낙선	오정훈, 이안숙	한국독립영화협회
	20	낮은 목소리	변영주	보임
	21	낮은 목소리 2 -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변영주, 신명화	
	22	낮은 목소리 3 - 숨결	변영주	기록영화제작소 보임
	23	노들바람	박종필	다큐인
	24	노래로 태양을 쏘다 :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의 기록	조재홍	서울영상집단
	25	노인, 또 하나의 시간	정현주	푸른영상
	26	녹색 발자국	공미연	서울영상집단
	27	농가일기	권우정	
	28	대추리 전쟁	정일건	푸른영상
	29	독립영화인 국가보안법 철폐 프로젝트	최진성, 미디어참세상 등	한국독립영화협회
	30	돌 속에 갇힌 말	나루	다큐 나루
	31	동강은 흐른다	김성환	푸른영상
	32	두밀리,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	홍형숙	서울영상집단
	33	두개의 눈을 가진 아일랜드	임진평	투아이드 필름, 키위 미디어
	34	또 하나의 세상 - 행당동 사람들 2	김동원, 천주교도시민빈사목회	푸른영상

한 국 독 립 영 화 다 큐	35	명성, 그 6일의 기록	김동원	푸른영상
	36	미디어 숲 속의 사람들	김동원	푸른영상
	37	미친 시간	이마리오	서울영상집단
	38	민들레	최하동하,이경순	빨간눈사람
	39	버스를 타자 - 장애인 이동권 투쟁 보고서	박종필	다큐인
	40	변방에서 중심으로 : 독립영화에 대한 특별한 시선	홍형숙	서울영상집단
	41	보이지 않는 창살	남택진	푸른영상
	42	봉천동 이야기	서명진	푸른영상
	43	분단을 넘어선 사람들	김태일	푸른영상
	44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이마리오	미디어엑트
	45	비상(飛上)	임유철	이모션 픽처스
	46	사이에서	이창재	다큐코리아
	47	삶의 자리, 투쟁의 자리	홍형숙	서울영상집단
	48	상계동 올림픽	김동원	푸른영상
	49	세 발 까마귀	오정훈	푸른영상
	50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김동원	푸른영상
	51	소금-철도여성노동자이야기	박정숙	노동자영상사업단 희망
	52	소금-철도여성노동자이야기(영문자막)	박정숙	
	53	소풍	홍남희	푸른영상
	54	송환	김동원	푸른영상
	55	슬로브릿의 딸들	문정현	푸른영상
	56	시작하는 순간 - 두밀리 두 번째 이야기	홍형숙	서울영상집단
	57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변영주	푸른영상
	58	야고보의 5월	김동원	푸른영상
	59	약속 하나 있어야 겠습니다	오정훈	푸른영상
	60	어느 별에서 왔니? 이주민 2%, 2008 대 한민국	미노드 목탄외	미디어엑트
	61	어머니의 보랏빛 수건	김태일	푸른영상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62	엄마...	류미례	푸른영상
	63	엄마를 찾아서	정호현	
	64	에바다투쟁 6년 - 해 아래 모든 이의 평등을 위하여	박종필	다큐인
	65	옥포만에 메아리칠 우리들의 노래를 위하여	다큐멘터리 작가회의	다큐멘터리 작가회의
	66	안녕, 사요나라	김태일, 가토 구미코	민족문제연구소태평 양전쟁피해자보상추 진협의회
	67	우리는 전사가 아니다	박기복	푸른영상
	68	원진별곡	김태일	푸른영상
	69	입국금지	박상미	다큐인
	70	잊혀진 여전사	김진열	

한국 독립 영화 다 큐	71	전열	다큐멘터리작가회의	다큐멘터리작가회의
	72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이마리오	
	73	진실의 문	김희철	(주)엔터원
	74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김환태	
	75	친구- 나는 행복하다2	류미래	푸른영상
	76	팔등신으로 고치라 굽쇼	황철민	
	77	풀은 풀끼리 늙어도 푸르다	김태일	푸른영상
	78	핑크 팰리스	서동일	
	79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	김동원	푸른영상, 칠천만겨레 모임 통일맞이
	80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김경만	영화제작소 청년
	81	학교1	남태제	다큐인
	82	한사람	김동원	푸른영상
	83	행당동 사람들	김동원	푸른영상
	84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으로 가는길	오정훈	푸른영상
	85	학교2	남태제	
	86	열린채널 불행끝!행복시작!닫힌채널을 열어라	시민제작자모임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
	87	얼굴들	지혜	미디어액트
	88	무죄(1981년 진도조작간첩사건 기록영화)	김희철	영화진흥위원회
	89	파업전야	이용배	영화제작소 장산꽃매
	90	팔월의 일요일들	이진우	인디스토리
	91	전장에서 나는	공미연	한독협
	92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시아 단편경선 역대 수상작모음 1997-2007	박찬옥, 김인숙외	한국독립영화협회
	93	고레옹2495	하준수	태원엔터테인먼트
	94	버스를 타자! 외 2작품	박종필	시네마 달, 다큐인
	95	안녕? 허대짜수짜님!	정호중	노동자뉴스제작단
	96	어부로 살고 싶다.	이강길	프로덕션 진공
	97	언니	계윤경	살림, 여성인권지원센터, 계윤경
	98	할매꽃	문정현	푸른영상
	99	노동자(현대중공업노동조합사 3부작 1편)	태준식	현대중공업노동조합
	100	두개의 파업(현대중공업노동조합사 3부작 1편)	허은광, 배인정	현대중공업노동조합
한국 일 반	1	2009 로스트메모리즈	이시명	(주)인디컴
	2	8월의 크리스마스	허진호	우노필름
	3	개그맨	이명세	태흥영화주식회사
	4	겨울 나그네	곽지균	동아수출공사
	5	경마장 가는 길	장선우	태흥영화주식회사
	6	괴물	봉준호	(주)청아람
	7	귀여워	김수현	튜브픽처스

한 국 영 화 반	8	그들도 우리처럼	박광수	동아수출공사
	9	길	배창호	이산프로덕션
	10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홍상수	동아수출공사
	11	로맨스 빠빠	신상옥	신필림
	12	마부(한국영화걸작선)	강대진	
	13	바람불어 좋은날	이장호	동아수출공사
	14	박하사탕	이창동	이스트 필름
	15	발레 교습소	변영주	좋은영화
	16	번지점프를 하다	김대승	눈 엔터테인먼트(주)
	17	병어리 삼룡이	신상옥	
	18	복수는 나의 것	박찬욱	스튜디오 박스
	19	봄날은 간다	허진호	싸이더스
	20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김기덕	엘제이 필름(LJ Film), 판도라 필름
	21	비단구두	여균동	오리영화사
	22	뽕	이두용	태흥영화주식회사
	23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신상옥	
	24	사생결단	이시영	MK 픽처스
	25	서편제	임권택	태흥영화주식회사
	26	성춘향	신상옥	신필림
	27	세 번째 시선	정윤철, 김현필	국가인권위원회
	28	수취인불명	김기덕	김기덕피리움, 엘제이 필름
	29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	김태식	필름라인
	30	어우동	이장호	태흥영화주식회사
	31	얼굴없는 미녀	김인식	아이필름(주)
	32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	이하	엔젤 언더그라운드, MK 픽처스
	33	여섯개의 시선	박광수, 박진표	국가인권위원회
	34	여자, 정혜	이윤기	LJ필름
	35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홍상수	미라신코리아, 유니 코리아
	36	연산군 (한국영화마스터피스컬렉션)	신상옥	신필림
	37	영자의 전성시대	김 호선	
	38	오아시스	이창동	이스트 필름
	39	올드보이	박찬욱	쇼이스트(주)
	40	외출	허진호	블루스툼
	41	우아한 세계	한재림	(주)루씨필름
	42	이창동 감독 컬렉션 스페셜 피쳐	이창동	
	43	인어공주	박흥식	나우필름
	44	장군의 아들	임권택	태흥영화주식회사

한 국 일 반	45	장미빛 인생	김홍준	태흥영화주식회사
	46	젊은날의 초상	곽지균	태흥영화주식회사
	47	주홍글씨	변혁	LJ필름
	48	천년학	임권택	키노투
	49	천년호	신상옥	신필림
	50	청춘쌍곡선	한형모	
	51	초록물고기	이창동	이스트 필름, 시네마 서비스
	52	축제	임권택	태흥영화주식회사
	53	춘향뎐	임권택	태흥영화주식회사
	54	친구	곽경택	시네라인(주)인네트
	55	친절한 금자씨	박찬욱	모호필름
	56	칠수와 만수	박광수	동아수출공사
	57	타짜	최동훈	싸이더스 FNH
	58	태백산맥	임권택	태흥영화주식회사
	59	파이란	송해성	튜브픽처스
	60	해안선	김기덕	LJ필름
	61	홀리데이	양윤호	(주)현진씨네마
	62	후회하지 않아	이송희일	청년필름
	63	생활의 발견	홍상수	미라신코리아
	64	미녀는 괴로워	김용화	리얼라이즈 픽처스 KM컬처
	65	밀양	이창동	파인하우스필름
	66	사이에서	이창재	다큐코리아
	67	삼거리극장	전계수	LJ 필름, (주)프라임엔터테인먼트
	68	숨	김기덕	김기덕필름
	69	소나기	고영남	남아진흥
	70	애니깽	김호선	함동영화사
	71	누가 龍의 발톱을 보았는가?	강우석	서울필름
	72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박광수	씨네2000
	73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류승완	외유내강
	74	나비	문승욱	(주)팝엔터테인먼트아시아
	75	학생부군신위	박철수	박철수 필름, GTV
	76	아름다운 시절	이광모	(주)백두대간, 미도영 화사
	77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오병철	오병철프로덕션
	78	銀馬는 오지않는다	장길수	한진흥업
	79	님은 먼곳에	이준익	케이디미디어
	80	멋진하루	이윤기	프리미어엔터테인먼트
	81	상어	김동현	인디스토리

한국 일 반	82	신기전	김유진	KnJ엔터테인먼트
	83	영화는 영화다.SE	장훈	태원엔터테인먼트
	84	우리생애 최고의순간	임순례	케이디미디어
	85	추격자	나홍진	프리미어엔터테인먼트
	86	행복	허진호	케이디미디어
	87	가벼운잠	임성찬	와이드미디어
	88	경의선	박흥식	팬텀엔터테인먼트
	89	경축! 우리사랑	오점균	태원엔터테인먼트
	90	열세살, 수아	허진호	케이디미디어
	91	강원도의 힘	홍상수	Ein's M&M
	92	똥개	곽경택	엔터원
	93	목공	장지량	팬텀엔터테인먼트
	94	바르게살자	라희찬	플래니스
	95	세븐데이즈	원신연	케이디미디어
	96	아름다운 시절	이광모	다음미디어
	97	우린 액션배우다	정병길	아트서비스
	98	워낭소리	이충렬	Ein's M&M
	99	그림자살인	박대민	CJ 엔터테인먼트
	100	1724기방난동사건	여균동	프리미어엔터테인먼트
	101	김약국의 딸들	유현목	
중국 + 홍 콩	102	옛날옛적에황어이황이	유현목	에스엠스크린
	103	김기영컬렉션	김기영	태원엔터테인먼트
	1	2046	왕가위	상하이필름스튜디오, 제트 톤 필름 프로덕션
	2	국두	장예모	중국전영합작제편공사
	3	귀신이 온다	강문	베이징 장보-타임즈 필름 플래닝, 차이나 필름 코-프로덕션 코퍼레이션
	4	당산대형	로우 웨이	골든 하베스트 컴퍼니
	5	돌아온 외팔이	장철	
	6	맹룡과강	부르스 리	
	7	무간도1 (Movie + SUPPLEMENT)	유위강, 맥조휘	
	8	무간도2 (Movie + SUPPLEMENT)	유위강, 맥조휘	
	9	무간도3 (Movie + SUPPLEMENT)	유위강, 맥조휘	
	10	반생연	허안화	만다린 필름
	11	붉은 수수밭	장예모	시안 필름 스튜디오
	12	사망유희	로버트 클라우스	골든 하베스트 컴퍼니
	13	서유기 월광보합	유진위	
	14	서유기 선리기연	유진위	
	15	신 외팔이	장철	

영 화 사	16	쓰리 타임즈	허우샤오시엔	3에이치 필름즈
	17	아비정전	왕가위	인-기어 필름
	18	애정만세	차이밍량	센트럴 모션 픽처스 코퍼레이션
	19	에로스	왕가위, 스티븐 소더버그	로이시 필름스, 제트 톤 필름 프로덕션
	20	연지구	관금봉	
	21	열혈남아	왕가위	
	22	영웅본색	오우삼	시네마 시티 필름 프 로덕션
	23	영웅본색2	오우삼	
	24	영웅본색3	서극	
	25	완령옥	관금봉	
	26	의리의 사나이 외팔이	장철	쇼 브라더스
	27	이소룡의 삶과 전설	안드류 몰간	
	28	인생	장예모	상하이필름스튜디오
	29	정무문	나유	골든 하베스트 컴퍼니
	30	중경삼림	왕가위	택동프로덕션
	31	지존무상	왕정, 향화승	원스 필름 프로덕션
	32	지존무상2 영패천하	두기봉	
	33	천리주단기	장예모	
	34	천장지구	진목승	
	35	첨밀밀	진가신	UFO, 골든 하베스트 컴퍼니
	36	타락천사	왕가위	택동전영제작유한공사
	37	패왕별희	첸 카이거	
	38	하나 그리고 둘	에드워드 양	아톰 필름, 포니 캐년
	39	화양연화	왕가위	블록2 픽처스
	40	흔들리는 구름	차이밍량	
	41	쿵푸허슬	주성치	
	42	동사서독	왕가위	
	43	푸른 연	티엔주앙주앙	
	44	말할 수 없는 비밀	주걸륜	
	45	전원춘몽 : 공리의 연인	선 자오	인디고 엔터테인먼트
	46	적벽대전1	오우삼	케이디미디어
	47	적벽대전2	오우삼	케이디미디어
	48	엽문	엽위신	버즈픽처스
영 화 사	1	3-4X10월	기타노 다케시	
	2	4월 이야기	이와이 순지	록웰아이즈
	3	7인의 사무라이	구로자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4	7인의 사무라이	구로자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5	7인의 사무라이 (2disk)	구로자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일본	6	간장선생	이마무라 쇼헤이	이마무라 프로덕션
	7	거미의 성	구로자와 아키라	
	8	거미의 성	구로자와 아키라	
	9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헤엄친다	미키 사토시	
	10	겐로쿠 주신구라	미조구치 겐지	쇼치쿠 필름
	11	그 여름 가장 조용한 바다	기타노 다케시	
	12	기묘한 서커스	소노 시온	(주)코랄픽처스
	13	기쿠지로의 여름	기타노 다케시	
	14	녹차의 맛	이시이 가쓰히토	그레스호파
	15	눈물이 주룩주룩	도이 노부히로	TBS, 아뮤즈
	16	다케시즈	기타노 다케시	오피스 기타노
	17	도쿄 아이즈	장 피에르 리모쟁	유로 스페이스
	18	돌스	기타노 다케시	Office Kitano
	19	라쇼몽	구로자와 아키라	
	20	라쇼몽	구로자와 아키라	
	21	라스트 라이프 라스트 러브	펜엑 라타나루앙	보헤미안 필름스
	22	란포지옥	짖소지 아키오, 카네코 아츠시	알바트로스 필름
	23	릴리슈슈의 모든것	이와이 순지	록웰아이즈
	24	메종 드 히미코	이누도 잇신	아스믹 에이스
	25	모두 하고 있습니까	기타노 다케시	오피스 기타노
	26	무지개 여신	구마자와 노오토	
	27	박사가 사랑한 수식	고이즈미 다카시	
	28	브라더	기타노 다케시	오피스 기타노
	29	브라더	기타노 다케시	오피스 기타노
	30	사랑의 문	마츠오 스즈키	
	31	소나티네	기타노 다케시	반다이 비주얼 Co. Ltd., 쇼치쿠 필름
	32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	이와이 순지	후지 TV
	33	스크랩 헤븐	이상일	TV도쿄
	34	아무도 모른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시네와논
	35	약 30개의 거짓말	오오타니 겐타로	
	36	멋진 일요일	구로자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37	멋진 일요일	구로자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38	언두	이와이 순지	후지 TV
	39	엔젤 더스트	이시이 소고	
	40	이키루	구로사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41	이키루	구로사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42	이키루	구로사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43	일본 인디필름 페스티벌 영화제 박스세트 스페셜 퓨처		

일본	44	자토이치	기타노 다케시	
	45	좋아해	이시카와 히로시	
	46	주정뱅이 천사	구로자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47	주정뱅이 천사	구로자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48	전차남	무라카미 마사노리	도호영화사
	49	카게무사	구로자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이십세기 폭스사
	50	카페 뤼미에르	허우샤오시엔	쇼치쿠 필름
	51	키즈 리턴	기타노 다케시	반다이 비주얼 Co. Ltd., 오피스 기타노
	52	피와 뼈	최양일	비와월드
	53	피크닉	이와이 순지	후지 TV
	54	핑퐁	소리 후미히코	아스믹 에이스 엔터테인먼트
	55	하나비	기타노 다케시	반다이 비주얼 Co. Ltd., 오피스 기타노
	56	하나와 앨리스	이와이 순지	쇼이스트(주)
	57	한밤중의 야지 기타	쿠도 칸쿠로	아스믹 에이스
	58	해저드	소노 시온	해저드 프로젝트
	59	협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나가시마 테츠야	도호 영화사, TBS
	60	환상의 빛	고레에다 히로카즈	
	61	러브레터	이와이 순지	후지 텔레비전 네트워크
	62	오유우님	미조구지 겐지	스카이 미디어
	63	게이사	미조구지 겐지	스카이 미디어
	64	우게츠 이야기	미조구지 겐지	스카이 미디어
	65	수치의 거리	미조구지 겐지	스카이 미디어
	66	지카마츠 이야기	미조구지 겐지	스카이 미디어
	67	산쇼다 유	미조구지 겐지	스카이 미디어
	68	양귀비	미조구지 겐지	스카이 미디어
	69	신 헤이케 이야기	미조구지 겐지	스카이 미디어
	70	밀바닥	구로자와 아키라	도호 영화사
	71	밀바닥	장 르누아르	
	72	음양사2	타키타 요지로	케이디미디어
	73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SE	이누도 잇신	스폰지
	74	지금 만나러 갑니다.	노이 노부히로	엔터원
	75	하치이야기	코우야마 세이지로	덕슨미디어
	76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	신조 다케히코	케이디미디어
	77	고(GO)	유키사다 이사오	
미국	1	7월 4일생	올리버 스톤	Ixtlan Corporation
	2	THX-1138	조지 루카스	아메리칸 조트로프, 워너 브라더스사

미 국	3	가위손	팀 버튼	이십세기 폭스사
	4	가을의 전설	에드워드 즈윅	트라이스타 픽처스
	5	갱스 오브 뉴욕	마틴 스코시즈	
	6	게이샤의 추억	롭 마셜	콜럼비아 픽처스, 드림웍스 SKG
	7	고소공포증	멜 브룩스	크로스보우 프로덕션
	8	굿 셰퍼드	로버트 드 니로	모건 크릭 프로덕션즈, 유니버설 픽처스
	9	굿 나잇 앤 굿 럭	조지 클루니	섹션 에익 Ltd., 2929 프로덕션
	10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스탠리 큐브릭	MGM
	11	나의 그리스식 웨딩	조엘 즈윅	골드 서클 필름
	12	국가의 탄생	D.W. 그리피스	데이빗 W. 그리피스 사
	13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마이크 니콜스	위너 브라더스사
	14	뉴욕스토리	우디 앨런, 마틴 스코시즈	터치스톤 픽처스
	15	다운 바이 로	짐 자무시	블랙 스네이크, 아일랜드 픽처스
	16	닥터 지바고	데이비드 린	MGM
	17	데드 맨	짐 자무시	미라맥스
	18	디파티드	마틴 스코시즈	위너 브라더스사, 플랜 B 엔터테인먼트
	19	21그램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This is That Productions
	20	34번가의 기적	레스 메이필드	이십세기 폭스사
	21	라이언 일병 구하기	스티븐 스피버그	앰블린 엔터테인먼트, 드림웍스 SKG
	22	래리 플린트	밀러스 포먼	콜럼비아 픽처스
	23	랜드 오브 데드	조지 A.로메로	로렐 엔터테인먼트
	24	로리타	스탠리 큐브릭	Seven Arts Production
	25	로마제국의 멸망	앤서니 만	사무엘 브론스톤 프로덕션, 랭크 오거니제이션 필름 프로덕션
	26	리핑 : 10개의 재앙	스티븐 홉킨스	위너 브라더스사, 다크 캐슬 엔터테인먼트
	27	매트릭스	래리 워쇼스키, 앤디 워쇼스키	실버 픽처스
	28	매트릭스 2 리로디드	앤디 워쇼스키, 래리 워쇼스키	실버 픽처스, 위너 브라더스사
	29	매트릭스 3 레볼루션	앤디 워쇼스키, 래리 워쇼스키	실버 픽처스, 위너 브라더스사
	30	맨하탄	우디 앨런	잭 톨린스&찰스 H. 조페 프로덕션

미국	31	덜홀랜드 드라이브	데이비드 린치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32	메멘토	크리스토퍼 놀란	팀 토드, 뉴마켓 캐피탈 그룹
	33	멕시칸	고어 버빈스키	드림웍스 픽처스
	34	멜린다와 멜린다	우디 앨런	폭스 서치라이트 픽처스
	35	모짜르트와 고래	페테르 나스	밀레니엄 필름
	36	무성영화	멜 브룩스	Crossbow Productions
	37	미국의 광기	프랭크카프라	콜럼비아 픽처스
	38	미스터리 트레인	짐 자무시	JVC Entertainment
	39	매트릭스 익스피리언스		
	40	바그다드 카페	퍼시 애들론	펠레멜레 필름
	41	반지의제왕:두개의탑	피터 잭슨	뉴 라인 시네마, 윈넷 필름
	42	반지의제왕:반지원정대	피터 잭슨	뉴라인 시네마, 윈넷 필름
	43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	피터 잭슨	뉴 라인 시네마
	44	배리 린든	스탠리 큐브릭	호크 필름즈, 페레그린
	45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닐 조던	게펜 픽처스
	46	버디	알란 파커	트라이마크 픽처스
	47	보니 앤 클라이드 -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아서팬	워너 브라더스사
	48	보랏 : 카자흐스탄 킹카의 미국문화 빨아들이기	래리 찰스	에브리맨 픽처, 골드/밀러 프로덕션
	49	보이즈 앤 후드	존 싱글턴	콜럼비아 픽처스
	50	북경의 55일	니콜라스 레이, 앤드류 마튼	사무엘브론스톤프로덕션
	51	분노의 주먹	마틴 스코시즈	샤토프-윙클러 프로덕션
	52	불의 전차	휴 허드슨	워너 브라더스사
	53	브로드웨이 멜로디	해리 보몽	
	54	브룩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울리 에델	바바리아 필름
	55	블레이드 러너	리들리 스콧	래드 컴퍼니
	56	비열한 거리	마틴 스코시즈	태폴린-페리-스코시즈 프로덕션
	57	빅 피쉬	팀 버튼	콜럼비아 픽처스, 자눅 컴퍼니
	58	사느냐 죽느냐	알랜 존슨	아메리칸조트로프
	59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소피아 코폴라	
	60	사랑은 비를 타고	진 켈리, 스탠리 도넨	MGM
	61	사이드웨이	알렉산더 페인	폭스 서치라이트 픽처스
	62	새	엘프리드 히치콕	유니버설 픽처스

미 국	63	샤이닝	스탠리 큐브릭	호크 필름즈, 워너 브라더스사
	64	샤인	스콧 히스	모멘텀 필름
	65	선셋대로	빌리 와일더	파라마운트 픽처스
	66	세인트 루이스에서 만나요	빈센트 미넬리	MGM
	67	세인트 앤 솔저(Saints and Soldiers)	라이언 리틀	
	68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	스티븐 소더버그	버진, 미라맥스
	69	소년은 울지 않는다	킴벌리 피어스	킬러 필름즈
	70	쇼타임	툼 데이	워너 브라더스사
	71	원들러 리스트	스티븐 스피버그	유니버설 픽처스, 엠블린 엔터테인먼트
	72	스카페이스	브라이언 드 팔마	유니버설 픽처스
	73	스트레이트 스토리	데이비드 린치	월트디즈니사, 채널 4 필름
	74	시계 태엽 오렌지	스탠리 큐브릭	워너 브라더스사
	75	시민 케인	오손 웰스	RKO 라디오 픽처스, 머큐리 프로덕션
	76	시카고	롭 마셜	미라맥스
	77	싸이코	알프레드 히치콕	Shamley Productions
	78	썬 레드 라인	테렌스 맬릭	폭스 2000 픽처스
	79	싸이코	구스 반 산트	이매진 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 픽처스
	80	아마데우스	밀로스 포먼	사울 자엔츠 컴퍼니
	81	아버지의 깃발	클린트 이스트우드	드림웍스 픽처스, 워너 브라더스사
	82	아버지의 이름으로	짐 셰리단	유니버설 픽처스
	83	아웃 오브 아프리카	시드니 폴락	유니버설 픽처스
	84	아이즈 와이드 섯	스탠리 큐브릭	워너 브라더스사
	85	아포칼립토	멜 깁슨	터치스톤 픽처스, 아이콘 엔터테인먼트
	86	알래스카의 훈(North to Alaska)	헨리 헤서웨이	
	87	알리	마이클 만	콜롬비아 영화사
	88	애니 홀	우디 앨런	잭 롤린스&찰스 H. 조페 프로덕션
	89	애니매트릭스	피터 정, 애니 존스, 기와지리 요시아키, 코이케 다케시, 매다 마히로, 모리모토 코우지	
	90	에드 우드	팀 버튼	터치스톤 픽처스
	91	엘 시드	앤서니 만	사무엘 브론스톤 프로덕션
	92	브라질(여인의 분노)	테리 길리엄	유니버설 픽처스

미국	93	영원한 휴가	짐 자무시	시네씨저 프로덕션
	94	엔 장군의 쓰디쓴 차	프랭크카프라	
	95	오클라호마 유전	스탠리 크레이머	스탠리 그레이머 프로덕션즈
	96	오페라의 유령	조엘 슈마허	Really Useful Films, Joel Schumacher Productions
	97	와일드 번치	샘 페킨파	워너 브라더스사
	98	왕이 되려던 사나이	존 휴스턴	콜롬비아 픽처스
	99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엘리아 카잔	워너 브라더스사
	100	우디 알렌의 슬리퍼	우디 앨런	롤랑 조페 프로덕션즈
	101	우크라이나에서 온 편지	리브 슈라이버	워너 인디펜던트 픽처스
	102	워터프론트	엘리아 카잔	콜롬비아 픽처스
	103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로버트 와이즈, 제롬 로빈스	미라슈 필름
	104	웨이킹 라이프	리처드 링클레이터	디투어 필름포로덕션
	105	웨인왕의원-덱시	웨인 왕	이십세기 폭스사
	106	은하수를여행하는히치하이커를위한안내서	가스 제닝스	터치스톤 픽처스, 월트 디즈니 픽처스
	107	이창	앨프리드 히치콕	파라마운트 픽처스
	108	이터널 선샤인	미셸 공드리	블루 루인, 포커스 픽처스
	109	인사이드 맨	스파이크 리	이매진엔터테인먼트
	110	이창	앨프리드 히치콕	파라마운트 픽처스
	111	자헤드 그들만의 전쟁	샘 멘더스	유니버설 픽처스
	112	재즈 싱어	알렌 크로스랜드	
	113	좋은 친구들	마틴 스코시즈	워너 브라더스사
	114	조스	스티븐 스필버그	유니버설 픽처스
	115	죽은 시인의 사회	피터 위어	터치스톤 픽처스
	116	지상의 밤	짐 자무시	JVC Entertainment
	117	지옥의 묵시록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조에트로프 스튜디오
	118	천국보다 낯선	짐 자무시	시네씨저 프로덕션
	119	체인 오브 폴스	트랙터	워너 브라더스사
	120	카이로의 붉은 장미	우디 앨런	MGM
	121	카지노	마틴 스코시즈	유니버설 픽처스
	122	카포티	베넷 밀러	유니아티드 아티스트
	123	칼라 퍼플	스티븐 스필버그	앰블린 엔터테인먼트, 거버-피터스
	124	커피와 담배	짐 자무시	Smokescreen Inc.
	125	태양의 제국	스티븐 스필버그	워너 브라더스사
	126	택시 드라이버	마틴 스코시즈	콜롬비아 픽처스

미국	127	터미네이터	제임스 카메론	Pacific Western
	128	트래픽	스티븐 소더버그	Initial Entertainment Group
	129	펀치 드렁크 러브	폴 토마스 앤더슨	뉴 라인 시네마
	130	판의 미로 - 오피리아와 세 개의 열쇠	기예르모 델 토로	워너 브라더스사
	131	폴 메탈 자켓	스탠리 큐브릭	워너 브라더스사
	132	프레리 홈 캠페니언	로버트 알트먼	리버 로드 엔터테인먼트
	133	한나와 그의 자매들	우디 앨런	MGM
	134	할리우드 엔딩	우디 앨런	드림웍스 SKG
	135	환희의 집	테렌스 데이비스	
	136	주노	제이슨 라이트먼	폭스 서치라이트 픽처스, 맨데이트 픽처
	137	뮤지컬 베스트(헤드윅)	존 카메론 미첼	킬러 필름즈, 뉴 라인 시네마
		뮤지컬 베스트(에비타)	알란 파커	씨너지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더티 핸즈 프로덕션
		뮤지컬 베스트(시카고)	로브 마샬	미라맥스
	138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샘 우드	파라마운트사
	139	전쟁과 평화	킹 비더	Dino de Laurentiis Cinematografica
	140	퀴바디스	머빈 르로이	MGM
	141	폭풍의 언덕	윌리엄 와일러	
	142	지상에서 영원으로	프레드 진네만	콜럼비아 픽처스
	143	왕과 나	월터 랭	이십세기 폭스사
	144	애수	머빈 르로이	
	145	카사블랑카	마이클 커티즈	워너 브라더스사
	146	로마의 휴일	윌리엄 와일러	파라마운트 픽처스
	147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빅터 플레밍	셀즈닉 인터내셔널 픽처스
	148	사보타주	알프레드 히치콕	고몽 브리티쉬 픽처
	149	돈을 갖고 튀어라	우디 앨런	ABC
	150	검은 수선화(흑수선)	마이클 포웰	
	151	역마차	존 포드	
	152	우리생애 최고의 해	윌리엄 와일러	사무엘 골드윈 컴퍼니
	153	말 없는 사나이	존 포드	아르고시 픽처스
	154	맥베드	오슨 웰즈	
	155	오델로	오슨 웰즈	머큐리 프로덕션
	156	구명선	앨프리드 히치콕	이십세기 폭스 필름
	157	뜨거운 양철지붕위의 고양이	리처드 브룩스	MGM
	158	마이 페어 레이디	조지 쿠키	워너 브라더스사

미국	159	친구들과의 만찬	노먼 주이슨	HBO 필름
	160	이유없는 반항	제프리 라이트	오스트레일리언 필름 커미션
	161	말콤X	스파이크 리	라르고 인터내셔널, JVC 엔터테인먼트
	162	13일의 금요일	손 S. 커닝햄	파라마운트 픽처스
	163	늑대와 춤을	케빈 코스트너	마제스틱 필름 인터내셔널
	164	숫컷	로버트 알트먼	파인 라인 픽처스
	165	유주얼 서스펙트	브라이언 싱어	폴리그램필름 엔터테인먼트
	166	레옹	뤽 베송	고몽 영화사
	167	파라다이스 로드	브루스 베레스포드	빌리지 로드쇼 픽처스
	168	트루먼 쇼	피터 위어	파라마운트사, 스카트루던 프로덕션
	169	작은 전쟁	존 애브넛	아일랜드 월드
	170	올란도	샬리 포터	
	171	미저리	로브 라이너	캐슬 락 엔터테인먼트
	172	파인딩 포레스터	구스 반 산트	로렌스 마크 프로덕션
	173	레인 메이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아메리칸 조트로프, 더글라스/루더 프로덕션
	174	용서받지 못한자	클린트 이스트우드	멜파소 프로덕션, 워너 브라더스사
	175	식스센스	M. 나이트 샤말란	스파이글래스 엔터테인먼트
	176	존 말코비치 되기	스파이크 존스	그러머시 픽처스, 프로파간다 필름스
	177	초콜렛	라세 할스트롬	미라맥스
	178	300	잭 스나이더	워너브러더스
	179	나는 전설이다	프란시스 로렌드	워너브러더스
	180	라스트 사무라이	에드워드 즈웬	워너브러더스
	181	밴드 오브 브라더스 디지털	필 앨튼 로빈슨	워너브러더스
	182	스위니 토드 : 어느 잔혹한 이발사	팀 버튼	워너브러더스
	183	식코 (마이클무어 다큐)	마이클 무어	Ein's M&M
	184	아메리칸 갱스터	리들리 스콧	유니버설
	185	어거스트 러쉬	커스틴 웨리단	CJ 엔터테인먼트
	186	예스맨	페이튼 리드	워너 브러더스
	187	워터호스	제이 러셀	소니픽처스
	188	저수지의 개들	쿠엔틴 타란티노	우리 엔터테인먼트
	189	조디악	제이크 길렌할	워너브러더스
	190	콜드 마운틴	안소니 밋겔라	브에나비스타
	191	킹덤 오브 헤븐 디렉터스 컷	리들리 스콧	20세기 폭스

미 국	192	킹콩 2005	피터 잭슨	유니버설
	193	터미널	스티븐 스필버그	CJ 엔터테인먼트
	194	트와일 라잇	캐서리 하드윅	케이디미디어
	195	호텔 르완다	테리 조지	Ein's M&M
	196	신체강탈자의 침입	돈 시켈	맥스엔터
	197	라스트 모히칸	마이클 만	워너브러더스
	198	티파니에서 아침을	블레이크 에드워즈	CJ 엔터테인먼트
	199	에볼루션	이반 라이트만	드림웍스
	200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에릭 브레빅	Ein's M&M
	201	노잉	알렉스 프로야스	서밋 엔터테인먼트
	202	오션스 일레븐	스티븐 소더버그	워너브러더스
	203	오션스 트웰브	스티븐 소더버그	워너브러더스
	204	오션스 13	스티븐 소더버그	워너브러더스
	205	넘버23	조엘 슈마허	에스엠픽처스
	206	다크 나이트	크리스토퍼 놀란	워너브러더스
	207	다크 워터	월터 살레스	브에나비스타
	208	대통령의 죽음	가브리엘레인지	알토미디어
	209	블러드 다이아몬드 SE	에드워드 즈윅	워너브러더스
	210	뽀뽀한 덕과 제인	던 패리샷	소니픽처스
	211	시체들의 새벽 SE	조지 A.로메로	피터팬 픽처스
	212	용서받지 못한자	클린트 이스트우드	워너브러더스
	213	12명의 성난 사람들	시드니 루엣	피터팬 픽처스
	214	가타카	앤드류 니콜	콜럼비아 픽처스
	215	브이포벤데타	제임스 맥테이그	워너브러더스
	216	아일랜드	마이클베이	워너브러더스
	217	흑성탈출박스세트	찰스 헤스톤	20세기 폭스
유 럽	1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	로제 바댕	
	2	글래스톤베리	줄리앙 템플	
	3	금지된 장난	르네 클레망	실버 필름스
	4	과거가 없는 남자	아끼 까우리스마끼	바바리아 필름, 판 도라 필름프로덕션 GmbH
	5	5X2	프랑수아 오종	카날 플러스
	6	8명의 여인들	프랑수아 오종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7	길	페데리코 펠리니	폰티-데 라우렌티스 시네마토그래피카
	8	바다소리가 좋아	미모 칼로프리스트	
	9	난 혼자다	가스파 노예	
	10	내 어머니의 모든 것	페드로 알모도바르	
	11	네 멋대로 해라	장 뢰 고다르	임페리아

유럽	12	노스텔지아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오페라 필름 프로듀 시온
	13	노스페라투	베르너 헤어조크	베르너 헤어조크 필 름프로덕션, 고몽 영 화사
	14	녹색광선	에릭 로메르	필름 뒤 로장주
	15	닥터 마부제	프리츠 랑	
	16	더 리버	장 르누아르	Oriental International Films
	17	더 차일드	장 피에르 다르덴, 퓌크 다 르덴	레 필름 뒤 플뢰브
	18	돈 컴 노킹	빔 벤더스	리버스 엔젤 프로덕션
	19	랜드 오브 플렌티	빔 벤더스	이모션 픽처스
	20	레이닝 스톤	켄 로치	패렐렉스 픽처스
	21	리컨스트럭션	크리스토퍼 부	노르디스크 필름
	22	리턴	안드레이 즈비아진세프	렌 필름
	23	마농의 샘	클로드 베리	DD 프로덕션
	24	마농의 샘 2	클로드 베리	DD 프로덕션
	25	마리 앙투아네트	소피아 코폴라	아메리칸 조트로프, 콜럼비아 픽처스
	26	마지막 사랑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레코디드 픽처 컴파니
	27	마지막 황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AAA 프로덕션, 레코 디드 픽처 컴파니
	28	막달레나 시스터즈	피터 물란	필름 카운실
	29	모나리자	닐 조던	핸드메이드 필름
	30	무방비 도시	로베르토 로셀리니	엑셀사 필름
	31	미녀와 야수	장 콥도	디스시나
	32	미치광이 피에로	장 퓌크 고다르	패스 컨템퍼러리 필 름스, 소시에테 누벨 드 시네마토그래피
	33	바다를 보라	프랑수아 오종	피델리테 프로덕션
	34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 스키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35	베를린 천사의 시	빔 벤더스	로드무비 프로덕션, 아르고스 필름스
	36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켄 로치	파테
	37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	빔 벤더스	로드무비 프로덕션
	38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	빔 벤더스	로드무비 프로덕션
	39	비키퍼	테오 앙겔로풀로스	
	40	비텔로니	페데리코 펠리니	Peg-Film, Roma
	41	사랑과 경멸	장 퓌크 고다르	컴파니아 시네마토그 라피카 참피온

유럽	42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제스폴 필모위 토르
	43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제스폴 필모위 토르
	44	사랑의 찬가	장 뢰 고다르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레 필름 알랭 사르드
	45	사랑의 추억	프랑수아 오종	유로 스페이스
	46	세가지 사랑, 정사	괴르쥬 스피레만	로터스 필름
	47	세가지 색 레드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MK2 Productions,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48	세가지 색 블루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MK2 Productions
	49	세가지색 화이트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MK2 Productions,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50	소녀들은 수영을 못해	안네 소피 비로	
	51	소피솔의 마지막 날들	마르크 로테문트	골드카인드 필름프로덕션
	52	시간의 흐름 속으로	빔 밴더스	베스트도이처 룬드핑크, 빔 밴더스 프로덕션
	53	시네마 천국	주세페 토르나토레	RAI, TF1 필름즈 프로덕션
	54	시트콤	프랑수아 오종	피델리테 프로덕션
	55	심플 맨	할 하틀리	파인 라인 피쳐스, 트루 픽션 픽처스
	56	아델 H 이야기(아델의 사랑 이야기)	프랑수아 트뤼포	카로스 필름
	57	아버지의 이름으로	짐 세리단	유니버살 스튜디오
	58	아워 뮤직	장 뢰 고다르	프랑스 3 시네마, 레 필름 알랭 사르드
	59	악의 꽃	끌로드 샤브롤	카날 플러스
	60	안개 속의 풍경	테오 앙겔로풀로스	베이직 시네마토그래피카
	61	안토니아스 라인	마린 고리스	더치 컬처럴 브로드캐스팅
	62	애프터미드나잇	다비데 페라리오	인디스토리
	63	어느 사랑의 연대기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빌리아니 필름
	64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	로베르 브레송	유니온 제너럴 시네마토그래피 (UGC)
	65	영원과 하루	테오 앙겔로풀로스	스튜디오 카날
	66	워터드롭스 온 버닝 락	프랑수아 오종	유로 스페이스, 레 필름 알랭 사르드
	67	의식	끌로드 샤브롤	올가 필름 GmbH, MK2 프로덕션
	68	인간의 피부, 짐승의 심장	엘렌느 앙젤	

유럽	69	인력자원부	로랑 캉테	BBC, 센터 내셔널 드 라 시네마토그래피
	70	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	체키 고리 그룹 타이거 키네마토그래피카
	71	자전거 도둑	비토리오 데 시카	데 시카 프로덕션
	72	장미의 이름	장 자크 아노	Cristaldifilm
	73	저항	로베르 브레송	고몽 영화사
	74	전함 포템킨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	고스키노
	75	정복자 펠레	빌 어거스트	퍼 홀스트 필름프로덕션, 스벤스카 필름인스티튜트
	76	중앙역	월터 살레스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77	증오	마티외 카소비츠	라 셉트 시네마,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78	초콜릿 고마워	클로드 샤브롤	프랑스 2 시네마,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79	크리미널 러버	프랑수아 오종	센터 내셔널 드 라 시네마토그래피,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80	타임 투 리브	프랑수아 오종	피델리테 프로덕션, 스튜디오 카날
	81	파니 핑크	도리스 되리	코브라 필름 GmbH
	82	파리, 텍사스	빔 밴더스	아르고스 필름스
	83	퐁네프의 연인들	레오스 까락스	고몽 영화사
	84	프란체스코, 신의 어릿광대	로베르토 로셀리니	시네리츠
	85	프랑수와 오종 단편집	프랑수와 오종 (Francois Ozon)	
	86	프린스 앤 프린세스	미셸 오슬로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센터 내셔널 드 라 시네마토그래피
	87	피아니스트	로만 폴란스키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88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툼 티크베어	서밋 엔터테인먼트
	89	홀리와 마리나	산드라 골드바처	
	90	사랑도 흥정이 되나요	베르트랑 불리에	피델리테 프로덕션
	91	원스	존 카니	SummitEntertainment
	92	어둠속의 댄서	라스 폰 트리에	스펙트럼디브이디
	93	빌리 엘리어트	스티븐 달드리	워킹 타이틀 필름즈
	94	오픈 유어 아이즈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95	리골레토		
	96	글루미 선데이	롤프 슈벨	피터팬 픽처스
	97	네버랜드를 찾아서	마크 포스터	브에나비스타
	98	라붐	쿠로도 피노토	월드무비
	99	라붐2	쿠로도 피노토	월드무비
	100	러브 액츄얼리	리차드 커티스	프리미어 엔터테인먼트

유럽	101	블랙북	폴 베히벤	Ein's M&M
	102	스타더스트	매튜 본	파라마운트
	103	유쿨 잇 러브	쿠로도 피노토	월드무비
	104	카메라를 든 사나이	지가 베르토브	키노아이픽처스
	105	콰이강의 다리	데이빗 린	컬럼비아 픽처스
	106	테이큰	피에를 모렐	플래니스
	107	애프터미드나잇	다비드 페라리오	대경DVD
	108	1492콜럼버스	리들리 스콧	드림믹스
	109	1984	마이클레드포드	폰즈트리
	110	레이닝 스톤	켄 로치	스타맥스
	111	파라노이드	존 듀이건	프리미어 엔터테인먼트
	112	아멜리에	장 피에르 주네	이오스 엔터테인먼트
제 3 세 계	1	거북이도 난다	바흐만 고바디	미지 필름 Co.
	2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청소년지능개발연구소
	3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칠드런 & 영 애덜츠 인터렉츠크얼 디벨로프 먼트 인스터튜션
	4	떼시스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라 프로듀시온 델 에 스코피온, 소해박
	5	베터 댄 섹스	조너선 테플릿츠키	뉴 비전 필름
	6	보이지 않는 물결	펜엑 라타나루앙	포티시모 필름, 데디 케이트 Ltd.
	7	시티 오브 갓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카티아 룬드	O2 필름스, 비디오필름스
	8	씨클로	트란 안 흥	스튜디오 카날 플러스
	9	오프사이드	자파르 파나히	
	10	올리브 나무 사이로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압바스 키아로스타 미 프로덕션즈, 씨비 2000
	11	우작	누리 빌게 세일란	NBC Film
	12	천국을 향하여	하니 아부 아사드	루멘 필름
	13	천국의 아이들	마지드 마지디	카눈
	14	체리향기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압바스 키아로스타 미 프로덕션즈, 씨비 2000
	15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 카페	미구엘 코한	Ein's M&M
애 니 메 이 션	1	니모를 찾아서	앤드류 스탠튼, 리 언크 리치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픽처스
	2	몬스터 주식회사	피터 닥터, 데이비드 실 버맨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 오, 월트 디즈니 픽처스
	3	벅스 라이프	존 래세터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 오, 월트 디즈니 픽처스

애 니 메 이 션	4	인크레더블	브렛 버드	월트 디즈니 픽처스,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5	초속5센티미터	신카이 마코토	코믹스 웨이브 필름
	6	카	존 라세터	픽사 애니메이션 스 튜디오
	7	토이 스토리	존 라세터	월트 디즈니 픽처스
	8	토이 스토리 2	존 라세터, 리 언크리치	픽사 애니메이션 스 튜디오, 월트 디즈니 픽처스
	9	오월상생	전승일	5.18 기념재단
	10	이웃집 토토로	미야자키 하자오	스튜디오 지브리
	11	붉은돼지	미야자키 하야오	지브리 스튜디오
	12	페르세폴리스	뱅상 파로노, 마르얀 사 트라피	
	13	곰이 되고 싶어요	아니크 하스트럽	(주)코랄픽처스
	14	천년여우 여우비	이성강	선우엔터테인먼트, (주)엘로우 필름
	15	공각기동대 S.A.C 2nd GIG Box.1	오시이 마모루	뉴타입DVD
	16	귀를 기울이면	콘도 요시후미	지브리스튜디오
	17	다이너소어	에릭 레이튼	월트 디즈니 픽처스
	18	로빈슨가족	스티븐 J. 앤더슨	월트 디즈니 픽처스
	19	메트로폴리스	린 타로	소니픽처스
	20	백설	소리 후미히코	프리미어 엔터테인먼트
	21	볼트	바이론 하워드	월트 디즈니 픽처스
	22	빨간모자의 진실	코리 에드워즈	케이디미디어
	23	에어리어88 vol 1+2	토미우리 히사유키	DVD애니
	24	원피스 TV판 1기 박스세트	우다 코노스케	J&J미디어
	25	월-E	앤드류 스탠튼	월트 디즈니 픽처스
	26	유령신부 (팀버튼)	팀 버튼, 마이크 존스	월트 디즈니 픽처스
	27	치킨리틀	마크 단달	월트 디즈니 픽처스
	28	카우보이비밥-천국의문	와타나베 신이치로	소니픽처스
	29	트랜스포머(극장판 애니메이션)	넬슨 신	HDVD 엔터테인먼트
	30	폭풍우 치는 밤에	스기이 기사부로	대원DVD
	31	폴라익스프레스	로버트 저메키스	워너브러더스
	32	헬싱 ova vol.4	토코로 토모카즈	EnE 미디어
	33	헛지	팀 존슨, 캐리커크 패트릭	CJ 엔터테인먼트
	34	호튼	지미 헤이워드	20세기 폭스
	35	콩푸펀더	마크 오스본	드림웍스
	36	마다가스카 1	에릭 다넬	드림웍스
	37	벼랑위의 포뇨	미야자키 하야오	지브리스튜디오
	38	반딧불의 묘	다카하다 이사오	대원DVD
	39	인랑	오시이 마모루	다우리 엔터테인먼트

애 니 메 이 션	40	공각기동대 극장판	오키우라 히로유키	다우리 엔터테인먼트
	41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미야자키 하야오	지브리스튜디오
	42	고양이의 보은	모리타 히로유키	지브리스튜디오
	43	꿈이 되고 싶어요	아니크 하스트럽	(주)코랄픽처스
	44	그리스 로마 신화 1	박병순	비엠코리아
	45	그리스 로마 신화 2	박병순	비엠코리아
	46	그리스 로마 신화 3	박병순	비엠코리아
	47	그리스 로마 신화 4	박병순	비엠코리아
	48	니모를 찾아서	앤드류 스탠튼, 리 언크리치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픽처스
	49	라따뚜이	브래드 버드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픽처스
	50	마녀 배달부 키키	미야자키 하야오	지브리스튜디오
	51	몬스터 주식회사	피터 닥터, 데이비드 실버맨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픽처스
	52	물란 1	토니뱅크로프트,베리콕	월트 디즈니 픽처스
	53	물란 2	린 서덜랜드	월트 디즈니 픽처스
	54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미야자키 하야오	지브리스튜디오
	55	슈렉2	앤드류 아담슨외	드림웍스 픽처스
	56	슈렉3	크리스 밀러, 라맨 허	드림웍스 픽처스
	57	아주르와 아스마르	미셸 오슬로	NORD-OUEST
	58	엄마 찾아 삼만리(극장판)	쿠수바 히로미	
	59	웜웜공주와 도둑	리차드 윌리엄스	에이치디엔터테인먼트
	60	월레스와 그로밋	닉파크,스티븐박스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61	이웃집 토토로	미야자키 하야오	지브리스튜디오
	62	인어공주	존 머스커, 론 클레멘츠	월트 디즈니 픽처스
	63	인크레더블	브래드 버드	월트 디즈니 픽처스,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64	제임스와 거대한 복숭아	헨리 셀릭	월트 디즈니 픽처스
	65	추억은 방울방울	다카하타 이사오	지브리스튜디오
	66	치킨런	피터 로드, 닉 파크	드림웍스 픽처스
	67	카	존 라세터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68	토이 스토리1	존 라세터	월트 디즈니 픽처스
	69	토이 스토리2	존 라세터, 리 언크리치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픽처스
	70	포카혼타스	마이크 가브리엘	월트 디즈니 픽처스
	71	하울의 움직이는 성	미야자키 하야오	지브리스튜디오

기 타	1	시민이 만드는 영상 지금 현장에선!		시청자주권을 위한 경남시민사회단체협 의회
	2	2007 독립영화감독과 함께하는 다큐멘 터리 제작교실	CAMF	
	3	시청자의 이름으로(대구시청자미디어센 터개소2주년특집)	대구MBC시청자미디어 센터	
	4	평화의료생협 영상소식지 2006년 8월 창 간호	김성애	평화의료생협
	5	평화의료생협 영상소식지 2008년 봄호	김성애	평화의료생협
	6	미디어교육 자율적, 문화적 군대로 도전	미디액트	미디액트
	7	디카, 대화, 출발	미디액트	미디액트
	8	뉴욕에선 당신도 방송PD		MBC 프로덕션
	9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리류리	인권운동사랑방
	10	얼음왕국 북극의 여름이야기	티에리 피안타니다	
	11	차마고도		KBS미디어
교 육 결 과 물	31	청소년영상제작교실		남구학산문화원,주안 영상미디어센터
	32	동영상제작기초 네모난 눈으로 담는 영 상이야기 (3기 수료작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33	실버영상미디어교육 오춘프로젝트		주안영상미디어센터
	34	실버영상미디어교육 오춘프로젝트2		주안영상미디어센터
	35	성동학교 영상미디어교육		주안영상미디어센터
	36	이주여성이어, 미디어로 소통의 날개를 달자!		
	37	미디어센터와 함께하는 영상미디어교육 (교육생영상모음)		
	38	2008 교원특수분야 직무연수 영상미디 어교육		남구학산문화원,주안 영상미디어센터

2. 회원제도

■ 회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국민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 회원의 종류

- 일반회원 : CAMF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연간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며, 회원가입절차를 밟는 회원
- 정회원 : CAMF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월간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며, 회원가입절차를 밟는 회원

■ 회원가입절차



- CAMF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신청(정회원 또는 일반회원 선택)을 합니다.
- CAMF가 운영하는 회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합니다.
- 1, 2항의 절차를 밟고,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이 됩니다.

■ 회원탈퇴

- 회원은 회원 탈퇴를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 회원 탈퇴 시에는 탈퇴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 탈퇴 의사를 표현하여야 합니다.
- 회원 탈퇴 시 회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회원의 경우 탈퇴 이전 회원 자격 기간 동안 CMS 자동이체를 지속합니다.

■ 회비

- 회원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입비 및 회비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 회원유효기간

- 회원의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회원 유효 기간이 지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

기한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회원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운영자에게 기한 연장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회원의 재가입

-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 경우 가입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교육프로그램은 재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 회원의 권리

가. 일반회원

- 이용시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각종 회원대상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와의 협의를 거쳐 상영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정회원

- 이용시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각종 회원대상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와의 협의를 거쳐 상영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자재 대여 시 30% 할인을 적용 받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 수강 시 30% 할인을 적용 받습니다.

■ 회원의 의무

CAMF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CAMF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
- 회비 납부의 의무

■ 회원의 징계

CAMF의 소장은 회원의 제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자격정지 : 회원 유효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회원의 모든 권리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단 1년이라는 한정된 회원 유효 기간이 있는 바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자격정지는 재가입 이후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 이용시설 이용정지 : 회원 유효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지원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그 이외의 권리는 인정됩니다. 단 1년이라는 한정된 회원 유효 기간이 있는 바 유효기간을 초과하는 자격정지는 재가입 이후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 제명 : 일정 기간, 혹은 영구히 회원의 재가입을 금지시킵니다.
- 회원은 징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소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회원구분

구분	가입비	회비	교육	기자재	아카이브	공간
정회원	10,000원	10,000원/월	30% 할인	30% 할인	이용가능	이용가능
일반회원	10,000원	10,000원/년	수강가능	대여가능	이용가능	이용가능
일반이용자	-	-	수강가능	대여불가	이용가능	이용가능

3. 교육공간 이용 안내

■ 공간이용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CAMF 교육 공간의 지원을 원할 경우, 공간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이용자가 운영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해야하며 지원 신청 및 협의는 공간 사용 7일 전에 이루어져야합니다.

■ CAMF 교육 공간을 무료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간 이용과 관련한 자료(협조공문, 사업계획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CAMF 교육 공간을 지원받아 이용하는 경우, CAMF 교육 공간 이용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CAMF 교육공간 이용규정〉-----

1. CAMF 교육공간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영리목적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 CAMF 교육공간은 이용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공간 이용 시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기존 시설 및 기자재 이외의 것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운영자의 사용 승인 후 2일 안에 이용료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5. 이용 취소 시 이용료의 환불은 이용일 8일 전까지는 전액, 1주일 전부터 전일까지는 80%이며, 당일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6. 이용자는 각 실별로 따로 정한 세부 이용규정을 숙지하여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에 대한 임의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용 시간동안의 망실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7. 각 실별로 비치된 기자재의 기본적인 작동법 이외의 기술적 부분 및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기자재의 사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8. 공간이용 당일, 신청자는 공간이용 전에 운영자에게 공간사용여부를 알려야 하며, 공간이

용 후에는 사용하기 전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9. 운영자의 이용 승인 후 이용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10. 2주 이상의 장기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신청서 제출 시 세부계획을 별첨하시고,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11. CAMF 공식 휴관일에는 공간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4. 기자재 대여 안내

■ CAMF 정회원 및 일반회원에게 촬영 및 편집 기자재를 대여합니다.

■ 대여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CAMF의 정회원에게겐 대여료의 30%가 할인됩니다.

1. CAMF 기자재의 대여는 정회원 및 일반회원만 하실 수 있습니다.
2. CAMF 기자재의 신청은 대여일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3. 신청하신 사용일 전일까지 대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대여 취소 시 환불은 대여일 4일 전까지는 전액, 3일전부터 전일까지는 80%이며, 당일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5. 기자재의 출, 반납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6. 출납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대여 및 반납이 모두 가능합니다.
7. CAMF 휴관일 동안의 대여료는 50%할인을 적용 받습니다.
8. 기자재의 최장 대여기간은 5일입니다. 부득이하게 5일 이상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운영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여장비 안내

카메라					
품명	제조사	모델 또는 규격	대여료(/1일)	수량	이용등급
캠코더	Sony	HVR-V1N	₩25,000	3	중급
캠코더	Sony	HVR-A1N	₩20,000	8	초급
캠코더	Panasonic	AG-DVX100P	₩20,000	2	중급
캠코더	JVC	GR-DV3000KR	₩5,000	6	초급

촬영장비					
품명	제조사	모델 또는 규격	대여료(/1일)	수량	이용등급
삼각대	Manfrotto	503HDV,525PKIT	₩10,000	3	초급
삼각대	Libec	TH-950DV	₩5,000	7	초급
HDV데크	Sony	GV-HD700	₩10,000	1	중급
와이드어댑터	Sony	VCL-HG0862K	₩3,000	1	초급
캠코더 안정기	Manfrotto	FIG RIG 595B	₩3,000	1	초급
HDD 레코더		FSC-80G	₩10,000	1	중급

조명장비					
품명	제조사	모델 또는 규격	대여료(/1일)	수량	이용등급
조명기	KinoFlo	4ft 4bank Set	₩20,000	2	중급
조명기	Filmgear	Tungsten Fresnel 650W Junior	₩12,000	3	초급
조명기	dedolight	DLH4 Set (3EA)	₩15,000	1	중급
조명기	Jupiter	Jupiter Light	₩5,000	6	초급
반사판	Martin	원형 103cm	₩3,000	1	초급
그립세트	-	C-stand 외	₩5,000	10	초급

녹음장비					
품명	제조사	모델 또는 규격	대여료(/1일)	수량	이용등급
콘텐서 마이크	Sennheiser	ME66 +K6 set	₩12,000	1	중급
콘텐서 마이크	Audio Technica	815b	₩5,000	2	초급
무선 마이크	Sony	UWP-C1	₩7,000	2	중급
무선 마이크	SYSCOM	STX-705, SRX-705	₩5,000	8	초급
녹음기	TASCAM	HD-P2	₩20,000	2	중급
믹서	BEHRINGER	XENYX 1002	₩5,000	3	중급

기타					
품명	제조사	모델 또는 규격	대여료(/1일)	수량	이용등급
프로젝터	EIKI	LC-XB40	₩50,000	1	초급
스크린	유압식 스크린	80인치	₩10,000	1	초급
하드디스크	HITACHI	HDT725032-320GB	₩10,000	2	초급

공간				
품명	제조사	모델 또는 규격	대여료(/4시간)	이용등급
HDV 편집실	HP Workstation	Adobe Production Studio	₩15,000	초급
스튜디오				

5. 아카이브 이용 안내

■ CAMF에서는 각종 영상자료(DVD, CD)와 영상관련 도서들을 아카이브실에 마련하여 정회원 및 일반회원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이용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1. 아카이브는 누구나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아카이브 이용신청은 이용일 7일전부터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3. 아카이브 이용시간은 CAMF 개관일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입니다.
4. 아카이브 이용대장을 작성하시고 입장하실 수 있으며, 이용을 끝나치고 나면 운영자에게 자료를 반납하셔야 합니다.

6. 상영관 대관 안내

- 상영장은 수시 대관을 기본으로 하며 상영관을 일정기간 대관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대관신청서와 상영 계획서 1부를(행사의 경우 행사 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관료는 오전 200,000원, 오후 300,000원, 저녁 400,000원이고 전일은 800,000원입니다. (11:00~14:00(오전), 14:00~17:00(오후), 17:00~20:00(저녁))
- 주말, 휴일대관은 기본 대관료에 1.5배 추가 한다.
- 대관계약 체결 시 대관자는 전체 대관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영(행 사)시작

2일 전에 잔금을 완납 하여야 합니다.

-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만 다음 사항의 경우는 센터와 대관자의 충분한 협의 하에 대관료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외선의 고장으로 인한 정전, 화재 사고와 천재지변, 정부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상영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대관자가 사용일로부터 10일전에 대관 취소를 신청하여 센터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대관허가기준은 대관자의 전년도 센터의 사용실적 및 신청내용과 당해년도 센터의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 대관일수 및 일정이 겹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대관
 - 일정이 정합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많은 대관단체 등의 순
 - 단체와 개인 간의 정합일 때에는 단체에 우선 대관
 - 기타의 경우 별도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상영장의 대관자가 시설 사용 중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발행처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주 소 402-835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역길 92(주안1동232-3) TEL.032)872-2622 FAX.032)873-2622 www.juancamf.or.kr

STAFF 소장 손동혁 | 기획운영팀장 박기호 | 사무/행정 강화순 | 미디어교육팀 경희령 최미경 | 대안미디어팀 김정욱 정승호 | 백서제작진행 노현진



CAMF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402-835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역길 92 (주안1동 232-3번지) Tel. 032)872-2622 Fax. 032) 873-2622 www.juancamf.or.kr